

KOREAN ARCHITECT

月刊 建築士 1992년 10월호
총권 282호·매월 15일 발행
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2-55
등록·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사)라-26
1985년 12월 31일 제3종우편물
(4)음인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October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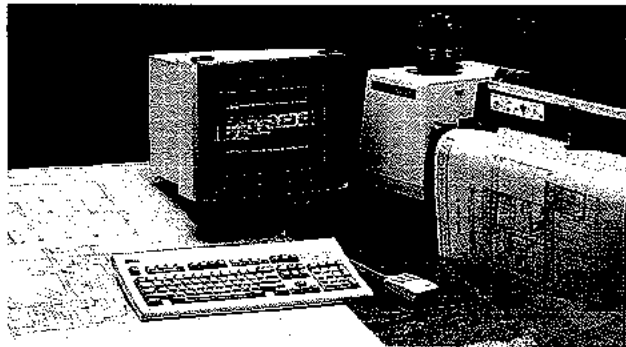


10

OCTOBER

건축과 컴퓨터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축의 전문지식과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축 CAD 전문회사로 출발한 (주)건캐드는 건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경제적인 CAD시스템과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익과 만족을 드립니다.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건축 CAD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에 적합한 기종에서 활용까지 제반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입비용이 걱정인데...

저가격, 고성능의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는 CAD장비를 경제적,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합니다.

●아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는데...

만약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며 신속하고 완벽하게 A/S해 드립니다.

●CAD교육은 제대로 해주는지...

건축 CAD실무자 출신으로 구성된 CAD교육팀이 기초부터 고급활용까지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실히 가르쳐 드립니다.

●재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신 CAD활용기술과 CAD데이터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시로 활용사항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건축 CAD 활용을 추구합니다.

●운영요원이 필요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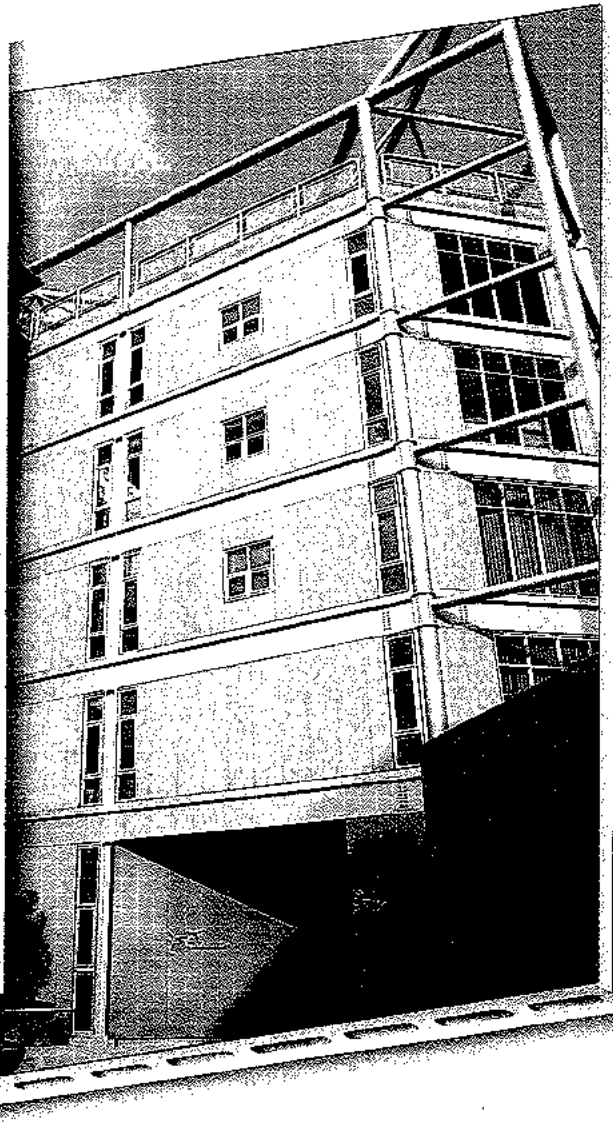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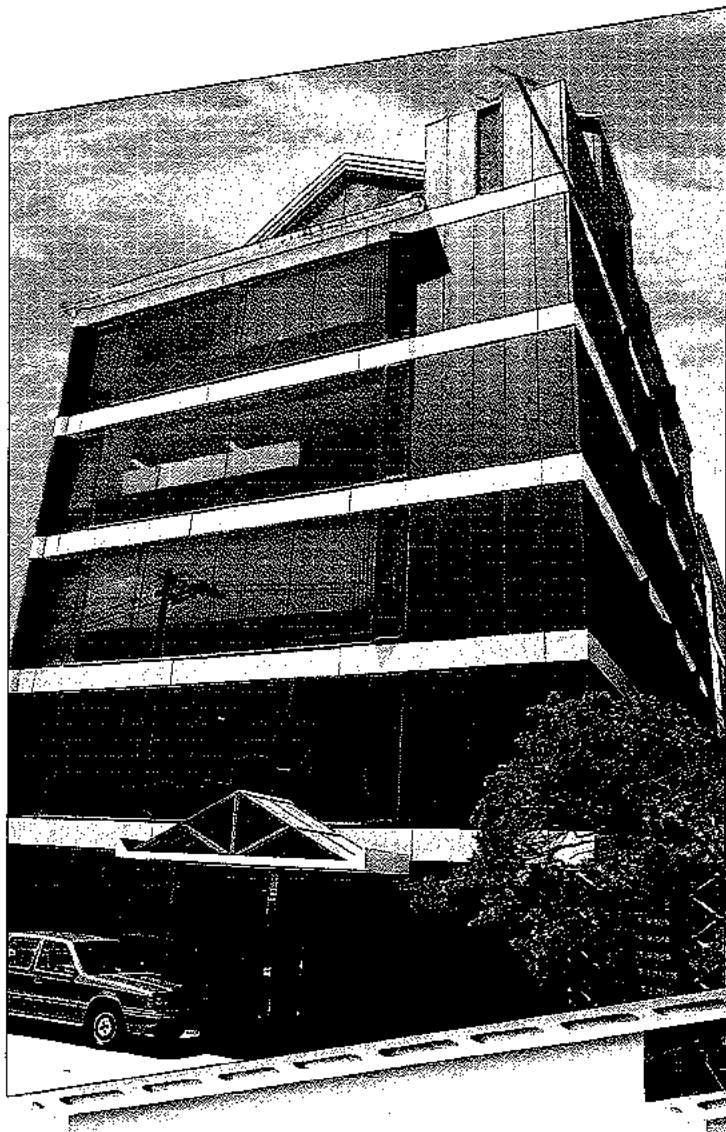
건축 CAD활용을 위한 우수한 운영요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건축CAD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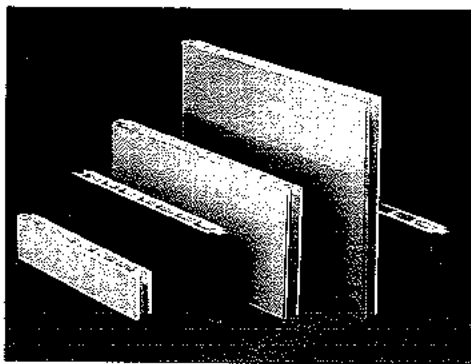
주식회사 건캐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22 이동원빌딩4층

대표전화 : 584-6490 FAX : 584-7800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 입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2 당 무게가 50kg 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킨막아·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특수영업부

주식 벽산

대표전화 : (02)260-6114
FAX : (02)275-0050

평생을 책임집니다!

MUTOH 플로터를 최초 구매시,
USER등록에서 마지막 보상 판매까지,
평생을 책임집니다.



MUTOH 플로터

1,000대 판매기념 특별기획

첫째 USER등록

서통AI사업부에서 90년 3월이후 2년간 1,000대의 MUTOH PLOTTER를 판매하게된 92년 6월 부터 USER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더욱 알찬 SERVICE를 수행하기위해 USER 등록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USER등록방법

서통AI사업부 및 대리점에서MUTOH PLOTTER, Panasonic MONITOR를구입하신 고객이면 누구나 전화 한통화로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USER 등록 후 특전

1. 브로드 캐스터 정기발송
서통AI사업부에서 매월 제작,발송하고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정보지인 브로드 캐스터를 발송 해 드립니다.
2. 기술정보의 정기적인 제공
국내외의 컴퓨터 주변기기 및 CAD / CAM 관련 최신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하여 드립니다.

- BBS를 통한 ON-LINE 정보 SERVICE
- 브로드 캐스터 발송시에 우편물로 발송

3.지역별 기능 설명회 개최(PLOTTER만 해당)
MUTOH PLOTTER의 다양한 기능을 OPERATING 미숙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기능 설명회를 개최합니다.(세부 일정은브로드캐스터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4. iP-530 SERIES를
XP-500 SERIES로 보상판매
(PLOTTER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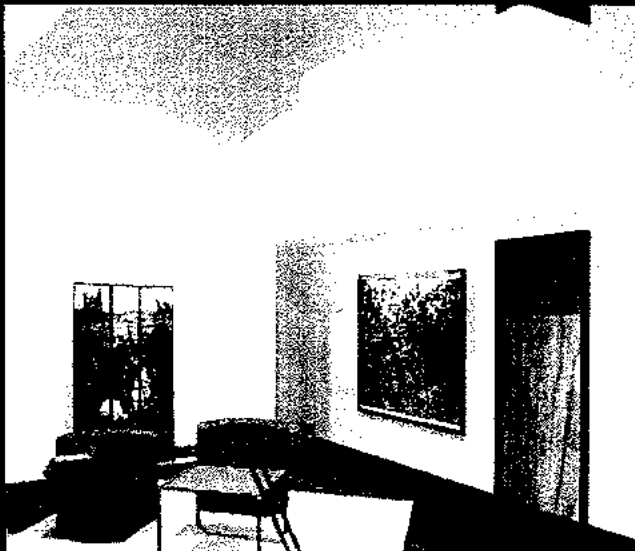
MUTOH iP-530 SERIES PLOTTER를
신제품 XP-500 SERIES로 교체하고자 하는USER에게는
높은가격으로 iP-530 SERIES를 구입하여드립니다.

둘째 사은품증

행사기간동안 MUTOH플로터 및 Panasonic 모니터를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기간:6월15일~9월15일

ARRIS

ARRIS가 실현 합니다.



■작업 시간 단축

중산지구 아파트(1960세대,780세대,980세대)
실제작업시 수작업으로 3개월 걸리던
실제작업을 불과 20일 만에 끝냄.

■다양한 3rd PARTY 기능

상세도처리

일반상제, 실내마감상제, 바닥상제, 천정상제,
단위실가구상제, 외부시설상제등 총450개

한글 단/복선제

크기조절기능, 평장기능,
칸배우기 기능, 공간 채우기 기능등

구조일람표

철근(보, 슬라브,기둥)과 철골접합상제등

◎해인슈퍼하우징◎

인공 지능3S를 채택!
(Simple, Speed, Smart)

● 해인슈퍼하우징의특징

ARRIS CAD의 한국형 건축지원 프로그램
2차원 도면에서부터 완벽한 3차원 모델구현
사용자의 단순한 반복 작업을 최대한 배제

● 해인슈퍼하우징의 주요기능

중심선 작도에 의한 다양한 벽체 작도기능
창호도 자동작도기능
벽체 마감자동 작도기능
벽체 해칭 자동 작도 기능
물량 산출기능
KS 규격의 다양한 심볼 제공
다양한 계단 작도 기능
각 설계사무실에 맞는 SHEET 저장기능
다양한 모양의 창호제공 입면도 자동 작도기능
MULTI-WINDOW 기능
벽체의 각각 LINE 성문화기능
원형한 한글(약3,000자) 및
복선체 한글, 한자(약7,500자)제공
DATABASE 관리기능
적임시 필요한 각종 UTILITY 기능 제공

● ARRIS의 특징 ●

건축디자인을 위한 건축전용 CAD S/W
파괴 MAIN FRAME 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건축 SCHEMATIC DESIGN 단계에서 실시 설계까지 일체 SEQUENCE로 지원
XENIX O/S 사용으로 MULTITASKING 가능
화면 MENU 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루시도등 완벽한 3-D 기능과
시간별 광원지원등으로 완벽한 윤영 CHECK 기능 보유(인조전)
건축 자료와 DATA BASE화로 인력에 의한 기술누수방지
2D, 3D 도면에 입단면기도, 방위표시, 가구, 자물쇠, 나무등 SYMBOL 지원
16만 장라제공 및 신속한 컬러변회
컴퓨터에 의한 대규모 프라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확보

최고의

기능성

 서통 SI사업부 514-0386

• 대구전시장 :421-2856 • (주)빌리언시스템:325-1623 •

차세대 아파트 창문 - 이건 EW150

이번에 선보이는 이건 EW150은 기존 이중창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완벽히 해결한 단창으로서 품질및 기능면에서 단연 뛰어납니다.



최근 아파트나 주택의 건설현장에서는?

ALC, PC판넬, 경량판넬등 새로운 전자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시공시의 경비절감, 공기단축, 벽체의 성능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문의 경우에는 아직도 단열, 차음, 방범 등의 성능이 고려되지 않은 기존의 이중창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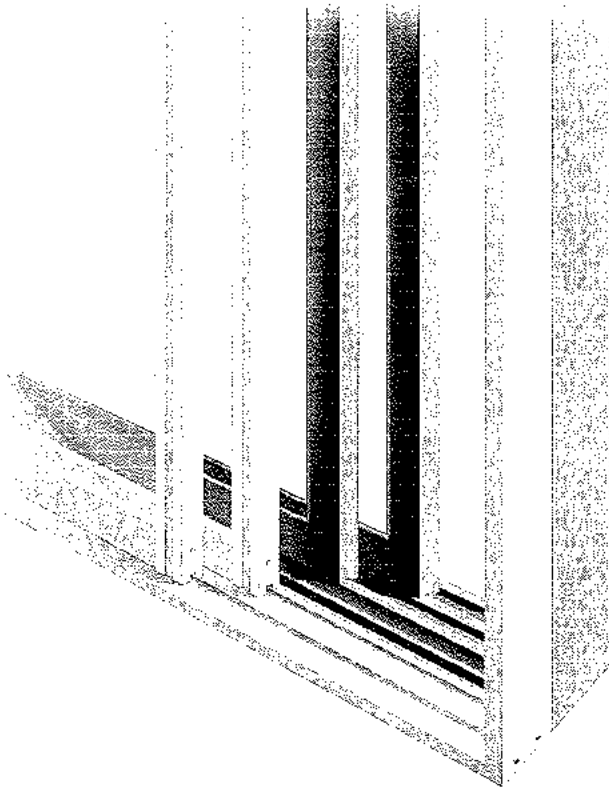
알루미늄과 목재가 분리된 기존의 이중창은?

두께가 얇아진 새로운 전자재의 규격에 전혀 맞지않는 불합리성이 발견되고 창的基本적인 밀폐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 단열, 차음, 기밀, 방범효과면에서 기능적인 단점들이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화(563-2071, 기술영업부) 한통이면 제품안내, 자료발송 요청, 기술부직원 방문요청등 원하시는 부분을 즉시 서비스해 드리는 것은 물론, 전시장에 오시면 창호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상담과 시스템 선정, 설계서비스 그리고 견적서비스를 자세히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점 운영을 원하시는 분은 본사영업부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규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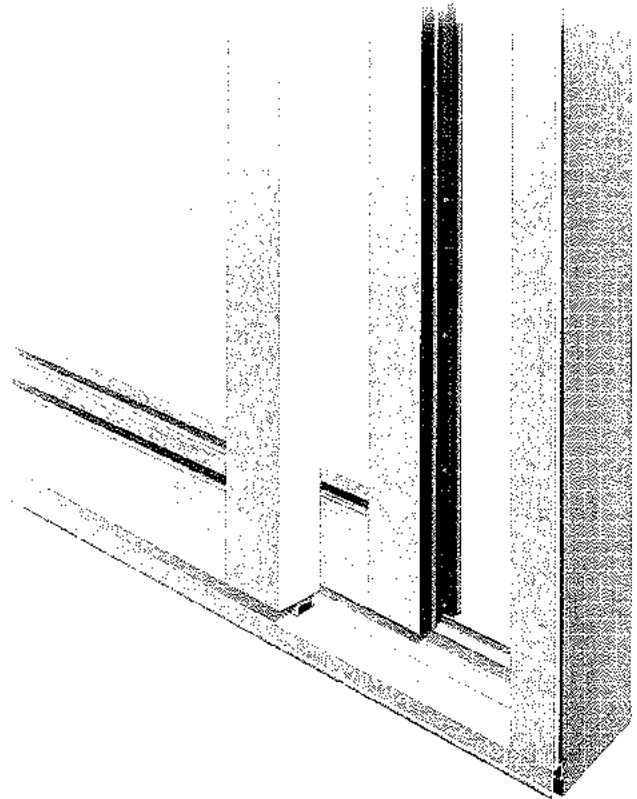
기존 창문은 ALC벽체의 175mm-200mm 규격보다 40mm-70mm정도 두껍기 때문에 공간활용에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 EW150은 두께를 132mm 규격으로 최소화하여 26mm의 방충망을 설치해도 ALC벽체의 두께보다 17mm-42mm 여유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중창

시공법이 다릅니다.

기존의 이중창은 조적공사시 목재창틀이 병행 설치되어 모양이 어려운 습식공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진 EW150은 따로 목재창틀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건식공법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시공비절감은 물론 공기단축의 부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진 EW150

구조가 다릅니다.

이진 EW150은 실외는 기존 샷시의 자재보다 2배 두껍게 압출된 알루미늄과 실내는 15% 이하의 흡수율을 지닌 목재가 하나로 결합된 단창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실내·외의 환경과도 잘 어울립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수공업적인 조립에 의해 제작된 기존창은 시공후에 목재가 변형되거나 틈새바람이 들어오고 방범면에서도 허술한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 EW150은 단열성, 기밀성, 차음성, 방범성등의 철저한 실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밀폐성을 지녔습니다.

(주)이진창호시스템

본사·공장

본사영업부, 상설전시장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70-3 Tel.0345-491-2941 Fax. 0345-491-2946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9 Tel.02-563-2071 Fax. 02-563-5528

이진창호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위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웨라튼위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세종 센터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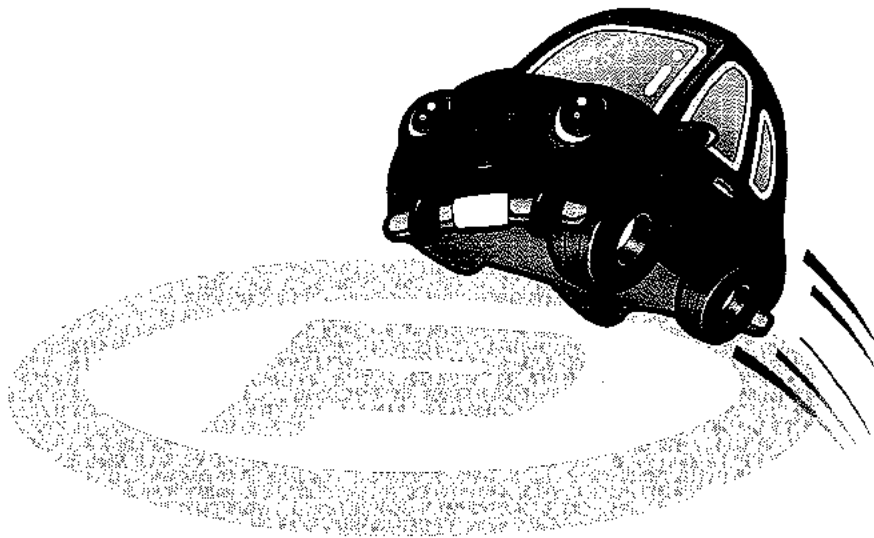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특별시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32-2751

工場:
京畿道 金浦縣 金浦邑 大阜面 山209-1 松林里 山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패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 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 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 장치와 핸드제인의 장치로 경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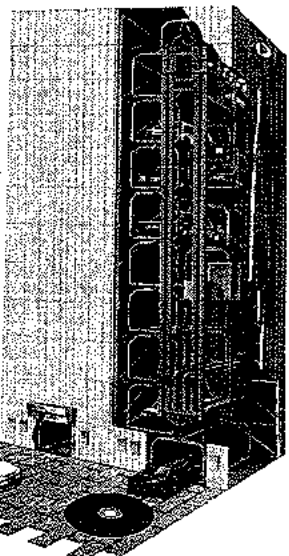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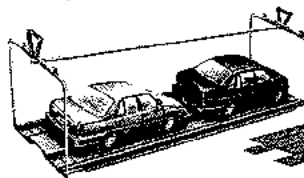
대형차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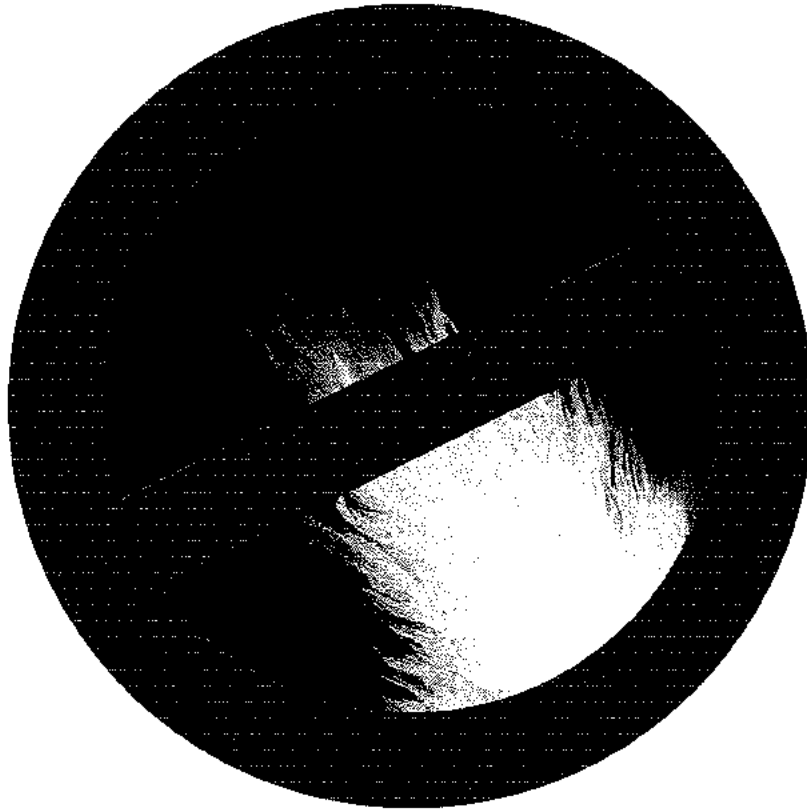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지하 다중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INSU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 —
더욱 우수한 1급불연파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한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능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인슈그라스울파넬의 3대 우수성

1. 우수한 불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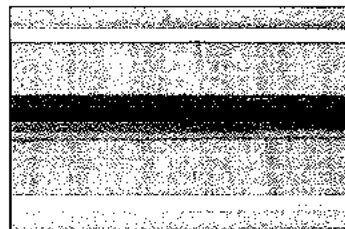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가 KSF2271, BS476 Part4의 판현 규격에 의하여 1급 불연재료 인정받은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 하므로써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연파넬이며 내화 구조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명	최고사용온도
스티로폼	85℃
P. U. R	110℃
P. I. R	180℃
페놀폼	200℃
그라스울	350℃

(단열재의 화재안전도)

2. 우수한 견고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인 유리 섬유를 겹을 수직으로 세워 성형한 제품이므로 기존의 섬유를 겹을 수평으로 성형한 제품보다 압축강도가 10배나 뛰어나 매우 견고하고 균일한 두께유지가 가능하며 박리현상을 완전방지합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의 단면구성)

3. 우수한 단열성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재가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로 되어 섬유질이 가늘고 균일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안전함은 물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건물의 유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명	열 전 도 율
그라스울	0.029
스티로폼	0.0285
암면	0.053
발포 CONC.	0.15

(단열재의 열전도율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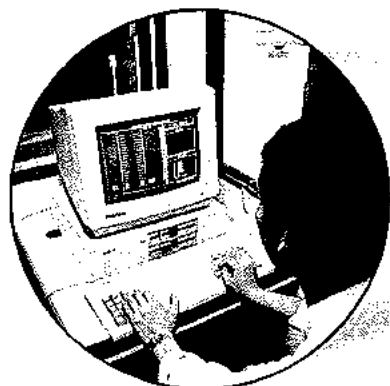


주식회사 인합인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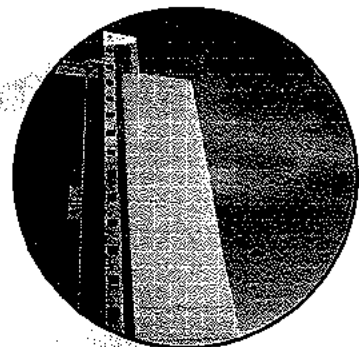


본사및공장: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02) 745-0687, (0336) 34-8880 FAX: (0336) 32-4243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02) 555-6891, FAX: (02) 553-1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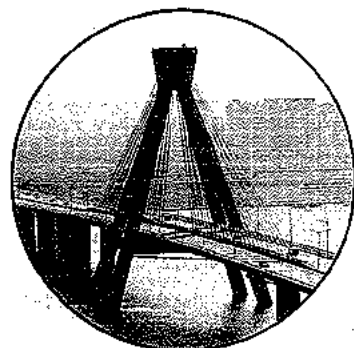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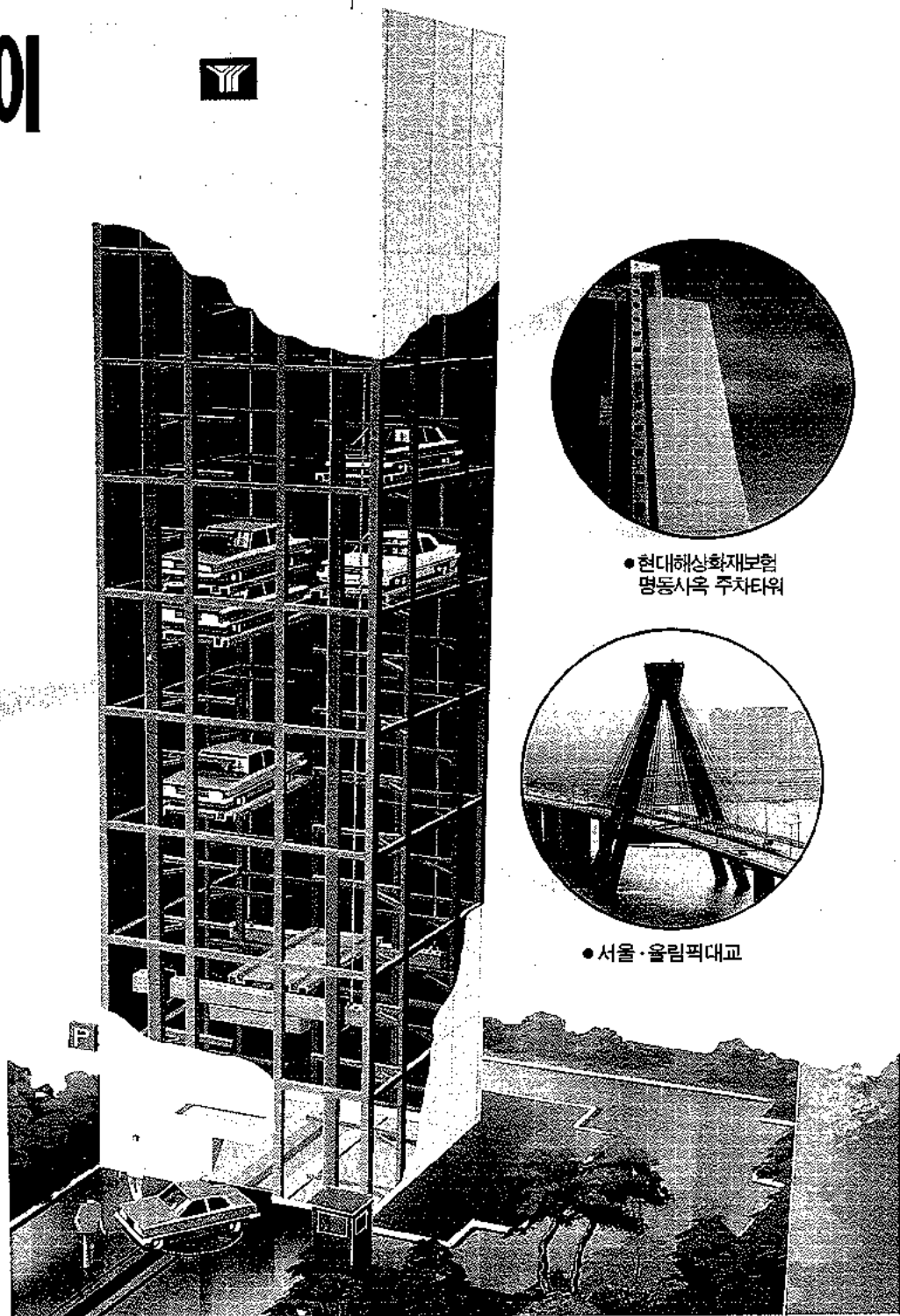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대를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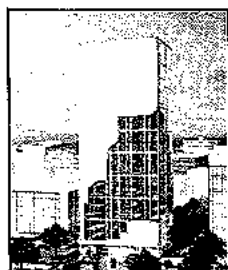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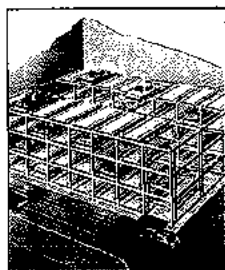
7. 독창성 - 국내 기술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YOP-A 연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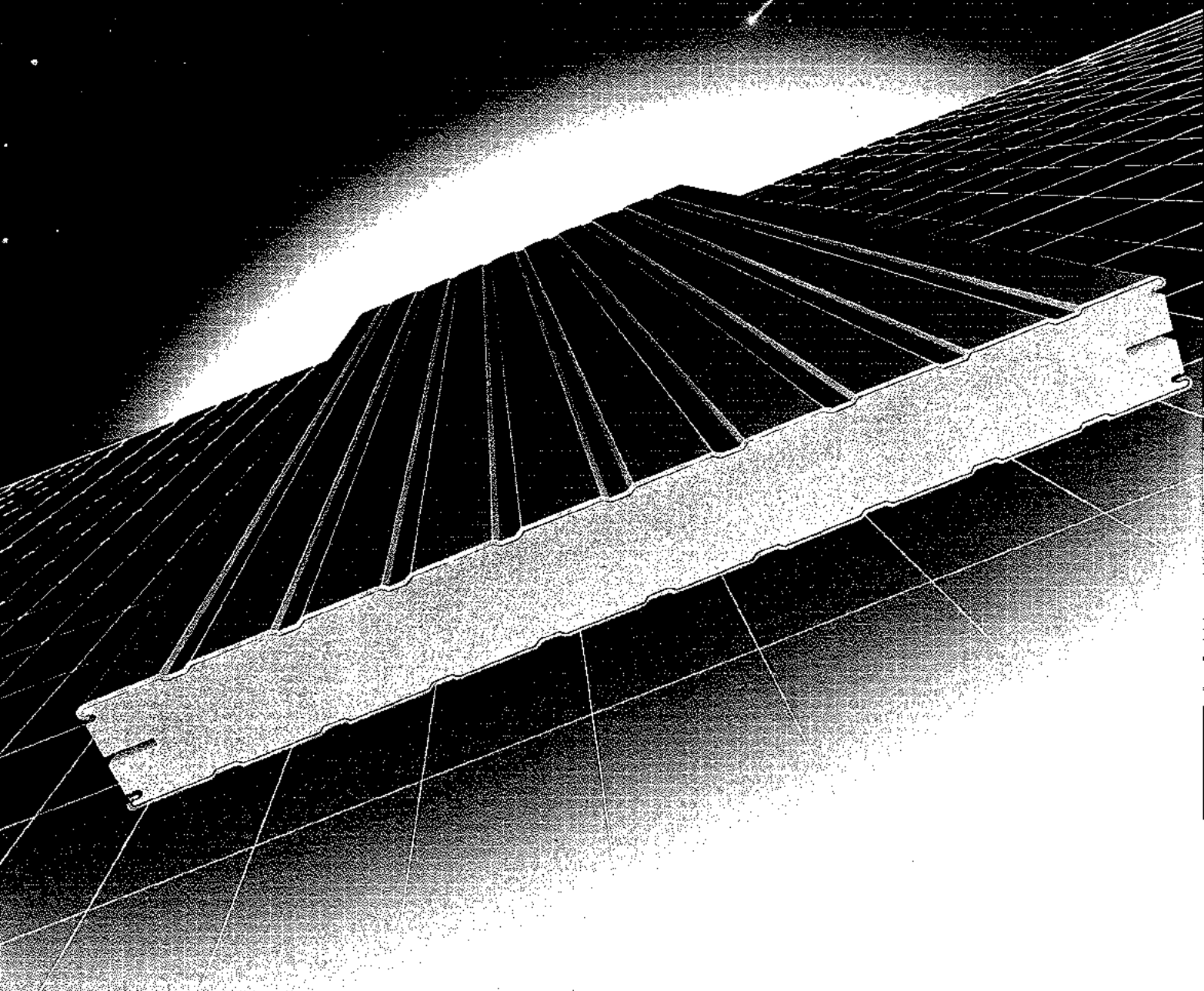


YOP-M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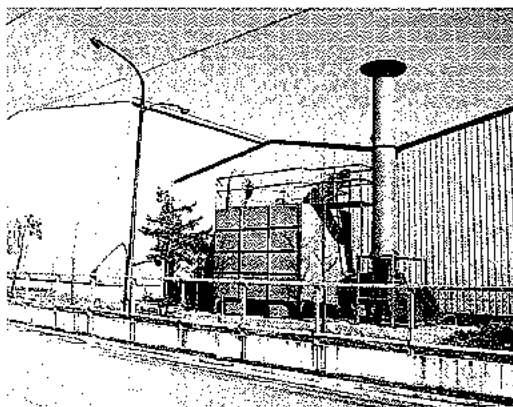


유원건설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조립식패널의 품질은 중간단열재가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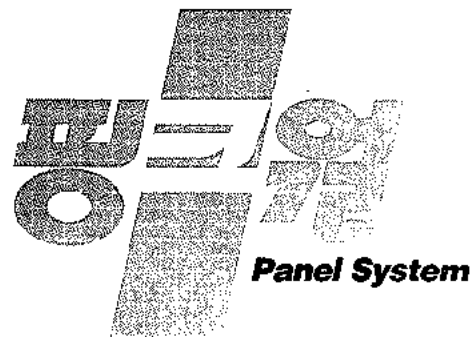


최고급 난연·방수단열재 **아이소핑크**가 중간단열재로 사용되는 핑크월-그 명성에 걸맞는 품질로 조립식패널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합니다.

핑크월은 세계 최고의 단열재 메이커인 미국 유씨 인터스트리(UCI)사의 진공 압출발포공법으로 생산하는 최고급 단열재인 아이소핑크를 중간 단열재로 사용하여 세계적 명성의 조립식패널 메이커인 네덜란드 아이소월 인터내셔널 (ISOWALL INTERNATIONAL B.V.)사의 샌드위치 라미네이트 기술로 생산하는 고품질 조립식패널입니다.

핑크월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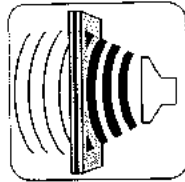
- ☐ 핑크월은 냉·난방비용을 대폭 절감해 줍니다.
- ☐ 핑크월은 견고한 구조강도에 비해 가볍습니다.
- ☐ 핑크월은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 핑크월은 방수·방습·방음효과가 있습니다.
- ☐ 핑크월은 모든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신소재의 건물 내·외장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아키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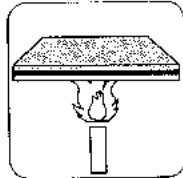


우아하고 개성있는 외관은
건물을 돋보이게 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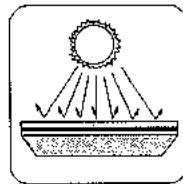
진동 소음에 대한 방음, 방진

ARCHITECKS는 복합재료이므로 진동과 소음의 절연효과가 큼니다. (차음효과 : R = 24db, KSF 2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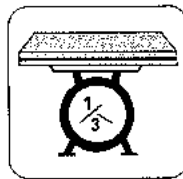
내화성

ARCHITECKS는 200℃ ~ 250℃ 에서 가열 경화접착 시키므로 판재의 변형은 물론 인화성이 전혀없다.



내구성 및 평활성

화학적 장애에 대한 강한 내구성을 지닌 ARCHITECKS는 PVDF (불소)로 표면처리되어 품질을 보장하고 코아(CORE)부의 물성이 탄성을 유지하고 있어 복합판넬의 장점인 FLAT함을 영구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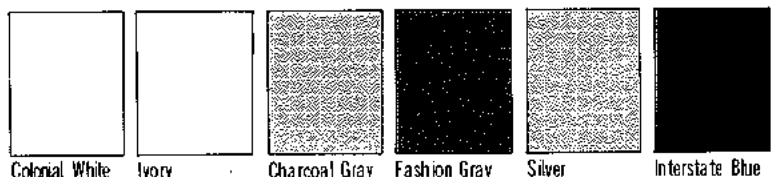


경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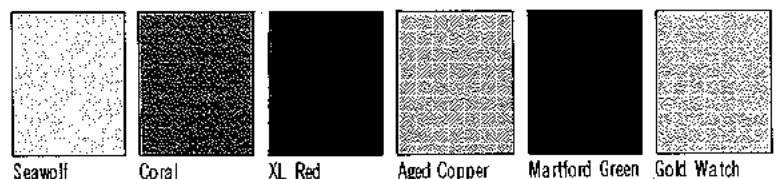
동일두께의 알루미늄 활이나 범랑, 철, 동, 스테인리스 등 기타 금속판의 1/2 - 1/3의 중량이므로 건물의 하중을 줄일 수 있다.

세련된 색상의 ARCHITECKS는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또한 색상과 설계의 조화에 따라서 어떤 목적의 건물 외판에도 잘 어울리는 신소재입니다.

STANDARD COLOR



ORDER COLOR



본칼라는 제품칼라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RCHITECKS



웅성판공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 서울·강남구 대치동 1007-3 총회회관 1층
TEL. (02) 562-1264, 553-0897, 568-3474 ~ 6 FAX. (02) 566-0856
-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303-2
TEL. (0336) 636-5119, 636-1903 ~ 4 FAX. (0336) 636-9316

전문시공업체 • 서울 : 홍성공영(주) TEL. (02) 511-6431 ~ 5 FAX. (02) 545-5169
• 부산 : 태양건설(주) TEL. (051) 326-3301 ~ 3 FAX. (051) 312-9940

• 서울 : 유성알미늄(주) TEL. (02) 552-5294 ~ 5 FAX. (02) 516-8199
• 전주 : 동신산업(주) TEL. (0652) 224-9600 FAX. (0652) 224-6424

Happy Stone

91 慶元 XS 第 1 版 2 頁

국내최초, 21세기형 신건축 자재

燒結石

BIO-HAPPY STONE

삼화화학은 풍요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도형제철계열 국내최고의 요업전문회사입니다.



三華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아직도 건축의 내외장 및 바닥재로 고민하십니까
건축사가 감탄하고 —————
고객이 만족하는 —————
국내최초 세라믹 공법으로 생산된
소결석 "BIO-HAPPY STONE"으로 사공하십시오.

BIO-HAPPY STONE의 3가지 자부심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고
자연스러운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

2. 뛰어난 가공성

1,200℃ 이상에서 소결(燒結)한 불연제품으로 수축, 팽창이 적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3. 대형고급 도판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900mm×25,
600×600mm×25로 공공건물, 오피스,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박물관 등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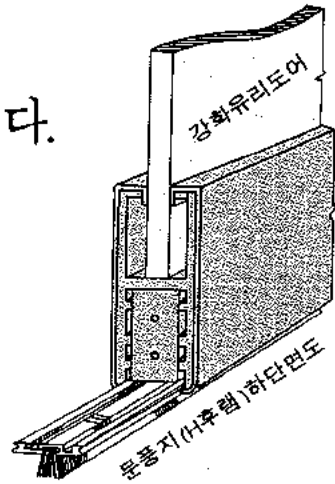
본사·공장: 경상북도 포항시 청림동 1-143 건재사업부 TEL.(0562)91-2051~3, 90-0114 FAX.91-0033 / 서울직판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89-22(국제조영빌딩 2층)
TEL.(02)516-7772~4 FAX.516-7775 / 전국각대리점 / 서울지역, 옥산빌딩: TEL.(02)540-1837~9 FAX.540-1640 / 부산지역, 용성빌딩: TEL.(051)515-4730~1 FAX.56-5923 /
대구지역, 삼호빌딩: TEL.(053)755-9994, 742-1576 FAX.751-5884 / 광주지역, 성신금속(주): TEL.(062)524-7151~3 FAX.524-7154
/ 울산지역, 삼화상사: TEL.(0522)43-7068~9 FAX. 43-7069 / 포항지역, 동양상사: TEL.(0562)81-2220, 81-7482

귀사에선 어떤 건축자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기 강화유리도아 H후램이 선택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이란 강화유리 도아상·하부에 후램에 틈이
없어 방풍·방음효과와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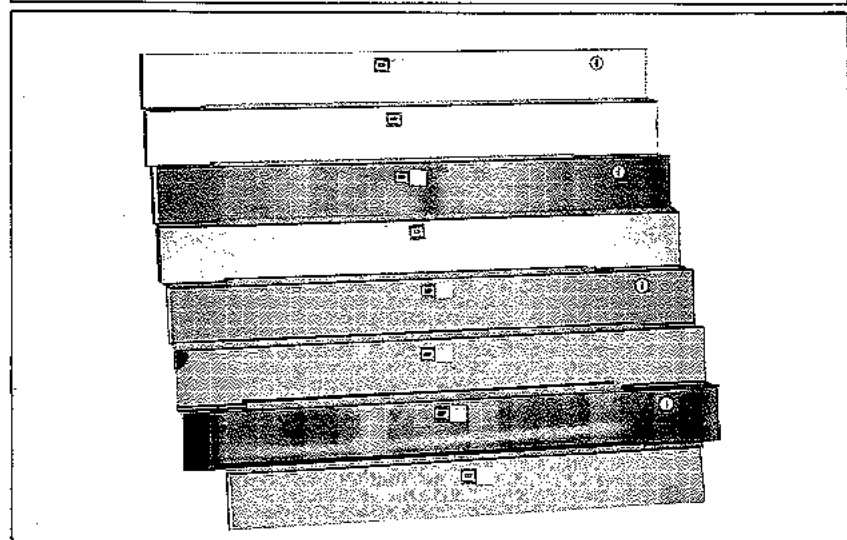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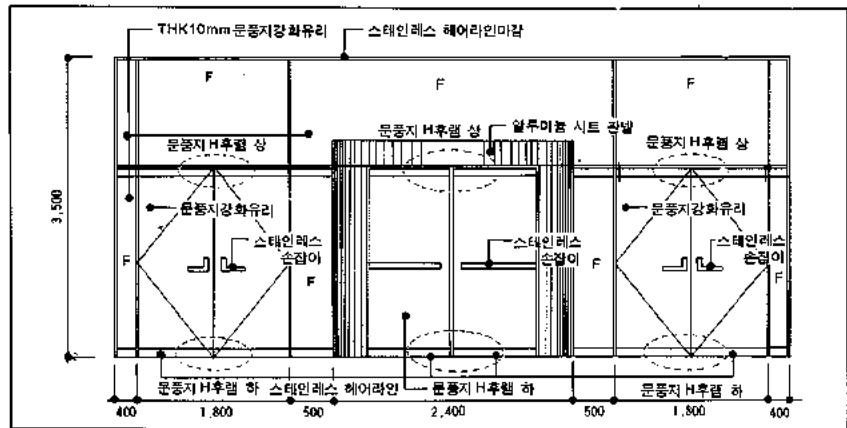


방풍설치

- 냉·온방열차단
- 방진음
- 방수명반영구적

(예)

스테인레스 스틸 어달이온 F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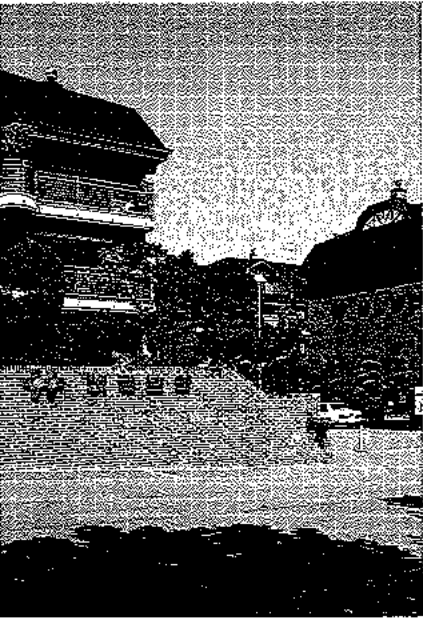


성 광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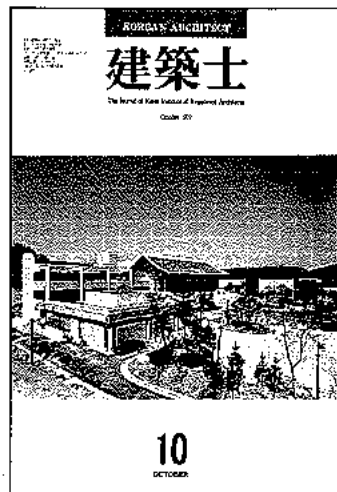
본사 : 부산시 북구 삼락동 342-16
TEL : (051) 302-1100 ~ 2
FAX : (051) 301-4 5 7 5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모여동 225-3
TEL : (02) 576-0 0 8 3
(02) 577-0 0 4 1
FAX : (02) 574-9 3. 5 5

차례/1992년 10월호 등권 제282호



회원작품	미도와 백화점(상계점) 및 종합환승센터 / (주)간삼 종합건축사사무소	18
	어홀리 박물관 / 安文孝	23
	대림빌라 / 禹南龍	26
	변동 천주교회 / 承孝相	30
	동산교회 / 金武彦	32
	강릉 문화예술회관 / 郭殷榮	34
	성민빌딩 / 金泰植	38
스케치	H리조트 호텔 계획안 / 金亨俊	40
계획작품	성남 K유치원 / 安光燮	42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 여행 / 金仁喆	44
誌上특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 확대 실시 이렇게 생각한다 / 崔東奎·梁元永·金瑛燮·李京鎬	46
기 고	冷暖房負荷 上限制실시에 부쳐 - ① / 孫炳錫	50
전통건축연구	한옥설계의 방법론적 고찰(Ⅰ) / 張順鏞	52
연구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사협회제주도건축사회	58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 이용재譯	70
설계경기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사옥	78
세법령	주차장법 시행령중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중개정령	92
자료	1992년 8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94
협회소식		96



표지사진 : 강릉 문화예술회관
(설계/곽은영)

發行人 : 吳雲東
編輯企劃 : 編輯委員會
委員長 : 李義求
委員 : 徐千植, 李贊榮, 金文圭, 崔英果, 宋洙九
編輯 : 出版事業部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 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170
電話 :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李鳳秀 / 正文社

Publisher : Oh, Woon-Dong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Eun-Koo
Member : Suh, Chun-Sik/Rhee, Chan-Young
Kim, Moon-Kyu/Choi, Young-Jeep/Song, Soo-Koo
Assistant Editor :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1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PHOTO	MIDOPA Department Store Sangkye Branch / Group - 3 Architects & Engineers	18
	Eoheul - ri Forklore Museum / Ahn, Moon - Hyo	23
	Daelim Villa / Woo, Nam - Young	26
	Pyeon - dong Catholic Church / Seung, Hyo - Sang	30
	Dongsan Church / Kim, Moo - Eon	32
	Kangreung Culture & Art Center / Kwak, Eun - Young	34
	Sungmin Textile / Kim, Tae - Sik	38
SKETCHES	H Resort Hotel Project / Kim, Hyung - Joon	40
PROCESS WORKS	Sungnam K Kindergarten / Song, Kwang - Sub	42
ESSAY	Architecture Travel / Kim, In - Chul	44
ISSUE	Choi, Dong - Kyu · Yang, Won - Young Kim, Young - Sub · Lee, Kyung - Ho	46
FEATUR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Budget Level System / Son, Byeoung - Seok	50
REPORT	A Methodological Study of the Korean Tradition the Spot Coverage of the Barcelona - '92 onal Residence Planning / Jang, Soon - Yong	52
	An Analysis of Locality in Chejudo Housing	58
OVERSEAS		
ARCHITECTURE	Go Toward the 21C Architecture / Lee, Yong - Jae	70
COMPETITION	Korea Telecom, Seoul Enterprise Center Building	78
NEW LAWS & ORDINANCES		92
STATISTICS		94
KIRA NEWS		9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감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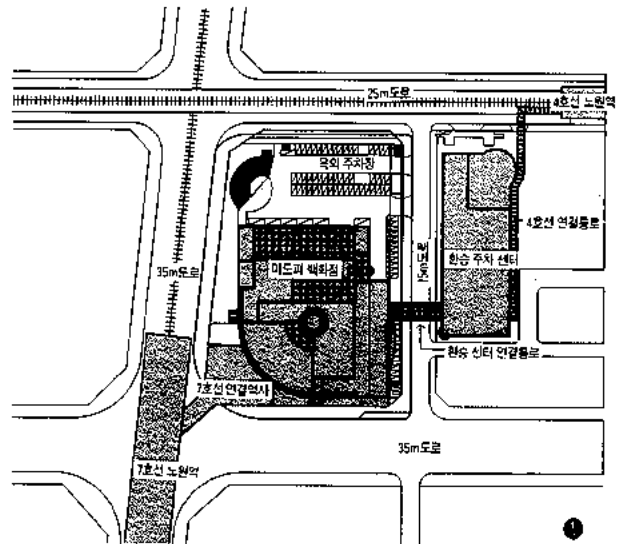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건축사초급 1603-55, 581-5715~8, 서대문분회 / 서대문구연화동 169-25, 333-6411 · 관악분회 / 관악구신림동 1422-17, 882-6744 · 도봉분회 / 도봉구수유동 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 /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회 / 강동구상대동 317-4, 484-6840 · 강서분회 / 강서구화곡동 1105-05, 604-7168 · 성동분회 / 성동구구의동 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 / 동대문구신설동 101-7, 923-6313 · 종로분회 / 종로구수성동 46-18, 735-0905 · 마포분회 / 마포구상산동 275-1, 336-5057 · 송파분회 / 송파구송파50-12, 423-9158 · 금강분회 / 금강로27가49-11, 279-1415 · 용산분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은평분회 / 은평구녹번동 79-32, 352-6720 · 동작분회 / 동작구사당동 206-8, 815-3026 · 강남분회 / 강남구논현동 242-30, 511-8515 · 노원분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회 / 양천구신정동 1027-9, 646-7172 · 중랑분회 / 중랑구면목동 166-46, 923-6123 · 성북분회 / 성북구산선5가410, 923-4401 · 구로분회 / 구로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 / 부산시 진구 범천동 847-18, 28(061)634-491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 / 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북구영동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충동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 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7-6128~30 · 직한분회 / 경기도 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 / 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 / 부천시시중구원미동28-1, (032)664-1554 · 성남분회 / 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 / 의정부시서정동343-22, (0333)4-6153 · 고양분회 / 고양시원당동330-38, (0344)63-8902 · 구리분회 / 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 / 이천군이천읍중앙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 / 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회 / 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시죽전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 / 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 강릉분회 / 강릉시상대동6-14, (0391)2-2262 · 속초분회 / 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6 · 영월분회 / 영월군영월읍영월1리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8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 / 충주시영천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 / 제천시회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 / 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충동452-2, (042)256-4088 · 천안분회 / 천안시사문로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 · 부여분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2-2217 · 대천분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국빌딩 508), (0652)87-6007~8 · 이리분회 / 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52-3304 · 군산분회 / 군산시신장동35-4, (0654)445-4060 · 남원분회 / 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동783-23(추신회관) (062)364-7567, 33-9944 · 목포분회 / 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 순천분회 / 순천시장전동51-11(0661)3-2457 · 여수분회 / 여수시관동동441번지, (065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1285번지, (053)425-4904 · 포항분회 / 포항시죽도동43-8, (0562)44-6029, 46-1664 · 경주분회 / 경주시동천동771-4, (0561)3-3638 · 구미분회 / 구미시원평동964-264, (0546)52-6351 52-7547 · 안동분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김천분회 / 김천시평화동280-1, (0547)2-2511 · 영주분회 / 영주시유천2동642-52, (0572)33-7504 · 정촌분회 / 정촌시중앙동280-3, (0581)2-2706, 52-2286 · 상주분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3-47, (0551)46-4530~1 · 울산분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 진주분회 / 진주시서부동7-20, (0591)41-6403 · 통영분회 / 통영시서호동163-18, (0557)44-3232 · 김해분회 / 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분회 / 밀양시내일동362-1, (0527)355-4848 · 거창분회 / 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 / 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분회 / 거제군시현읍고려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 / 삼천포시동양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 / 제주도제주시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회 / 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미도파 백화점 (상계점) 및 종합환승 센터

MIDOPA Department Store Sangkye Branch

(주)간삼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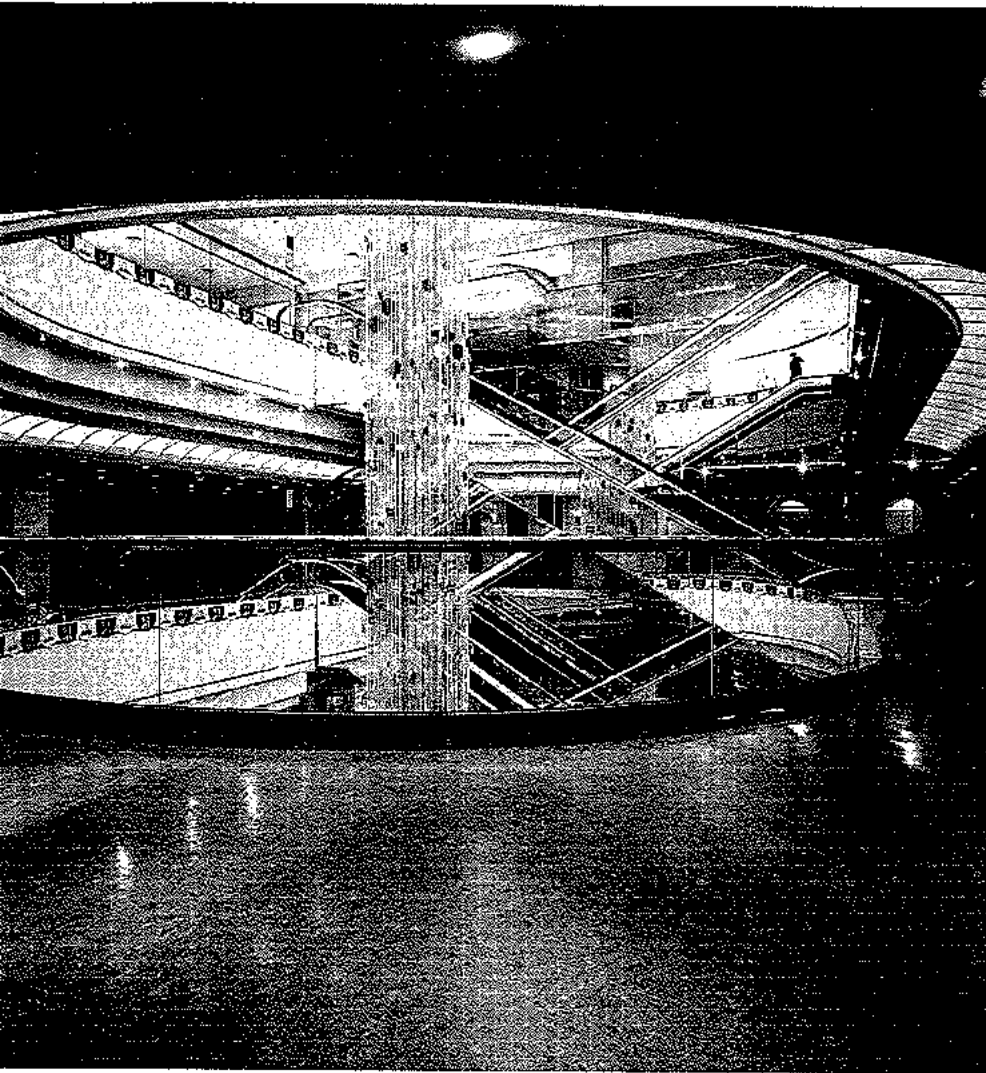
Designed by Group - 3 Architects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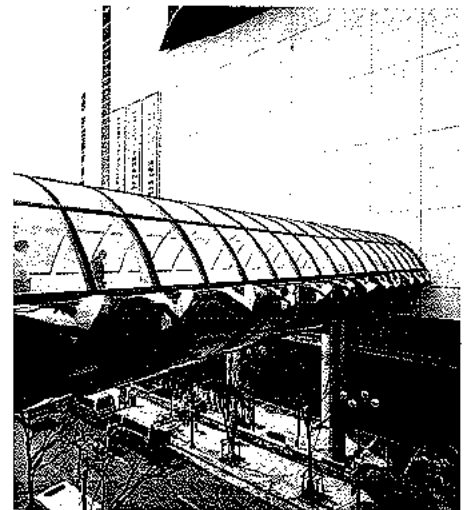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 2동 713번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9,324.50m²
건축면적 / 4,625.48m²
연면적 / 72,366.49m²
구조 / SRC조, RC조 - 지하 4층, 지상 11층
주차대수 / 954대 (주차빌딩 포함)
외부마감 / G.R.C 불소수지 도장 + AL 커튼월

■ 내부 Concept

상계지구 주거단지, 위성도시 신시가지와 함께 성장하는 주민의 생활과 더불어 첨단화 되어 가는 유기적인 도시의 일부화되는 Community 백화점이다. 미도파 상계점의 쇼핑공간은 지하 1층으로부터 6층까지 모두 7개층으로 구성되어 백화점의 개념 자체도 상품 차원을 벗어나 원 스톱 (One - Stop)으로 모든 생활필요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Total 서비스로 바뀌어가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전매장 시설면적 7,135평의 매머드 쇼핑몰이다.



- ① 배치도
- ② 백화점 전경
- ③ 내부 Open Space
- ④ 종합환승센터 연결통로
- ⑤ 영업 매장
- ⑥ 식당가
- ⑦ 영화관



상품 매장에서 문화, 교양, 오락공간으로 이어지는 8층은 첨단조명, 음향시설을 갖춘 460평 규모의 가변식 다목적 공연장 메트로홀과 도시 개념의 옥내 문화광장이 펼쳐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300석 규모의 최신 설비 영화관, 전문레스토랑, 식당가 시설이 있다.

천장 유라듬의 아래로 널찍한 온수 수영장엔 태양빛을 물씬 받으며 상계지구와 북한산, 불암산을 한눈에 조망하면서 수영을 즐기는 한편으로 워터 슬라이더 시설도 함께 즐길 수 있게 하고 있다.

10, 11 복층의 수영장옆에 설치한 옥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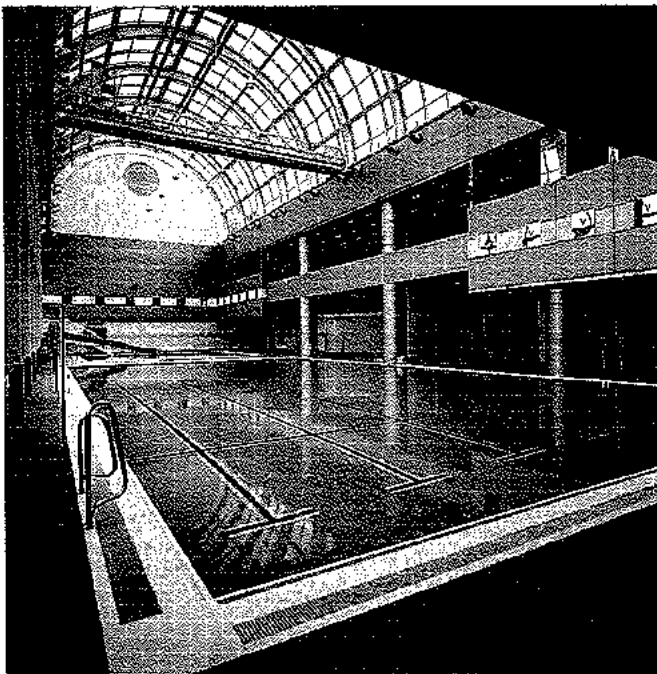
태양의 광장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열대풍의 나무 조경으로 먼 남방에 있을 법한 동화의 전경을 연출한다.

총 면적의 36%가 문화생활, 스포츠 시설이며, 모두 300명 수용규모이며, 상계지구의 핵심적 도시문화기능을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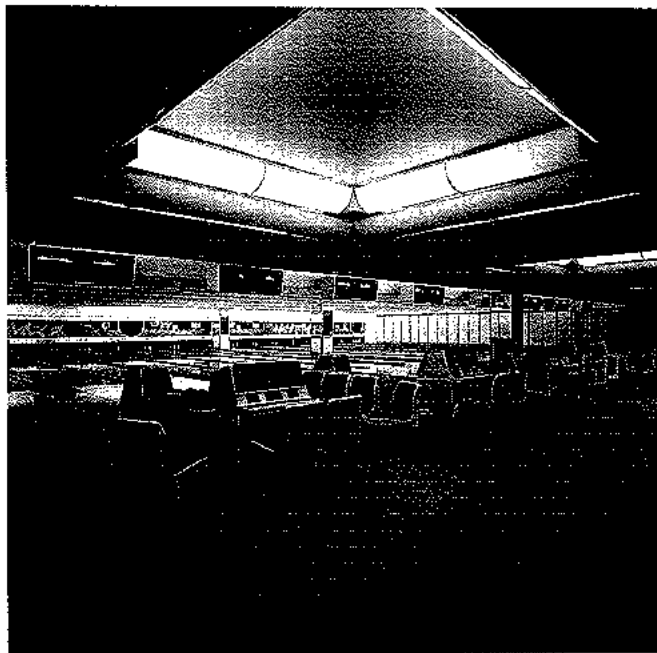
외부 Design

종래 공공 백화점은 고객유치의 출입구와 극대화된 매장공간으로 설계되었으나, 본 미도와 상계점에 외관 및 외부 공간은 주변,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대 환경으로 이어지게 하며, 함께 호흡

하는 보행도로 공원, 현관 입구의 행사 광장의 다변화 기능을 갖는 활기찬 장치를 가진 것으로써, 그 특징은 현대 도시와 역사문화 유적지의 정서가 결집된 개념이며, 조경과 외벽의 저층부는 자연적으로 구성되어졌다. 조작 다변화 되는 외형을 벗어나 지역 사회주변과 친근한 인지도가 높은 시각 전달 개념의 입면 구성으로써 외관을 단순 명확성을 물론, 공연장 수영장의 내부 조망으로 인한 외관은 전체 건물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요소로 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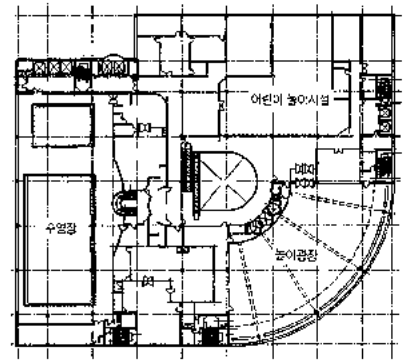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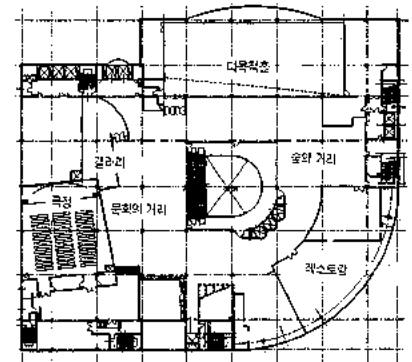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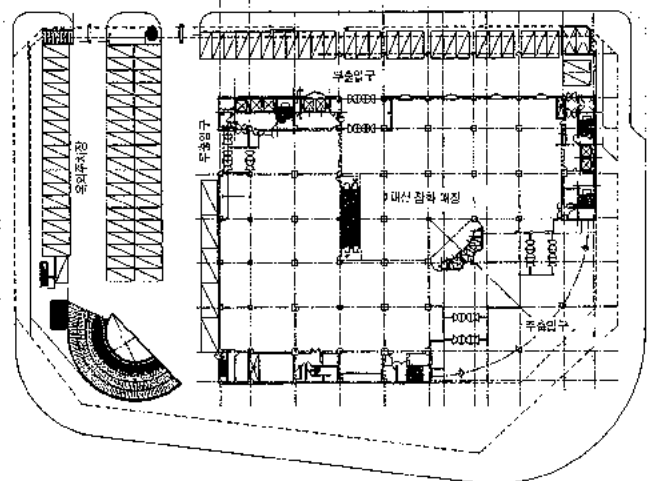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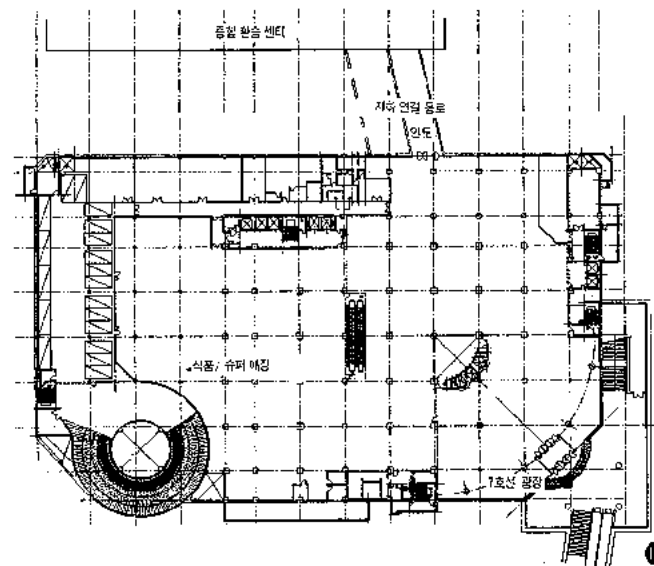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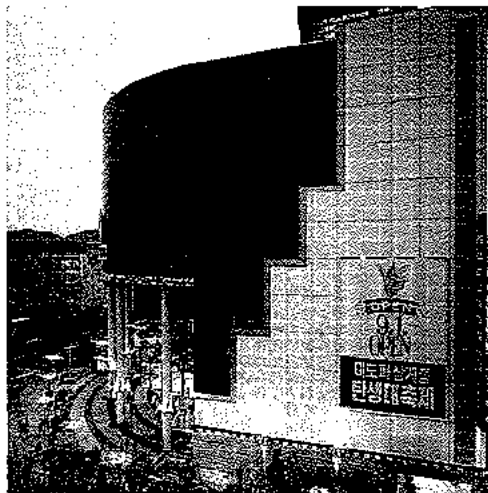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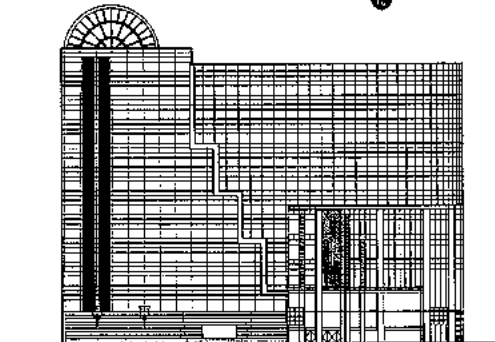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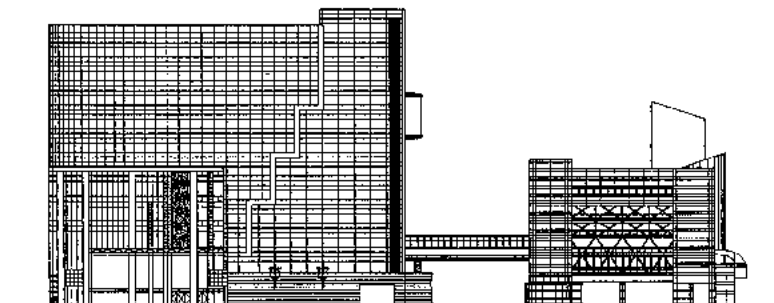


13

- 8 수영장
- 9 볼링장
- 10 어린이 놀이터
- 11 10층 평면도
- 12 8층 평면도
- 13 1층 평면도
- 14 지하 1층 평면도
- 15 백화점 야경
- 16 이벤트 광장
- 17 서측면도
- 18 남측면도
- 19 종합환승센터 전경



11



15

■ 종합환승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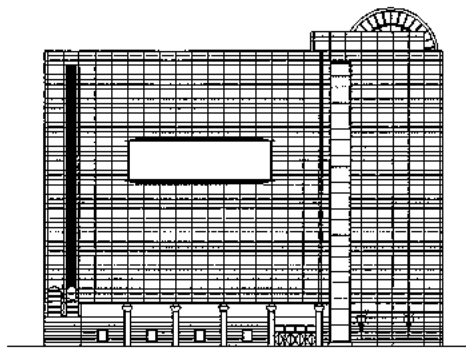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 2동 712번지
 지역·지구 / 일반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 3,842m²
 건축면적 / 3,176.05m²
 연면적 / 21,836.44m²
 구조 / SRC조, Top Down 시공 - 지하 2층, 지
 상 6층
 주차대수 / 182대
 외부마감 / G.R.C 몰소수지 도장 + AL 커튼월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주변은 상계신시가지의 중심 사업지구로서 미도와 백화점 상계점과 함께 장래 건설될 7호선 노원역에 환승통행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환승센터를 건립하여 환승통로를 연결 시키고 버스, 택시, 승용차 등 타 교통수단과 지하철간을 환승시킬 수 있는 교통중심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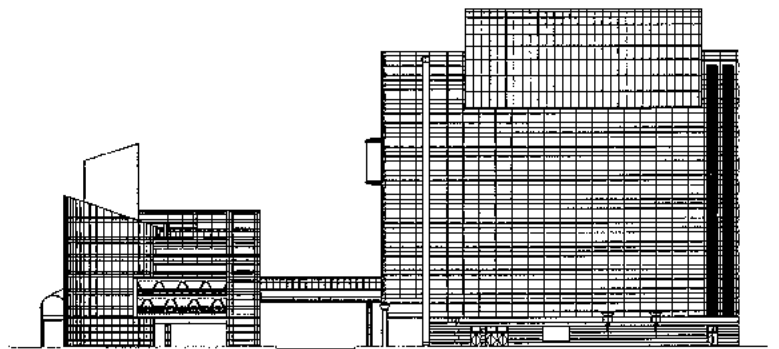
한편, 본 환승센터는 民資開發者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지하철 4호선 - 7호선 환승도로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상호조화를 이루며 타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진 것이다. 또한 노원환승센터는 驛舍 플랫폼과 연결된 2층의 입체 통로를 이용, 비가 올 때나 비한방울 맞지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종합 환승센터는 이와 함께 94년 초 개통 예정인 동일로 지하의 7호선 노원역사와도 수직으로 연결된다. 9개노선 2백 30여대의 버스가 실어나르는 3만명을 포함, 하루 11만명이 넘는 상·중계동 승객들을 일사불란하게 교통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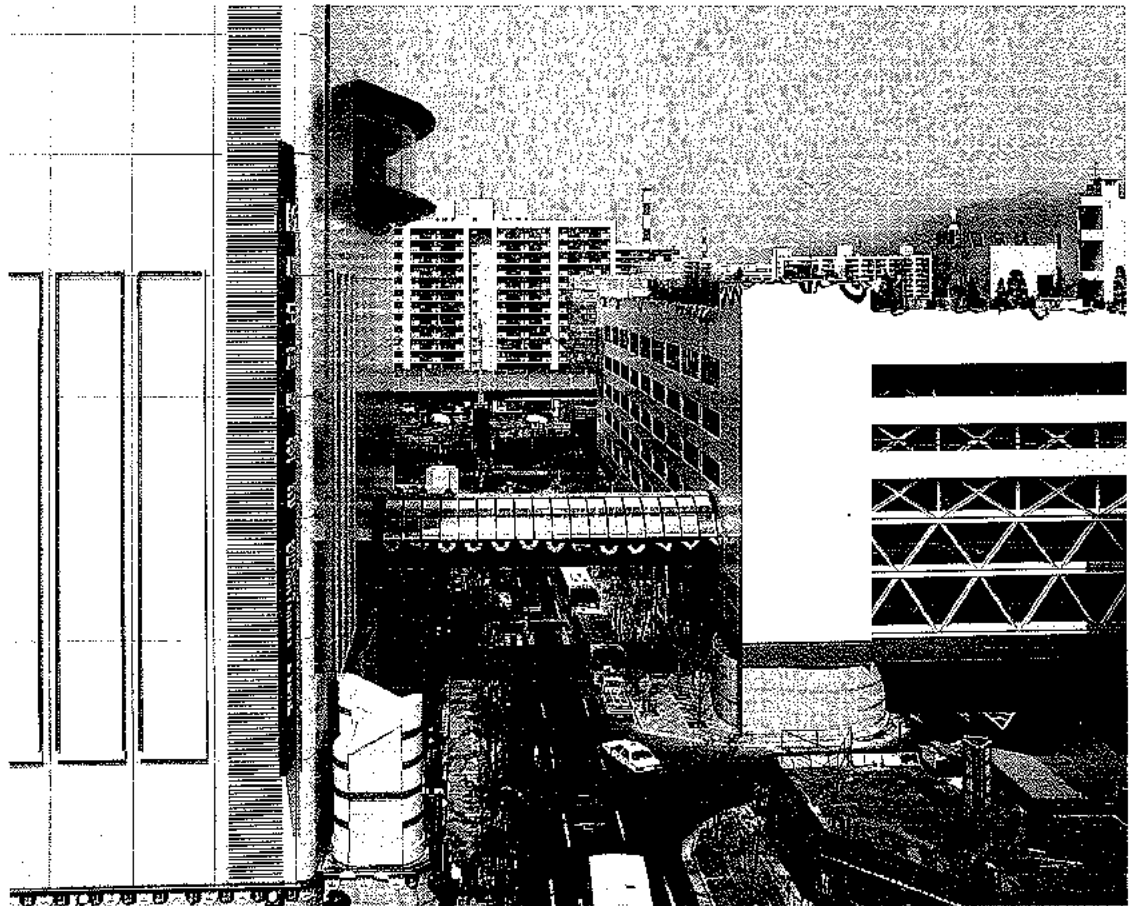
10



20



21



22



2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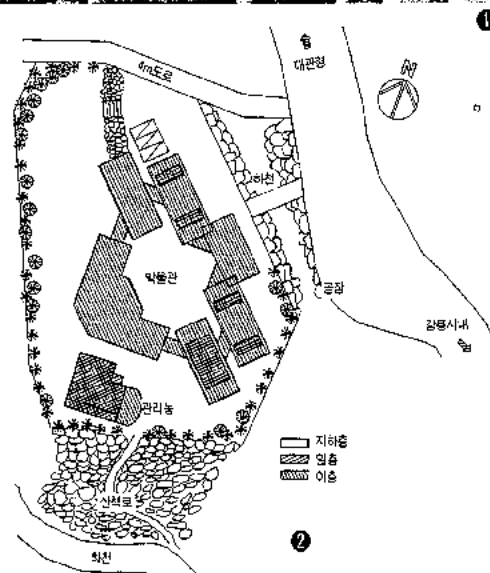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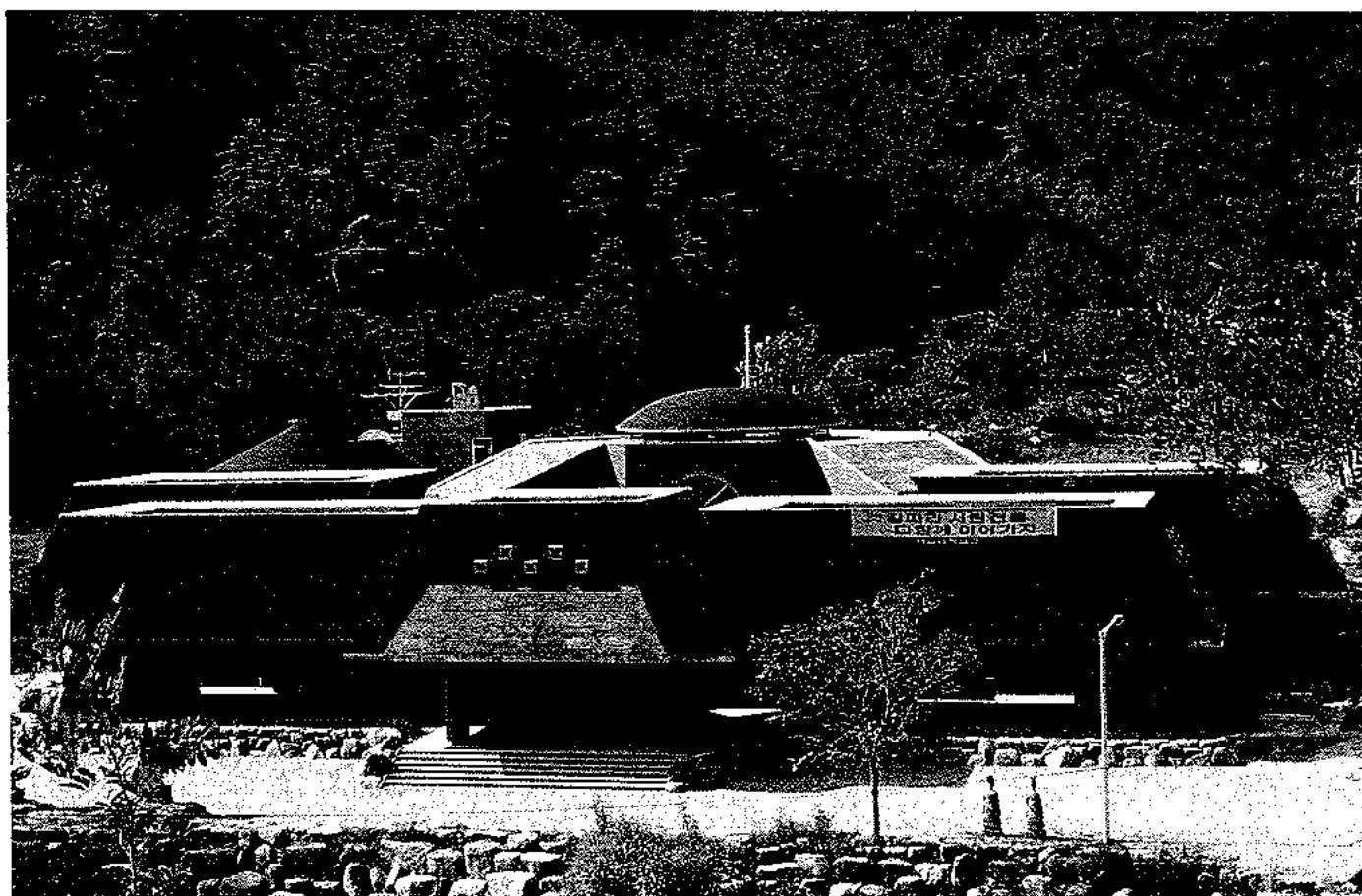
- 20 동측면도
- 21 북측면도
- 22 백화점과 종합
환승센터의 연결통로
- 23 승차장 출구
- 24 승차장

어홀리 박물관

Eoheulri Forklore Museum

安文孝 / 종합건축사사무소 M. A. C
Designed by Ahn, Moon - H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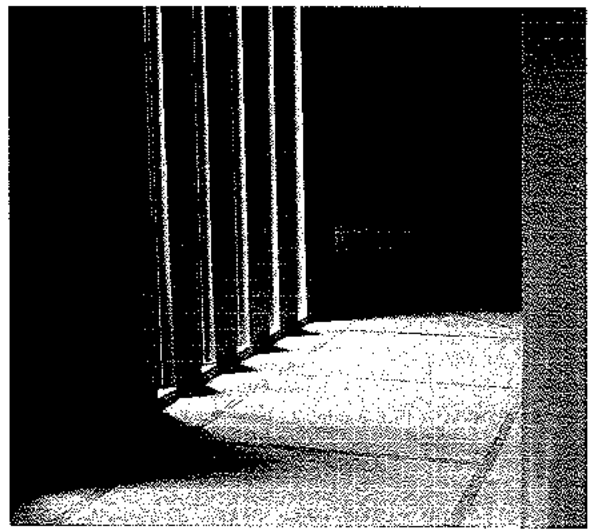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어홀리 374-3
지역·지구 / 도시계획미수립지역
대지면적 / 2,351m²
건축면적 / 718.33m²
연면적 / 972.81m²
건폐율 / 30.55%
용적률 / 38.06%



- ① 전경
- ② 단지내 건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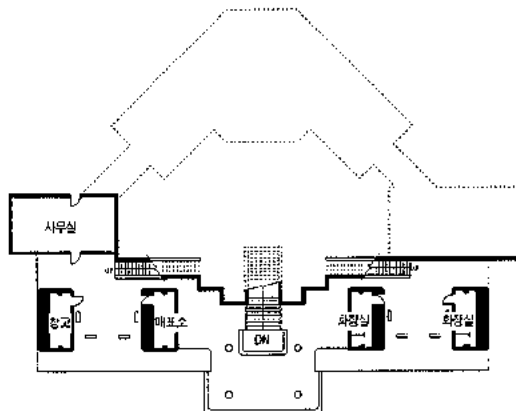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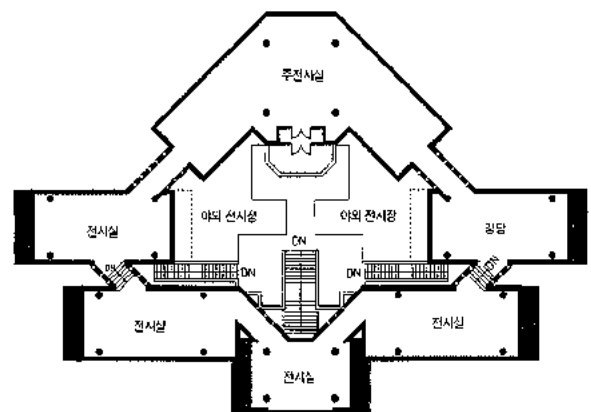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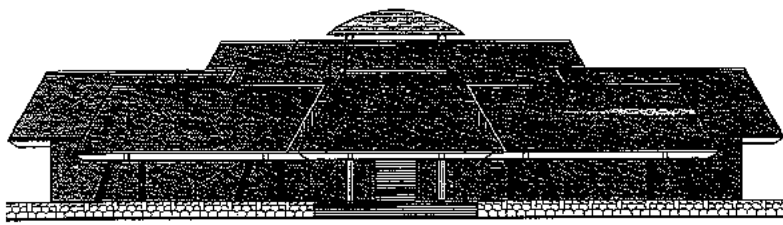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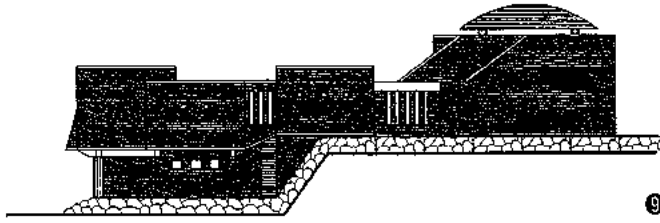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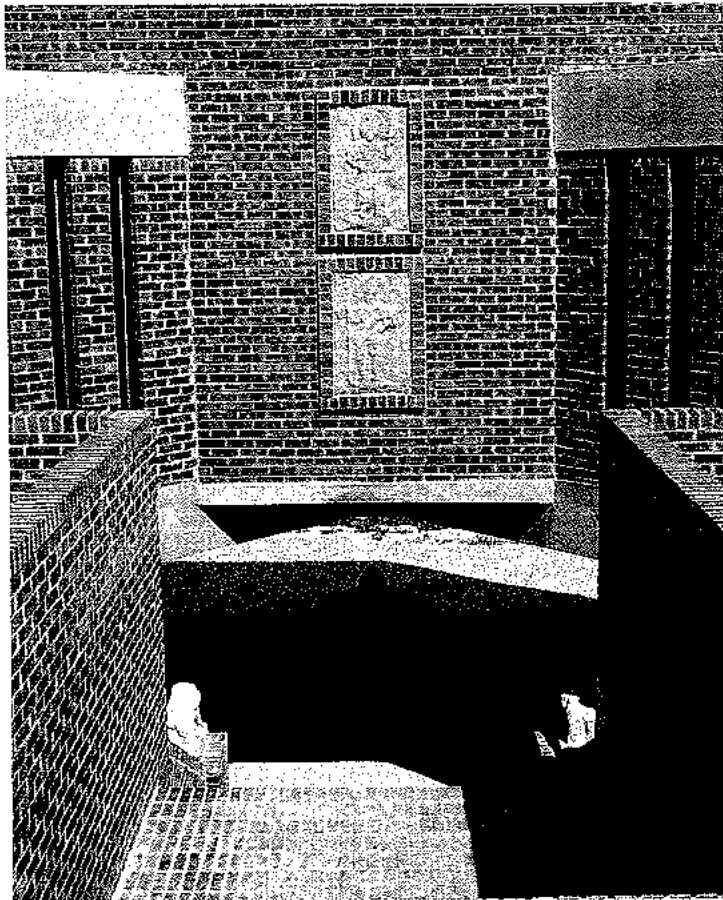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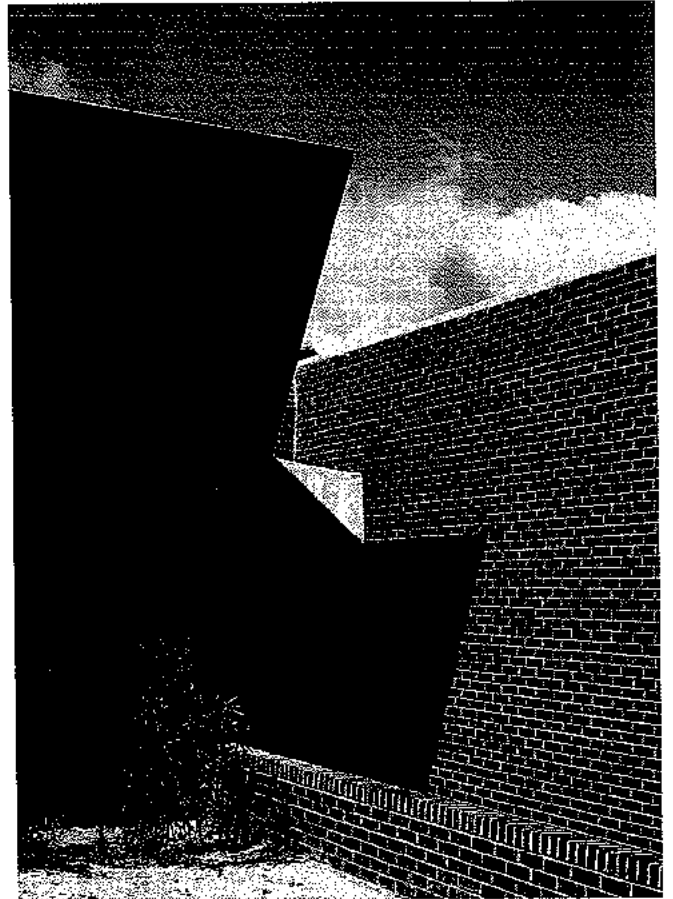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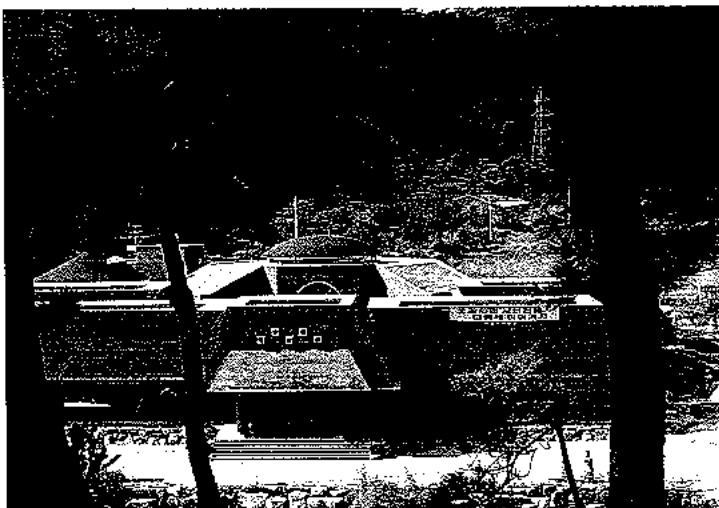
- ③ 언덕에서 올라다 본
외부 상세
- ④ 내부 연결복도
- ⑤ 측면에서 본 전경
- ⑥ 1층 평면도
- ⑦ 2층 평면도
- ⑧ 정면도
- ⑨ 우측면도
- ⑩ 전시실 입구측 상세
- ⑪ 외벽상세
- ⑫ 위에서 내려다 본 전경
- ⑬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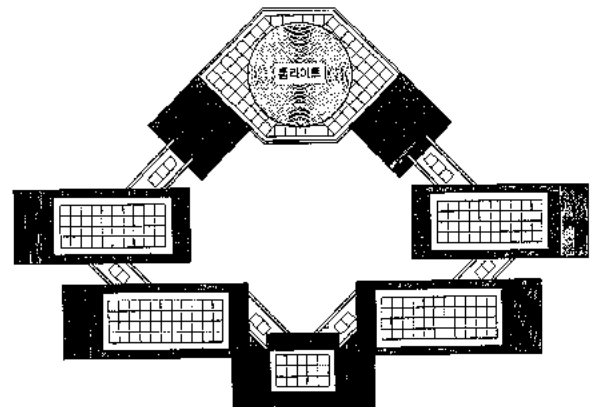
⑩



⑪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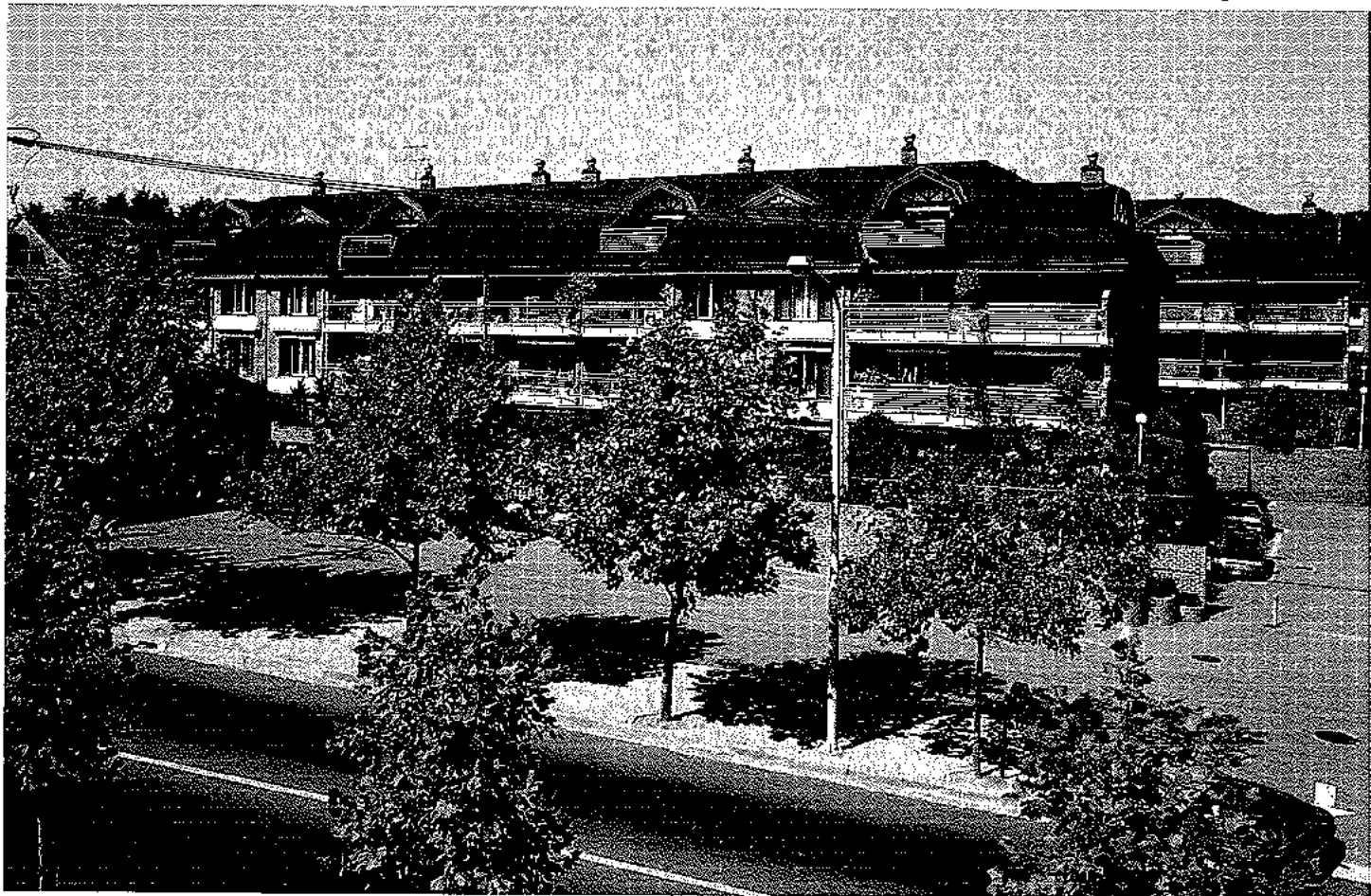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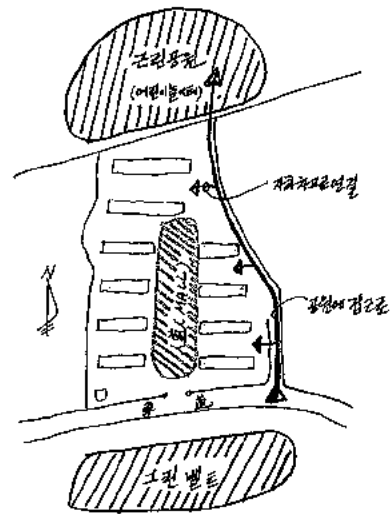
⑬

대림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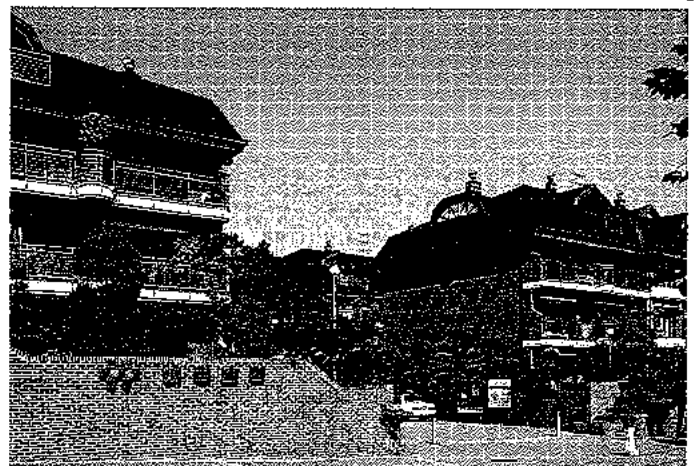
Daelim Villa

WORKS

禹南龍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세종
Designed by Woo, Nam - Young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78번지
지역·지구 / 주거지역, 연립주택부지,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21,593.1m²
연면적 / 27,154.72m²
건축면적 / 7,159.18m²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세대수 / 108세대
주요외장재 / 붉은벽돌 치장쌓기, 아스팔트 성글





4



5

- ① 배치 개념도
- ② 전경 ①
- ③ 진입로측 상세
- ④ 도로에서 본 외부상세
- ⑤ 전면 발코니 상세
- ⑥ 전경 ②
- ⑦ 측면상세



6

■ 서울의 동쪽끝에 숲으로 둘러쌓여 공기가 맑고 자연의 정취가 가득한 곳이다. 대지가 남북으로 길게 놓여 남쪽만 외부차도에 접하여 있으므로 여러가지 동선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길 건너 남쪽은 개발제한지역이고 북쪽은 산으로 둘러쌓인 근린공원이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단지내에 진입하는 사람과 자동차의 동선도 분리하면서 근린공원에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의 동쪽에 진입통로를 만들어 주면서 이 진입통로에서 지하차고로 직접 주차할 수 있게 동선을 처리하였다. 단지의 내부에는

구급차나 이삿짐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진입을 못하게 하였으며 단지의 중앙에는 "Mall"을 형성하여 동네사람들의 휴식과 대화의 광장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나 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이를 가로막아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평범하게 통로로 처리되고 말았으니 아쉬움만 남는다. 궁색하나마 각 동(棟)의 레벨을 조금씩 높여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지하차고에 한세당 2대의 주차가 가능한데도 단지내 회전 통로를 꼭 두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잔디밭으로도 소방차가 갈 수 있다는 사실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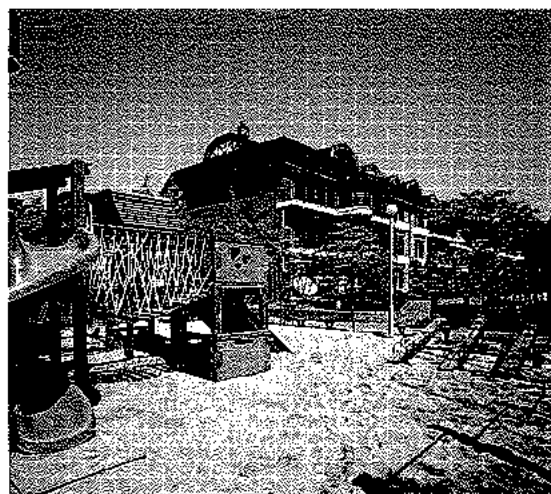


7

- ⑧ 후면측 외부상세
- ⑨ 놀이시설에서 본 외부
- ⑩ 도로에서 본 진입로 및
각 동 상세
- ⑪ 69평형 평면도
- ⑫ 62평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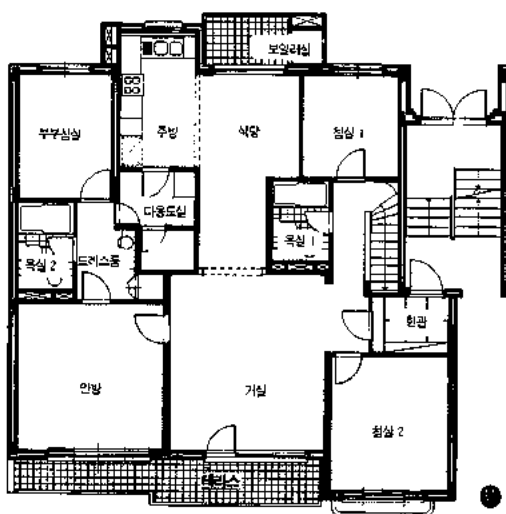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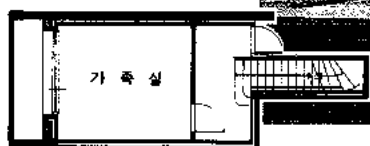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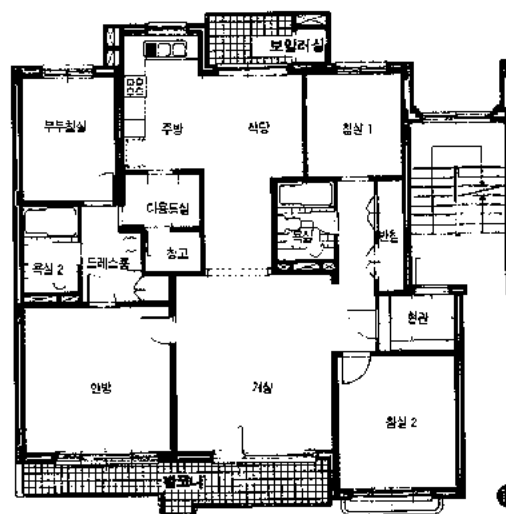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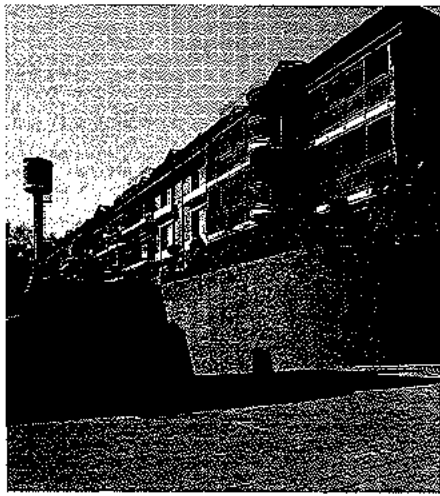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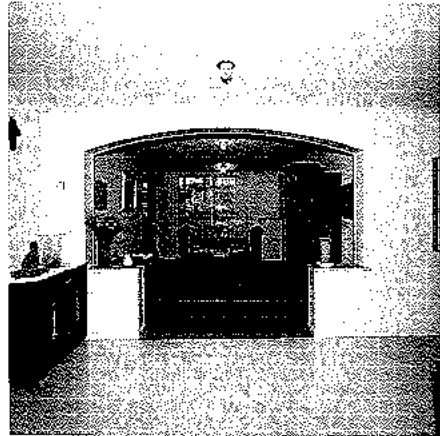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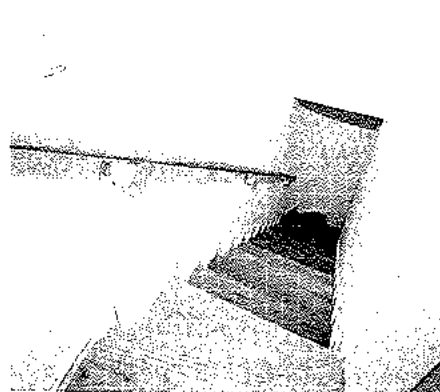
⑫



③



④



⑤



⑥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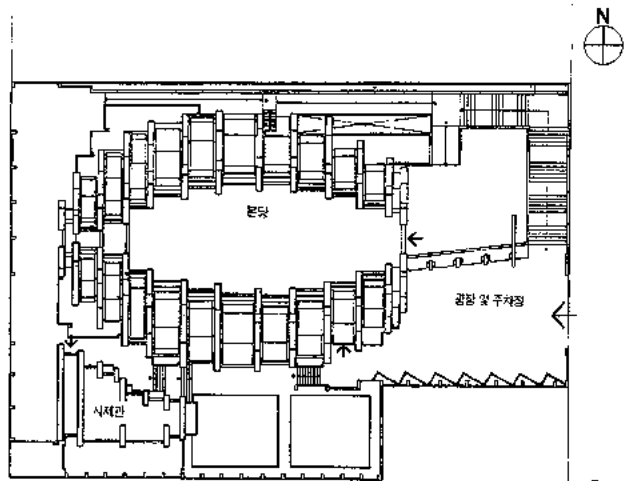
- ③ 지하차고 연결부측 상세
- ④ 내부 식당 전경
- ⑤ 연결계단실 상세
- ⑥ 도로에서 본 1동 전경
- ⑦ 73평형 평면도
- ⑧ 거실 전경

변동 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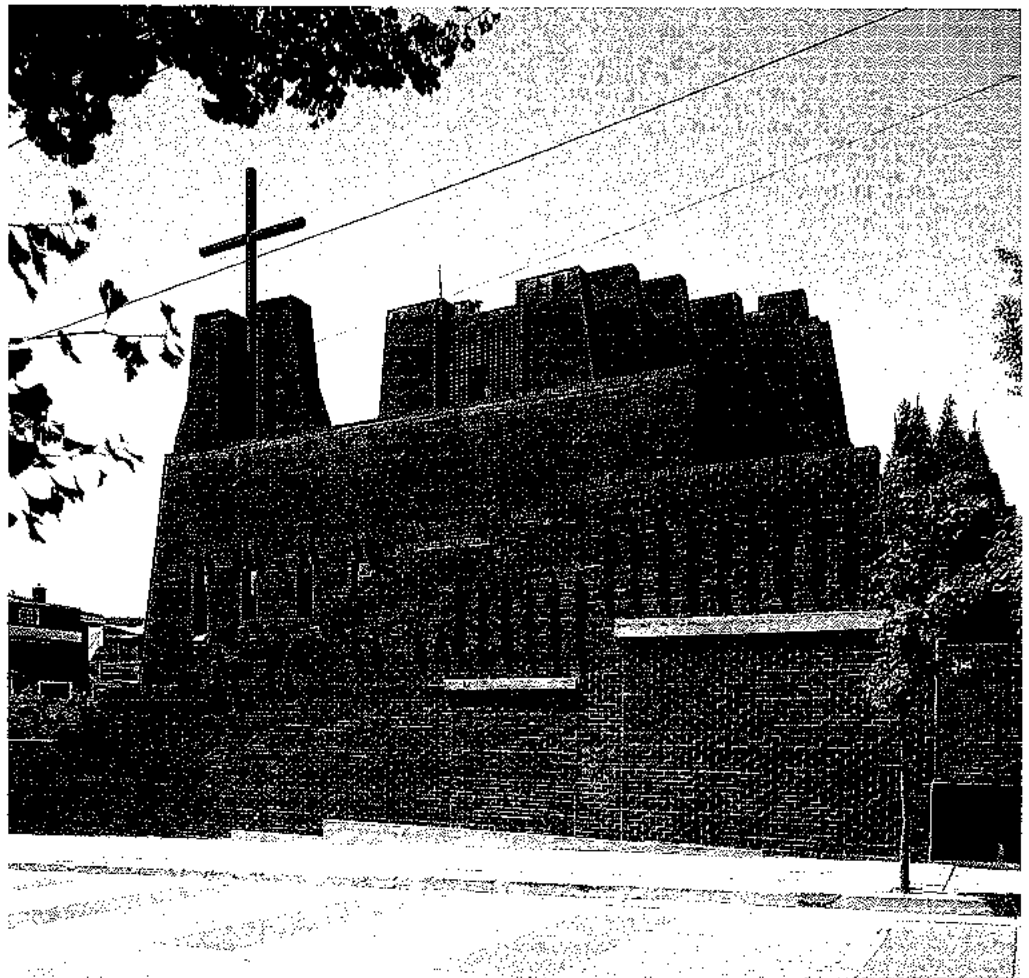
Pyeongdong Catholic Church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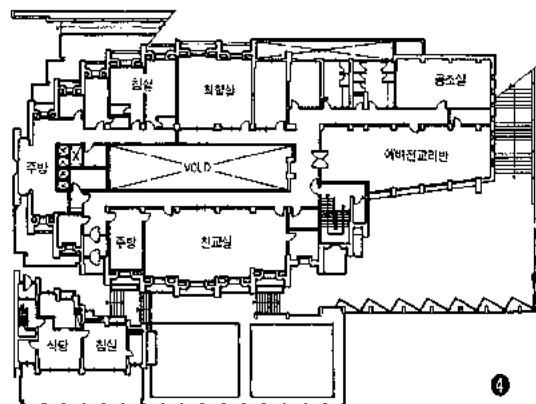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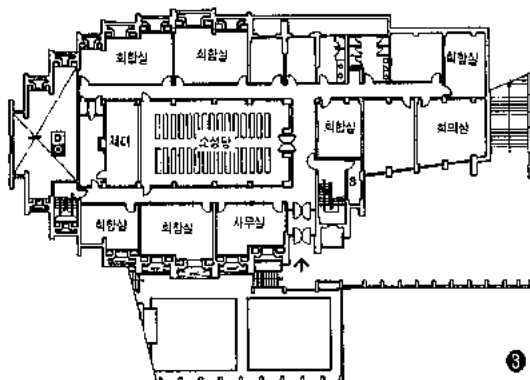
承孝相 / 종합건축사사무소 TSC
Designed by Seung, Hyo - S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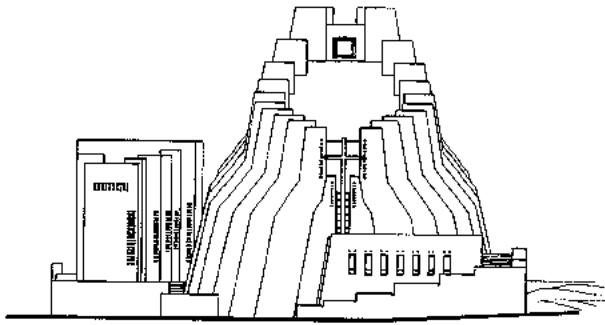


■
대지위치 / 대전직할시 서구 도마동
대지면적 / 2,166.40m²
건축면적 / 929.75m²
건폐율 / 42.92%
용적률 / 121.40%
규모 / 본당 - 지하 1층, 지상 4층
사제관 -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미감 / 적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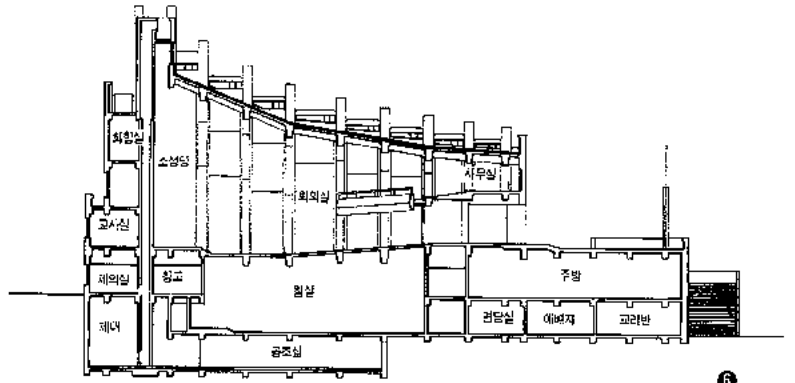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전경
- ③ 1층 평면도
- ④ 2층 평면도
- ⑤ 입면도
- ⑥ 단면도
- ⑦ 재대축 상세
- ⑧ 내부 상세
- ⑨ 외벽 상세
- ⑩ 3층 평면도
- ⑪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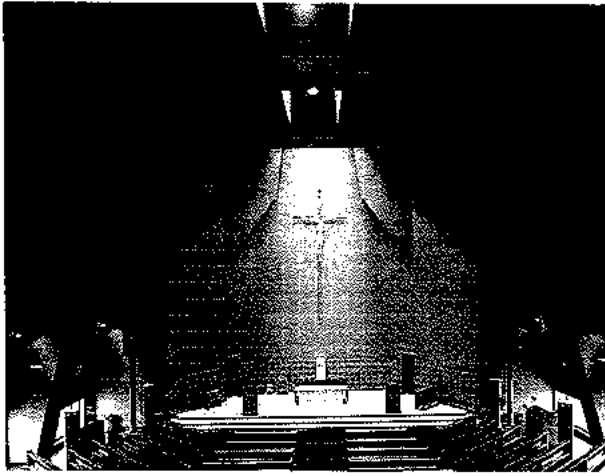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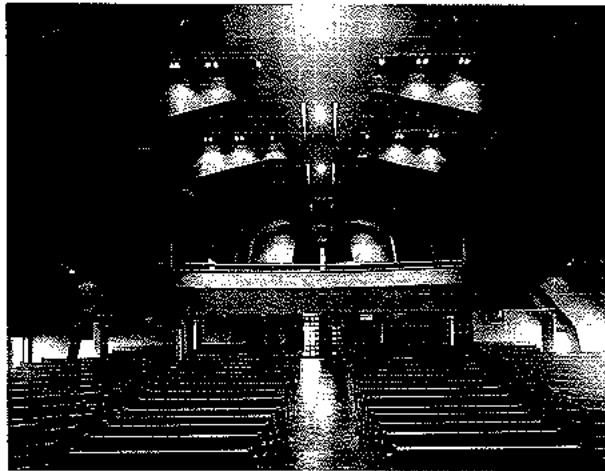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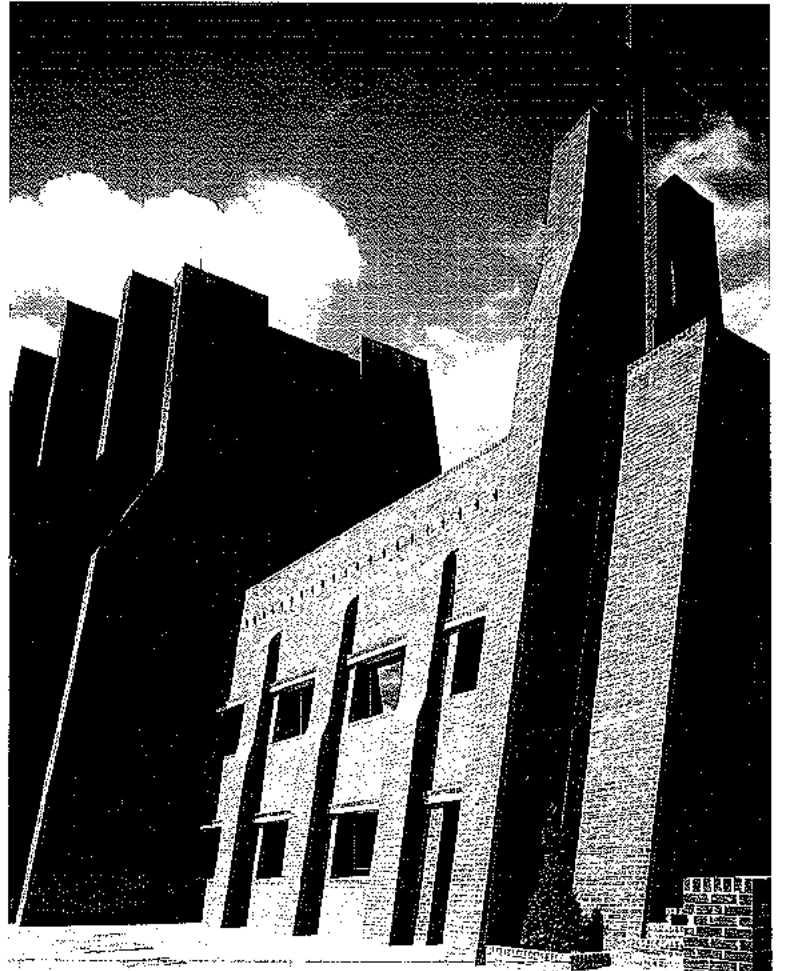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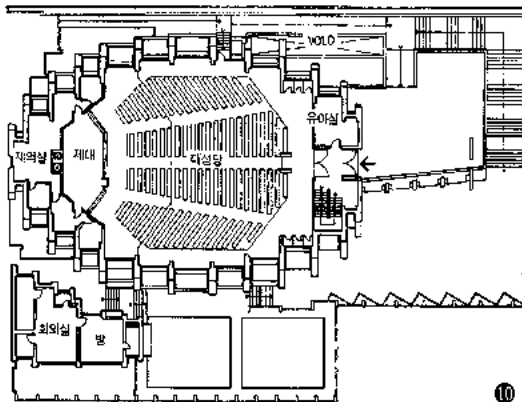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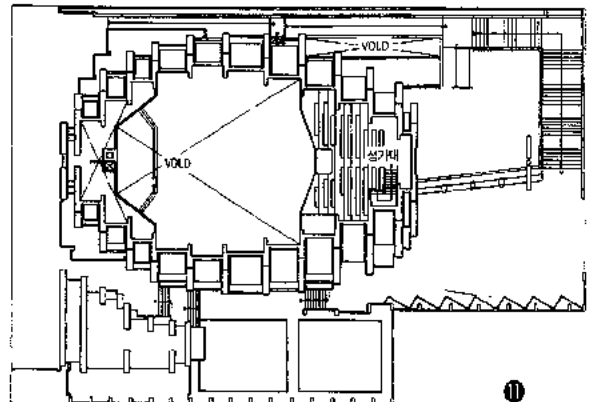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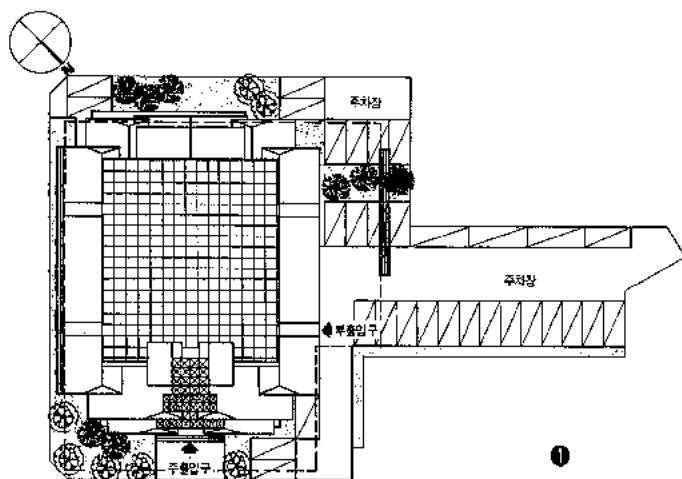


11

동산교회

Dongsan Church

金武彦 /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Designed by Kim, Moo - Eon



WORKS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된 동산교회는 대지위치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전면에 20m 도로, 그밖에 8m, 4m 도로에 접하고 있어 각 방향에서 교회의 진, 출입이 용이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교회도 한국 교회 건축의 특징인 교회의 대형화, 다기능화 됨에 따라 많은 신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커다란 본당과 예배 이외의 교육, 봉사, 친교의 공간을 필연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었다. 또한 이런 기능들을 수용하면서 인근 주택들과 어울리는 Mass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에 우선이 되었다.

1,500명을 수용하는 본당이 3층에 자리잡고 지하층, 1층, 2층에는 교육 친교공간의 소예배실, 유치부, 식당등을 배치하여 교회 사명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노약자와 신체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본당과 다른 공간들의 연결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옥상에는 옥의 집회시설을 만들어 충분치 못한 교육공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면 형태는 주재료인 붉은 벽돌의 육중함을 줄이고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을 꾀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돌과 유리블럭을 사용하고 전면에 넓은 반사유리를 사용하여 주위 건물의 모습들이 투영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십자가를 받치고 있는 반사유리의 종탑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듯한 전면 형태의 정점으로, 땅의 평화를 하늘에 호소하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교인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이땅의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야 함을 인식하는 교회 건축물의 운용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대지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31-2외

8필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2,091.85m²

건축면적 / 913.06m²

연면적 / 4,692.26m²

건폐율 / 43.64%

용적률 / 165.18%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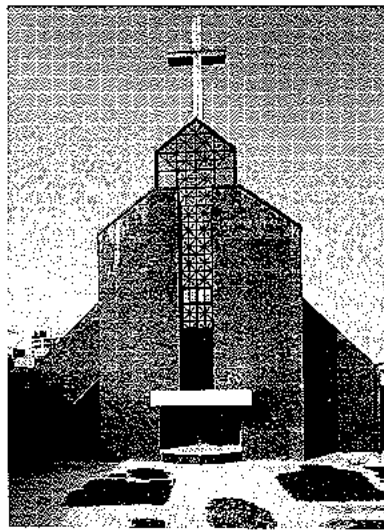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트러스조(지붕)

외부미감 / 외벽 - 변색 벽돌, 치장마감,
화강석흑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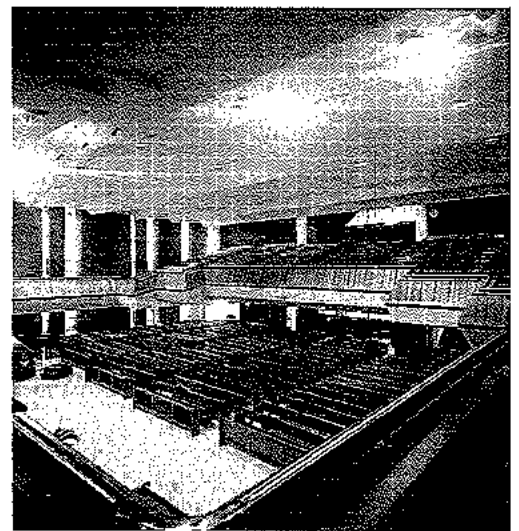
18mm 반사복층유리

지붕 - 지기질 타일, 동판쇠우기,

18mm 반사 복층유리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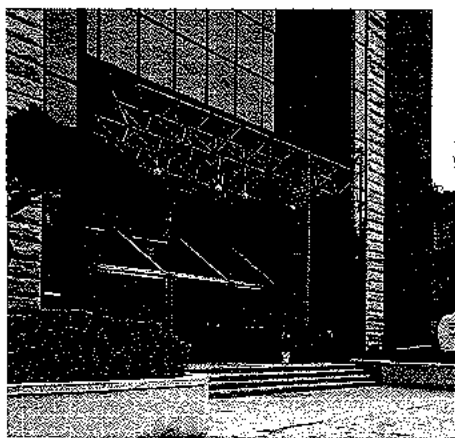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전경
- ③ 후면 상세
- ④ 예배당 전경
- ⑤ 제대측 전경
- ⑥ 올라다 본 후면 외벽상세
- ⑦ 전면 주출입구측 상세
- ⑧ 2층 평면도
- ⑨ 4층 평면도
- ⑩ 1층 평면도
- ⑪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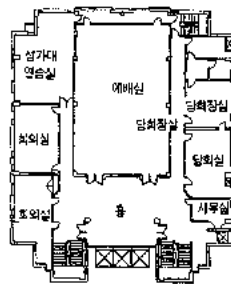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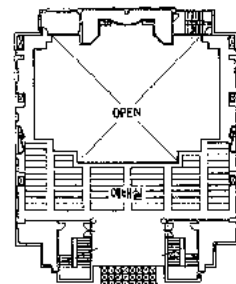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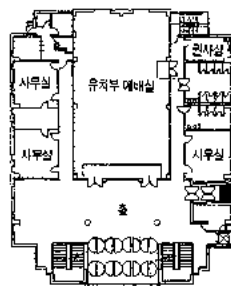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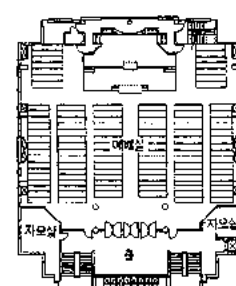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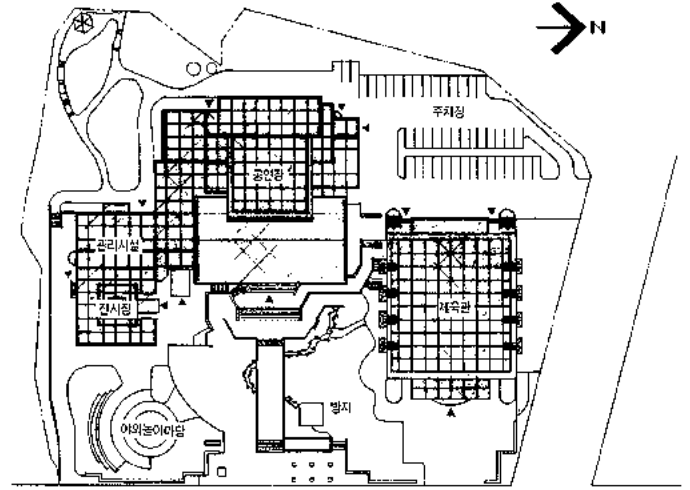
11

강릉 문화예술회관

Kangreung Culture & Art Center

WORKS

郭殷榮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大建社
Designed by Kwak, Eun - 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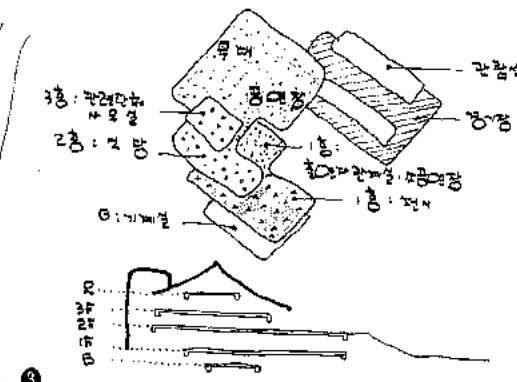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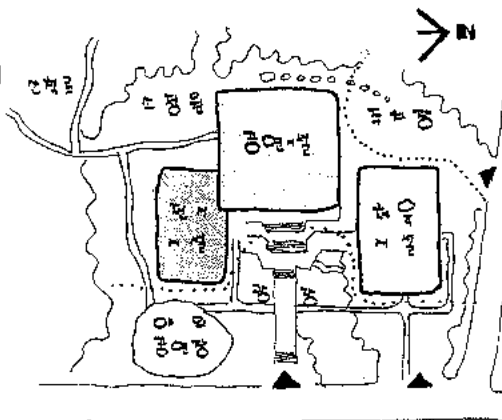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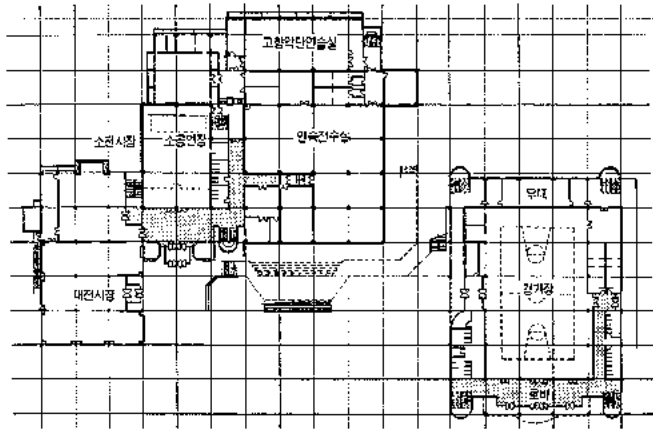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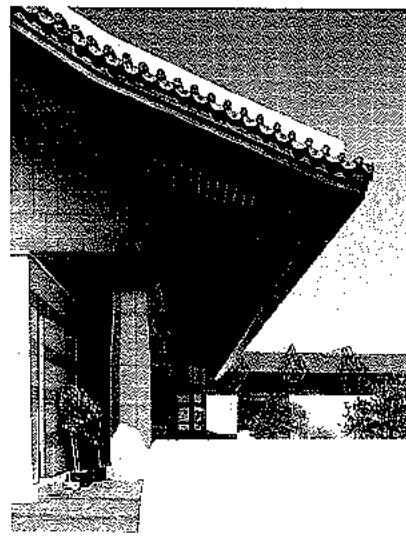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교동 408번지 일대
지역·지구 / 종합운동장 결정지구
대지면적 / 17,366.40m²
건축면적 / 5,240.28m²
연면적 / 8,986.06m²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폐율 / 30.17%
용적률 / 48.39%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Roof 철골 트러스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 석재타일
주차대수 / 200대 (단지내 종합
주차장 시설 겸용)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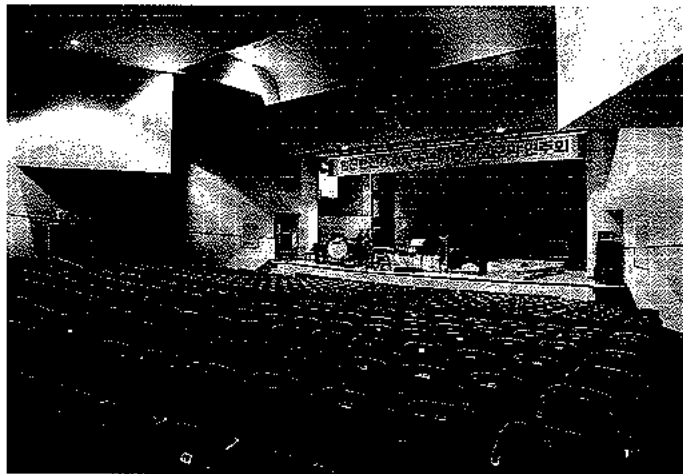
- ① 배치도
- ② 남동측 전경
- ③ 배치 개념도
- ④ 평면 개념도
- ⑤ 1층 평면도
- ⑥ 남측에서 바라본 파사드
- ⑦ 문화예술관 전면 전경
- ⑧ 남동측에서 바라본 파사드 전경
- ⑨ 공연장 전경
- ⑩ 전시실 내부



7



8



9



10

■ 배치계획

1. 배치계획 개념

- 전면광장으로 개방감 확보
 - 기존 종합경기장의 전면 광장과 연계하여 개방감을 확보함.
 - 남서쪽의 낮은 능선을 이룬 지형축, 북동쪽의 좁은 경관축, 동서쪽의 진입축 그리고 남쪽의 향축을 고려함에 있어서 전면의 공지 확보가 가장 유리함.
- 시설군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치
 - 문화적 시설군을 안쪽 중앙에 형성시킴으로써 시각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외부공간을 위계

처리하여 보행자에게 다양한 시각적 체험을 단계적으로 제공함.

- 기존 체육시설 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육관을 배치함.

● 건물 및 외부공간의 이원적 성격

- 공연장의 고전적이며 기념비적 성격 부각을 위하여 기능적인 건물군은 좌우에 현대적 성격을 표현하는 배스로 처리함.

- 건물군의 성격에 맞추어 전면 공연장의 진입 부분에 전통적인 전면공간을 형성하고, 그외 부분은 동시대성을 나타내는 성격을 부여함.

2. 외부공간 계획

● 진입공간

- 공연장의 기념비적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하며, 담장이 낮거나, 없애줌으로써 공개공지화 하여 시민들에게 쉽게 접근할수 있는 친밀감을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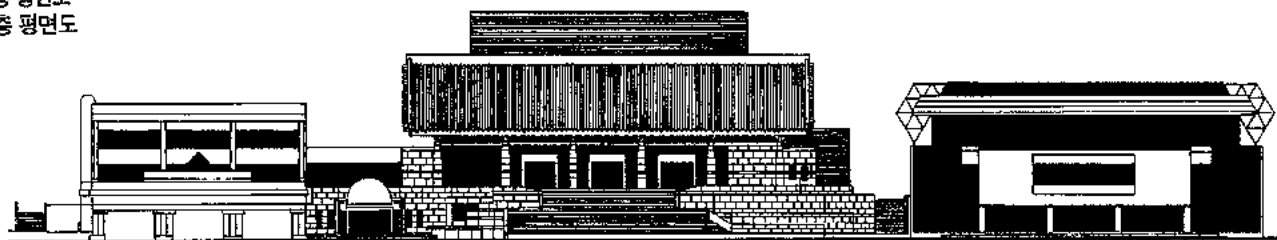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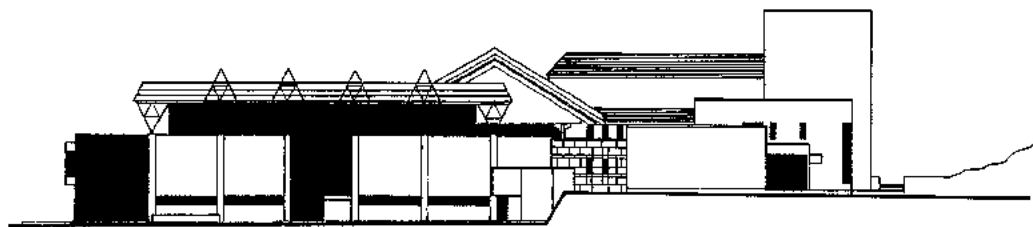
● 전통공간

- 한국적인 형식으로써 1m 정도의 인공산을 조성하여 중도(中島)의 개념을 주고, 제류와 방지(方池)를 설치하여 전통의 멋을 연출시킴.

● 문화공간

- 자연 지형을 이용한 석단의 객석과 놀이마당

- ⑪ 우측면도
- ⑫ 정면도
- ⑬ 동측 파사드 전경
- ⑭ 전시장 연결 계단부
- ⑮ 종단면도
- ⑯ 체육관 남측 파사드 전경
- ⑰ 체육관 전면 전경
- ⑱ 공연장 1층 토비
- ㉑ 체육관 내부 전경
- ㉒ 2층 평면도
- ㉓ 3층 평면도



및 배경식재를 조성하여 옥의 놀이공간을 형성함.

● 휴식공간

— 남서면의 지형적 여건과 수려한 기존수림을 이용하여 차경효과를 내며 산책로를 설치하여 정적인 휴게공간을 형성함.

● 주차공간

— 건물의 영구음영지로서 활용도가 낮은 부지의 북서면에 주차시설, 자전거 보관시설 및 써어비스 공간을 둠.

■ 건물계획

1. 공연장

● 기념비적 성격 부여 : 상징적 주공간으로 전통

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강한 정면성을 제공함.

● 향토적 어휘 사용 : 맛배지붕과 열주를 주요소로 도입, 맛배지붕 및 열주의 비례는 강릉 객사문(국보 제 51호)의 비례에 준함.

● 주공연장(500석), 소공연장(200석)석을 두어 효율적으로 활용 : 운영 프로그램 계획을 작성하여 건물의 활용도를 최대한 도모함.

● 스타디움형(Stadium Type)으로 계획 : 500석의 규모에서 갤러리형 및 발코니형보다는 스타디움형이 음향처리, 볼륨면에서 적합함.

● 부대시설(연습실, 분장실, 도구제작실등)을 충분히 확보.

2. 체육 및 집회시설

● 체육 활동 및 대중집회 장소로서의 성격 : 1,000인 상의 많은 인원의 출입에 지장이 없게 계획.

● 현대적 성격을 띤 외관구성 : 공연장의 기념비적, 전통적 상징성과 대비하여 기능적 필요에 따른 현대적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있어서 신재료(반사유리, 알루미늄 커튼월, 스틸위보소수지도장 타일등)와 구조적 처리(내외부구조 노출)에 중점을 두어 계획.

● 부대시설(샤워, 강의실, 화장실 및 부속 창고)을 충분히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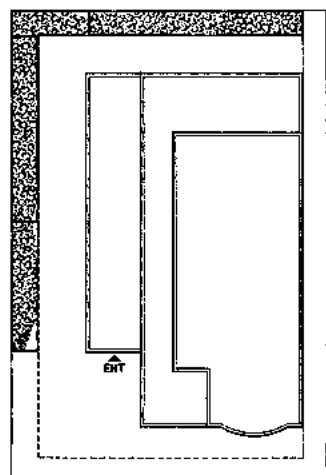
성민빌딩

Sungmin Text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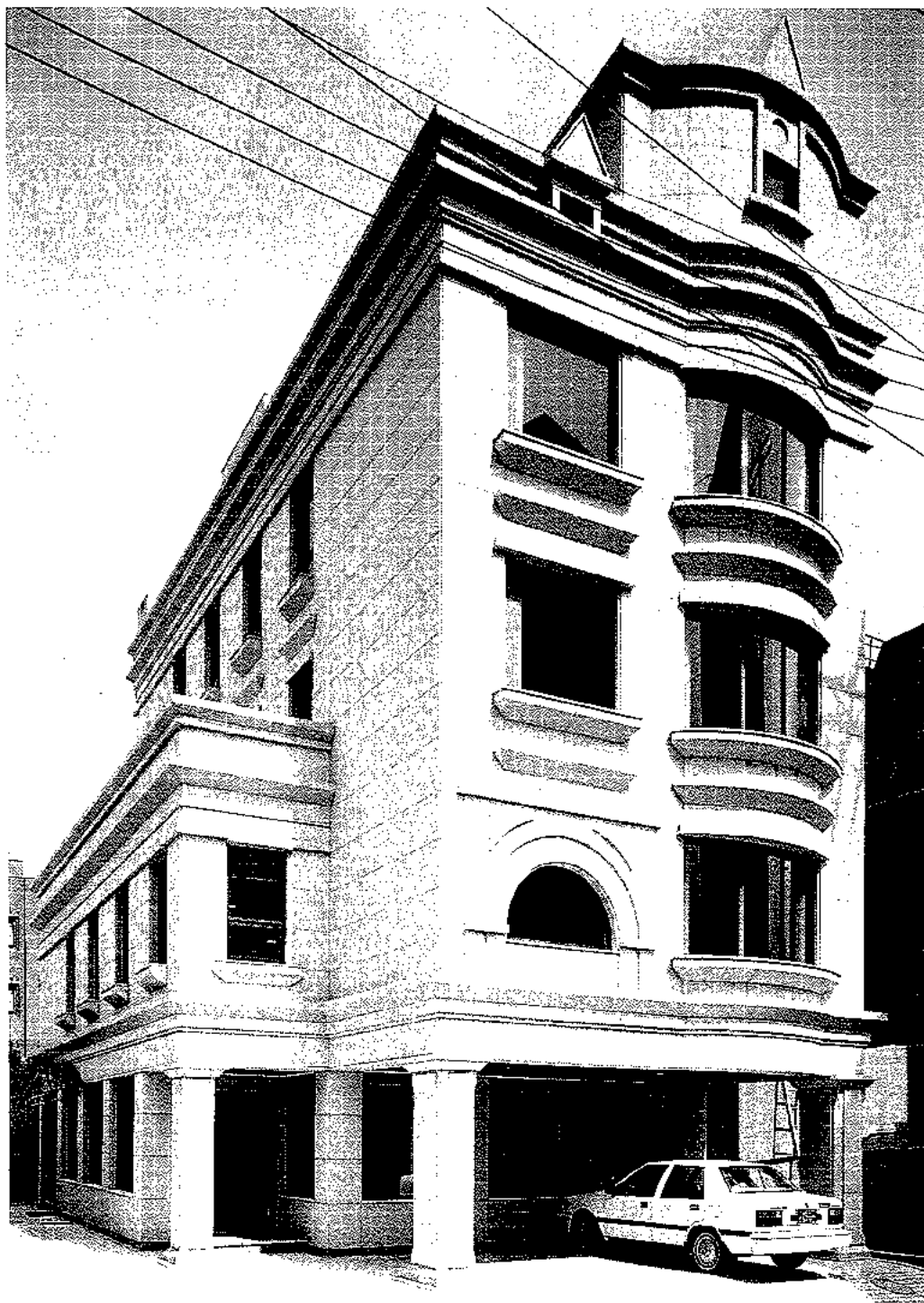
金泰植 / 두리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Tae - Sik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7 - 7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239.7m²
건축면적 / 113.31m²
연면적 / 559.90m²
건폐율 / 47.27%
용적률 / 181.9%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재 / 화강석 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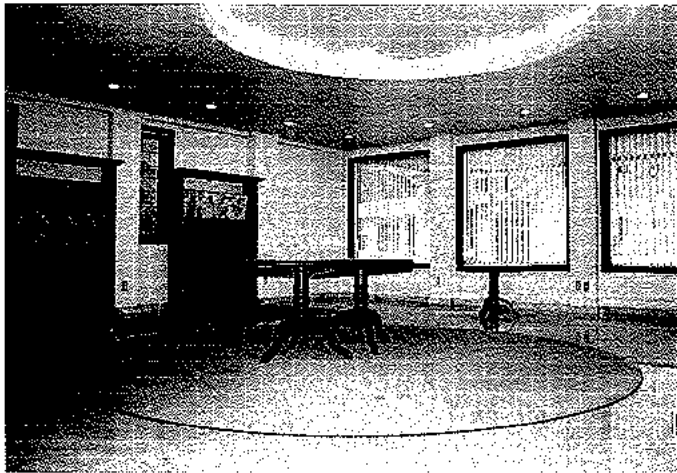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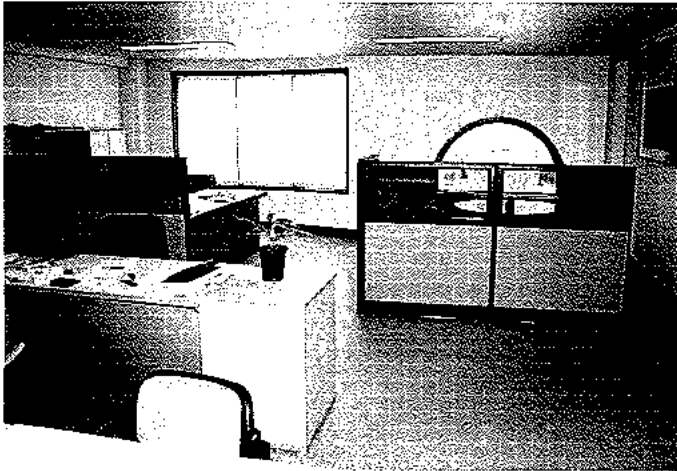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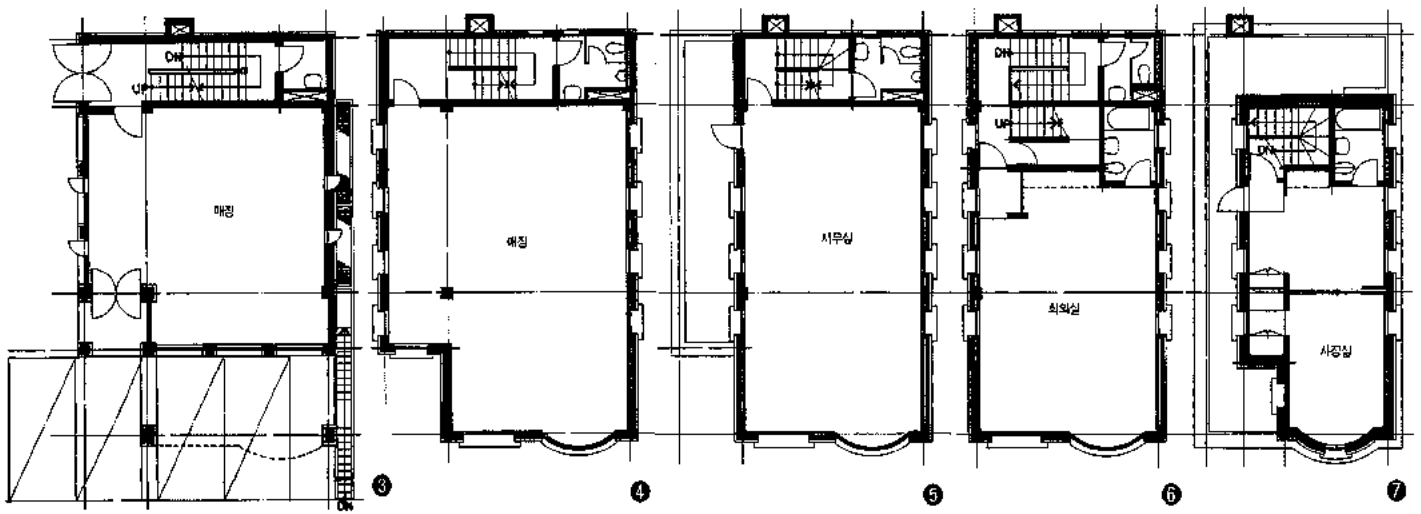
WORKS



①



②



본 대지는 고저차는 없으며 3·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몇개의 중규모 빌라와 더불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와 주변을 접하고 나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적벽돌과 타일로 구성되어 있는 주변환경 속에서 빼어난 자태로 눈부신 형태의 추구보다는 주변에 활력과 볼거리의 요소로서 친근감과 간결한 이미지를 표출시킬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었다.

외장을 돌로 시작하면서 단순명쾌하면서 유니크한 신라의 다보탑도 그려보았고, 외국바이어들

을 상대로한 실크프린팅제품을 세일하기 위한 사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조권과 사선제한에 따른 4층과 5층의 메스의 분절과 형태의 한계를 접어두고라도 한껏 멋을 부려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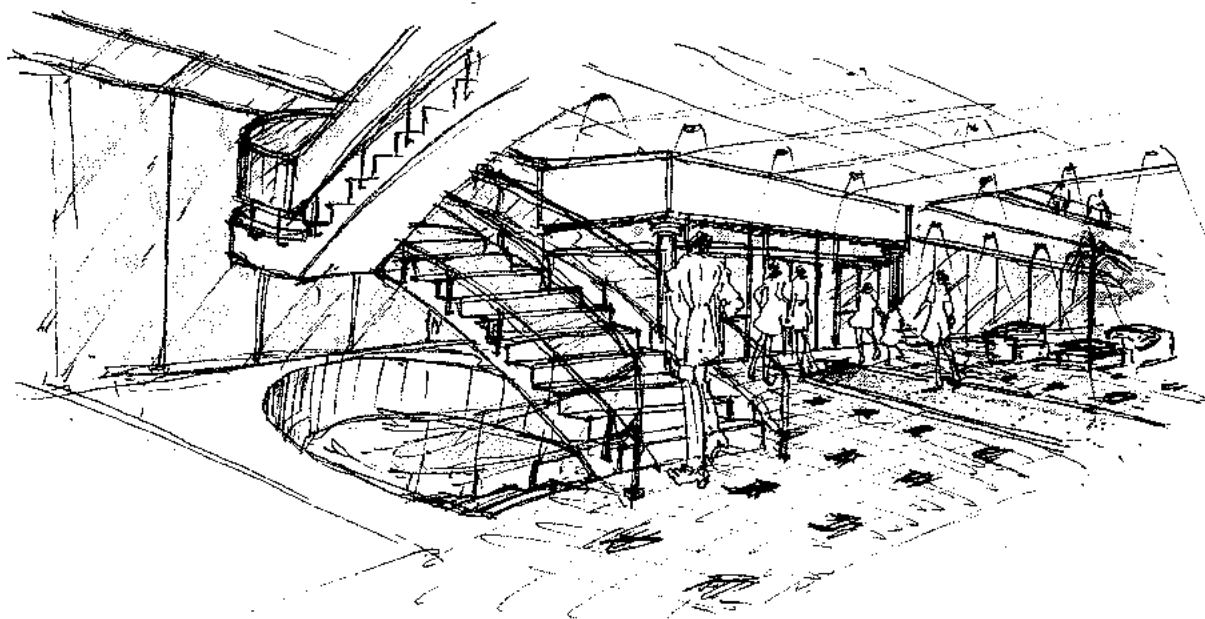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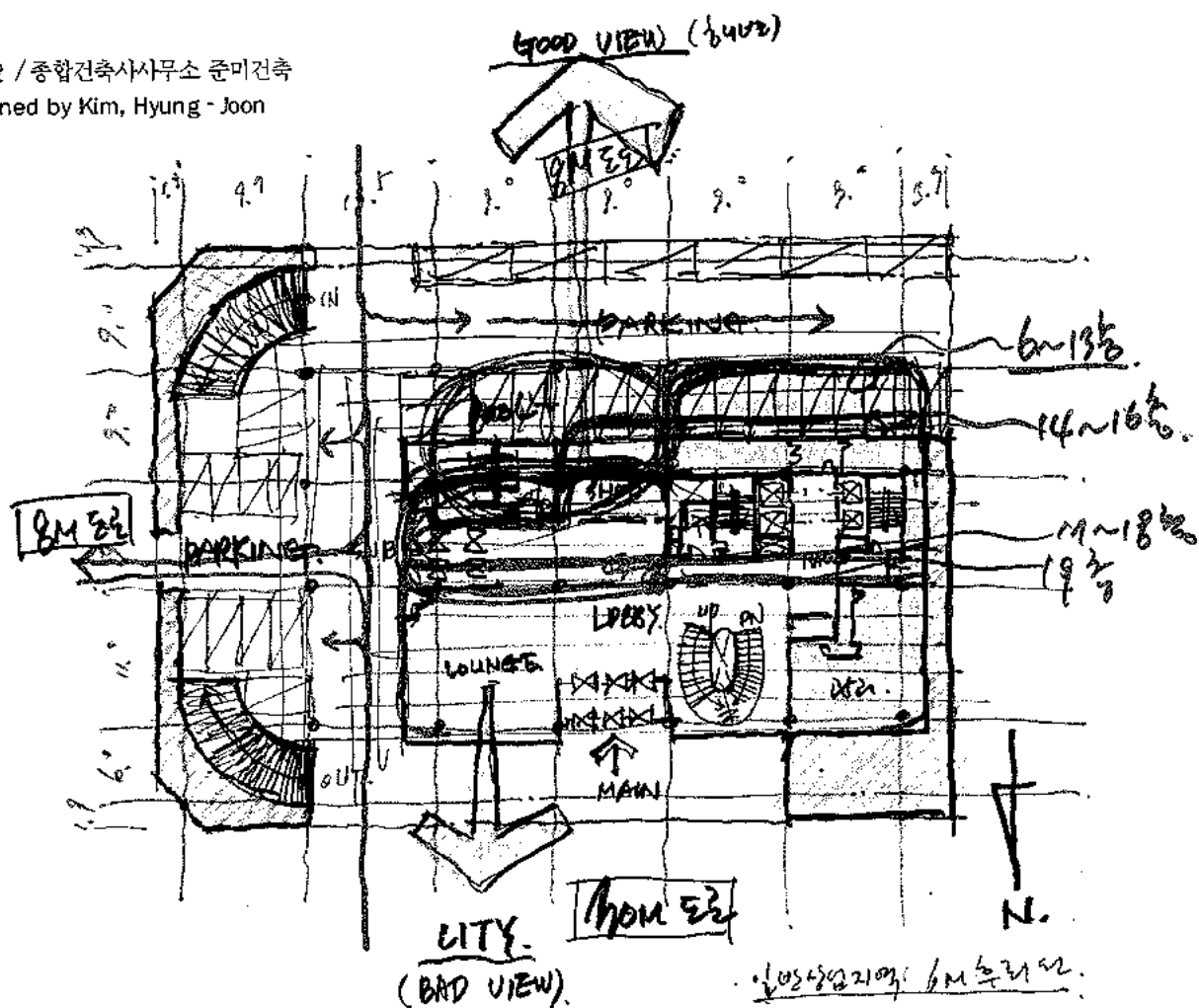
에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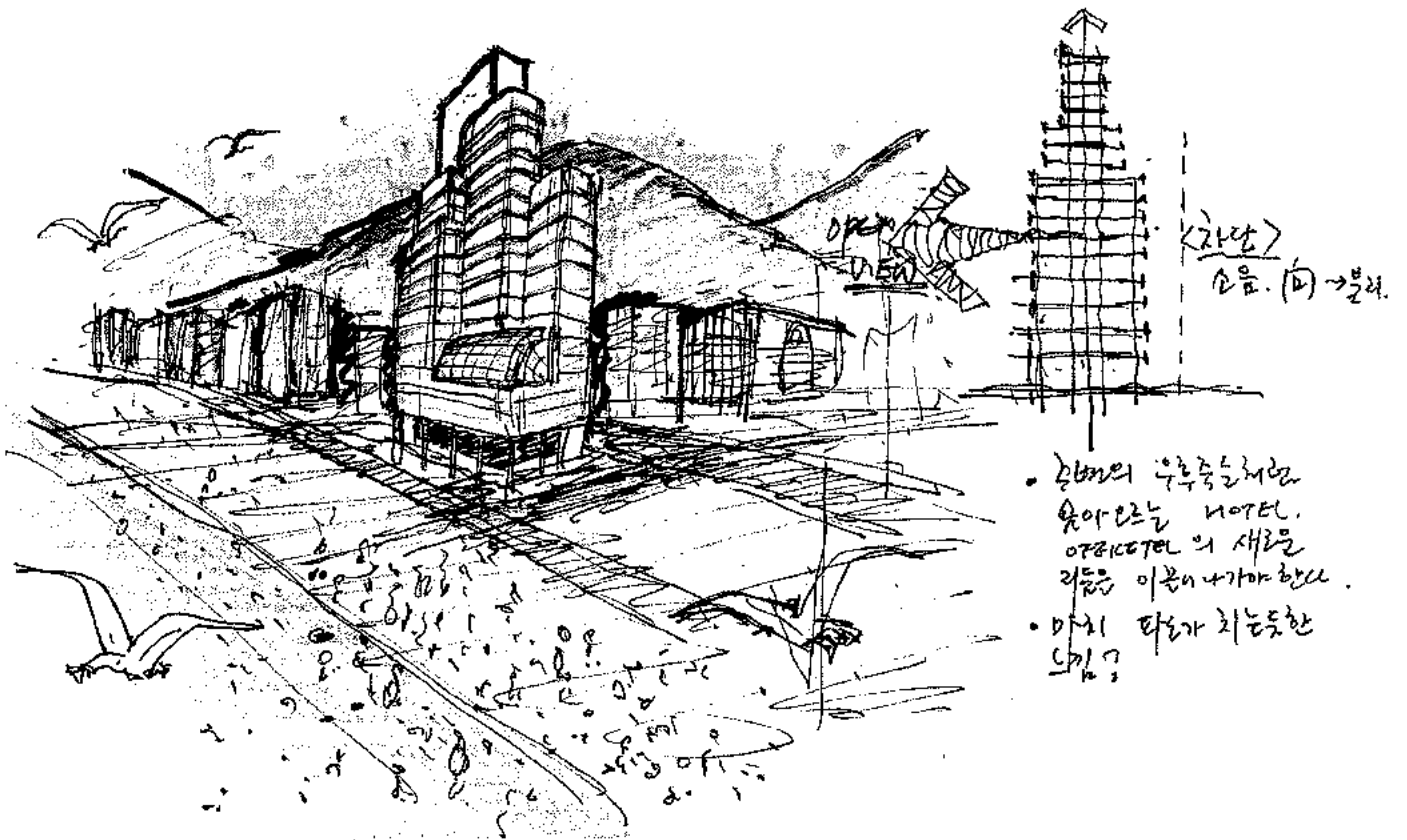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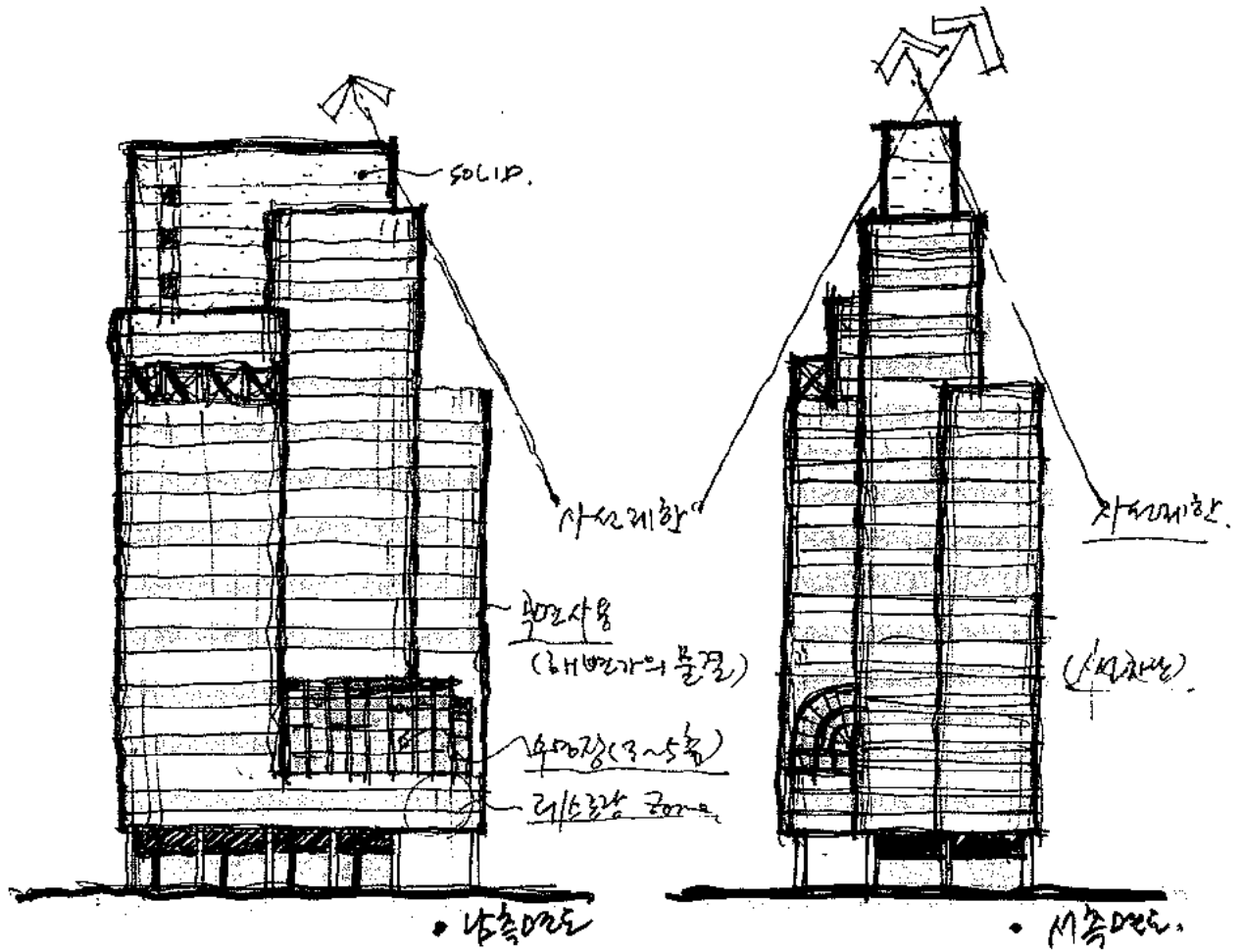
이제는 두려움으로, 건축하는 조그만 즐거움을 가슴속에 감춘채 모두에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서게되고 건축주나 사용자나 이곳을 찾아오는 고객이나 그리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나치는 여러 감성인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고 싶다는 욕심하나.

- ① 배치도
- ② 전경
- ③ 1층 평면도
- ④ 2층 평면도
- ⑤ 3층 평면도
- ⑥ 4층 평면도
- ⑦ 5층 평면도
- ⑧ 사무실 내부
- ⑨ 올라다 본 외벽상세
- ⑩ 내부 전경
- ⑪ 5층 사장실 내부

H Resort Hotel Project

金亨俊 / 종합건축사사무소 준미건축
Designed by Kim, Hyung - J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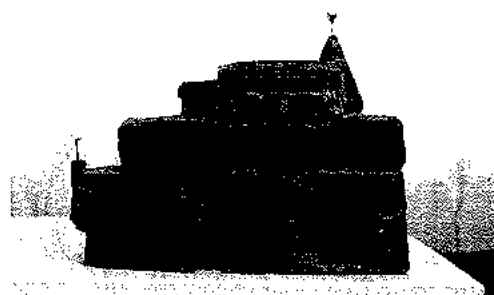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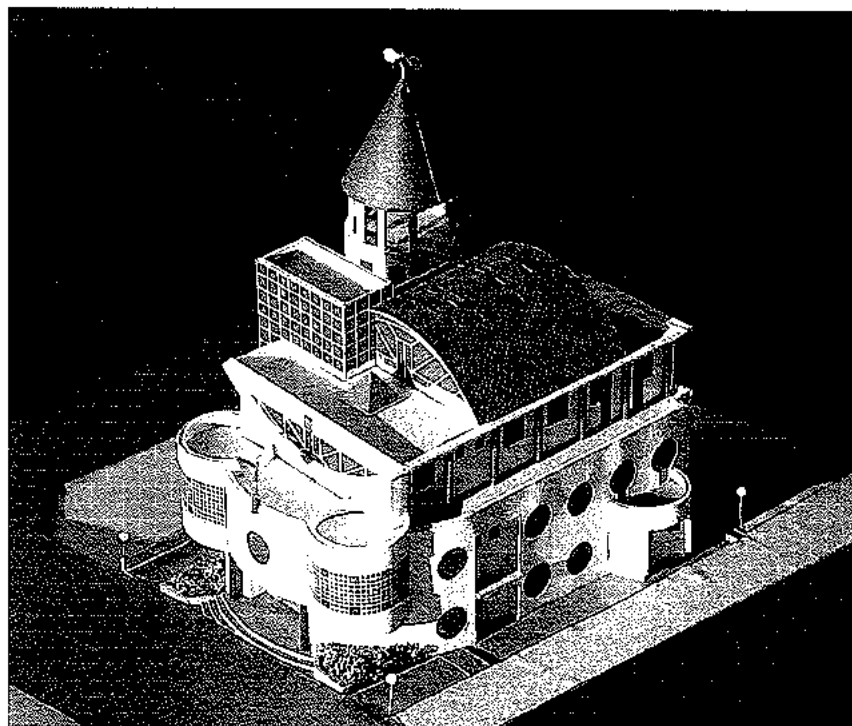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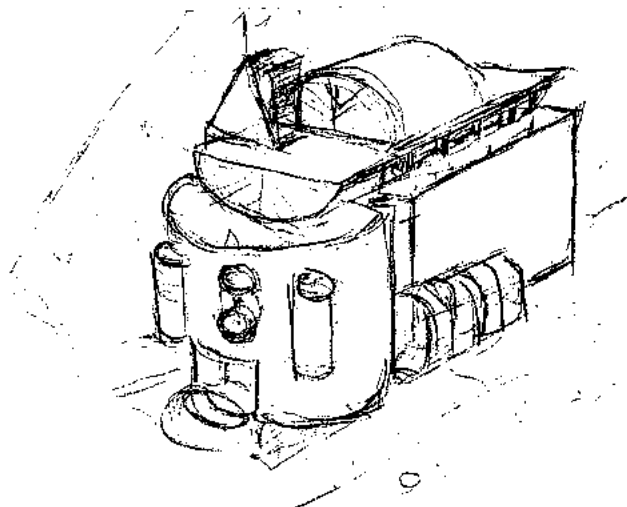




성남 K 유치원

Sungnam K Kindergarten

宋光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Designed by Song, Kwang - Sub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372-2, 3374

대지면적 / 402m² (121.06 PY)

건축면적 / 240.72m² (72.82 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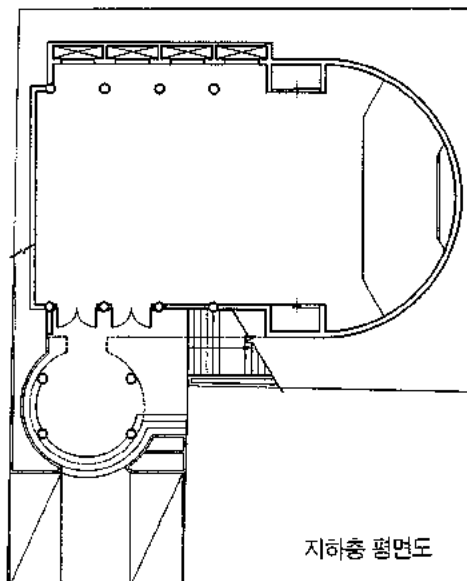
연면적 / 967.28m² (292.60 PY)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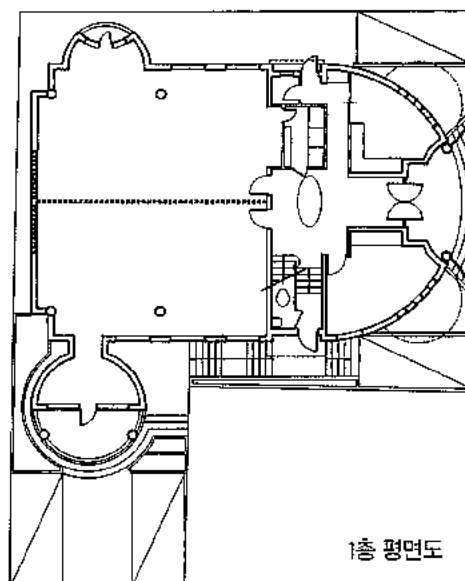
건폐율 / 59.88%

용적률 / 18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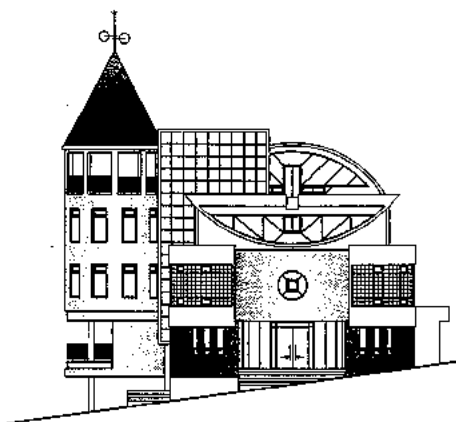
주차대수 / 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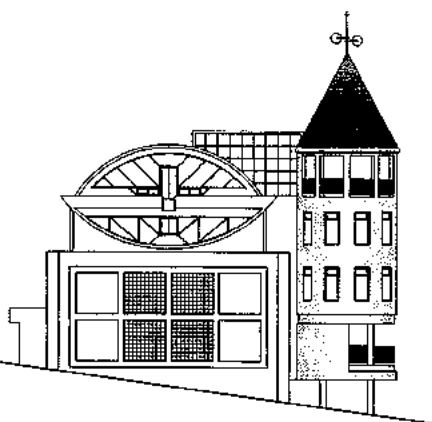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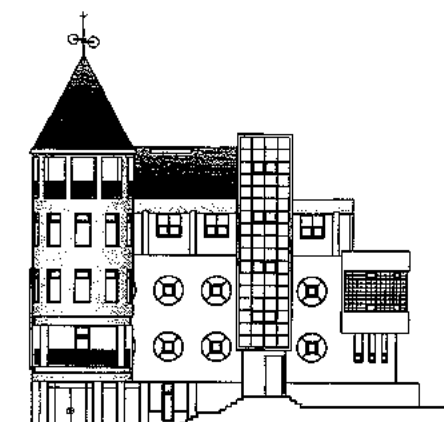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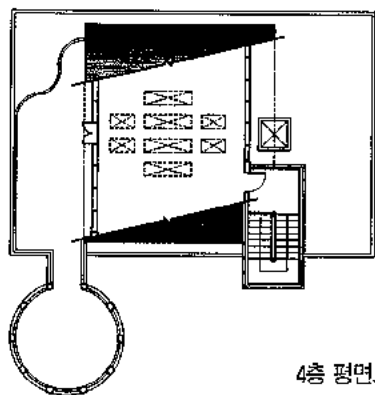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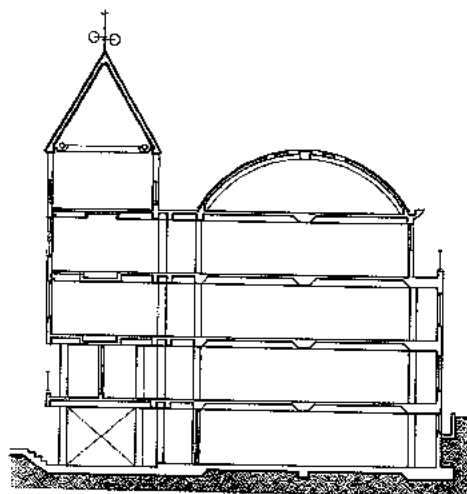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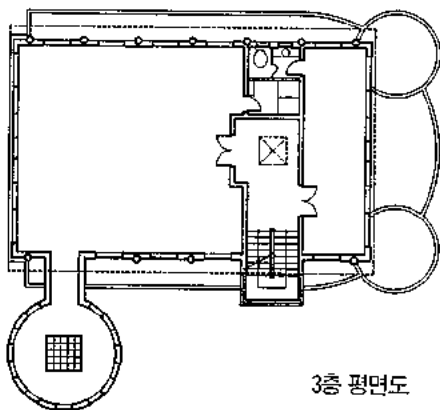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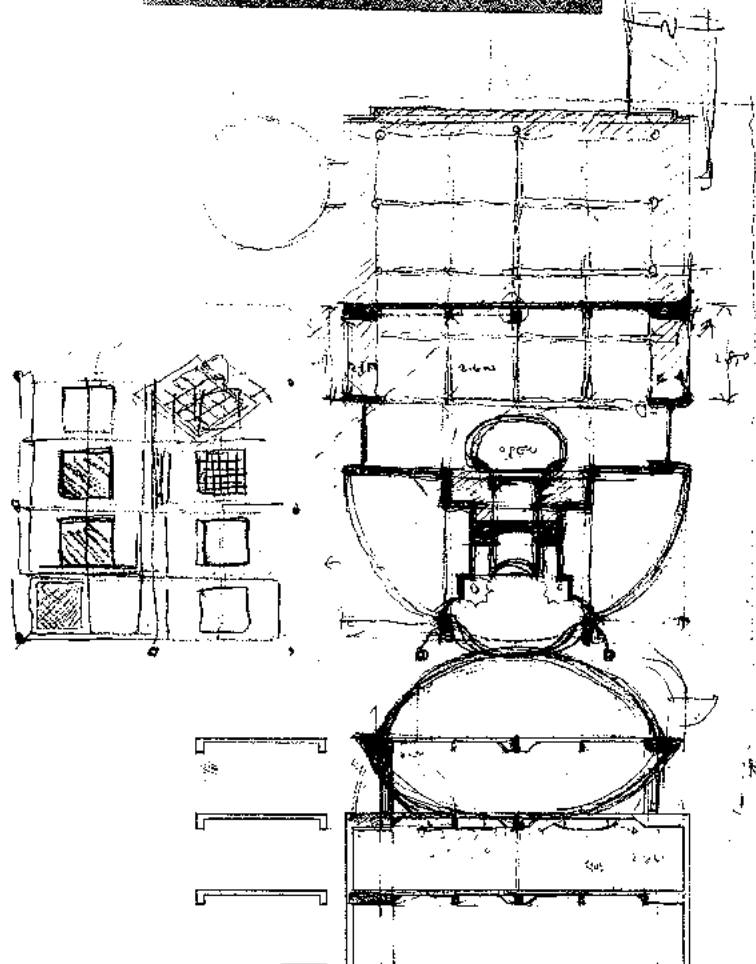
4층 평면도



단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건축 여행

Architecture Travel

金仁喆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by Kim, In - Chul

ESSAY

우리의 일이라는게 어떤때는 참 허무맹랑하게 느껴진다. 판을 벌려놓고 거미처럼 앉아 있으면 오다가다 걸려드는 일을 나 아니면 안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우연도 필연도 아닌 단순히 주어진 땅을 놓고 맥락을 따지고 환경도 살피고 역사를 걸어낸다. 결국 되어질 것은 그렇고 그런 것이 분명한데도 쉽게 착각하고 쉽게 흥분하는게 우리일 이라는 것이다. 이 일을 한것도 이제 20년이 넘어서다. 선배들 틈에 끼어있으면 아직 젊은축에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마흔다섯의 중년이다. 염색으로 감춘 반백의 머리와 처진 아랫배는 그동안의 세월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연필작던 실습생에서부터 지금의 이자리까지 한우물 파는 것이 최선이라 믿고 한눈 팔지않고 살았다. 주어진 일만 꼬박꼬박해내는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낯밤 새우기를 취미로 삼았다. 나를 몰라주는 세상을 탓하기보다 내 모자람을 먼저 생각하고, 까마귀가 더러운 손을 내밀어도 담담하게 마주잡아주며 지내왔다. 아직은 때가 되지않았다고 여유작작하며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다. 주변의 어리석음을 내려간 눈길로 시큰둥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보고있는 목표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에 모이는 뜻맞는 친구들과는 서로서로 거들기에 인색하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요즘같은 불경기에는 집사람에게 물리는 것 만큼이나 친구들이 의지가 된다. 모여앉아 떠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하는 일들에 재미가 돌았다. 여건은 갈수록 나쁜쪽으로만 기울고 어디에도 기대할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싶어도 기왕의 벽들이 너무도 완강해서 깨닫는 다윗처럼되고 만다. 이런때는 시간이 약이란 말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세월만 가라시구려를 흥얼거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기로 한다. 공부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어차피 그동안의 공부도 독학이었으니 계속 혼자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선형자들의 길을 뒤따라 확인해보는 루트를 선택한다.

그래서 떠난 것이 건축여행이다. 그동안 관광여행을 안해본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위해 가는 여행은 이래저래 준비가 많다. 목적지의 선택, 대상물의 선정, 일정계획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보있더니 있더라가 아닌 보기위해 간 것이되기 위해 자료의 수집만이 아닌 예술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가이드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니 그쪽에 경험있는 누군가를 내세운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책으로 모아둔 서로의 지식들이 공개된다. 여기저기서 모여진 지도들로 가이드북이 만들어진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19세기말의 중부유럽건축이다. 작년의 여행에서 만난 루드(Claude Nicolas Ledoux 1736 ~ 1806)가 힌트였다고나 할까 근대건축이 태동되었던 시기를 되짚어보는 시간여행이다. 최신의 것들과 만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여정의 큰 즐거이는 근대의 과정에서 벗어졌던 점점들을 잇는 선상에 두기로 한다. 언젠가 들은적이 있는것 같은 근대건축의 어휘들을 새삼스럽게 공부한다.

모리스(W. Morris)의 「붉은 집」, 아르누보(Art Nouveau) 분리파(Sesession), 데스틸(De Stijl), 등등 알기는 하지만 맥을 잡지못하는 것들이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불경기 속에서도 피서준비로 한창일때 주점주점 채겨든 카메라와 옷보따리를 들고 도망치듯 감포로 떠난다. 직원들 봉급이나마 제대로 주었으면 다행이고 휴가 보너스는 생각지도 못한 마당에 외유란 접연적은 것인데 놀러 가는게 아니란 이유 하나로 용기를 낸다. 같이 떠나지 못한 친구도 여럿이었으니 이래저래 모양새가 말이 아니다. 비엔나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오토 바그너(Otto Wagner 1841 ~ 1918) 분리파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깝지않다. 크림트(G. Klimt 1862 ~ 1918)의 그림과 함께 자신들의 시대양식을 추구했던 분리파 운동의 실체와 접한다. 홀라인(H. Hollein)과 힘멜블라우(C. Himmblau)의 번쩍거리고 뒤틀림이나 훈트트바썸(Hundertwasser)의 눈요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부스럽기까지 하다. 분당을 연상 케하는 벨크분트(Werkbund) 주기단지를 둘러서 슈트트가르트로 행한다. 쥘스부르크의 관광은 어쩔 수 없는 시간소모다. 세계대전으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도시를 옛모습으로 다시세워 놓은 곳이다. 오래전 이곳에 자리잡은 친구를 만나 그의 벤츠로 편안한 시차를 한다. 바이센호프(Weissenhof) 주기단지의 한가운데 미스(Mes V. d Rohe)가 서있고 콜비지에(Le Corbusier)가 있고 샤로운(H. Scharoun) 등등이 있다. 1922년에 이일을 했으니 분당은 정확히 칠십년후이다. 더도 덜도 아니고 그만큼의 시차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영국인 스티링(J. Stirling)의 슈타츠 갤러리에서 우리보다 더 철저히 비워진 둥근 마당과 만난다. 더위가 더 짜증스럽다. 뒷북치기는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내가, 우리가 한심해진다. 하이델베르그를 거쳐 북으로 오른다. 전형적인 중부유럽의 소도시인 다름슈타트에 이른다. 도시의 정점을 이루는 언덕위의 예술인촌을 둘러보기 위해서다. 비엔나의 올브리히가 헷센의 영주를 클라이언트르헤 유겐트스틸(Jugendstil)을 꽃피우게한 곳이다. 대공관, 주택들 그리고 결혼기념관 등이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에 인간의 의지를 더하게 하려했던 당시의 흔적들을 보여준다. 화가였던 베렌스(P. Behrens 1868 ~ 1940)가 건축가로서의 첫걸음을 한곳이기도 하다.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강가를 메운 프랑크푸르트는 한마디로 현대건축의 전시장이다. 웅거스, 마이어, 베니쉬 등등의 얼굴이 있고 최근 완성된 홀라인의 현대미술관은 외관보다 내부공간에서 우리의 기를 죽인다. 벨기에 국경을 넘기 직전에 만난 또하나의 미술관 역시 그의 것인데 독일의 현대건축에 대한 간판으로 홀라인을 내세우기에 우리가 없어 보인다.

브뤼셀에서 다시 세기말의 아르누보 앞에 선다. 빅터오르타(V Horta 1861 ~ 1947)의 호텔 타셀과 뮤제오르타, 어렵게 열고 들어간 내부의 벽과 계단과 천장에는 아르누보의 폭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호프만(J. Hoffman 1870 ~ 1955)의 스토크트

저택은 내부공개를 하지않아 전부를 볼 수 없었지만 비엔나 분리파의 바람이 이곳까지 불어왔던 것을 알게 해준다. 크롤(L. Kroll)의 기숙사와 알마 역사는 이번기행의 주제와 벗어나 있어 확인정도로만 그친다. 처음 발을 딛는 로텔담에서 데스틸의 오우트(J. J. P. Oud), 다음의 유트레트에서 리트벨트(G. T. Rietveld)의 주택을 발견한다. 절대조화를 이상으로 하는 몬드리안의 회화와 이들의 건축을 연결시키는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치 않다. 브롬(P. Blom)의 기묘한 주택들의 옆으로 끼쳐두고 암스텔담으로 간다. 베블라헤(H. P. Berlarge 1856 ~ 1934)의 벽돌조 증권거래소와 크러크(M. de Klerk) 건물들에서 발견되는 조적조의 미학은 우리의 벽돌집보다 성큼 앞서 있다.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에 앞서서 피터스(J. M. Peeters)와 스탬(M. Stam)등의 실험정신이 있었다는 것은 쿨하스(Kem Koolhasse)의 출현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헤이그에서 밤베로 건너간 영국은 피로해진 육체와 무디어진 감각때문에 더이상 자극을 주지 못한다. 늦은 아침식사를 기다리다 조우한 로이드사옥의 기계미학에 질려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여행의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서울의 일들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해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영국이 아닌데 그걸 두나절에 보겠다는 것은 무리니까 나중에 다시 오기로 하고 이만 접어 두자는 의견들이 솟아나지만 국성스런 몇 친구덕에 벤츄리(R. Ventury)부부의 국립미술관 건립과 스텔링의 부고를 들었지만 아 그랬던가 하고 말 정도로 피곤만 쌓였다.

국성스러웠던 더위와 함께 여행도 끝났다. 남은 것은 수백장의 슬라이드를 정리하는 일과 집어들고 온 팜프렛과 책들을 간추리는 일이다. 떠나기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도려놓아둔 자료들을 그 앞에 가서야 허겁지겁 들춰보던 게으름이 재발될까봐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정리해 두려고 서두른다. 하지만, 그간 밀린 일들과 주변이 편안하게 놓아두지 않는다.

나누어 맡은 보고서 쓰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모자라는 자료를 보충하느라 책도 모으고 옛 교과서까지 꺼내본다. 현장에서 읽어내지 못했던 여러가지가 나중에야 드러난다. 올브리히가 마흔하나라도 요절한 체코출신의 건축가였다는 사실도 돌아온 뒤에 책으로 안 것이다.

산업화로 인해 황폐되어 있었던 19세기말이라는 활동무대에서 삶의 생기를 소생시키기 위해 새로운 양식의 추구를 시도했던 그들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20세기말인 지금의 세상은 그때와는 또 다르게 너무 분열되고, 분노에 가득차 있고 오염되어 있어서 예술이 제공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지만 어쩔 수 없다. 해보는 수밖에는...

안타까운 것은 확인을 위해 들춰본 20년전의 옛교과서에 두번째번 밑줄이 그어진 것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 대행업무 확대 실시 이렇게 생각한다

설계 감리 분리 확대 실시에 신중대처를...

崔東奎 /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 - Kyu

건축사 협회에서 주관한 4층이하 2,000㎡미만 건물의 설계 감리 분리 확대 실시에 따른 토론에 참가하여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당당히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하여 그자리에 나갔었고 지금도 그입장엔 조금도 변화가 없다. 단지 4층이하 2,000㎡미만 건물의 설계 감리분리 확대 실시는 이미 건설부에서 법제화 되었고 건축사협회에서 세부시행자침만 만들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빨리 시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법적 뒷받침을 얻어 더욱 기세가 당당하였다. 나는 이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느낀점은 건축사들에게 일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다. 설계진수에 비해 설계할 사람은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단군 이래의 건설호황에서 하루아침에 불황으로 떨어진 건축경기가 피부로 느껴진다. 나는 그자리에서도 피력하였듯이 3층이하 1,000㎡미만 건물의 설계 감리분리가 실시되었던 당시는 특히 소규모 건물에서 건축주의 준법정신이 형편없었던 시절이어서 한단계 더 제재를 가하기 위해 분리실시가 되었었다고 알고 있다. 당당히 나는 이제도를 찬성한 편이었다. 심지어 당당히 내가 설계한 친척의 주택은 아들이 판사인 법조인 집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몇평을 무단 증축하기 위해 가짜벽을 싸놓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적발되어 나도 약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설계감리 분리실시는 오히려 설계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이후 오랜시간이 흘러 소규모의 건물도 성실하고 꼼꼼하게 지어지는 건물들이 증가추세에 이르고해서 먼저 생겼던 제도는

오히려 원래대로 환원되어 설계자에게 다시 감리권한이 돌아갔어야 할터인데 역으로 확대 실시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진다. 확대실시를 찬성하는 쪽의 인식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면 원래부터 설계 감리는 분리되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인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리가 설계의 연장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어떻게 설계가 완벽해서 설사 타인이 감리할 때 잘못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러면 똑같은 자격의 건축사가 하나는 줄지에 피조사자의 입장이 되고 하나는 조사자의 입장이 되는 이 모순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그리고 설계자가 감리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일체 현장을 나가지 않게 된다면 설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점점 모르는 옛날의 감각과 예전의 시공기술과 예전에 쓰던 재료만 가지고 설계를 하란 말인가? 결국 현장도 모르는(설계자가 제일 듣기 쉬운 소리이다) 설계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주어진 설계기간 동안 성실히 설계를 하고 착공이후부터는 준공때까지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설계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100점짜리 건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설계자가 온갖 노력을 들여서 수주한 설계비에서 일정금액을 강제로 지불하게 하여 똑같은 자격의 건축사가 흡사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대한다면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 하나 서글픈 일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은 건축사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흡사 솔로몬 앞에서 한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아이라고 다투는 두여인 생각이 나서 고소를 금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여차피 분리 실시 시행을 당장 안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 이런 제안을 해본다.

첫째, 원칙적으로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감리할 수 있는 권한이 우선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 되든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기술관리법 등으로 해서 건축사의 입지가 줄어들어는 판인데 이리다가 설계만하고 감리는 숫제 하지도 못하게 되는 기상천외의 법이 등장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둘째, 설계자는 본인이 감리를 원하지 않을 때라도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감리를 정말 잘한다고 정평이 있는 건축사를 골라 본인이 설계한 건물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다. 그러면 또 감리건축사들에게도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셋째, 분리실시가 어쩔 수 없어도 감리자는 현장에서 법적인 사항만 체크하도록 하며 그 행위에 적절한 수입료만 받도록 한다.

상기사항이 적절하게 수렴만 된다면 설령 분리실시가 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감한 수임태세를 갖추도록

梁元永 / 건축사무소 신태양
by Yang, Won - Young

현재 시행중인 설계 감리 분리 시행을 처음 제창한 서울 강동구 건축사 협의회는 혁신적인 감리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강동구에서만 시행해 보고자 마련하였던 것이다. 결코 타 지역에까지 확산 시행되리라고는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당시 서울의 건축사 수가 1,000명을 상회하고 있을 때, 1년간 행정 처분을 받는 회원의 수가 1,000건을 돌파하여 우리의 고충은 대단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이 저질 집장사들의 손에 맡겨져 지하실의 웅벽을 시멘트 벽돌로 쌓아 올리고, 단열재는 고사하고 내력벽의 두께도 밋대로 시공하여 도처에서 부실 건축물에 대한 원성이 비등하였던 시절이었다. 감리비는 고사하고 행정처분의 남발로 건축사의 위신과 권익이 지리멸렬하고 있던 한심한 시기에 강동 건축사 협의회에서는 그 자구책으로 강동구에서나마 설계 감리 분리 시행을 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바로 잡아 보고자 서울시 건축지도과를 찾아다니던 기억이 난다.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는 식으로 나오다가 몇차례의 설득력있는 토론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길은 설계 건축사가 아닌 타 건축사가 객관적으로 감리함으로써 만이 그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1983년 3월 1일, 우리의 요구에 의하여 강동구에 한하여 전후후무한 설계 감리 분리 시행 방안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상 처음으로 감리만을 구성하고 건축사를 우습게 알고 있는 집장사들의 콧대를 꺾어 버릴 방안을 마련하여 일사불란하게 믿고 나아가니 그 기세가 대단하였으며, 불과 몇개월만에 지하 웅벽을 벽돌이 아닌 콘크리트로 구축하는 숙원사업이 일시에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단열재 시공을 비롯하여 고질적인 위법 시공의 상당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그 이후 강동구에서는 건축사 행정처분 건수가 거의 자취를 감출 정도로 건축행정 질서가 정립되어 나아갔던 것이다.

당해연도의 시범실시에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한 서울시에서는 이를 건설부에 건의하여 동년 10월 1일자로 서울시 전역에 확대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전국에 이 제도가 보급되어 소규모 건축물의 질적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음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 행정의 개선이외에도, 받지 못하던 감리비를 수령하여 영세한 건축사 사무실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데는 부단한 시행착오와 갈등을 거듭하며 이루어지듯이, 미완한 역사를 가진 우리의 건축관련 제도도 누더기 같은 법 개정의 발자취가 그 어려움을 응변해 주고 있다.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는데 따른 두려움, 위험부담, 이해 득실을 도외시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 누가 최고의 방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400여 회원들의 다수가 바라는 바, 집약된 방안이라면 그 방법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다듬어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이다.

건축사가 자기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준공의 순간까지 감리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는 희망 사항은 우리 회원 누구나 바라는 바이며 지고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소위 집장사들의 시공에서 우리가 작품을 꿈꾼다고 한다면 이는 산에서 고기를 구하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의 현실은 고매한 이상만을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살벌하고 무례한 환경들이 에워 싸고 있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실현을 앞두고 건축행정에서도 그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우리 건축사에게도 건축에 관한 건축관련 심의권, 건축허가권, 조사검사업무를 비롯한 준공권까지도 순차적으로 건축사 협회에 위임하고자하는 연구가 목하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이미 몇 년전에 서울시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임하고자 한 바 있으나, 우리의 수임태세가 부족하고 수임을 거부하고자 하는 여론에 밀려 엄두도 못내고 만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실망, 비애, 자포자기 등 젊은날의 우리들의 꿈과는 동떨어진 현실에 얼마나 많은 실망들을 하였던가. 건축사가 젊은 자식같은 공무원들에게 아부를 떨어야하는 우리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나아가야 하나? 각종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하는 건축행정에 우리가 초연할 수가 있을까? 어렵도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설계 사무소의 문을 닫아 걸기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처절한 괴리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구책에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때는 놀랍기만 하다. 정부가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행정제도 개선차원에서 모든 권한을 준다고 하여도 수임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앞날은 캄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정령에 의하여 2,000㎡이하, 4층 미만의 건축물이 조사 검사업무 위임 조정이 상향조정되었지만 차후에는 또 한차원 높은 범위내에서 상향조절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다 정부가 우리에게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하나 우리 협회가 수임능력이 없어 갑론을박만 한다면 이는 우리 회원들의 크나큰 불행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당국의 과감한 권한 이양 정책에 발맞추어 과감한 수임태세를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건기법 등의 권익침해 사항에 총력을 기울여 대항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상설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체계있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향 조정된 1,000㎡이상 4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감리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결코 예술성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자는 감리에 어떤 형태든지 참여해야 한다

金瑛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by Kim, Young - Sub

약 한 주일전 쯤인가 우리 사무실에 실패 점점이라는 명목으로 중랑구청 건축직 공무원 두분이 조사차 내방하였다. 그분들 손에 들려 있는 점점사항은 주로 건축사 면허 대여, 건축사보의 등재 여부 등의 건축사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 내지는 양식 비치여부 확인이었으며, 소위 부조리 척결차원에서 관할 구청을 바꾸어가며 시행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가끔 이러한 방문은 나를 매우 당혹하게 하고 심한 모멸감에 빠지게 하는데, 이것은 압회시나 건축사 대회때마다 등장하는 “소위 부조리 척결에 앞장선다”라는 구호와 오버랩되어 더욱 좋지 않은 기분이다.

사무실을 떠나기 전 조사 공무원은 나중에 올해 설계 감리 수급대장을 내놓으라고 내게 말했는데, 나는 그 순간 더욱 창피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올해 설계 수주 계약이 전무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공동 감리단을 1986년 첫 시행년도에 한달을 하고 나서 탈퇴한 경험이 있는데 공동 감리업무는 내가 설계해서 내놓은 자식 기르느라 너무 바빠서 남의 자식 맡아 키울 처지가 못되어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 가난한 살림에 남의 아이라도 대신 맡아 키워 생활비에 보태 쓰겠다고 위탁양육비가 많은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겨다니는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큰 소리로 꾸짖는다. “建築士の‘士’字는 ‘선비 士’字일세!”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한다는 것 그것도 한사적으로 거의 무료로 한다는 것은 세상이 웃을 노릇이고, 소도 웃을 노릇이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의 건축사가 지적도의 확인과 지하매설물, 도로 경계나 고저차의 확인 업무를 무한 책임을 지고하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또 세계 어느나라 행정부서가 이 업무를 민간 단체에게 위임하는 법이 있단 말인가. 아무리 능력편의주의 발상도 좋고 책임전가 발상도 좋지만, 공공기관이 해야 할 소위 고유업무라는 불가침, 불양도성의 영역이 분명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장 조사업무는 당연히 정부기관이 한다. 그것도 말썽의 소지 없이 철저하게! 재료의 품질보증, 부분별 시공의 인증은 각종 협회의 인증이 선행되고 시공감리를 위하여 검사기관 내지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별도 선정 계약한다.

즉 건축사가 하는 일은 고유의 업무인 설계의 보완, 설계 변경 등 주로 디자인에 관한 일인 것이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일 경우 이상의 일들을 총괄하는 General Contractor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경과 월권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무한 책임을 지거나 하지 않는다. 본인은 이번에 제기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문제는 사실 그 이면에 감리제도 개선 문제라는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문제 제기이거나, 적어도 설계 감리를 분리시키기 위한 누군가가 던진 낚시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므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건축사 대행은 ‘절대 불가’로 붓을 박고 소위 감리제도 개선 문제의 복마전으로 넘어가야겠다.

허울좋은 감리제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양육권 포기 내지는 자기 자식버리기 캠페인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1985년 6월 15일 건축사법 시행령 5차 개정 중 규칙 제 18조 1항이 1992년 6월 1일 9차개정을 통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지금까지 법적 근거없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각 분소의 공동 감리단이 시행하여왔던 공동 감리수주 및 실시 업무를 4층 이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건물(실제 건수의 93%가 이에 해당된다) 모두에 확대 적용시키자는 발상에 그 근원지를 두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 23조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만을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나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양육비에 눈이 어두운 인사들이 이 규정을 1985년 때와 같이 확대 적용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건축주가 양육비(감리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부 쪽에서 보면 아이(건축)를 어머니(건축사)와 아버지(건축주)가 불법으로 낳아 부실하게 키울 우려가 있는 소규모 서민용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경우 대부분 건축주는 실수요자라기 보다는 영세 주택 시공업자이다)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감리단을 사실상 묵인해 놓은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발상이고,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발효될 때는 어차피 슬쩍 치워버려야 되는 부끄러운 시행과정 상의 편법인 것이다.

이 과정 중 남의 아이 키우는 양육비에 맞을 들인 대리모들이 이번 개정 건축법의 개연성을 빌미 삼아 설계감리를 본격적으로 분리하여야 겠다고 양케이트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공세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감리단 인원이 전체 회원의 37.2%인 631명(1992년 기준)이고 소위 설문조사자는 전체회원의 50%에 국한, 그 중 46.8%의 지지를 받았으니 결국 전 회원의 1/4의 찬성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를 마치 전체 회원의 의견인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잠깐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나처럼 1년 내내 쫓쫓 굶는 사람의 말도 잠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첫째, 양육비에 눈이 어두어 이 일을 꼭 추진하려면 몰래 숨어서

현행 감리제도의 조속한 확대 실시를 ...

李京鎬 / (주) 제일 건축사사무소

by Lee, Gyeong - Ho

하기를 바란다. 외국에서 보면 웃을 일이고, 국내에서도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일이고, 건축주들이 이 내용을 알면 겨우 최소한의 법규정 준수 여부만을 검토하는 감리 업무가 뻔히 예상되는 터에 총 용역비의 25%를 편한 마음으로 내놓겠는가?(2,000m²의 평균 감리비는 7, 8백만원이 될 것이다.)

둘째,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애비가 양육비를 주던 말던 내 품에서 키우겠다는 가혹한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먼저 돌려주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설계자가 부탁하여 위임한 감리자를 1차로 지정하고 이 경우도 불가능한 경우 공동 탁아소가 맡을 일이다.

셋째, 일부 분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감리단의 적립금이 분소 신입회원에게 입회금으로 수천만원 대에 이르게 되어 신입 회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고 있으므로 만약 이를 계속 시행하려면 감리단 적립 및 분소 입회비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위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발상이 우리나라 건축사 현장 "건축은 조형 창작 예술품"이라는 대 명제를 유지하는 모든 권리 즉 저작권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 법의 건축관련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실제 작품을 한 상태로 유지하는 권리 즉 동일성 유지권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즉 설계 감리 분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다섯째, 무릇 모든 일에는 원칙과 정도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은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신의 명예라는 제살을 깎아먹고 독초를 양식이라고 먹고 히기를 면해 보려는 즉 너무 굶어서 헛것이 보이는 기아선상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소득의 평준화는 됐으며, 하향 평준화라는 결과였기 때문 아닌가?

본인은 지금까지 건축사를 생활수단으로써 보다 건축문화를 구축하는 일단 명예와 긍지의 자격으로 우선 생각하여 왔다. 선배들이 각고 끝에 마련한 이 명예스러운 일터에 한짐 오점을 더하지 않기를 소망하여 왔다.

하여 십년동안 문전 옥답을 팔고 버티면서 세끼를 올리지 않는다는 선비정신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는 우리 시대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가 우리의 행동과 양식을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현행 감리제도는 우리 건축사에게 4층이하 2,000m²이하의 건축물을 조사, 감사 및 확인하는 업무가 부여되도록 법제화됐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만 가지고는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수납하지 못한 많은 부분의 감리비를 전액 수납하며, 감리비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행 대행 건축물 감리제도를 확대 실시(건축법시행령 개정 92. 5. 30) 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현행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경우, 교환감리로 인하여 건축주와의 담합이 배제되고, 기술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져 부실설계가 감소된다. 또한 창구의 단일화로 덤핑행위가 배제되고, 더욱 노력하는 건축사상이 확립될 수 있다. 반면에, 창작 예술작품을 타인이 감리한다는 모순이 생기며, 설계자와 감리자의 마찰이 일어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 그리고 예상되는 업무는 최근 2년간의 도서신고현황으로 보아 현행 감리 업무외에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며, 아울러 현재인원으로는 업무과다 현상 및 부실감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적정인원의 증원편성이 필요하다.

현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감리제도에서, 더욱 더 질적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현행 건설업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형건물 건설업 면허도입이 긴급한 상태이다. 둘째로 주택난 해소에 큰 몫을 하는 반면, 환기와 자연배수 등의 문제점이 많은 지하층 설치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로 현재로는 전혀 가치없는 종합사무소의 일원화 조직을 폐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 계약시에는 연대 계약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동안 상호 교체 감리로 인하여 기술 교환 및 부실 설계 감소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설계·감리 보수율의 현실화, 과당 경쟁 방지로 건축사의 품위제고 등을 도모한 현행 감리 제도를 10년간 운영한 결과 많은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누차 보완되어 왔고, 그 결과 불법·위반 건축물이 현격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살려 현행 감리제도의 법에 정해진 2,000 m²이하 4층이하의 모든 건물(아파트 제외)의 감리업무를 확대·흡수·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冷暖房負荷 上限制 실시에 부쳐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energy Budget Level System

孫炳錫 / 건설부도시국 건축행정과
by Son, Byeong - Seok

FEATURE

정부는 지난 8. 13 사무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하여 延面積이 3,000m² 이상인 오피스 빌딩 (연구소 · 오피스텔 등 에너지 사용행태가 오피스 빌딩과 유사한 건축물 포함)의 설계에 冷暖房負荷 上限制를 적용토록 한 바 있다.

冷暖房負荷 上限制란 어떠한 건축물의 냉난방에 쓰이는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량의 상한치를 규정하고 건축설계를 할 때 일정 방식에 따라 계산될 수 있는 냉난방부하가 이 상한치 이내로 들어 오도록 설계내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냉난방에 쓰이는 에너지는 결국 건축물의 外皮(외벽 · 지붕 · 바닥 등)를 통하여 손실 또는 획득되는 열량과 동일하므로 외피의 에너지 성능이 강화 또는 완화되도록 설계함으로써 냉난방부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建築法令의 에너지 절약 시책은 외피의 斷熱基準, 출입문 · 창문 등 開口部の 氣密性 기준 등 부위별 기준에 치중하여 에너지절약설계의 합리화 · 최적화를 기하기 어렵다고 지적되어 왔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어 그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는 설계자의 창작성을 지나치게 압박할 뿐 아니라 설계내용에 따라서는 기준의 강화가 절약성능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순점도 안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종의 성능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冷暖房負荷 上限制는 규정된 성능기준 내에서는 斷熱材 두께, 窓面積比, 向 및 형태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설계자의 전문능력을 상대적으로 덜 속박하게 되어 설계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정책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절약성능이 일정 기준수치로 표현되어 이를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지 바라는 만큼 에너지가 절약되는 구조로 지어지게 되므로 기준과 실제의 성능이 부합되고 건축설계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冷暖房負荷 上限制는 기존 부위별기준에 비하여 보다 선진화된 에너지절약시책이라 할 수 있으나 負荷 計算方法의 난해성, 기준 수치의 신뢰성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하여 설계시 적용이 어렵고, 제도의 실효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冷暖房負荷 上限制가 안고 있는 시행상의 애로에 근거하여 동 제도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시기상조의 시책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정부가 이를 서둘러 실시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상황이 그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근래 국내 에너지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전반에서의 特斷의 대책을 요하고 있다. 70년대 말의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며 80년대 전반기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4.5%수준을 유지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86~'90 5개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6%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는 근래들어 더욱 심화되어 '90의 경우 14.1%, 올해 상반기는 15.2%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GNP 증가율에 대한 에너지소비 증가율의 비인 에너지소비의 GNP 彈性值(單位財貨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에너지 양의 증감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에너지의 소비 · 이용행태가 효율화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88까지 0.7~0.8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에 비해 '89부터는 1.0을 상회하는 1.2~1.5의 수치를 기록하여 과소비 추세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92. 4. 30)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전체 에너지소비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건축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추정할 수 있는 가정 ·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80년대 전반기에는 전체 증가율 4.5%보다 높은 5.3% 수준이었으나 建築法令上

에너지절약제도가 강화된 '85를 기점으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전체 증가율 10.6%에 훨씬 미달되는 3.8% 수준으로 낮아지고 특히 '91에는 -1.3%를 기록하는 등 소비증가에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단열성능 등 건축물의 기본적인 품질이 점차 향상되고



냉난방부하 상한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에너지상황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여러 제도 중 건축물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냉난방부하 상한제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능기준 및 평가기법 등을 계속적으로 마련하여 설계시 편하고 그 건축물에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설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있기 때문이며 관계법령에서의 에너지절약제도가 강화 시행되고 있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소비증가는 관련제도의 절약의지·규제기법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건축물은 한번 지어지면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일단 결정되면(건축되면) 그 구조의 변경이 기술적으로 극히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게 되어 처음부터 최선의 에너지절약적 구조로 설계·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 사용기간 내내 유지관리비의 累積損失을 입게 되거나 구조변경에 따르는 막대한 증복부자를 감수하여야 하는 私經濟 주체의 개별적 손실뿐 아니라 그러한 건축물이 반복적으로 지어질 경우 전 국가적 측면에서도 에너지 이용효율의 저하, 에너지수급의 차질 등 여러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建築設計를 최적의 에너지절약형으로 하도록 관련제도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취약한 부문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건축물의 특성에 기인한 건축물 에너지절약제도의 원론적 중요성 외에도 현재의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우려가 근래의 통계치에 나타나고 있어 관련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즉, '91까지의 안정된 건축물에너지 소비추세가 '92들어 상반기에는 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는 바, 이는 200만호 주택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결과로 입주 주택의 절대량이 증가한 점과 국민의 생활양식이 에너지 다소비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향후 신도시 입주기구 등 주택수의 절대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므로 特斷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총량이 급격히 증대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에너지수급에 큰 부담을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몇가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법은 크게 나누어 건축물 자체에서 요구되는 에너지량을 감소시키는 건축적인 방법과 설비·기계·기기 등의 에너지효율을 증대시키는 기계·전기적 방법이 있으며 이밖에 실시되는 냉난방부하 상한제는 이 중 전자의 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냉난방을 할 때 요구되는 에너지를 일정 범위내에서 묶어 에너지 과소비적인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후자의 기법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금년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반영된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를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冷暖房負荷 上限制는 우리가 처해 있는 에너지상황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여러 제도 중 건축물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가 정착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冷暖房負荷 上限制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성능기준 및 평가기법 등을 계속적으로 마련하여 설계시 편하고 그 건축물에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설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전문 연구기관의 철저한 연구와 검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함으로써 에너지절약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冷暖房負荷 上限制의 성공적 실시여부는 설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大韓建築士協會 등 유관단체는 冷暖房負荷 上限制의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의 정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고 建築士·技術士 등 관련전문가는 동 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기법을 조속히 익혀 설계시 반드시 적용함과 아울러 설계과정에서 동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이 즉각 보완하고 향후 개선대책에서 참고하여 보다 나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를 관계당국에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모색하는 현장—정책 직결방식의 에너지절약 협조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고 감히 생각하여 본다.

한옥 설계의 방법론적 고찰(I)

A Methodological Study of the Korean Traditional Residence Planning

REPORT

張順鐘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탑
by Jang, Soon - Yong

1. 서언

나날이 새로운 건축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건립되는 과정을 길거리 곳곳에서 경험하게 된다. 차창을 통하여, 또는 길을 걸어가면서 새로운 건물을 보면서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어떠한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재료를 선택하고 외관을 꾸미는 방법이 채택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에서는 에너지절약을 홍보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빌딩 전체를 유라·돌·금속판 등으로 도배하면서 개폐되는 창은 근소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물의 계단실은 웬만하면 화강석으로 반들반들하게 깔아 자신의 발디딤에 소리에 불편한 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축주를 위한 것인지 사용자를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지나쳐가는 행인의 시각을 고려한 것인지 논리적인 고리가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겠다. 마련이다. 한옥을 저론하면서 엉뚱하게 현대건축을 서두에 올려놓는 이유는 현대에 살면서 과거형태의 한옥을 어떻게 현대적 생활방식의 한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아직 연결되지 못한 고리가 많기에 현대건축은 어떠한가를 넘겨다 보는 것이다.

전통적인 한옥을 놓고 공간구성과 양감, 질감, 색채감 등의 서구식 분석기법에 의한 평가는 수준급으로 설명되지만, 실제 설계과정에 들어서면 연결되지 못한 사고의 고리가 늘 문제로 대두된다. 생활의 설비나 질이 과거와는 현격하게 발전되었으므로 옛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개념적인 논리는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한옥에서 동선을 편리하게 되도록 기단을 제거하였다면 한옥이라는 심리적인 개념이 성립될 것인가. 또는 한옥에서 창을 현대적인 유리창으로 만들었을 때 느껴지는 어색한 감각을 여하히 해소시킬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개조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기능면과 개조를 거부하는 심리적 형태면과의 상충되는 고리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의 과제는 많은 시행착오의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와같은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복구조로 이루어지는 한옥에 대해서 몇가지의 예를 살펴보면 설계시에 필요한 기본적 상황과 배경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계획시의 응용과 판단의 점검사항을 노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한옥이라는 개념도 조선시대 말기에서부터 현대까지 남아있는 살림집중에 격식있는 기와집을 주요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2. 목재의 수종과 구조적 특성

1) 수종의 선택

한옥의 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로는 과거에는 소나무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국내산의 공급이 격감되고 대신에 수입목으로 대체되고 있고 수종도 다양하게 선택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목의 건축적 특성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됨으로 한국의 기후조건하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한옥의 건축에는 관념적으로 이땅에서 성장한 목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내산의 수종의 특성과 유사한 수입목을 사용하는 것이 차선택이 되겠으나, 연구조사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수입목의 사용으로 야기된 몇가지 문제점의 예를 들어본다.

① 목재의 과도한 갈리짐 : 대부분의 목재가 건조수축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 있으나, 그



1

정도가 지나쳐 보나 기둥의 표면이 3cm 내외로 크게 벌어져 속살이 들여다 보이고 목재의 맞춤부위를 이완시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속성으로 자라는 수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해오는 얘기로는 기둥을 세울때에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자랄때 남향하여 성장한 쪽을 남쪽으로 배열되도록 치목하여 세우면, 그러한 갈라짐이 없다는 세심한 경험론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겠다.

② 강도 부족 : 기본적인 압축력과 인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육송같은 하중이 과도하면 휘어져 내리면서 손상을 예고하여 주는데, 수입목을 사용한 서까래가 공사한 지 일년이 못되어 별안간 처마가 모두 부러져 나가는 경우를 본 일이 있다. 또 주두나 소로와 같은 작은 부재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목재의 인성이 약한 경우이다.

③ 송진의 과도한 유출 : 목재가 건조하면서 함유한 수지를 유출시키는데 몇년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에는 표면의 칠을 손상시키거나 손이나 옷을 더럽히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수종이 한국의 기후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심한 부식 : 기후에 적당치 않아 곰팡이 등의 부식이 유난히 심해서 목재의 표면을 얼룩지게 하고 나무가 썩는 경우도 있고, 해충에 약해서 나무의 속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예들은 육송의 경우에도 없지는 않으나 심하지 않은데, 기후에 적합치 않은 수입목을 사용하여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수종의 선택시에 고려되어야

- ① 청도 운강고택 사랑채
- ② 이항로 선생 생가 행랑채 (1984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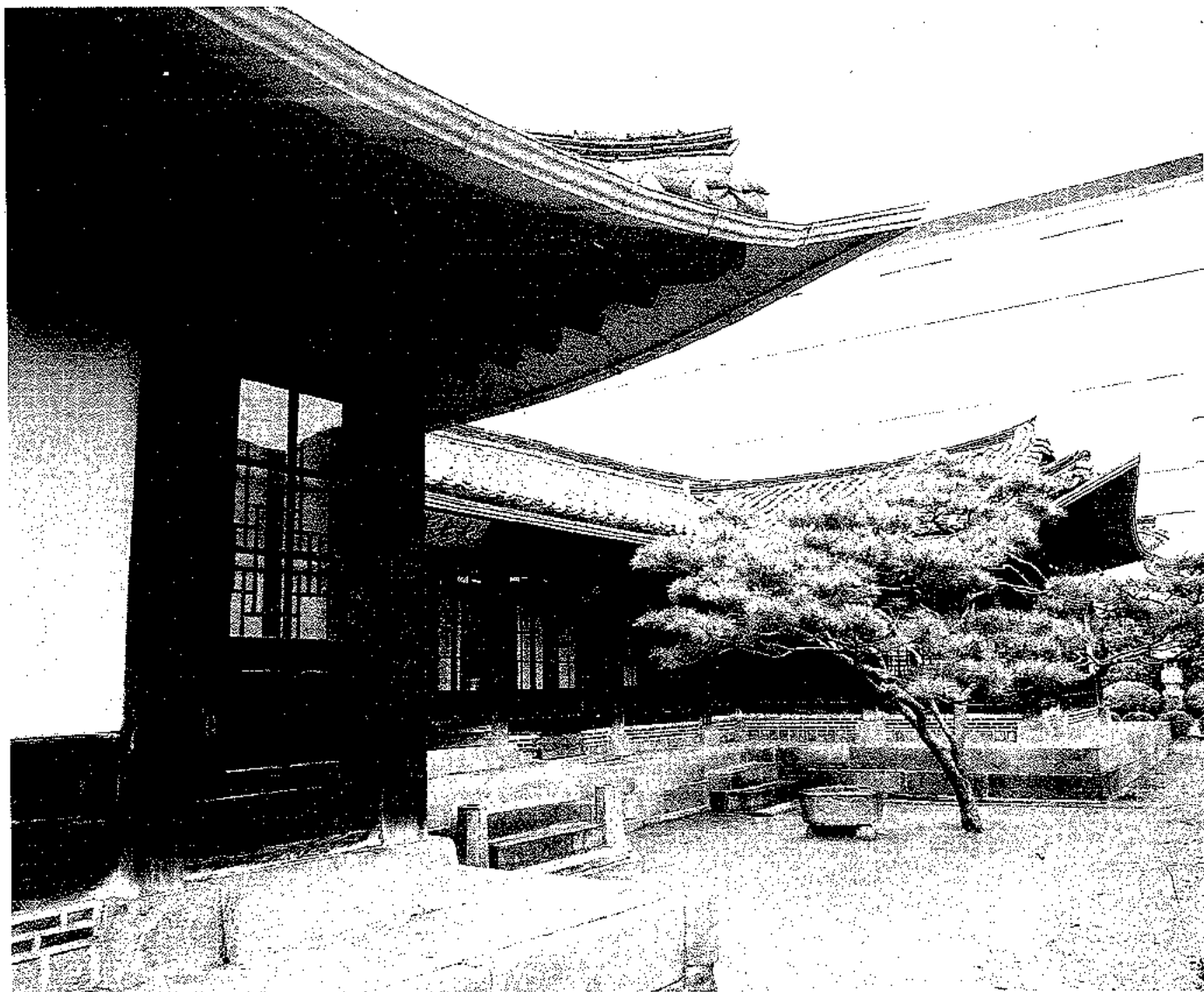
하겠다.

2) 허용응력도

건설부제정의 「목구조 계산기준」에서는 목재의 허용응력도를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서양식 목구조인 트러스 등의 세장한 부재의 허용응력 계산에는 적당하나, 한옥의 경우에는 섬유직각방향의 압축력과 전단력의 적용시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대들보의 일반단면은 충분하여 휨응력에는 여유가 있으나 기둥과 접합되는 부위에 이르면 단면적이 급격히 축소되어 계산상으로는 전단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옥의



2



대들보와 같은 부재에 적용할 허용 전단응력과, 주두와 같은 부재인 섬유직각방향 압축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할 허용압축응력 등은 실험연구에 의하여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점차로 생활공간이 넓어지는 추세에 따라 한옥에서도 대들보의 스판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단면설정시에 조심하여야 한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면 유각한 방향으로 맞춤의 디테일을 변경시키거나 철물로 보강책을 사용하여야 된다. 일반적으로 한옥에서의 기둥단면은 압축응력상으로는 3~6배의 여유가 있으나 보와 도리 등의 접합부위에서 별도의 철물을 사용하지 않는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유가 많지않다.

3. 평면계획

현대적 설계의 관점에서 보아 평면계획이라 하였는데 한옥에서는 간살잡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 단계에서 구조계획과 입면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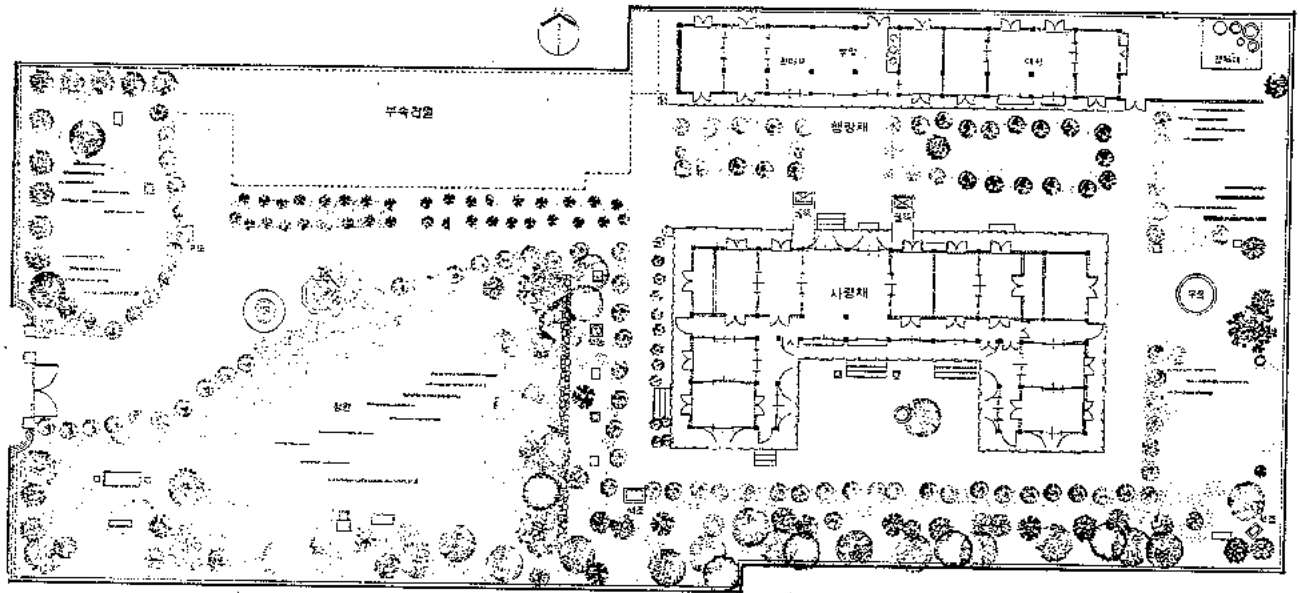
그간의 학술적 연구에 의해 지역에 따라 건물평면이 一자, ㄱ자, ㄴ자, ㄹ자 등등의 예가 분석되고 있다. 평면형태가 다르게 분화되는 배경에는 신분계급의

차이에 의한 것, 산간지방과 평야지방과 같이 지역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 사회경제적 활동의 내용과 범위에 따르는 문화적 환경의 차이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여건은 현대에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지와 주변의 건축적 상황에 따라 적당한 것으로 선택되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패쇄적인 ㄹ자형태를 선택하는 예는 아주 드물고 ㄱ자 또는 一자 형태의 평면이 근래에 주로 선호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방과 대청과 부엌의 세가지가 평면구성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었으나, 이제는 부엌의 개념이 달라지고 대청에도 창호를 설치하게 되어 완전한 실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또한 남녀의 구별도 사라지게 되는 상황의 변천으로 외관을 한식으로 하되 현대적인 살림살이에 편리하게 만들라는 주문을 받기 쉽상이다.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여 온돌방의 난방을 하게 되었으므로 불아궁이도 온돌 고래도 필요없게 되었으나, 따끈한 아랫목이 그리워질 때를 대비하여 방 한칸은 재래식으로 만들라는 주문을 받을 경우도 있다. 기능적으로는 현대적인 시설을 하므로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심미적 또는 심층적 가치관에서는 아직도



제거할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가치체계의 혼돈은 접어두고 한옥의 평면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보통은 주택의 규모를 평수로 설정하는데 한옥에서는 몇 칸(間) 집인가로 규모를 설정한다. 물론 같은 칸수라도 면적은 달라지지만 목수들이 재료를 마련하는 방법에서는 면적보다 칸수가 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정면 6칸에 측면 2칸반이면 15칸집이 된다. 보편적으로 8자 사방을 한칸이라 하므로 15칸집이면 26평 내외의 규모가 된다.

한칸의 크기가 8자 사방이 된다는 것은 이 규격이 누대로 내려오면서 경험적으로 합리적인 척도로 인정되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의 건축규제에 의한 제한과, 재료사용상의 경제성, 인체치수와 어울리는 규격 등의 여러가지 면에서 합리적인 척도로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내에 가구가 별로 없던 좌식생활에서는 8자 규격이 합리적이었으나, 책상과 응접세트 등의 현대식 가구가 등장하면 점유공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튼 규모설정에서 안방 몇 칸에 건너방 대청 그리고 툇마루의 칸수를 정하면 함께 몇 칸집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여기에 지형에 따라 동편이나 서편에 1자로 꺾어서 누마루의 칸수가 부가되면 규모있는 건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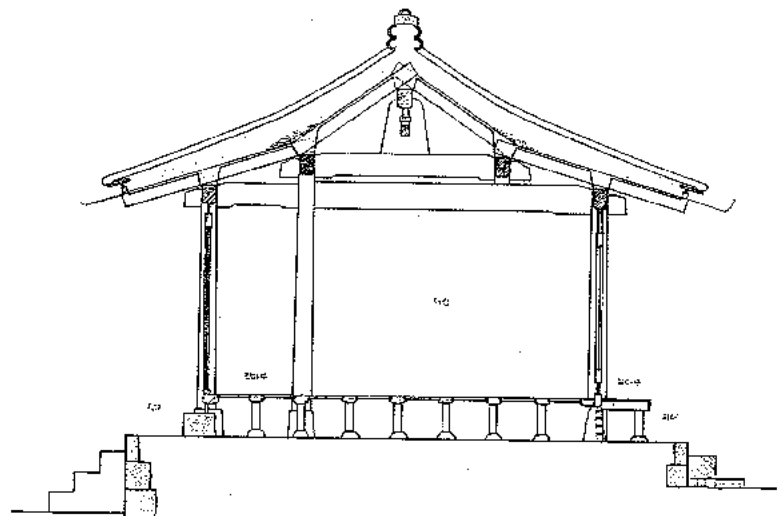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대청이 건물의 중앙부에 설치되는데 이곳이 응접실도 되고 작업장도 되는 다목적 개방공간이 되는 것이다. 대청의 구성은 정면에서 보아 1칸 내지 3칸의 범위로 잡게 된다. 간혹 홀수를 선호하는 관습때문에 대청의 전면칸수를 홀수칸이어야

④ 김승현 가옥 배치도 ⑤ 김승현 가옥 단면도

한다는 요구를 할 경우도 있으나 짝수칸의 예도 많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지 홀수 짝수 개념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그러한 선호도를 만족시키려면 규모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건물의 측면 칸수는 규모에 따라 1칸에서 3칸까지의 범위로 사용되나 보통은 2칸, 1칸반, 2칸반의 순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으며, 이 측면칸수의 설정에 따라 지붕의 도리배치가 달라지게 된다.

측면 칸수가 2칸 이상이면 대청에 고주가 들어서는 예가 많은데 이것은 고주열에 분함문이 설치될 경우가 많다. 약간 고급스런 구조이다. 요즈음은 대청에도



외측에 창문을 설치하여 외기와 차단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대청의 전면은 개방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옥의 개량주택에서는 대청에 亞字형 창살을 짜고 유리창문을 만든 모습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창문을 대청 전면부에 설치할 것인가의 여부가 설계시에 정리되어야 한다.

측면칸수의 범위가 제한되는 이유는 지붕구조에서 대들보의 길이가 길어지는 구조적 제한 때문이다. 대들보의 단면산정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므로 생략하고, 현존 건물에서는 경복궁 근정전의 스판이 10.65m(약 35자)로 정상적인 보의 스판으로서는 최대규모가 될 것이다. 근정전의 정밀실측도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실측한 도면에 의하면 보의 단면이 90×69cm로 되어있다. 이와같은 대들보를 만들려면 원목의 최소직경이 1.1m는 되어야 하고 길이는 12m가 되어야 한다. 원목자체의 중량만도 이림잡아 6톤 가량의 엄청난 것이다. 스판에 대한 보충의 비례는 1/11.8로서 통상적인 목구조에서 사용되는 1/12비례가 된다.

기둥의 도리방향 간격은 근정전에서 6.86m가 있으나, 다포구조이므로 제외한다면 경복궁의 경희루에서 6.16m(약 20자)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순수한 한식 목구조에서 기둥 스판의 한계는 도리방향 20, 보방향 35자라고

⑥ 김승헌 가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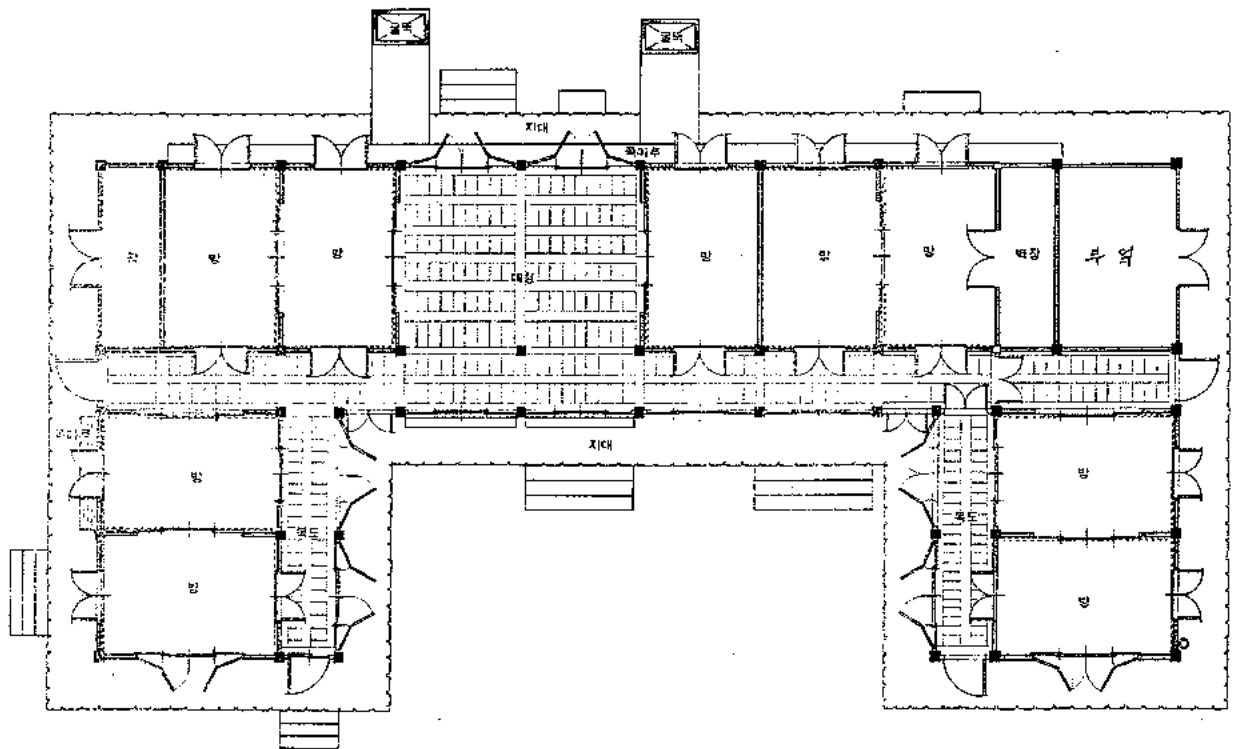
하겠다. 주택에서 이와같이 큰 스판이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스판이 커질수록 단위면적당 목재 소요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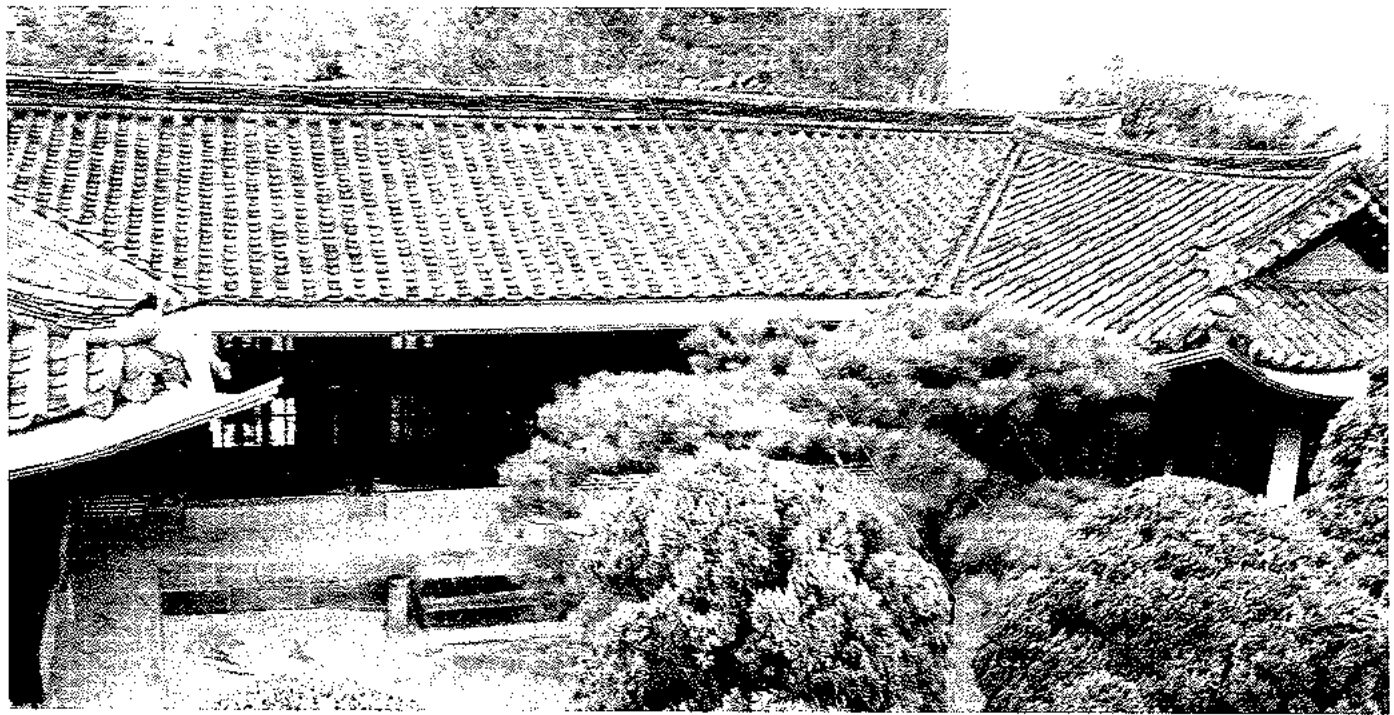
4. 주택 - 운니동 김승헌가옥

서울시 민속자료 제 19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종로구 운니동 114 - 9번지에 소재하고 조선조 말기에 파란만장한 생애를 지낸 홍선대원군이 살던 운현궁에 부속된 별당건물이다. 건립년대는 조선조 말기라 하였는데 고종이 즉위한 후운현궁이 크게 공사되는 기록으로 보아 1864년에서 1870년間に 건립된 것으로 본다면 지은지 120여년이 되었고, 부분적으로 개수된 곳도 있지만 원형이 잘 남아있는 건물이다. 현재는 개인의 주택이 되었지만 대원군 시절에 붙였던 당호인 영로당(永老堂)이라는 편액이 현재에도 걸려있어 운현궁의 노안당(老安堂), 노락당(老樂堂), 이로당(二老堂)의 당호와 같은 돌림자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살림집과 종류가 다르지만 8자칸의 모듬을 사용한 건물이므로 평면구성의 기본을 살펴보기에 적당한 예가 될 것이다.

평면형태는 ㄷ자형이나 좌우에 돌출된 날개부분을 제거하면 一자형 평면이 되면, 다시 좌우의 칸수를





조정하면 여러가지의 응용평면을 구성해 낼 수 있는 건물이다.

건물의 정면은 9칸 길이에 측면은 방 1칸반에 뒤편 반칸의 두칸이 기본이 된다. 여기에 좌우에 날개채 두칸이 부가되고, 날개채의 방 규모도 1칸반에 뒤편 반칸으로 두칸 폭이 된다. 따라서 이집은 26칸집으로 46평 정도로 규모가 큰 주택이다.

2칸 폭의 대청이 중심이 되어 동편으로 온돌방 3칸과 벽장 반칸에 부엌 한칸이 있고 부엌의 상부는 다락이 된다. 대청의 서편에는 온돌방 2칸과 광 반칸이 있어 서편방의 불아궁이 이곳에 시설되었다. 동서의 날개부에도 각각 방 두칸이 대청으로 배치되었으며, 뒤편은 모두 반칸폭(4자)로 구성하였다. 이 평면에서 방 2실이 한 조로 구성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두 방의 사이에 4짝의 장지문이 설치되고 이 문을 활짝열면 큰방으로 변환되는데, 대청 동편방은 가장 동측에 있는 방이 상방이며 아랫목이 되고, 서편의 방은 가장 서측에 있는 방이 상방이 된다. 손님이나 친척이 방문하면 신분에 따라 대청, 앞방, 상방의 순서로 접근할 수 있게되며, 친밀한 관계일수록 상방에서 대면하게 되는 생활풍속이 담겨진 실의 구성법이라 하겠다. 요즘의 설계계획적인 사고방식이라면 각 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처음부터 큰방을 만드는 방법과의 장단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대청의 중앙에 고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고주열에 분함문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어느 시기에 제거되고 대청의 전면부에 유리창의 미서기문이 현재와 같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대청부분의 단면도에서 보듯이 1고주 5량구조로서 납도리를 사용하고 부연이 없는 홀처마지붕이다. 기둥은 모두 각기둥을 사용하였고 단면의 치수는 기둥상부가 20cm각, 하부가 23cm각의 민흘림기둥을 사용하였는데, 기둥간격 8자에 8치각의 기둥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에 사용된 부재의

⑦ 윤나동 김승현 가옥 지붕 구성

대체적인 규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둥 : 8자간격에 하부 8치각, 상부 7치각, 높이 9자, 마루상부에서 처마드리 하부까지의 높이 8자, 고주의 치수는 높이만 다르고 기타는 평주와 같다.

퇴보 : 스판 4자에 7치 × 1자

대들보 : 스판 12자에 단면은 8치 × 1자2치로 2:3의 비례이고 보춤은 스판의 1/10이 사용되었다.

도리 : 6치 × 8.1치로 모를 등글게 접었으며 도리의 간격은 4자씩으로 균일하다.

마루높이 : 디딤돌 1단의 높이는 9치이고 기단에서 마루까지는 높이가 1자7치이다.

처마서까래 : 직경 5치7푼에 1자간격으로 배열되고 물매(경사)는 35%, 즉 3치 5푼물매로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처마깊이는 3자7치에 기단의 폭은 3자3치로 낙수물이 기단밖으로 떨어지도록 배려되었다.

기단 : 전편은 장대석 3단에 높이 3자3치 정도이므로 마당에서 대청마루의 높이는 4자7치가 되어 사람의 목높이에 해당하며 주중의 신분사회에 어울리는 척도라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붕물매 : 50%, 즉 5치물매로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입면비례 : 기단부를 지면에서 주초석 상단까지로 보면 4.3자, 기둥높이 9자, 지붕높이 9자 정도이므로 1:2:2의 입면비례이며, 시각적인 비례는 1:2:1~1.5 정도가 될 것이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치수검토를 하였으나 앞으로 이런방법으로 치수를 정리하여 보면 부채치수를 설정하는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므로, 기회가 있으면 기존건물의 예를 조사하여 볼것을 권장하여 본다.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Locality in Chejudo Housing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 건축사회

본 연구는 제주도 주거건축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전통주거 및 최근 20여년간 남·북 제주지역에 건립된 농어촌 단층주택 및 도시형 2층 주택을 선정하여 주거생활, 주거환경, 주거형태, 외장요소의 특징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제주도 현대 주거계획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과 앞으로 창출될 향토성(locality)이 갖는 주거건축의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주도 현대주택 분석, 주거에 대한 환경계획 분석, 주거의식 분석,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주거에 대한 색채분석,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 각 분야별 종합고찰 등 6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현대주택에 대한 조사는 제주도 지역 건축사의 단독주택 작품을 년도별, 지역별, 규모별로 수집하여 배치, 평면, 단면, 입면 등으로 나누어 제 분야의 세부 항목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기초로 각 항목별 빈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제주도 현대 단독주택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건축가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새로 집을 지을 때 희망하는 주택내용을 설문조사한 것을 분석하고 또한 제주도 건축사들의 지역 향토성에 대한 인식도와 설계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설문조사 하였다.

둘째, 제주도 전통민가에 나타난 환경계획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제주와 북제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전통민가를 대상으로 온열환경 요소에 대해 여름철과 겨울철에 측정하였다. 그리고 현대주택의 환경특성 및 설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한 현대주택 5채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측정하였다.

셋째, 제주도 주택의 평면분석을 통하여 주거의식 및 주거생활에 미치는 물리적 공간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물리적인 특성과 주거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제주도의 자연색채와 전통주거의 색채를 조사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또한 현재 건립되고 있는 주택의 색채현황을 조사하여 색채분포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건축사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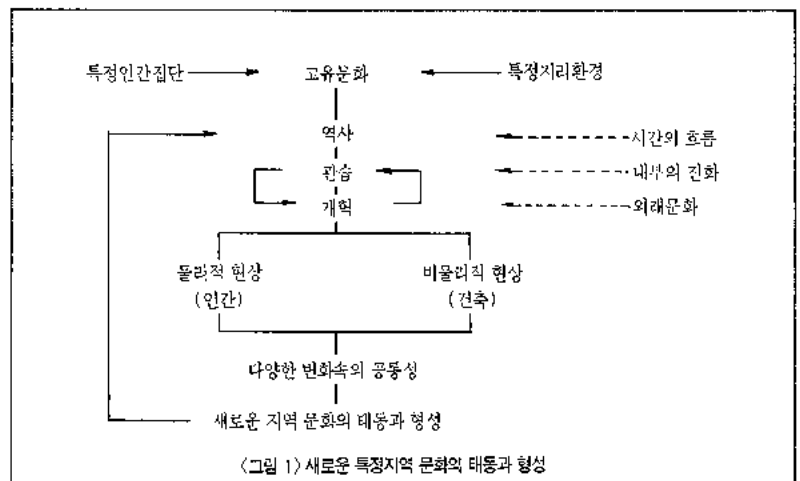
대상으로 색채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였고 색채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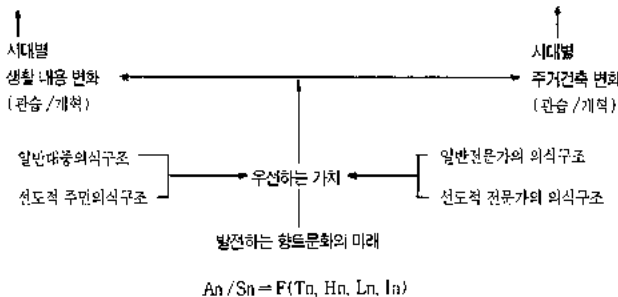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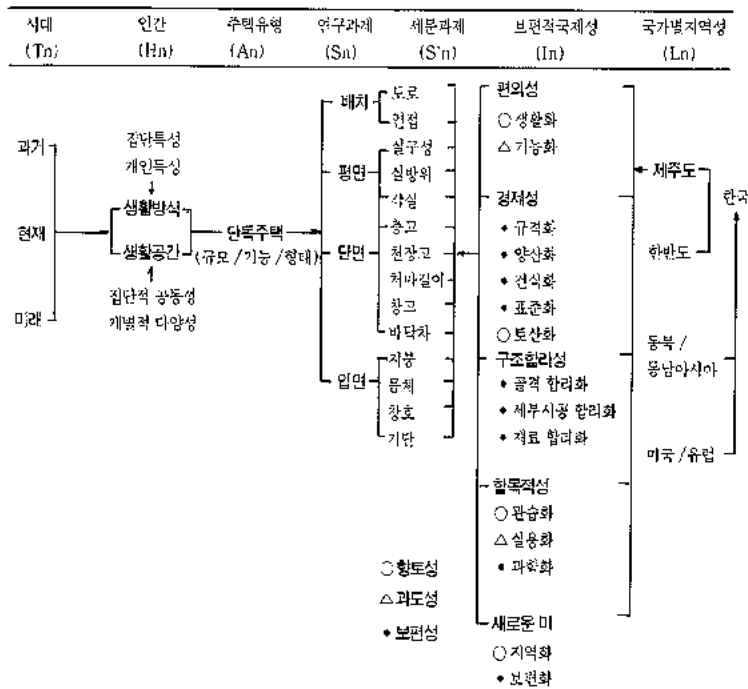
또한 제주도 고유의 지리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특색에서 비롯된 제주도 주거 건축의 향토성과 이러한 향토성이 시간의 흐름속에서 내부적인 요구와 다양한 현대외래문화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향토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 뜻에서 본 장에서는 1. 향토성에 관한 연구의 종합적 흐름, 2. 전통 주거환경의 계획적 특성, 3. 제주 현대주거의 개선지침, 4. 제주도 주거의 향토성을 위한 미래 개척방향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향토성에 관한 연구의 흐름

문화라는 체계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지역 문화가 변하는 흐름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특정지리 환경에서 특징의 성품을 갖는 인간집단이 이루어 놓은 사회 고유문화가 시간의 흐름속에서 내부의 진화 또는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관습과 개혁속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중 공통성을 갖는 물리적인 상황과 비물리적인





(그림 2) 특정지역(제주도)에서 주거 건축에 나타나는 향토성의 일반적 종합체계

상황들속에서 새로운 지역문화가 창조되고 이것은 역사속에서 다시 같은 흐름으로 관습과 개혁이 반복되어 이어진다.

현대문화의 보편적 국제성은 인류가 공통으로 느끼고 추구하는 가치이며, 건축에서 그것은 편의성, 경제성, 구조합리성, 합목적성, 새로운 미 등으로 요약되는 요소들이다. 이들 요소들은 건축가들에 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깊이 다루고 이들 요소들은 연구하며 그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 소산물들은 특정 건축가들에 의해서 특정한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산출된다. 이 과정에서 어느시대 어느사회에서나 선도적 주민의식의 지적가치와 선도적 전문가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누적되어 가면서 지역성의 특징이 부각된다고 본다.

2. 전통 주거 환경의 계획적 특성

1) 지리와 인문적 환경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한국최대의 화산도로서 제주도과 목포와의 거리는 약 88마일, 동북쪽의 부산과의 거리는 약 170마일이며, 경위도상으로 보면 경도 126도 10분에서 126도 58분 사이, 북위 33도 12분에서 33도 34분 사이에 놓여 있으며, 면적은 1,819km²로서 동서의 길이 80km, 남북의 길이 40km, 주변 둘레의 길이는 254km가 된다.

제주 자연환경에서 제주도는 중앙부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300여개나 되는 대소 화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섬

전체가 아스피테형 화산으로 되어있다. 섬의 중핵이 되고 있는 한라산은 사면이 완만한 경사로 내려와 해안에 이르고, 등고선은 산봉을 중심으로 거의 동심원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경사는 남부가 북부에 비하여 비교적 급한 편이어서, 이로 인해 해안선도 남부는 단애를 이룬 것이 현저하며, 평야는 동서 양단에 더 넓게 퍼져 있다.

토양은 화산회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도 토양은 유기물의 집적량의 차이에서 오는 토색에 의하여 암갈색토, 농암색토, 흑색토, 적황색토 등 네개의 토양으로 분류된다. 화산회성 토양은 상층에 다양한 부식물을 함유하여 흑색 또는 암갈색을 띠고 있고, 상층이 두터우며 해안일수록 토심이 깊다.

하천은 한라산을 비롯한 성판악 어승생악 등에 의하여 남북 양사면으로 갈라져 내린다. 이들 하천은 거의 건천이어서 한번 호우가 오면 일시에 물이 넘쳐 흘러 내리다가 곧 말라 버린다. 지표면은 투수성이 강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은 곧 지하로 빠져 해안선 가까이 가서 용출되므로 취락이 해안선 가까이 밀집하고 있다.

제주도는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공기가 매우 습하지만, 제주도의 여름철 평균 풍속은 3.3m/s로서 바람의 중발냉각 효과에 의해 쾌적한 편이다. 겨울철에는 습도가 알맞은 편이지만 온도가 낮으며 바람이 많으므로 더욱 춥게 느껴진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바람에 의해 더욱 춥게 느껴지므로 바람을 차단하고 벽의 단열 및 축열 성능을 높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여름 및 겨울철 기후는 제주도와 비슷하지만 여름철에는 제주도보다 최고 평균 습도가 높고 겨울철에는 최저 평균습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는 여름철에 주풍향(남서향)을 고려한 주택 배치가 필요하며 겨울철에는 북동풍을 차단하는데 주의해야한다.

제주도의 비, 바람 특성을 살펴보면, 제주도의 풍향은 북서풍과 남동풍이 주풍향이며 서귀포시는 북동풍과 남풍이 주풍향이다. 풍속을 살펴보면, 제주도의 계절별 평균 풍속이 서귀포시의 계절별 평균풍속보다 높은 것은 알 수 있고, 제주도와 서귀포시 모두 최대풍속이 10~20m/s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 각 계절 공통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으며, 봄과 겨울의 최대풍속이 다른 계절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제주도의 자연색채는 하늘, 바다, 물, 흙, 모래로 나누어지는데 가까운 하늘은 해맑은 바다색이며 먼하늘은 해맑은 감청이다. 앞바다는 연한 파랑이면서 감청기미의 남색이며 먼 바다는 감청에 가까운 남색이다. 흙은 제주 전체 산동성이 농암갈색이고 제주 서북부 해안은 암갈색을 띠며 송이는 붉은 암갈색을 띠고 있다.

인문적 환경에서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영토로 인해 타지역보다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 있으며, 또한 자연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지역보다 공동체의식이 발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수놓음, 계모임 등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끼리의 친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으며, 경조사를 모두 집안에서 치루어내고 친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일면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육지와 구별되는 특유의 핵가족 제도를 갖고 있는데, 장남이 결혼을 하면 바깥에 별거하면서 부모의 가족과는 독립된 생활을 하여 외형적으로는 대가족이고 내용적으로는 핵가족인 특유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주거형태가 '안거리 및 밖거리형 주거패턴'이다.

2) 주택 현황

제주도의 주택현황은 주택 보급율과 주택종류 및 주택규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국의 주택 보급율은 1975년에 70.0%, 1980년에 66.8%, 1985년에 63.8%, 1990년에 66.6%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주택 보급율은 1975년에 76.1%, 1980년에 73.3%, 1985년에 68.9%, 1990년에 71.1%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주택 보급율은 전국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75년 이후 계속 낮아지다가 1990년에 이르러 다소 상승하고 있다. 주택종류는 전국에서는 1985년에 단독주택 77.3%, 아파트 13.5%, 연립주택이 6.8%의 분포율에서 1990년에 단독주택 66.3%, 아파트 22.7%, 연립주택 6.8%로 분포율이 변화하는데 알 수 있듯이 아파트의 구성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의 구성비가 상당히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도 1985년에 단독주택 92.2%, 아파트 1.2%, 연립주택 1.3%의 분포율에서 1990년에는 단독주택 86.4%, 아파트 6.0%, 연립주택 2.5%의 분포율로 바뀌었지만 전국과 비교할 때 제주도에서 주택종류는 단독주택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제주도 단독주택 규모는 전국적인 규모와 비교할 때 14평이하는 제주도가 15.1%, 전국이 18.6%이며 14~29평 규모사이에서는 제주도가 67.2%, 전국이 57.7%이며 30평이상은 제주도가 6.7%, 전국이 11.1%의 분포율로 나타났다. 설문대상 436명(건축가 135/일반인 301)들의 인식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출신이 94%이며 30년 이상 제주도 거주자가 71%이다. 연령은 30~50세가 55%, 50세 이상이 38%이며 월 평균소득은 80~150만원이 51%이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2~5년 이상 거주자가 60%이며 현재 거주 주택은 이사하기전 주택보다 시설이 좋고 집이 크다가 56%이다.

3) 주택의 배치

제주도의 전통주거의 건물향은 중앙의 한라산때문에 배산임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있다. 가령 배산임수에 따르면 제주도의 북쪽 지형의 가옥은 자연히 북향이 되어야 하는데 북향은 풍수설과 관습상 흉방일뿐 아니라 동절기에는 북서풍의 피해가 심하므로 이지역에서는 북향을 피하고 있다.

현대의 주택의 건물향은 택지분할과 진입도로의 위치에 영향을 크고, 지역 차이에 따른 영향은 적었다. 즉, 일반적 성향인 남향(34%), 남동향(32.2%)을 지향하지만 택지여건상 동향 집이 생기고, 진입도로가 남쪽에 위치되지 않을 때는 우회 또는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서는 희망 주택의 방위는 남향이 55%, 동남향 39%를, 현관의 희망방위는 남쪽 36%, 남동쪽 30%, 대지에 접한 도로의 희망방위는 남쪽 48%, 동쪽17%를, 도로의 방위에 관계없이 남쪽들 78%, 서쪽 또는 동쪽들 25%를 선호하였다.

환경요인 분석에 의하면, 이상적인 건물의 향은 정남에서 남동쪽 혹은 남서쪽으로 15° 이내로 기울어져 위치하고, 전면도로는 동서측으로 하고 남쪽면에는 가급적 어떤 장애물도 없는 것이 좋다.

주거의식을 조사한 결과도 가장 선호하는 대지형태는 남쪽으로 도로가 면한 대지에 북쪽방향으로 건물이 자리잡고 남쪽으로 앞마당을 두는 배치형식을 가장 선호한다.

설문조사결과 대지규모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40평이하가 33%, 41~80평이 37%이고, 주택규모는 20평이하 42%, 20~30평이 44%, 30~40평이 9%이다. 그리고 희망하는 대지규모는 50~70평 21%, 70~90평 24%이고, 주택규모는 20~30평 30%, 30~40평 32%, 40~50평 30%이다. 희망주택의 층수는 2층이 73%로 대다수이다. 전통주택 규모별 평면 평균치수는 30~39㎡에서 7.7m×4.6m, 40~49㎡에서 9.3m×4.8m 50~59㎡에서 10.2m×5.5m으로 측면과 전면의 평균비율이 1:1.80으로 나타났다. 현대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100㎡이하인 주택에서는 8.0m×10.0m, 연면적 100㎡이상인 주택에서는 9.5m×12.5m으로 측면과 전면 평균비율이 1:1.28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장남이 결혼후 바깥채에 별거하여 별개생활을 하는 안거리와 밖거리형 주거형태를 취해 왔다. 설문조사에서 자녀 결혼후 원하는 거주형태는 분가시켜 별도의 거주를 원함 68%, 함께 거주하고 싶다가 32%이고, 취사형태는 따로 52%, 함께 취사가 48%이다.

전통주거의 형태는 -자형이고 주로 3칸형으로 마루를 중심으로 하는 겹집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희망하는 주택형태는 ㄷ자형 45%, -자형 39%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또한 집의 전면 칸수 선호도에서 제주도민들은 4칸 집을 선호하는데 반해, 건축가는 3칸 집을 선호하고 있지만 선호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 4칸집 : 총 57% (건축가 48% / 일반인 61%), 3칸집 : 43% (건축가 52% / 일반인 39%) 전면 3칸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배치는 거실을 중앙 전면에 두고 그 좌우에 방이 배치되고 후면 거실뒤에 작은 방이 있고 그 양쪽에 욕실겸 화장실과 주방 및 식당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면 3칸 및 4칸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방배치는 거실이 후면에 있으며 방이 전면에 오는 경우이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면 유형은 현재 제주도 단독주택 평면유형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전통가옥에서 상방을 중심으로 전면에 방들이 배치되고 정지와 고풍이 후면에 위치한 3칸형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서 전통민가, 기존의 주택 그리고 희망하는 주택의 평면유형이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민가의 각 실 면적 구성비에서 큰 구들 11%, 작은 구들 8.4%, 상방 22.9%, 부엌 23.35%이며 현대주택의 각실의 면적 구성비는 안방 13%, 작은 방 8.3%, 거실 15.2%, 부엌 11.4%로 나타나고 있는데, 큰방과 작은방의 면적 구성비가 전통형 민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부엌도 허드렛 부엌을 감안할 때 전통형 민가의 구성비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실의 구성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도 거실의 구성방식은 독립형으로서 존재하는 것(4%)보다는 전통민가의 상방처럼 통과형으로서 존재하여(95.5%) 개방적이고 경조대사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안방도 주택규모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부부전용 욕실설치와 안방에 침실을 독립시키는 현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93.0%) 부엌은 후면 좌우측에 배치되어(88.7%) 주부의 작업동선 축소의 문제보다는 손님을 치르기 위한 허드렛 부엌과의 연결을 위해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욕실은 공간적인 여유가 없으면서도 욕조와 변기를 분치하고 있으며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평면 유형과 구성방식의 실내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과거부터의 생활관습에 영향을 많이 받는 평면의 유형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4) 주택의 평면

거실유형의 분류기준에서 통과형은 거실내벽에 현관 및 각 방의 출입문이 달려있는 유형이며, 부분독립형은 2개이상의 거실내벽에 출입문이 없고 시각적으로 어느정도 차단된 유형이며, 독립형은 거실전용 출입문에 의하여 또는 시각적, 공간적으로 독립된 유형으로 규정했다.

주택평면에서 거실의 독립성 여부는 지역과 관계없이 통과형이 많고, 도시지역인 제주시에서는 독립형 거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표 1>과 같이 통과형의 거실은 모든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분 독립형의 거실은 서귀포시 및 북제주군이 두드러지고, 제주시의 경우 독립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도시형 주택에 비하여 농촌형의 주택은 거실의 공간사용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115개의 작품위치별 거실의 독립성

거실의 독립성 \ 위치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합 계
(빈 도)	48	17	25	7	97
통과형 (행백분율)	49.5	17.5	25.8	7.2	(84.3)
(열백분율)	87.3	70.8	96.2	70.0	
(총백분율)	41.7	14.8	21.7	6.1	
(빈 도)	4	7	1	2	14
부분독립형 (행백분율)	28.6	50.0	7.1	14.3	(12.2)
(열백분율)	7.3	29.2	3.8	20.0	
(총백분율)	3.5	6.1	0.9	1.7	
(빈 도)	3	0	0	1	4
독립형 (행백분율)	75.0	0	0	25.0	(3.5)
(열백분율)	5.5	0	0	10.0	
(총백분율)	2.6	0	0	0.9	
합 계	55 (47.8)	24 (20.9)	26 (22.6)	10 (8.7)	115 (100.0%)

* Chi - Square : 18.58 * 유의도 : 0.0049(p=0.05에서 유의적)

<표 2> 115개의 작품 위치별 거실의 개방성

거실의 개방성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합 계
(빈 도)	22	3	8	4	37
폐쇄형 (행백분율)	59.5	8.1	21.6	10.8	(32.2)
(열백분율)	40.0	12.5	30.8	40.0	
(총백분율)	19.1	2.6	7.0	3.5	
(빈 도)	32	20	15	3	70
부분개방형 (행백분율)	45.7	28.6	21.4	4.3	(60.9)
(열백분율)	58.2	83.3	57.7	30.0	
(총백분율)	27.8	17.4	13.0	2.6	
(빈 도)	1	1	3	3	8
독립형 (행백분율)	12.5	12.5	37.5	37.5	(7.0)
(열백분율)	1.8	4.2	11.5	30.0	
(총백분율)	0.9	0.9	2.6	2.6	
합 계	55 (47.8)	24 (20.9)	26 (22.6)	10 (8.7)	115 (100.0%)

* Chi - Square : 18.58 * 유의도 : 0.0049(p=0.05에서 유의적)

거실에 대한 설문에서 거실은 통과형이 되지않고 오롯하게 어느정도 독립되게 해야 한다가 건축가는 79%, 일반인은 46%으로 나타났다. 거실의 크기는 이용도가 높으므로 넓을수록 좋다가 건축가는 47%, 일반인은 54%로 응답하였다.

거실의 방위는 남쪽이 73%, 안방은 남쪽이 55%, 동남쪽이 30%이며 자녀실 3개 방위는 남쪽, 동남쪽, 동쪽 및 북쪽 순위를 원하고 있다.

외부공간에 대한 거실의 개방정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거실 전후면에 외부공간과 연계되어 있을 때는 개방형으로, 거실 후면에 실이 있지만 문을 열었을때 전후면이 통한다면 부분개방형으로, 거실뒤에 실이 구성되고 문을 열어도 전후면이 통하지 않는 형을 폐쇄형으로 분류하였다. 현대주택 분석결과에서 부분개방형(60.9%)은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제주시의 주택의 거실은 폐쇄형(40%)이 비교적 많고 북제주군의 주택의 거실은 폐쇄형, 부분개방형, 개방형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었다.<표 2>

이것은 현대주택의 거실과 전통민가의 개방적인 상방공간이 접목되어 부분 개방형의 거실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경조대사시를 대비한 융통성 있는 공간이용을 위하여 거실에 인접한 방에 미닫이 문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상에서 거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공간적으로 통과형의 거실이 많고 외부공간과의 연계는 점집이면서도 전통주거의 상방의 개념이 존재하여 부분적 개방형의 거실이 많다. 또한 미닫이문을 적극 사용하여 프라이버시는 부족하지만 다목적 공간이용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거실의 용도가 가족단위보다 대소사시 손님 접대공간, 각 실의 연결통로 등의 용도로써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실은 외부공간, 주택내 각 실들과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즉, 현대 도시주택에서의 거실의 개념보다는 전통주택에서 상방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환경측면에서 거실은 여름철 주풍향에 직접 면하도록 배치하고 남쪽을 향하게 하고 거실의 면적은 주택내에서 가장 크게 확보하며 천정고는 2.6m가 바람직하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경우에는 큰구들과 작은 구들이 있는데 큰구들은 부부가 사용하고 작은 구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구들은 사적 생활공간으로 취침, 독서, 휴식 등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 공간은 조상신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이며 출산, 입종, 결혼시 신부를 맞아 들이기도 하는 공간이다.

현대주택에서 안방용도는 부부생활, 가족단위, 손님접대, 간단한 가사 등 다목적 이용이 건축가가 48%, 일반인이 51%, 부부생활, 가족단위는 건축가가 35%, 일반인이 30%, 부부 생활공간은 건축가가 16%, 일반인이 16%로서 안방은 부분만의 사적 공간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가족단위, 접객, 간단한 가사 등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대사시 다른 공간과 연계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상당히 개방적인 구성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개방적 성격에 대한 요구는 안방 출입문을 미닫이 문으로 구성하고, 거실쪽으로 출입구를 설치하는 공간 특성을 갖게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거주자들에게 상당히 선호받는 형식으로 분석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안방의 다목적 이용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조대사시에 거실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강하며 거실후면 또는 측면에 바로 접하고 미닫이문을 설치한 온돌방이 유효하게 쓰이는 예들이 있다.

침실수는 3~4개로 해야 한다가 93% (건축가 95%,

일반인 91%)이며, 부부침실에는 침대가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경우가 52% (건축가 59%, 일반인 49%)이며, 자녀실은 독방을 쓰게하는 것이 81% (건축가 84%, 일반인 80%)이며, 침대가 있는 것이 좋다가 72% (건축가 80%, 일반인 69%)이다.

안방과 침실을 분리 계획하는 경우는 전체 샘플의 3.5%에 불과하며 1개의 부엌 단위에 부수되는 침실의 수는 3개의 경우가 가장 많다.

선호되는 안방 층고는 2.4m로 분석되었고 높이는 거실보다 작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방 천정고는 2.4m가 40% (건축가 52%, 일반인 35%)이며, 2.2m (건축가 18%, 일반인 21%), 2.3m가 16% (건축가 20%, 일반인 13%)로서 그 느낌은 보통이다가 80% (건축가 82%, 일반인 79%), 낮다가 8% (건축가 9%, 일반인 7%), 높다 8% (건축가 2%, 일반인 10%)이다.

안방에 대한 실내 온도에 만족하는 건축가가 35%, 일반인이 33%이고 보통이다가 건축가가 23%, 일반인이 23%이며, 매우 만족은 13% (건축가 15%, 일반인 12%)이며, 약간 불만족은 13% (건축가 12%, 일반인 13%)이다. 안방실내 밝기는 알맞다가 50% (건축가 49%, 일반인 51%), 약간 어둡다가 21% (건축가 20%, 일반인 22%)이다.

안방과 거실의 개구부 창호의 향은 남향이 52% (건축가 55%, 일반인 50%), 동향이 15% (건축가 14%, 일반인 15%), 남동향이 13% (건축가 12%, 일반인 13%)이며, 창호 밀폐정도에서 안방의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51% (건축가 54%, 일반인 50%), 비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35% (건축가 33%, 일반인 37%)이다. 안방의 처마길이는 50cm이하가 64% (건축가 51%, 일반인 69%), 50~79cm가 12% (건축가 19%, 일반인 8%), 80~100cm가 12% (건축가 18%, 일반인 9%)이며, 이에 대해 적당하다는 52% (건축가 46%, 일반인 54%) 적다는 46% (건축가 42%, 일반인 4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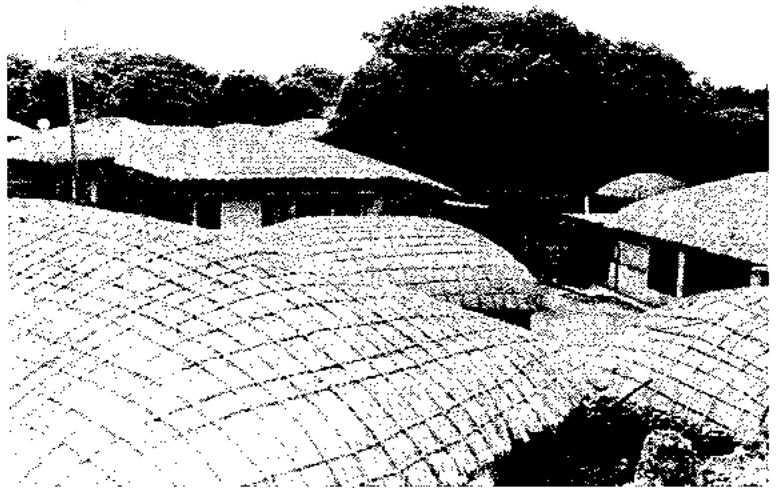
부엌은 전통적으로는 정지가 있고 이 기능은 취사, 조리, 상차리기, 설거지 등을 위한 가사노동의 공간이며 여성공간으로 대표적인 곳이다. 정지는 마루나 찻방과 연결(부엌+마루, 부엌+찻방+마루)되어 기능 분화가 잘되어 있다.

115개의 작품에서 거실을 기준으로 한 부엌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부엌의 위치는 거실을 중심으로 하여 후면 좌우측에 배치되는 예가 가장 많다. 이것은 측면에 배치됨으로서 부엌에서 외부로의 출입동선이 짧아지며 허드렛 부엌의 증축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엌과 식사실을 합한 통합형이 95.7%, 부분분리형이 1.7%, 분리형이 3%로 파악되었다. 통합형이 많이 나타나는 하나 더러는 식생활 습관이 식탁을 이용하는데 익숙치 못한 경우가 있어 거실이나 안방에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대주택인 경우 설문 분석을 통해 식사 장소로는 여름, 겨울 모두 식당에서 주로(58%, 51%)하고 있으며, 가끔하는 장소로서 여름에는 거실에서 40%, 안방에서 37%이고, 겨울에는 안방에서 48%, 거실에서 26%로 응답하였다.

주방과 식사실은 별도의 실로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방과 식당의 연결은 단일 공간에 통합하기 보다는 각각의 영역을 구획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주방의 순작업대 길이는 0.9m가 26%, 1.2~1.5m가 47%이며 이에 대하여 적당하다가 45%, 좁窄다가 41%이다.



제주도 초기전경

싱크대는 물버림대, 가스레인지를 제외한 순수 작업대 길이가 1.5m정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

허드렛 부엌이 있는 경우가 15.7%, 없는 경우가 84.3%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건물의 평면상에 허드렛 부엌이 도면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뿐이며, 준공검사를 허드렛 부엌을 증축하는 경우를 합한다면 허드렛 부엌이 있는 주택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주택의 허드렛 부엌이 별도로 있는 것에 50% 응답하였으며, 그 규모나 2~3평이다에 76%가 응답을 하였으며 이러한 시설이 없지만 테라스나 차마길을 사용하거나, 없지만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 36% 응답을 하였다.

허드렛 부엌은 타지방의 다용도실과는 달리 평소 허드렛 부엌 및 수납공간으로 이용되다가 경조대사시 다양하고 유익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주방의 개구부향은 서향이 48%, 남향이 28%이며 바람이 들어옴이 58%,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33%이다. 식당 개구부향은 서향이 46%, 동향이 36%, 남향이 27%이며 바람이 들어옴이 53%,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41%이다.

설문 분석을 통해 화장실의 위치는 욕내에만 있다가 36%, 욕외에만 있다가 35%, 욕내 욕외 모두에 있다가 30%로서 같은 구성비를 이루고 있다. 세탁장소로서는 욕실에서가 41%, 허드렛 부엌에서가 31%이다.

115개의 주택작품중 욕실이 욕내에 설치된 것이 93개로서 87%이다. <표 3>와 같이 욕실의 위치는 거실 후면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욕실의 출입구는 거실에서 욕실 내부를 볼 수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

욕실내에서 변기와 욕조 및 세면대를 분리한 경우가 13.9%, 분리하지 않은 경우가 60.9%이며, 주택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25.2%이다. 욕조와 변기를 분리여부에 대해 건물 규모와 교차분석을 한 결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욕조와 변기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주택규모에서 여유가 있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욕실은 주택 내 /외부 모두에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선호되고 있으며, 내부에 있는 욕실은 양변기를 세면기,

<표 3> 115개의 평면에서 거실을 기준으로 한 욕실의 위치

(1) : 19개소 (16.5%)	(2) : 39개소 (33.9%)	(3) : 8개소 (7.0%)
(4) : 16개소 (13.9%)	거 실	(5) : 11개소 (1.7%)

〈표 4〉 전통민가 규모별 정면 치수 일람표

요소	H	h ₁	h ₂	h ₃	h ₃ /d	h ₄	h ₄ /S	방면적	창호면적	방벽면적	창호/벽	처마길이	L	h ₃ /L
규모	m	m	m	m		m		m ²	m ²	m ²		m	m	
20-29m ²	3.40		2.26	1.13	25.8	1.78	7.87	3.73	1.30	3.73	34.82	0.55	2.75	41.10
30-39m ²	3.47	0.18	2.32	1.15	25.6	1.75	5.22	4.67	1.43	4.33	26.96	0.60	2.89	39.73
40-49m ²	3.41	0.18	2.24	1.16	24.2	1.79	3.99	4.42	1.07	3.57	30.03	0.54	2.85	40.37
50-59m ²	3.49	0.15	1.20	2.20	24.1	1.76	3.56	5.37	1.38	4.13	35.42	0.57	3.55	39.77

옥조와 따로 구획하는 방식이 선호된다. 외부 화장실은 대문 기둥에 붙여 설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외부 화장실은 양변기(또는 좌변기)만 설치해도 좋다.

5) 주택의 입면

제주 전통주택의 입면을 분석해 보면 각 치수들의 평균 높이는 기단 높이가 0.17m이며, 처마까지의 평균 높이는 2.29m이며, 처마에서 지붕까지의 평균 높이는 1.20m이며, 전체 평균높이는 3.49m이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기단, 처마 높이, 구들높이, 창호면적, 처마길이 등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붕 자체의 높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조금씩 증가하나 평면의 측면 증가량이 거의 없으므로 처마에서 지붕까지의 평균 높이의 값은 거의 변동이 없다. 건물 규모변화에 따른 기단 벽체의 높이 지붕높이 내부의 단면 높이를 분석한 결과 건물 규모의 변화에 따라 기단과 벽체의 높이, 지붕높이, 내부의 단면높이가 서로 상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단지 평면의 전면의 길이만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전통주택의 경우에 있어 지붕 형태와 재료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미의 근저가 되는 유연한 곡선을 창출해내는 한편, 강우량이 많고 습하여 육지의 전통민가보다 구배가 작은 물때로 여겨지며 이는 비보다 바람에 대한 고려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지붕으로 인해 생기는 비교적 긴 처마는 항구적으로 외벽과 창호가 침수되지 않게 보호하며 박공면을 정면으로 하는 서양 주거와는 달리 여름철 태양의 뜨거운 직사광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대부분의 경우 짙으로 만든 초가이며, 짙은 줄 새로 얹어매어 지붕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는 바람의 영향으로 육지에 비해 낮으며 비바람과 일사 조절을 위해 처마의 길이는 깊고 달개와 차양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제주도 민가의 지붕형은 육지에서 볼 수 있는 우진각 지붕의 틀에다 새를 두텁게 덮었기 때문에 추녀 마루의 선이 보이지 않고 길게 된 타원형의 낮은 둥근 모양을 이루고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제주도의 바바람 특성은 제주시의 풍향은 북서풍(겨울)과 남동풍(여름)이 주풍향이며 서귀포시는 북동풍(겨울)과 남풍(여름)이 주풍향이다. 풍속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계절별 평균 풍속이 서귀포시의 계절별 평균풍속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표 5〉, 이것은

〈표 5〉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풍속 및 풍향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풍속 (m/s)	4	3.3	3.6	4.4	3.0	2.4	3.2	2.6
최대풍속 (m/s)	16.7	16.7	16.7	20	14.2	13.3	14.5	10.7
풍 향	주풍향	ENE	SSE	NW	ENE	S	ENE	E
	부풍향	E	SSW	NNW	NNW	SSW	SSE	E

전통가옥에 있어서의 입면구조 특성 특히 개구부나 지붕의 모양, 재료의 구성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현대 주택에 있어 지붕의 형태에 관해서 알아보면, 소규모 주택의 경우는 눈썹지붕 63%, 우진각지붕 20%, 평지붕 12%, 박공지붕 6% 순으로서, 눈썹지붕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규모 주택의 경우는 눈썹지붕 50%, 우진각 지붕 43%, 모임지붕 3.3%, 박공지붕 3.3% 순으로 눈썹지붕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규모 주택의 경우는 우진각 지붕 77%, 우진각 지붕과 평지붕 혼용 12%, 눈썹지붕 6%, 박공지붕 6% 순으로 우진각 지붕이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는 눈썹지붕이 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할 경우, 설문응답자의 선호하는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이 47%, 평지붕이 31%, 평지붕에 일부는 눈썹지붕이 18%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지붕형태는 등근지붕 20%, 만사드지붕 17%, 박공지붕 16%의 순이고, 민속문화 형태로서는 만사드지붕 76%를 선호하며 박공지붕의 선호 경사도는 25°가 49%, 17°가 25%를 나타낸다. 선호 지붕모양에서 초가 곡선지붕을 적용한 것이 46%, 지붕속에 다락을 두고 창을 낸 같은 형식의 지붕이 31%로 나타난다.

가장 싫어하는 지붕형태는 원통형을 곁게 한것 46%, 원형 지붕에 모서리를 각지게 한것 24%이며, 지붕처마 끝처리 중에서 선호하는 순위는 눈썹지붕에 기와처리가 된 구형의 기와 처리 32%, 모임 기와처리가 26%, 눈썹지붕에 기와처리가 23%이다.

배란다가 없는 경우는 눈썹지붕에 두터운 수평처마와 얇은 수평처마 등 각각 46%와 41%를 선호한다. 2층 배란다와 처마모양 중에서 선호하는 것은 배란다를 일부만 모서리에 설치하고 2층에 모임기와 지붕으로 하는 것이 63%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배란다를 최대한 설치하고 1층에 눈썹지붕, 2층에 모임 기와지붕을 하는 것이 41%로 나타났다. 가장 나쁜 것은 정면 박공에 부분 아치 배란다를 설치한 것이 38%이다.

창호에 있어서 내부 창문 살모양은 전통식 수직형 창살 53%, 완자형 50%의 순으로 나타나고, 수평 창호에서는 직사각형 모양 50%, 구형 세미 아치형 33%의 순으로, 수직 창호에서는 직사각형 모양 44%, 모서리 원형 22%의 순으로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지붕의 재료에 대해 알아 보면, 현대 주택에 있어 소규모 주택의 경우 콘크리트(57.4%), 슬레이트 기와(20.6%), 오지기와(13.2%), 스페니쉬 기와(4.4%), 아스팔트 기와(1.5%)의 순으로 나타나 콘크리트로 지붕의 재료로 쓰는 경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규모 주택의 경우는 오지기와(43.3%), 콘크리트(40.0%), 슬레이트 기와(10.0%), 스페니쉬 기와(3.3%), 제주 송이(3.3%) 순으로 나타나, 오지기와와 콘크리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주택의 경우는 오지기와(88.2%), 아스팔트 싱글(5.9%), 슬레이트 기와(5.9%) 순으로 오지기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로는 콘크리트(33.9%)였다.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할 경우 원하는 지붕재료로는 기와가 33%, 기타가 29%, 오지기와가 24%, 아스팔트 싱글이 12%로 나타나 현재의 상황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통주택에서는 제주도 고유한 재료들을 잘 이용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지붕을 잇는 주재료는 태양 복사열의 차단효과가 큰 기와와 새이며 벽체의 주원료는 열용량이 큰 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료의 열적 특성으로는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 복사열을 차단시켜 실내를 쾌적하게 하고 겨울철에는 열용량이 큰 흙벽으로 시간 지연효과에 의해 실온 변동폭을 적게 한다. 특히 제주도 전통민가에서는 개구부가 큰 개방형 평면을 구성하여 여름철 냉방효과를 높이고 실내온도 분포를 균등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붕과 흙벽은 방습성이 좋으므로 실내 상대 습도의 변동을 완화시켜 쾌적한 습도조건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붕의 재료로 사용되는 새는 제주도의 동반부와 서반부에서 사용하는 새줄의 굵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동반부에서는 직경 3cm 내외의 새줄로 엮어매고, 서반부에서는 직경 4cm의 새줄로 엮어 매어 동반부보다 육중한 느낌을 준다. 이것은 겨울의 북서풍과 여름의 남서풍이 서반부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붕의 색상분포에 대해서는 구제주의 경우 빨강색이 50%, 주황색이 15%, 무채색이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신제주의 경우 주황이 60.5%, 무채색이 13.2%, 남색이 10.5%, 한림마을의 경우, 빨강색이 53.8%, 연두색이 23.1%, 무채색이 11.5%를 차지하며, 성산마을의 경우 빨강색이 42%, 주황색이 22.6%, 녹색이 13%를, 서귀포의 경우 빨강색이 55.7%, 주황색이 16.4%를, 중문의 경우 빨강색이 30%, 주황색과 녹색이 20%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전지역적으로 볼때 빨강색과 주황색 즉, 난색계통이 지붕의 색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주택에 있어서의 색상은 10YR 8/4에서 2.5Y 8/2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참고로 지붕을 만드는 새는 2.5Y 9/2에서 2.5Y 7/6에 분포하여 지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은 노랑에서 주황으로 변하고 명도는 변화가 적으나 채도는 저채도화 되는 경향이 있다.

현대주택에 있어 명도면에서 지붕색은 대체로 무채색보다는 유채색이 많다. 구제주보다 신제주에 주황계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색상만으로 볼때는 개선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채도면에서는 신제주 지붕색이 채도 12가 60%로 신제주의 지붕은 원색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뜻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자극적이고 천하게 보일 수도 있으므로 재검토가 요망된다.

색상과 명도상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빨강에 편중화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저명도의 빨강이 많으므로 제주 전통가옥의 색채분포 중 많은 빈도를 보이는 중명도의 주황-노랑과는 많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제주도 전통주택의 지붕은 밝은 색으로 주변에서 돋보이는 형태였으나, 현재 인공색채의 지붕은 빨강색이라 자극이 심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따라서 지붕색은 명도를 높이고 색상을 중성색쪽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색상과 채도상의 특성으로는, 지붕색의 채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어촌의 경우 지붕색이 채도가 높아져 자연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의 수정이 요구되지만 외벽색의 채도는 대체로 무난하다.

기와는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적 오지기와와 유사한 색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오지기와의 경우 채도가 중이하의 부드러운 색이라서 벽체의 재료와 조화가 잘 되는데 비해 선명한 페인트색은 벽체의 색이나 주변의 환경과 유리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때 도시형 단독주택의 경우는 오지기와, 싱글, 송이, 시멘트기와와 페인트도장 등의 재료로 색상은 2.5R-7.5YR(빨강-주황), 명도는 중-저는 명도로 명도 약 2-5 약간 어두운 색), 채도는 중-저채도로 채도 약 2-8(선명한 색을 포함)으로 권장된다.

그리고 농촌형 단독주택의 경우는 시멘트기와나 슬레이트위 수성페인트, 송이 등을 사용하되 오지기와, 싱글 등을 사용할 때는 주변의 집들과의 조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때 색상은 연청록색과 파랑색 계열, 빨강과 주황계열 중에서 선택하고, 명도는 원거리에서 볼 경우 주변환경보다는 조금 밝게 보이도록 중-고 명도(7-9)를 권장하며, 채도는 진한 색이 되지 않도록 중-저 채도(2-6), 즉 현색이 많이 섞인 색의 사용을 그리고 3-5층의 연립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의 지붕과 유사하나 싱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 경우는 색상은 빨강색 계열을 권장하며 (2.5R-7.5YR), 녹색계열의 싱글은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명도는 벽돌 등의 천연색을 사용하되, 가끔적 섬이라는 특성을 살려 신선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백색의 액센트를 많이 사용하기를 권장하며, 페인트 도장의 경우 초코렛색 등으로 천연 슬레이트와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때 채도는 저채도(2-4)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붕의 경사도에 대해 알아보면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이 평균 18.36%이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평균 20.4%로 북쪽지역의 지붕경사도가 더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지역에 따른 기후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주택에 사용한 주요재료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수성마감(64.7%), 본타일(16.2%), 제주석 타일(8.8%), 치장타일(2.9%), 적벽돌(4.4%) 변색벽돌(1.5%) 화강석(1.5%) 순으로 수성마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규모 주택의 경우는 본타일(30.0%), 제주석 타일(30.0%), 적벽돌(16.7%), 수성마감(13.3%), 제주잡석(3.3%), 변색벽돌(1.5%) 순으로서 본타일이 주로 쓰였으며, 대규모의 경우는 적벽돌(23.5%), 본타일(17.6%), 수성마감(17.6%), 변색벽돌(17.6%), 흙벽돌(5.9%), 화강석(5.9%), 치장타일(5.9%), 제주석 타일(5.9%) 순으로 골고루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수성마감이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산 건축자재(돌)의 열전도율은 현대 건축자재인 콘크리트나 벽돌보다 작으므로 상대적으로 단열능력이 우수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외벽마감에 현대 건축자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돌을 재료로 이용하는 것이 제주도의 향토성 표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기후에 맞는 적합한 디자인 방법이다.

한편 전통주택에 있어서 덧벽은 목조 구조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 밖으로 쌓은 비내력벽으로 현무암으로 쌓아 내피와 외피를 분리하는 특징이



올래에서 본 정남과 마당 전경

있다. 덧벽에 사용한 돌의 두께는 15~30cm 정도의 두께로 지면에서 상부 마무리까지는 높이가 1.9~2m이며 9~10cm정도 상부로 갈수록 돌이 쌓아 선명한 기울기를 나타내므로 건물의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된다. 벽체의 하부는 판장벽이며 상부는 흙마감으로 되어 있다. 습도가 높기때문에 개구부는 넓고 높다. 비바람에 창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장 덧문이 설치된다. 개구부면은 건물전체면의 1/4~1/5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벽면은 회벽으로 마감된다.

제주도의 전통민가의 하단에 사용된 돌은 보통 일반적인 돌과는 달리 다공성 기포를 함유하고 있다. 공기는 우수한 단열재이므로 건물에 쓰인 돌은 겨울철에는 일종의 단열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 현대 주택의 외벽색은 무채색이 43%로 특기할만한 사항인데, 이는 현무암과 백색벽이 많이 사용되는 현상으로 제주도의 색채 특징으로 차후 권장 색채의 요점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벽의 색상에 대한 분석에서 구제주의 경우 무채색이 41.5%, 주황과 노랑색이 17.1%를 신제주의 경우 무채색이 44.8%, 남색이 16.4%, 주황이 14.9%의 분포를 갖고, 한림마을의 경우 무채색이 50.8%, 노랑이 25.4%의 분포를 가지며, 성산마을의 경우 무채색이 50%, 노랑이 25%, 서귀포의 경우 무채색이 61.5%, 노랑이 14.8%, 빨강색이 10.4%, 중문인 경우 무채색이 47.2%, 노랑이 18.9%, 주황이 15.1%의 분포를 보여 외벽색상에서는 무채색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도면에서는 한림을 제외한 전지역이 명도 9가 50%이상으로 나타나서 밝은 외관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림지역은 약간 어두운 편이나 전체적으로 무난한 편이다.

채도면에서는 전체적으로 1, 2, 4이하의 저채도가 많아서 무난한 편이다.

색상과 명도상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면, 외벽색은 빨강색, 주황색 및 노랑색, 무채색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있다. 외벽색의 3단계는 외벽재료에서 오는 영향으로 파악된다. 즉, 빨강색은 벽돌 및 주황색, 노랑색은 페인트, 흙 등의 재료 사용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 재료별로 적합한 외벽색 및 조화가 되는 지붕색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벽체에 대한 색채사용에서는 도시형 단독주택에서는, 재료가 벽돌, 천연석, 제주도산 벽돌, 사멘트

몰탈의 본타일이나 수성페인트에 색상은 재료의 천연색을 사용하되 수성페인트나 본타일은 노랑(2.5Y-5.7Y) 또는 백색(N9), 명도는 지붕과 명도 차이 3이상 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 된다. (명도 차이가 4이상일 경우 지붕과 벽체가 유리되는 경우가 있음) 단, 수성페인트나 본타일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모두 명도 7이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 지붕과 벽체의 대비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며, 3~5층의 연립주택에서는 천연재료인 벽돌, 천연석 등을 권장하나 백색 본타일도 제주도에 적합한 색으로 판단되어 사용하기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층이상의 아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조색은 백색이 좋고, 그의 그의 보조색이나 액센트색으로 사용 가능한 색채의 특성으로서는 색상이 노랑계열과 주황계열, 연녹색 계열과 하늘색 계열을 사용하고 이 경우 제주도의 천연색에 무채색이 많으므로 보조색이나 액센트색 모두 고명도(7-9) - 저채도(2-3)의 원칙을 틀림없이 지켜야 자연색과 조화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한편 제주 주택에서는 거실 전면의 테라스 상부 캐노피와 안방전면에 캐노피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비, 바람 등의 자연환경의 영향과 옥외 공간 이용을 입면적인 요소로 대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주택에서 캐노피의 설치여부를 분석하면 소규모 주택의 경우 설치 경우가 61.8%이고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38.2%이며, 중규모 주택의 경우 설치된 경우가 66.7%,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33.3%, 대규모 주택의 경우 설치된 경우가 94.1%,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5.9%로 전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67.8%,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32.2%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주택에서 더욱 많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노피가 설치된 경우 거실 전면 캐노피의 평균 길이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은 소규모의 경우 평균 1.23m, 중규모의 경우 평균 1.46m 대규모의 경우 평균 1.40m이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은 소규모의 경우 평균 2.72m, 중규모의 경우 평균 2.17m, 대규모의 경우 평균 2.90m이다. 따라서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간에 거실 전면 캐노피의 길이 차이가 약 1m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방 전면 캐노피의 평균 길이는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은 소규모의 경우 0.47m, 중규모의 경우 0.50m, 대규모의 경우 0.68m이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의 경우 소규모의 경우 2.00m, 중규모의 경우 2.06m, 대규모의 경우 2.50m이다. 그러나 안방 전면 캐노피의 설치여부를 작품규모별 작품지역 위치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규모 및 작품지역 위치에 관계없이 제주도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실 및 안방 전면 캐노피의 길이가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에 비하여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이 훨씬 길게 나타났음은 비바람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다. 이중 난간의 형태는 눈썹지붕형이 45.2%, 벽형이 31.3%, 난간이 없는 경우가 22.6%, 기타형이 0.9%이며 주된 재료는 눈썹지붕인 경우, 기와가 27.0%, 벽형인 경우 본타일 29.6%, 목재 1.7%이며 기타형으로는 주물철재의 난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6) 주택의 단면과 설비

설문조사에서 안방 천정고는 2.4m가 40%(건축가 52%, 일반인 35%)이며, 2.2m가 20%(건축가 18%, 일반인 21%), 2.3m가 16%(건축가 20%, 일반인 13%)로서, 느낌은

보통이다가 80%(건축가 82%, 일반인 79%) 낮다가 8%(건축가 9%, 일반인 7%) 높다가 8%(건축가 2%, 일반인 10%)에 응답하였음을 볼때 안방의 적정 천정고는 2.4m이다.

지붕 처마길이에 대하여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 소규모 주택의 경우 전면 평균 처마길이는 평균 88.2cm, 후면 처마길이는 23.1cm, 중규모의 전면 처마길이 91.5cm, 후면 처마길이 42.9cm, 대규모의 경우는 전면 처마길이 66.9cm, 후면 처마길이 52.3cm, 서귀포와 남제주군에서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전면 처마길이는 177.8cm, 후면 처마길이가 56.7cm, 중규모의 경우 전면 처마길이 177.1cm, 후면 처마길이 80.0cm, 대규모의 경우 전면 처마길이 132.5cm, 후면 처마길이 120.0cm로 나타나는데,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남쪽지역의 처마가 길게 돌출되어 있는 것은 기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처마길이에 대한 거주자의 의견으로는 안방의 경우 적당하다는 52%, 짧다는 46%로, 거실의 경우 적당하다는 62%이며 짧다는 34%로, 대체로 보아서 짧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마길이의 적정치에 대한 의견으로는 거실의 경우 150cm가 25%, 120cm가 23%, 100cm가 16%, 180cm가 11%로 나타나며, 안방의 경우 100cm가 33%, 120cm가 19%, 80cm가 18%, 50cm가 16%로 나타났다.

테라스에서 처마의 기능에 대한 응답이 비바람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가 47%, 여러가지 이용도가 높다가 32%, 집이 크게 보인다가 12%로 나타났다.

따라서 처마는 비바람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외에 주택의 외관을 크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와 작업과 여가활동이 외부공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1층 테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에서의 직사광선 뿐만 아니라 외부 테라스에서도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전면처마를 길게 돌출시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환경을 고려하여 제주도에 적합한 처마길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처마길이 산정 : $S = l / \tan(h)$

l = 처마지점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

h = 태양의 고도

예) ① 제주시의 경우 적합한 처마길이

H = 처마에서 거실바닥까지의 거리

$s = H / \tan(80.2) = 0.173H$

② 서귀포시의 경우 적합한 처마길이

$s = H / \tan(80.6) = 0.170H$

따라서 일사와 일조를 고려한 제주도 주택의 처마길이는 처마 돌출부 하단에서 개구부의 최하단 거리의 약 0.17배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 하지를 전후하여 정남방향으로 45일간 일사를 막고 동지를 전후하여 60일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처마(차양)길이를 설계할 때, 창 높이 1m에 대한 처마의 상대길이의 비를 α , 창 높이 1m에 대한 창위들에서 처마까지의 상대길이의 비를 β 라고 하면, 처마(차양)길이 비(α)는 0.465, 창위들에서 처마(차양)까지의 길이의 비(β)는 0.422로서 창 높이 1m를 기준으로 한 적정 처마(차양)의 상대길이는 약 40cm~45cm 정도이다.

보통 주택의 H 값은 230~260cm 정도이므로 처마길이는 40~45cm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값은 일사와 일조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제주도의 특성인 비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cm 이상의 처마길이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대주택중 남향의 개구부 평균치는 6.68m², 남동향은 5.90m², 동향은 6.48m², 북동향 3.58m², 북향은 3.71m², 북서향 3.53m², 서향은 3.09m², 남서향은 4.18m²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구부는 겨울에는 난방부하를 감소시키고 여름에는 자연통풍을 유도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창 의 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창 의 배치와 계절별 풍향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자연통풍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창 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제주도 현대주택에서 흔히 사용하는 미서기 창은 침기율(air infiltration rate)이 매우 높으므로 사용시에는 한 쪽을 고정 밀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창을 통한 열손실과 창틈으로 비, 바람의 유입 및 바람에 의한 창문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창틀에 웨더스트립을 설치한다. 여단이창의 들레길이 2.7m에서의 열손실은 0.09m 크기의 유리면에서 손실되는 열량과 같으나 웨더스트립 개구부의 기밀성을 높여준다. 또한 창틀을 통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절체 창틀을 써멀브레이크로서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차단의 방법은 절체창틀의 틈으로 폴리우레탄과 비닐내장재를 사용하는 두가지가 있다. 여름이 긴 제주도 지역에서는 복층 투명유리나 단열 반사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제주도 기후에서는 개구부에 유리블라인드나 창호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창호지는 광택, 투명성, 통기성 및 열적 성능이 좋고, 유리로만 된 창로를 설치하였을 때보다 한지를 1장 혹은 2중으로 사용하였을 때 보다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창 의 옆이나 윗부분에 부착된 수직 수평루비는 여름철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가능한 많은 햇빛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하다. 햇빛이 돌출면에 반사되어 실내로 입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출면의 색채는 어두운 것이 좋다.

주광에 의한 조명효과를 위한 수평 돌출물의 밑면은 지면에서 반사된 빛을 재반사하여 실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밝은 빛이어야 한다.

차양장치는 여름철 태양열 획득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공기가 차양장치와 창문사이에서 순환될 수 있고 창문이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다면



2칸집 전면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열의 80%까지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창문에 인접한 곳의 현회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겨울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바람으로 인한 열손실과 침기현상을 줄일 수 있다.

개구부의 위치는 실내공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특히 여름철에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한다. 창틀을 통한 열손실과 비바람의 유입 및 바람에 의한 창문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틀에 적절한 틈막이를 설치하며 창문 밖에 야간 단열과 바람막이 덧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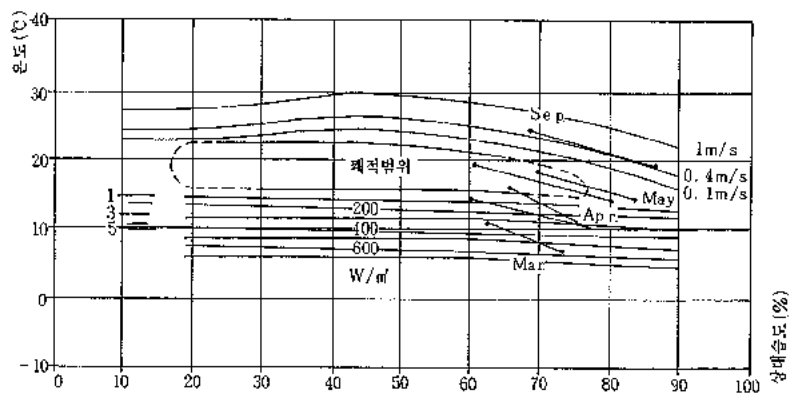
난방 설비 방식에 있어서 전통 건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돌이다. 제주도에서의 온돌은 비교적 늦게 1600년을 전후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육지에 비하여 미발달 상태로 되어 구들의 1/3정도만 온돌설비를 했고 입구에는 불을 붙이고 입구를 돌로 막아두면 밤새 연소되어 제주도의 겨울기온에 적당한 온도가 구들에서 유지된다. (그림 3)은 제주도 지방의 온돌이 북부 중부 지방의 온돌에 비해 불주머니가 작고 연료소비도 적은 구조임을 보여준다.

제주도 현대주택은 대부분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며 (62%) 그밖에 연탄 보일러(12%), 가스 및 전기 보일러(12%)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철 난방방식에는 전체의 72%가 고정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28%가 난로, 석유난로 등을 많이 사용하고, 가스 난로나 그밖의 보조난방 시설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풍설비에 있어서 연중 최대풍속 10m/s를 초과하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에서 창틀의 적절한 설계는 실내 온열환경 쾌적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도의 전통건축은 집을 둘러싼 외벽을 돌벽으로 쌓고 있다. 이때 전면방이 출입문(창문)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축담을 쌓고 있는데 이 공간을 못등이라 한다. 한편 강한 비바람이 올 때는 실내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풍채를 처마앞에 내어 매달고 창호의 앞에는 거창이라는 이중 덧문을 설치하여 바람을 피하고 있다.

제주도 현대주택의 외부 창틀은 현재 주로 알루미늄 재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열저항이 매우 낮아 기대되는 단열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한편 목재틀은 열저항이 좋으며 가공이 용이하므로 주택의 출입문, 창틀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목재 창틀은 창틀과 창틀이 만나는 부분에 요철을 두어 공기의 유출을 최소한 억제시킬 수 있는 가공이 용이하다. 또한 틈막이를 사용하면 접합 부위의 틈을 통한 공기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실내 단열막의 경우 창쪽에는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밝은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림 3〉 제주도의 생체 기후도(봄, 가을)

정남에서 동남과 서남으로 20° 범위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주택규모 및 층수

주택규모는 가족수, 소득, 기능분화도, 실난위 평균크기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다. 제주도의 실난위 평균크기는 기후조건과 생활편승으로 인해 한반도 육지의 타지역보다 다소 크므로 동일 기능조건에서 제주도 현대주택 규모는 다소 크게 하는 것이 좋다.

중규모(약 30~44평) 이상 주택에서는 2층형 주택형식을 권장하며 초기 단계에서 1층만 건립할 경우 장차 증축될 2층 평면과 입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1층과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1층과 2층의 면적구성비는 대개 6:4가 바람직하다.

3) 평면형태와 실구성

평면형태는 복잡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자형 또는 L자형 정도가 좋다. 2층 평면은 —자형이 좋고 배란다가 남쪽으로 —자 또는 L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실구성은 중규모 주택 이상일 경우, 3칸 겹집 평면 형식보다 전면 4칸 겹집 평면 형식을 취하는 것이 다양한 공간 구성에 유리하다. 거실과 안방, 거실과 작은방 그리고 거실과 바깥뜰이 연계되는 공간 분위기가 독특하게 창출되도록 강구하는 것이 좋다.

주방과 욕실이 인접되면 상·하수도 운수 설비 등이 집중되어 공사비가 경제적으로 된다. 식당, 주방, 허드렛 부엌 및 마당 등은 짧은 동선으로 연계되는 것이 좋다. 침실수는 자녀별로 독립된 방들을 마련한다는 원칙에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각실 계획

주택의 평면계획에서 필요한 가구의 배치와 창호의 위치가 기능적이고 합리적이 되도록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거실 : 통과형 공간을 지양하고 독립 또는 부분 독립 공간이 형성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식장과 책장 및 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정면적 이상의 벽이 마련되어야 하고 휴식과 안락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공간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안방 : 옷장·이불장, 화장대, 문갑 등 기본가구들의 위치와 취침시 머리를 두는 방위(대개 남쪽이 많음)와 창호의 위치들이 실내공간에서 상호 합리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녀방 : 옷장·이불장, 책상, 책장, 침대(필요시) 등 기본가구의 위치들과 창호의 위치들이 합리적으로 되어야 한다. 안방과 자녀방에서 옷장·이불장의 위치는 외벽측보다 가급적 내벽측에 배치함으로써 건물 전체의 전면폭이 넓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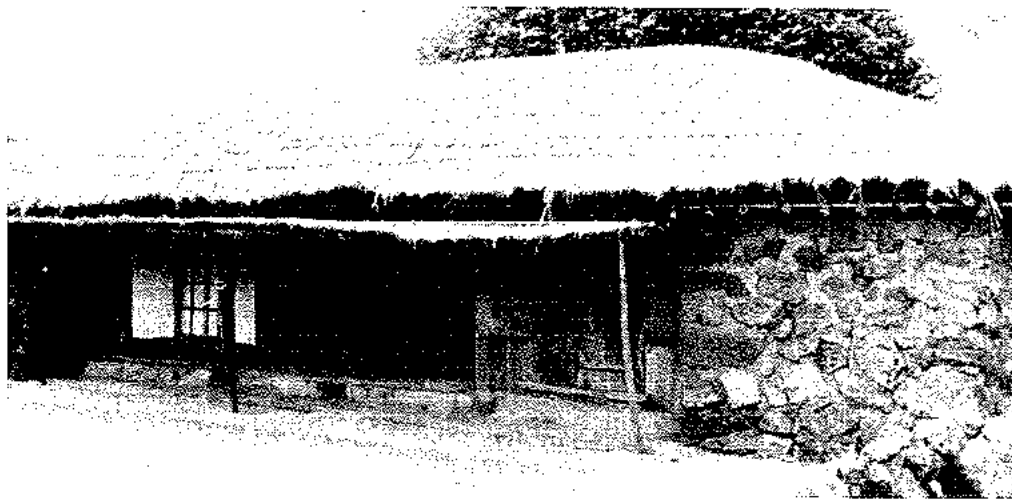
3. 지역성을 고려한 현대주택의 개선권장 사항

1) 택지분할 계획

건물배치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높고 단지개발 차원에서 마을구성과 경관구성이 우월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도로배치는 동서보다 남북축으로 많이 배열하는 것이 좋고, 택지의 규모는 수용될 주택의 규모와 층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최소한 60평 이상이 바람직하다.

택지의 모양은 동서보다 남북으로 길게하여 전면뜰이 남쪽방향으로 많이 확보되도록 하고 택지의 폭은 최소한 12~14이상 되는 것이 좋다. 택지분할 방위에서 건물전면 방위가



3칸집 전면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방 : 냉장고 - 작업대 - 싱크 - 작업대 - 조리대 - 작업대의 배치순위(영국 · 파가 모리스 이론)가 되어야 하며 작업대의 총합계 길이는 적어도 1.5m 이상되어야 한다. 싱크대 전면 벽에 창이 배치되도록 하고 조리대 전면에는 창이 없는 것이 좋다.

욕실 / 화장실 : 욕실과 화장실을 욕내에 설치하더라도 분리하여 시설하는 것이 좋으며 욕외에 별도로 여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좋다.

현관 : 현관에서 신, 비옷, 우산 등을 위한 수납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 경조 대사를 위한 접객이 많으므로 현관 면적은 큰 것이 좋다.

기타 수납공간 : 주택내 필요한 요소에 각종 물품수납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좋다.

지하실 : 지하실은 난방기설치 및 잡창고 용도로서 시설하는 것이 좋으며, 건물 전체에서 기단을 만들고 1층바닥을 다소 높이면 지하실은 채광과 통풍조건이 좋은 공간이 된다고 본다.

5) 창호구조와 창호배치

제주도 기후 조건으로 보아 각 방들의 창호면적은 최대한 크게하는 경향이냐, 재래식 미서기 창호들은 비바람이 스며들고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다. 제주도에는 맞는 특수구조의 창호 크기와 개폐 크기, 그리고 비바람이 스며들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는 창호구조가 개발되어야 한다. 내부 창호에서 미서기 유리창문의 창살 모양은 미관상, 기능상으로 볼때 사선형이나 수평형 보다 수직형이 좋다. 내부 및 외부 창호의 위치는 실내 공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여블철에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6) 처마와 캐노피

일사를 고려한 일반적인 순수 처마길이(외벽에서 처마끝)는 45cm 이나, 방위별로 비바람에 대한 외벽과 창을 보호하는 목적이라면 처마길이가 다소 조절될 수 있다.

특히 안방과 거실 전면에 설치하는 처마(캐노피) 길이는 남쪽 비바람을 고려하고 처마밑에 옥외공간을 이용하겠다면 여러가지 길이로 조절될 수 있으나 일조문제와 건물 전체외판과 지붕처리의 조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건물 외관 형태

주택입면에서 기단, 벽체, 지붕 등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벽체에는 창호의 모양, 크기 및 분포상태 그리고 입면에 나타나는 모든 재료와 색채구성 등이 건물 외관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된다. 건물에서 적당한 높이의 기단을 설치하는 것은 방습기능과 외관상 좋다고 본다. 그러나 기단의 높이는 주변건물과 지형을 고려하여 60cm 내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붕형태는 모임지붕, 완곡한 원형지붕, 만사드지붕 중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으며 박공지붕, 원통형지붕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붕처마끝에서는 두터운 수평처마선보다 세련되어 보이는 다소 얇은 수평처마를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

외벽창이나 캐노피의 개구부의 일반 모양은 수평구형 또는 수직구형이 좋으며 가로세로비는 대개 1 : 1.5 ~ 1.7 범위 정도가 좋다고 본다. 개구부형태를 부분적으로 세미아치형으로 변형하는 것도 운치가 있어 권장할 만하다.

건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따라서 외벽 수직면이 상단에서 안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도 향토성을 살리는 뜻에서 좋다고 본다. 2층 주택인 경우 1층 외벽을 현무암으로 보호하고 2층의 벽을 밝게 처리하는 수평 분리법도 좋다고 본다.

8) 대문계획

대문의 모양은 본건물의 형태나 지붕 모양과 유사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문의 규모는 본체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문의 창살방향은 수평보다 수직으로 하는 것이 향토적으로 해석되어 좋다고 본다.

9) 색채계획

주택의 외벽색은 기단을 제외하고 무채색 또는 백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제주쪽으로 갈수록 백색이 좋다고 본다. 지붕색은 벽체와 대비 · 조화시키는 것이 좋으며 빨강과 주황계열 중에서 선택하고 명도는 원거리에서 볼 경우 주변환경보다 조금 밝게 보이는 것을 권장한다. 채도는 진한색이 되지 않도록 하고 흰색이 많이 섞인 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이것은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해양성 기후 건물의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4. 제주도 주거의 향토성에 대한 미래상

향토성이 담겨진 제주도 주거의 미래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앞에서 제주도 전통민가, 현대주택에서 여러 분야별로 분석된

특성을 고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제주도 현대주거의 개선점이 제시되었던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주도 주거의 미래상을 고찰할 수 있다.

지역적 고유문화는 외래의 보편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의식구조 변화와 함께 가치관이 서로 비교되고 새로운 주거 생활관이 생기며 주거의 공간과 형태가 창출된다. 이러한 창출은 대중의 주생활 의식변화와 선도적인 지역주민이 갖는 가치관이 전제될수록 더욱 촉진된다. 또한 이것을 수용하고 소화하는 선도적인 건축가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조금씩 그 미래상이 구체적으로 개척된다고 하겠다. 앞으로 개척되어야 할 분야별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택규모와 주택의 질

주택규모는 일반적으로 가족구성, 소득수준, 기능분화도, 공간구성, 실의 크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주도에서도 가족구성은 핵가족화, 소가족화 추세로 가고 있지만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의 특성화로 인하여 제주도 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외래 현대문화의 영향을 보다 빨리 받게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족들은 실내에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보다 문화생활공간(기능분화도)을, 그리고 보다 넓은 공간을 찾는 추세가 될 것이다. 앞으로 소득 향상에 따라 주택규모는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성능이 좋은 건축자재가 활용될 것이며 주택의 내부시설도 아울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내부시설이라 함은 대표적으로는 조리, 세탁 및 청소 등 가사시설과 첨단전자기기의 이용과 냉난방기기의 고도화 등을 뜻한다.

2) 주생활 방식과 내부공간

가족구성원들의 주생활방식과 그것이 지닌 가치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는데 대한 예측과 가치판단 그리고 그에 대한 건축가의 주택형면계획상의 현명한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 안방은 다목적 용도의 기능에서 점차적으로 부부를 위한 전용공간과 자녀들도 독립된 자기방으로 세분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일정한 규모의 주택공간은 여러기능을 갖는 작은방들에 의해 분할되는 경우와 최소기능의 최소방만 구획하고 나머지를 공용실로 최대한 확보하여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어느 것이 한 가족의 주생활에서 정신적, 심리적 안정과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느냐하는 문제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새로운 연구과제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 경제대사시 친족모임이 현대생활과 핵가족화하는 과정에서 퇴색된다면 이에 소요되었던 거실을 중심으로 한 주거공간은 달리 이용되고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생활과 비특정 가족 입주자를 위한 물리적 공간계획은 平均 室單位制 交換論(송종석, Flexible Housing Form, 1979)을 적용하여 이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주택구조와 자재

향토성 건축은 지역적 특산물에 의한 자재를 이용하여 지역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오랫동안 계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전통건축 양식이다.

현대화, 산업화 사회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구조재, 치장재, 단열재, 방수재, 구조기술 그리고 부품 조립화와 저렴생산과

새로운 설비에 관한 연구와 그 활용은 새로운 시각에서 주택구조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 신자재 개발과 특수상세 및 모듈에 관한 설계연구 등은 현대건축의 보편적인 일반 과제들이다. 우수한 단열재와 방수재의 성능, 각종 냉난방 시설의 고도화 등은 주택구조는 물론 주택의 형태와 양식상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제주도의 조형적 향토성을 기반으로 하여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는 새로운 구조와 건축양식을 창출하고 수용하는 과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주거건물의 형태

주택은 다른 건축에 비하여 규모는 작지만 조형적 조작성은 섬세하고 그 시각적 반응은 예민하다. 건축조형은 기능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평면과 단면들의 합성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건축가가 구성한 의도적인 형태의 이미지를 토대로 평면과 단면을 융화·수용시키는 경우도 있다. 기능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보수관습세력은 전자에 속하고 개혁과 개성적 표현을 강조하는 혁신세력은 후자에 속한다. 전통에 뿌리를 둔 관습세력은 보편적 현대문화의 혁신세력과 융합되어 새로운 진화가 연출된다.

이 새로운 연출, 작품표현은 어느 경우에서도 주거건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조화들이 시각적으로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형태의 조화는 균형에 있고 성숙함에 있지만 형태자체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신선미에 대한 갈구는 인간의 영원한 희망과 함께 역사속에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이루어 놓은 제주도 현대주거에 대한 성숙한 비례조화 등을 파악하고 새롭게 도전되는 조형적 개척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전통적, 관습적, 향토적 조형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제주도민에게는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 또한 세계도처에서 보고 느끼는 또다른 성숙된 조형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현대생활의 가치와 경제성 등이 집목되는 가운데 구체적 의미와 목적을 지닌 새로운 제주도 향토성 조형이 시도되고 창출될 수 있다고 본다.

5) 미래 지향적 건축가의 자세

주거 건축의 향토성에 관련된 미래지향의 현실적 건축과제는 여러분야에 걸쳐 방대하게 깔려 있다. 건축에 대한 완벽한 이념과 표현은 작가로서 갖추고 싶은 능력의 극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전에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크고 작은 공적이 인류문화사속에 건축분야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다.

자연, 사회, 경제, 기술발전속에서 그 시대의 문화가 부여하는 참다운 인간생활, 주거생활, 집단주거생활 등의 참모습이 어떤 것이며, 그것을 감싸는 공간과 건축형태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와 해답이 역사속에 계속 요구되고 있다.

건축은 인간생활을 윤곽하게 하고 숭고하게 격상시키는 분위기이며 그릇이다. 건축가는 항상 역사·문화적인 차원에서 사명을 의식하며 자기능력을 연마해야 한다. 아이디어는 상상력과 지혜와 노력의 산물이며 개인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건축가의 아이디어나 영감에서 창출되는 미래상의 표현은 아주 소중한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많은 건축가로부터 기대되고 축적된다면 제주도 주거의 향토성에 대한 미래상은 밝다고 생각할 수 있다.

21세기 건축을 향하여

Go toward the 21C Architecture

코프 힘멜브라우 / Coop Himmelblau

번역 / 이용재 譯

Designed by Lee, Yong - Jae

I. 도시에서의 우리 신체의 소실

- 프랭크 R. 베르너 -

이제 코프 힘멜브라우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공인된 설계집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얼마나 많은 화려한 건축전위그룹들이 화려하게 등장했다가는 대부분 조용히 사라져 갔는가? 그중 한 그룹만은 프로페셔널리즘과 격렬한 표현력을 강화하면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 그룹은 Wolf D. Prix, Helmut Swiczinsky 그리고 Rainer Michael Holzer (그는 71년에 탈퇴한다)가 1968년에 비엔나에서 창립한 코프 힘멜브라우이다.

창립선언문에서 그들은 “코프 힘멜브라우는 환상의 힘을 이용해서 구름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건축을 만들려는 이념의 집단이다”라고 선언한다. 그후 10년후에 그들은 또 이렇게 주장한다. “이제 팔라디오풍같은 역사적인 건축들은 지긋지긋하다. 그렇다고 혼란스런 건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제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건축은 더욱 풍요롭고, 소모적이고, 반전되고, 심지어는 파괴적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이 두가지 문제제적인 선언은 그들이 그토록 혐오해 마지 않는 “자기만족적인 민주주의에 근거한 시민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비더마이어 건축”에 대한 공격으로 가득차 있다. 코프 힘멜브라우의 이론적 근거는 “원자들처럼 떠다니는 도시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같은 슬로건은 60년대 초반에 만연했던 비현실적인 신 - 미래주의자들보다는 급속하게 땅가져 가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도로 1967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Urban Fiction”이라는 전시회와 관련이 있다. 유사한 경향의 하우스 루커가 그 유명한 압축공기로 채워진 대체환경을 만들었던 것과 달리 코프 힘멜브라우는 흔들리는 구조(1966)나 압축공기로 채워진 “빌라 로자(1968)”, 또는 자유로이 부풀려지는 “구름주택(1972)” 같은 주거 유니트들로 나타난다. 그것들은 공격적인 소비건축에 대한 찬양이라기 보다 비물질화되거나 “분해된” 일반건축구조나 개인적인 꿈을 시각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초기에 코프 힘멜브라우는 “머리”와 “부드러운” 분자내 원자의 공간적 배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이나 백박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적인 효과들을 이용해 안면운동이나 심장의 고동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한다.

70년대 초반에 코프 힘멜브라우는 헤르베르트 마르쿠제가 예술에 대해 정의했던 것처럼 건축도 “그들의 전통적인 형식과 조화를 포기함으로써 본질에 접근하여 초현실적인 무조형식에 도달할 수” 있어야만 건축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같은 코프 힘멜브라우의 불협화적인 발전은 이미 현대의 대규모 도시는 더이상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고려”되어질 수 있을 뿐이라고 갈파한 당시 비엔나 아방가르드 그룹의 대부인 Guenter Feuerstein의 날카로운 해안의 영향을 받는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다. 코프 힘멜브라우는 “지금 도시는 진부한 삶을 담도록 어중간하게 기능화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포이에르슈타인의 지적에 귀 기울인다.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혼란스럽고 예쁘게 치장하는데만 몰두하는 전통적인 신념”들에 공박하면서 대담하게 “감성적인 건축의 도래”를 요구한다. 사실 새로운 건축적 특성은 “자연발생적인 점유에서 발생하는 타락의 정도에서” 찾아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주변의 황량한 장소로부터” 새로운 힘을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이 이들 사상과 정반대되는 “건축적인 왜곡의 미학”이나 “폐허의 시학”과의 거리를 좁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이어 “도시를 왜곡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양산된다. 그중에서도 “죽음의 천사”는 한스 홀라인의 “불타는 건축”을 상기시킨다. 특히 주거계획인 “뜨거운 아파트(Hot Flat)”는 그같은 특성을 대변한다. 이 10세대를 위한 뜨거운 아파트는 정말로 “생태적인 구조물”이다. 예를들어 내부공간은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된다. 특히 구조는 대각선 메탈 캠버로 지지되어 밤에는 수많은 가스등의 화구를 통해 도시의 하늘위로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가운” 도시건축을 능가하는 “생태성”과 “차가움”을 만들어 내고 싶은 것이다. 동시에 불과 얼음같은 고대의 상징을 시적인 황량한 상징과 결합시켜 우리 시대의 진실된 상징을



① Rooftop Remodeling 전경(1989)

창출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뜨거운 아파트”의 요소들은 일시적인 구조물인 15미터 높이의 “불의 날개(wing of fire)”에서 현실화된다.

또한 “불타는 건축”의 격렬함은 대중적인 술 주점인 비엔나의 “빨간 천사(1981)”에서 내부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어느정도 추상적이고 조형적인 어휘이기도 한 이 “천사”라는 단어는 여기서 신화적인 창조물을 따라 만들어지는 세련되고 복잡한 공간구조를 지칭한다. 이 공간에서 폐허의 시학은 공격적인 상황을 띠면서 어느정도는 동정적이고 자기암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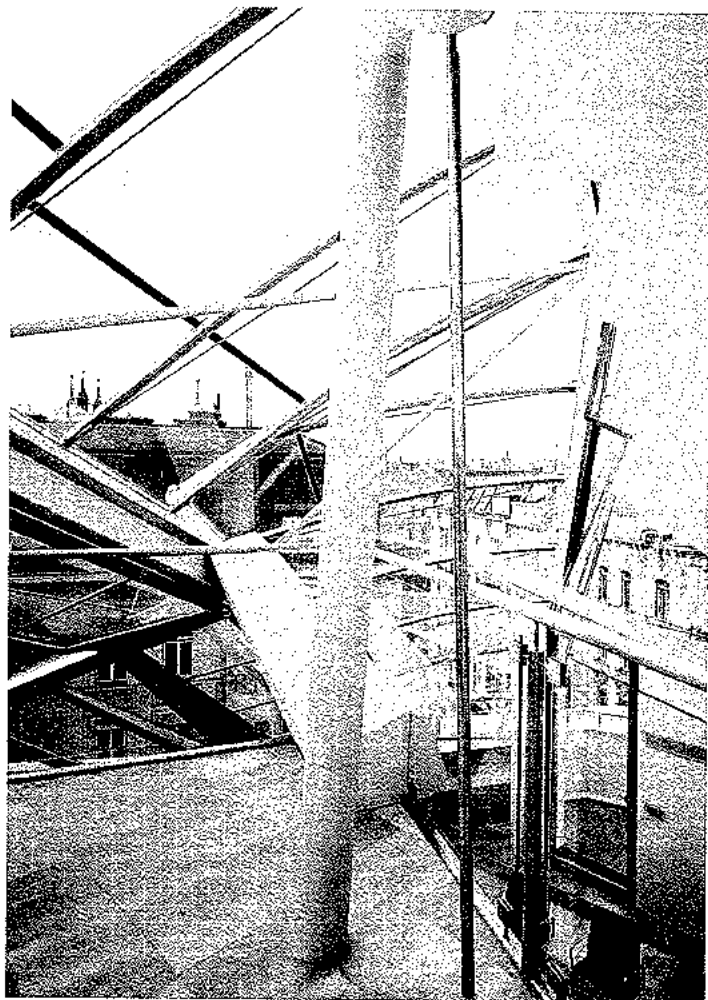
80년대 초반에 돌면서 그들은 초기의 모토인 “엄격한 시간, 엄격한 건축”을 지향한다. 특히 “도시의 스킨(베를린, 1982)”이나 “건축은 자금이다(슈트트가르트, 1982)”같은 기념비적인 장치들은 3차원적인 해체주의적 계열의 작품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요작업들은 그들의 일시적이고 예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반 자본주의적인 건축비전과 반 포스트모던적인 선동 장치들은 이미 오래전에 명맥이 끊어졌지만 지금은 점차 코프 힌멜브라우의 이해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기존관계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정당했으며 이 고집스런 충고를 건축가들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코프 힌멜 브라우를 모사하는 건축가들까지 등장한 실정이다.

확실히 그동안 시대정신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금 현재 그 많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옹호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찰스정스 주변의 최후의 저항자들은 제외하고) “디컨스트러션”이나 “디컴포지션”

같은 상반된 개념들이 필립 존슨의 주도로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해체주의 전시회(1988) 이후 유행을 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나 자꼬 데리다나 폴 드 만의 저술을 접할 수 있다. 사실 자꼬 데리다는 시각적인 형식의 진실성에이나 그것으로부터 역사적으로 파생된 의미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도구화하고 있다. 그러나 피터 아이젠만이나 프랭크 게리 같은 노장 건축가는 물론이고 베르나르 추미니 다나엘 리베스킨트, 자하 하디드, 램 볼라스, 코프 힌멜브라우 같은 젊은 건축가들이 그들의 철학적 도움이나 지지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을까?

디컴포지션은 애정어린 전체를 의도적이고 지적으로 단편화하고 그것을 다시 완전히 새로운 개념적 작동 규준에 따라 재구성하려 한다. 그러나 이 디컴포지션이 단순한 옛것의 순환현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격렬한 논쟁 때문에 그런 조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디컨스트러션과 디컴포지션의 문제는 몇년전에 루돌프 위트코어가 지적한 유명한 경구인 “고딕이냐 고전이냐”의 문제로 귀착되고 만다. 위트코어는 공간과 형태의 “열린”개념과 “닫힌”개념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작용 효과를 이용하여 아폴로신의 군제에 대해서는 디오니소스적인 조형적 팽창을 가지고, 또는 스크라철학의 형식주의에 대해서는 데카르트의 사고유형을 가지고 끊임없이 투쟁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양식의 문제라기 보다 개념적인 모델, 즉 이상적인 전략의 문제이다. 우리가 20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고딕 건축가로 코프 힌멜브라우를 꼽는다면 잘못



2

생각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추측보다는 더욱 확고한 문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 코프 힘멜브라우가 세계 정상의 건축가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그들의 복잡하면서 개인적이고 분열적인 공간적 픽토그램이나 사이코그램들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으면서도 점차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아가면서 신비감을 높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힘멜브라우에 대한 금지법도 해제되어 가고 있다. 예를들어 비엔나의 극장들이나 캘리포니아의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슈트트가르트대학의 하이슬라회관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제 “공인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전통을 갖는 이같은 현대건축의 “새로운 야성적인 작품들”은 고도로 전문화된 수법을 이용해서 공간에 대한 인간의 비전과 열망, 꿈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인습적인 수법을 배제하면서 공공의 분노와 모욕을 환기시킨다. 차가움 대신에 뜨거움을, 일체화보다는 파괴를, 드로잉대신에 개념도를, 기계적인 허식 대신에 신체언어같은 많은 매개변수들이 “새로운 안락”을 꿈꾸는 코프 힘멜브라우의 작업에 등장한다. 그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두번째 이유는 다분히 그들에게 쏟아진 비난들에 힘입고 있다. 즉 그들의 제스처적이고 표현적인 구조주의는 결코 극도로 체계화된 기존도시구조를 바꾸어 놓을 수 없었다. 대규모의 도시들의 이른바 거품공간들이 안고있는 냉소주의나 목시적인 교통과 천국의 열은 코프 힘멜브라우를 매료시키기엔 충분했다. 그래서 이들 비엔나 건축가들은 햄버거 스카이라인(1985)같은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명해가기 시작한다. 아주 작은 구조물들에서 발견되는 그들의 전문인으로서의 진지함이나 “재치”들은 경탄할 만하다고 피터 쿡은 지적한다. 그것은 코프 힘멜브라우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걸쳐 꿈꿨던 도시 유토피아가 이제 포기됐음을 뜻한다.

이제 새로운 코프 힘멜브라우의 스펙트럼은 1987년 파리에서 개최된 신도시센터 현상설계에서 당당히 당선됨으로써 받아들인다. 최초의 스케치에 등장하는 분기하는 도시의 순환선들과 행동과 사고 그리고 선들은 많은 구성적(다행히 해체적이지 않다!) 변환들에 의해 작동되는 도시공간의 혼란스런 텍스처에 등장한다. 까칠로 지레 같은 도시이론가들이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려 했던것이나 “회화적인 도시구조”를 주창했던 19세기의 이론을 복고시켜 예쁜 도시를 다시 구축하려 했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노력들은 모두 억제되거나 폐기되고 코프 힘멜브라우는 네오 퓨처리스트적인 도시의 오르가니즘의 재편을 선언한다.

움직임(motion)이나 프로펠러가 뒤로 밀어내는 기류, 진보, 카메라의 전후 이동효과(trackings)같은 통합된 다이나믹한 요소들로 운용되는 새로운 그들의 어버니즘은 인습적인 도시계획의 정적인 요소들 이상으로 효과적인 체계이다. 하디드의 홍콩 파크클럽이나 추미의 라 빌레트, 피터 윌슨의 독일 문스터를 위한 시티 폴라지, 그리고 코프 힘멜브라우의 벌인 - 세나르 도시계획안처럼 도시구조의 기반과 건축간의 상호교섭을 지향하는 단편적이고 교훈적인 작품들은 모두 21세기를 예감한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알도 로시의 모데나모지 같은 유추건축과는 엄격히 대비된다. 이 대비는 다시 “고딕이나 고전이나”는 논쟁으로 환원된다.

코프 힘멜브라우가 다만 미래의 전혀 다른 도시적 중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 그것은 현재의 도시계획에 던지는 드라마틱한 변화에 불과하게 된다. 그것은 또한 새로운 도시건축을 꿈꿨던 1920년대의 혁명적인 건축가들이나 유기주의자들, 표현주의자들 그리고 미래주의자들의 재안을 현실화시켜 줄지도 모른다. 미셸 푸코는 정말로 공적인 도시계획을 현실화하고 싶어하지 않았는가!

2차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그라츠 스쿨이라 불리는 많은 오스트리아의 전위그룹들이 대부분 모방에 전념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코프 힘멜브라우의 볼프 프리크스와 헬무트 스위겐스키는 정말로 대단히 “새로운 야성적 인물들”이다.

이미 60년전에 루이스 머포드는 “탈출의 유토피아”와 “재구축(reconstruction)의 유토피아”를 구분한바 있다. 코프 힘멜브라우의 “재구축의 유토피아”는 레온 크리에의 아틀란티스 프로젝트같은 복구적인 탈출세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제 코프 힘멜브라우의 개방적이고 인간적인 건축은 실용적인 도시계획의 모티브들을 통해 계속 발전돼 나갈 것이다. 이제 냉소와 풍자, 야유로 가득찬 코프의 페이스스는 비엔나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프 힘멜브라우가 지향하는 더욱 인간적인 건축의 재구축은 아직 불완전한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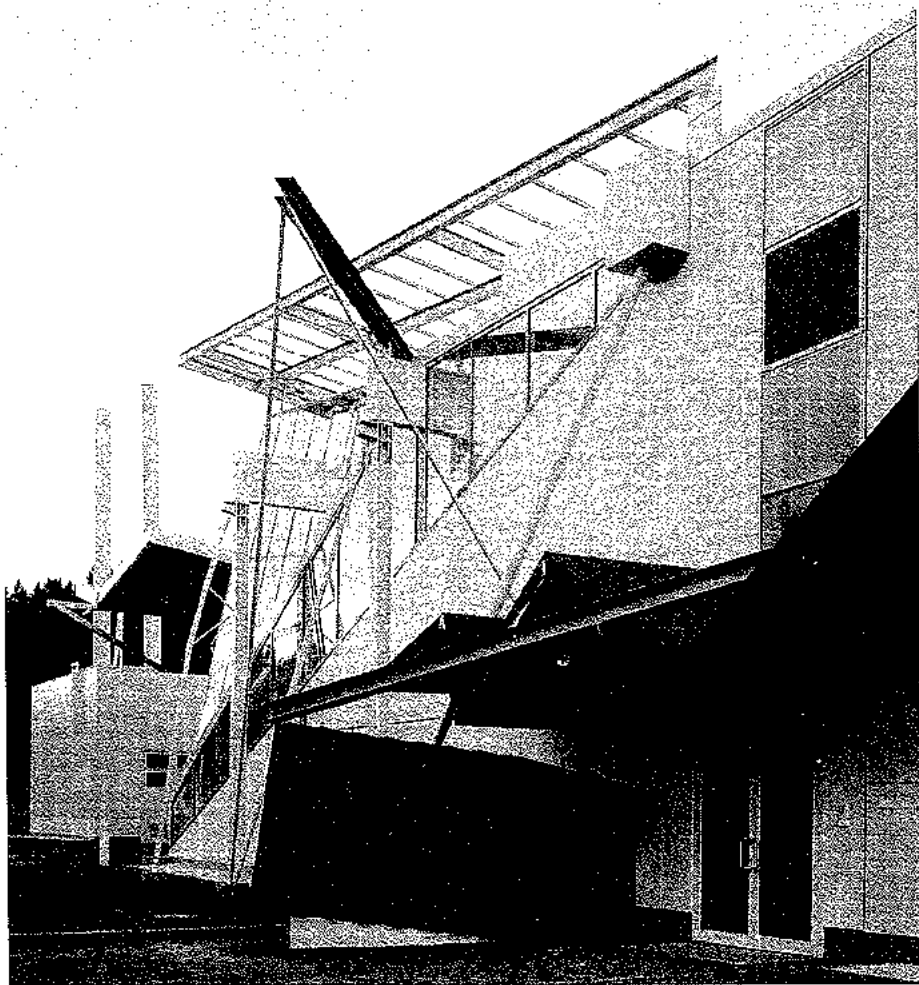
우리는 이제 이같은 건축방향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그동안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은 물론이고 조형적인 포스트 모던의 예술적 매개체로서의 디킨스트럭션이나 디킵포지션도 거부한다. 반면에 고전적인 모더니즘의 전위적인 번뜩임으로 가득찬 자의식적인 하이테크 형태는 규칙적으로 미리 포장된 브레상스로 찬미된다. 코프 힘멜브라우의 새로운 디자인 모험주의는 인제나 현재적이며 앞으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코프 힘멜브라우는 지금도 새로운 디자인의 모험을 준비하고 있다. (AU 8907)

II. 열린건축을 향하여

- 볼프 프리크스 -

당시내에서 가장 혼란 질문이 점점 망가져가는 세계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계획하고 건설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계속 이런 문제들로 억압받아야만 하는가? 비엔나 출신의 코프 힘멜브라우는 억압에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요된다고 가르쳐준 프로이드에게서 도움을 구하라고 충고한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작품활동에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이제 안전한 건축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열린건축(Open Architecture)은 열린 정신과 자의식을 의미한다. 사실 이제까지의 20세기 건축사는 닫힌공간으로부터 열린 공간으로의 해석으로 점철돼 있다.

이상적으로 말할때 우리는 용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객관성이 배제된 구조를 짓고 싶어 한다. 그 결과 그런 구조물에는 예외적인 공간은 없고 뒤엎키거나 무조건 개방된 공간만이 존재한다. 복잡성(complexity)은 우리의 목표이다. 19세기적인 건축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사회의 다양성이 수용된 복잡성을 찾아나가야 한다.

‘아니 당신의 건축은 아주 공격적이군요. 왜 그렇게 경사지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렇게 찢었습니까? 왜 그렇게 비틀었습니까?’라고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간단히 말해 흥미로운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능을 무시하면서까지 경사지게 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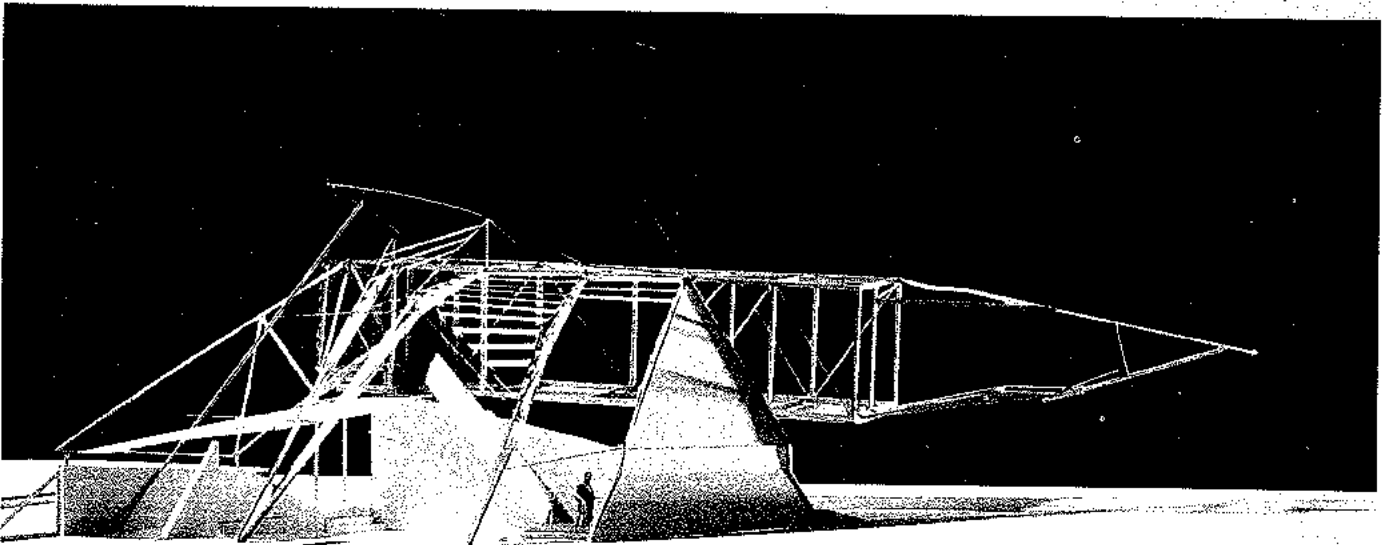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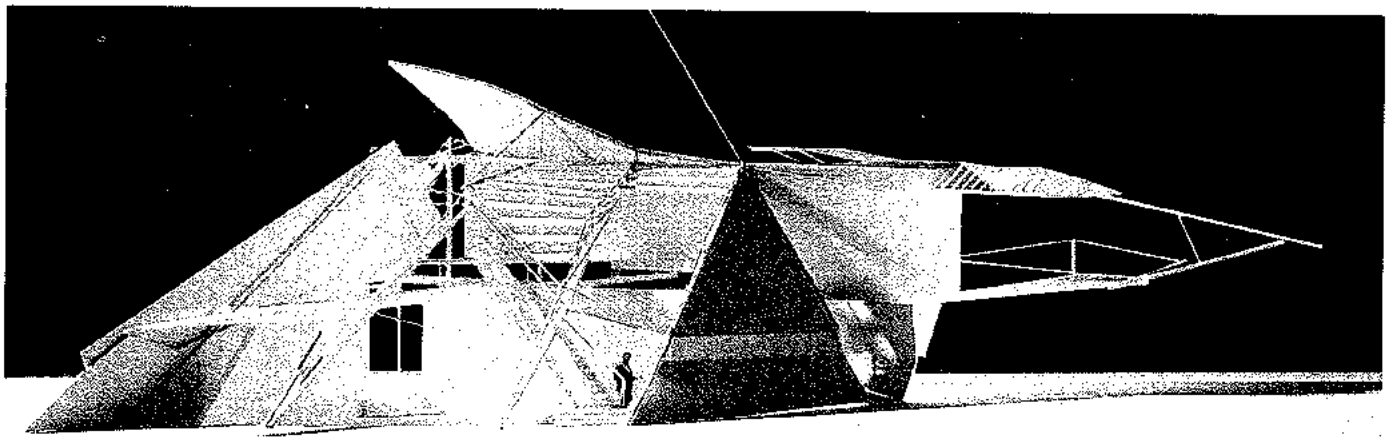
코프 힘멜브라우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팀의 협동작업이다. 친구이자 파트너인 헬무트 스위진스키와 나는 모든 프로젝트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Open Society)’의 영향으로 열린 구조물들을 주창하면서 다락건축(loft building)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이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둥과 박공벽, 삼각벽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작은 주택만 양산할 때였다. 이에 염증을 느낀 우리는 화살이 판통하는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의 첫번째 계획안인 슈트트가르트 대학에서는 이동들을 위해 부분적으로 비틀림 효과를 도입하여 뒤엎힌 공간을 만들었다. 1982년에는 50호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계획했다.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랜드스케이프 개념의 오픈시스템을 만들어 거주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건물을 조가비 모양으로 만들어 거주자들이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성을 위해 각 세대는 5미터의 높이의 600미터길로 펼쳐지는 구조를 고안하여 당시 정부가 만드는 아파트보다 거의 반값으로 건설비를 줄일 수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테 얇힌 공간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억압을 제거해야 했다. 건축에서의 복잡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적, 역사적 법칙을 제거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건축주를 무시해야 하며, 세번째로는 너무 공사비에 얽매어서는 안되며, 어쩌면 공사비를 무시해야 한다.

디자인의 독일식 표현인 - Entwurf - 는 이를 잘 말해주는 단어이다. 그것은 원래 잠재의식적이고 다이나믹한 절차를 뜻한다. 우리는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너무 개념에만 매달려 왔다. 도면을 그리면서 실제적인 결과물을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팀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도면을 그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3차원적인 모형으로 만들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한 도면이나 디테일보다는 다차원적인 배치도가 중요하다.

이같은 잠재의식적인 절차는 우리의 생각을 아주 빨리 그려보일 수 있게 해준다. 이를테면 개념구상단계에서 건축주를 설득시킬 수 있는자를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확실있는 건물을 자를 수 있는가만을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물을 박차고 오르는 고래를 본적이 있는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본 그 장면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나는 물을 박차고 오르는 고래처럼 도면을 그리고 싶다. 30톤의 무게를 지닌 고래가 15미터 이상을 점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우리는 도면을 그렇게 빨리 그리라는게 아니라 그 느낌을 잡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고래사냥꾼이 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열린건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손과 몸의 움직임에 가지고 언어적인 묘사를 보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미술에서 이런 방법을 액션 페인팅이라 부른다. 비엔나에서도 이런 사조가 한때 유행하여 많은 미술가들이 환경적인 억압을 피하고 공간의 사이코그램(psychogram)을 취해왔다. 이를테면 파리 바깥에서 벌어진 도시계획 현상설계에서 바디 랭귀지(body language)는 최초의 도면이었다. 이때 머리의 에너지 선들은 곧 모델로 변환되었다. 이 에너지 선들사이에서 도시가 탄생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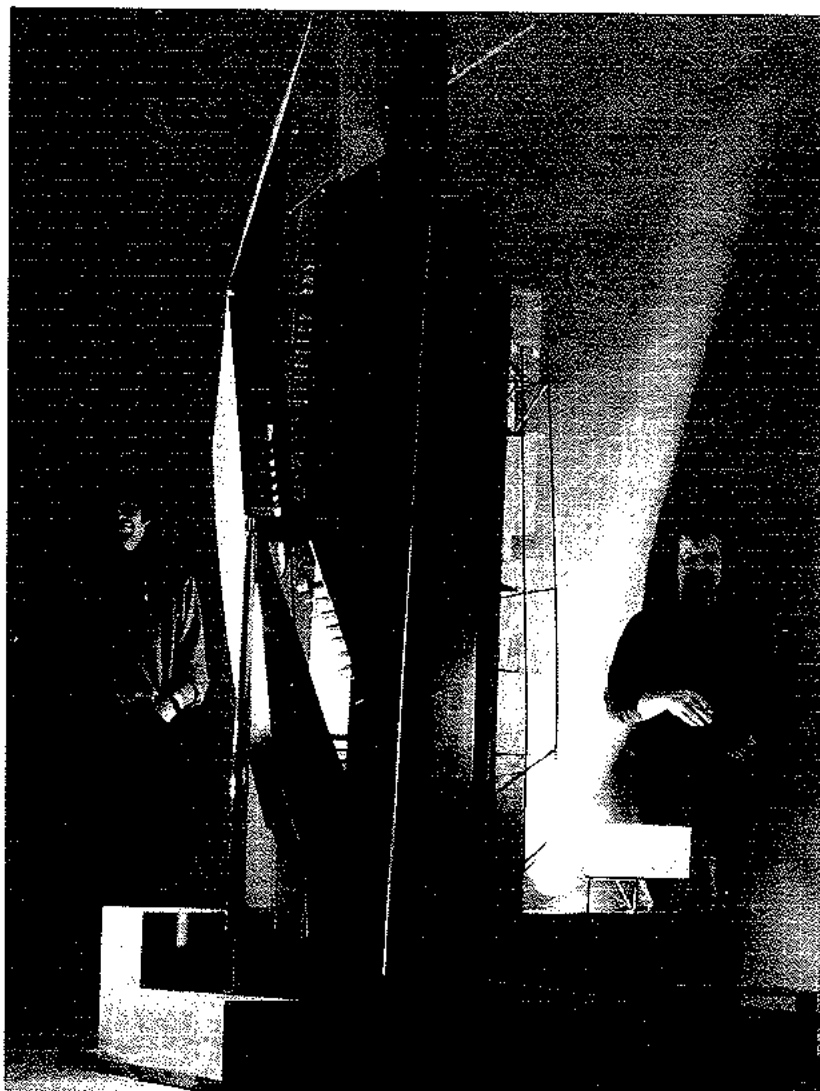
그같은 최적의 예가 극장일 것이다. 거기에는 두개의 개념이 상존하는데 내부형상과 외부형상의 개념이 그것이다. 3년전의 현상설계에서 우리는 전체 극장의 볼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다기능의 무대를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극장의 개념을 위해 코드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숨겨진 비밀스런 프로그램을 위해 건물의 코드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했었다. 결국 기존극장을 살리자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여 리노베이션을 하게됐다. 규범을 벗어나는 디자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선위주의 디자인을 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내년봄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바디 랭귀지와 건축을 어떻게 하나로 엮을 것인가!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 60년대 후반에 심장의 고동을 빛과 소리로 변환시켰던 오브제가 있었다. 또한 얼굴의 움직임을 색채와 소리로 변환시켰던 우리의 조각품도 있었다.

뮤지엄과 갤러리를 위한 조각품이나 환경조각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설계과정을 현실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그런 최초의 프로젝트로 독일 뮤지엄을 위한 환경조각이 있다. 그 도면은 1982년 3월 5일 순식간에 그려졌다. 헬무트와 나는 그 모델을 보고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난다. '이봐 이거 지어놓으면 아주 괴물이겠는걸!'

이처럼 열린 설계절차를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열린주택이다. 아주 복잡한 이 주택은 마치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 같은 작품이다. 우리는 이 작품을 위해 건축주와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은 기능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쪽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이 주택은 건물로서 보다는 하나의 감정으로 존재한다. 이때 형태나 디테일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조명이나 높이, 무게, 조망같은 것이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나는 눈을 감은채 손을 끄적이면서 감정의 끄나풀을 잡으려 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도면이라고 안 부르고 주택의 사이코그램이라 부른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드로잉과 모델을 상세와 구조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런 단계에서 무언가 자의식적인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경사진 상자가 절연성이 뛰어난 패시브 에너지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중

- ④ Open House 모형(1983)
 ⑤ Skyline for Hamburg 모형(1985)



셀구조를 만들었다. 건축주는 거주도 가능하고 독서나 수면에도 적합한 주택을 원했으므로 그것이 바로 열린건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인 2차나 3차 단계에서 구조적인 검토가 행해졌다. 이런 하늘을 떠다니는 감정을 건축화해내기 위해서는 기둥이나 보 이상의 구조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 팀의 구조공학자는 거의 독보적인 해체주의 경향의 전문가이다. 그는 모든 부재를 해체한 후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결합해내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그후 이 프로젝트는 각종 매스컴을 타면서 로스 앤젤리스에 유사한 주택설계를 의뢰받았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건축주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에 관련된 모든 도면들을 패키지로 팔려고 소더비 경매장에 내어 놓았는데 영화배우 킴 베신저가 이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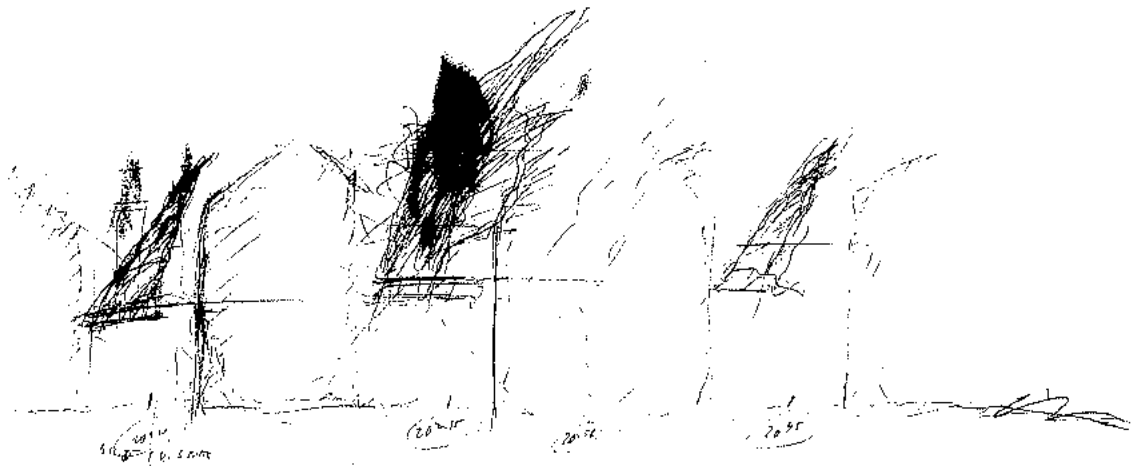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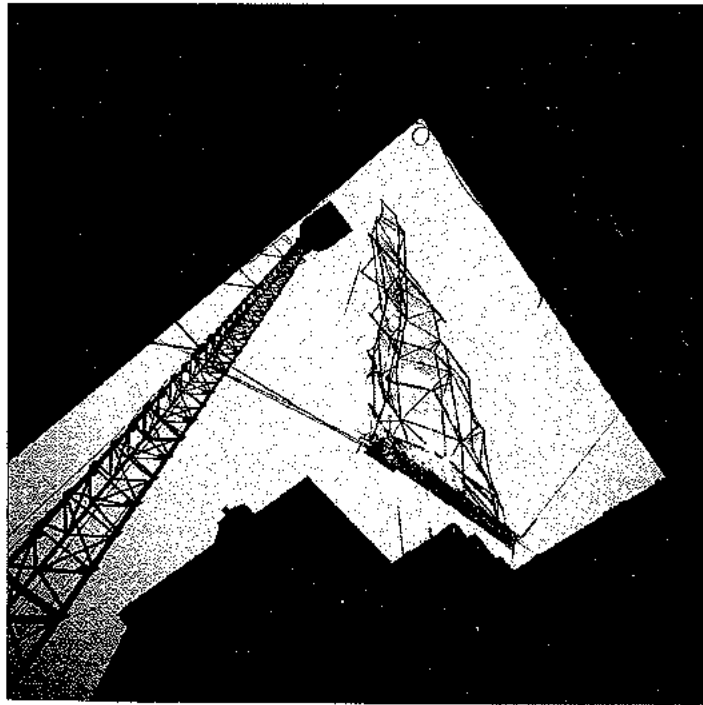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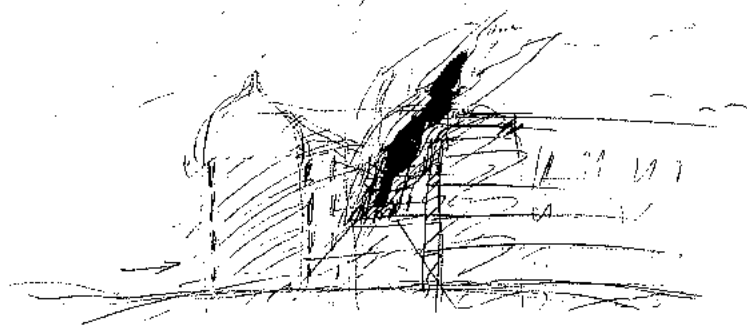
비엔나의 옥상구조물을 개축하는 프로젝트의 첫번째 스케치는 모든 요소와 개념을 한눈에 보여준다. 이 작품은 일종의 모퉁이 해결책이다. 비엔나에서는 모퉁이 대지에 집을 지을 경우 흔히 정육면체 형태로 처리하곤 한다. 이런 선례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유리로 감싼 뾰족탑을 이용해 닫힌 패넬과 열린 패넬의 일체화를 시도했다. 이런 설계수법은 이후 모퉁이건축의 전형으로 자리잡는다.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문맥이다. 우리에게 있어 문맥은 이웃 구조물과의 비례적인 조화를 의미한다. 옛지붕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횡단하는 섬광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또하나 중요한 고려사항은 내외부에 걸친 조망이다. 물론 내외부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 우리는 비엔나 시장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 '봐라 우리는 건축가이자 예술가이기도 하다. 이 모형을 봐라, 어떤 예술품같지 않은가. 이것은 예술적인 건축의뢰가 무산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시장도 우리의 견해에 동조해 주었다.

우리는 그곳에 미팅룸이 구비된 사무실을 두고 싶었다. 물론 옥상정원에서 만남의 공간으로의 접근을 위해 발코니도 만들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도로에서 시작된 섬광은 이 작품전체를 관통하면서 옛지붕을 해체한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 우리는 그 옛지붕을 무조건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외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파괴한 것이다. MOMA에서 이 옥상구조물 모형을 보여주자 미국의 동료들은 설마 이런 변환건축이 실제로 지어지리라고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다. 실제로 지어진 지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

이 지붕변이의 첫 스케치에서 우리는 큐폴라를 만들고 있는 구조적인 유리부재로 내부에서 외부로 내다보이는 강렬한 조망을 알아챌 수 있다. 사실 건축주는 그 지붕을 완전히 씌워주기를 요구했었다. 그래서 우리도 흔쾌히 이렇게 대답했다. '좋다' 지붕을 완전히 씌워버리겠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괜찮은가? 그러나 그는 아니 괜찮다. '그냥 놔둬라'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빛의 조소적인 특성을 사랑한다. 이를테면 찍어진 벽으로 스며들어오는 빛의 효과가 그런 최적의 예이다. 해가 뜨면 빛의 화살이 반대 벽을 때린다. 오후에 건축주는 내부로 스며드는 작위적인 빛의 보를 볼 수도 있다. 또다른 우리의 전략은 모든 부재를 경제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들의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실의 한쪽 날개 등을 이용한다.

우리는 공장을 설계하면서 그 첫번째 스케치는 디테일이 전혀 없는 하얀 상자를 생각했다. 우리는 우선 중요 부재들을 잘라낸 후에 그것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덧붙여 나갔다. 공장은 다만 창조적인 환경이라기 보다 단순히 재품만을 생산하는 경제적인 구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공장은 세개 정도의 디테일만 가진 하얀 상자에 불과하다. 그중 고속도로에 면한 파사드를 100마일 파워 파사드라 부르며 아주 좁은 과거의 도로에 면한 면은 30마일 파워 파사드라 칭했다. 그래서 이쪽면은 모서리를 포함해서 유리로

처리하여 외부인을 위한 특별실로 꾸몄다. 이곳을 로비라 부르자! 여하튼 이공장은 내외부 공간 모두 다기능으로 꾸며진 빈 공간이다.

Dancing Chimneys II 는 건설자의 작업방식에 많은 의문을 던져준 프로젝트이다. 왜 굴뚝들은 항상 수직으로만 세워져야 할까? 오히려 이 작품의 굴뚝들은 서로 다양하게 각도를 기울여 놓아 아주 빠르게 그 에너지 센터 주위를 돌게하여 마치 그 굴뚝들이 춤추는 듯한 느낌을 받게된다. 다만 매우 빠르게 주위를 뛰어야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기존 호텔에 증축하는 현상설계 당선안을 진행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바틀고 경사지게 설계하고 있다. 특히 이 호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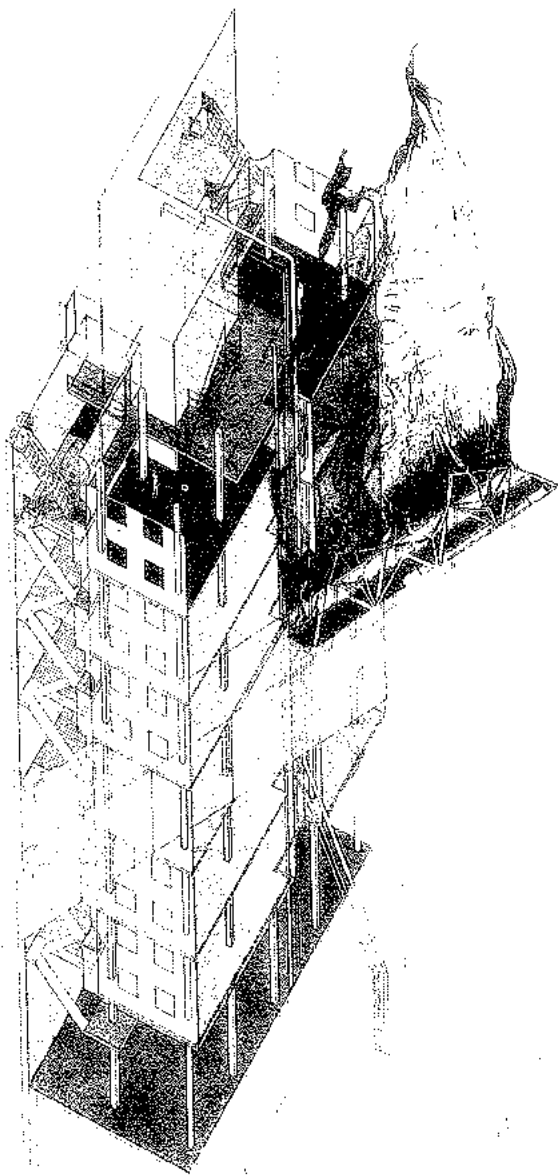
대규모 공원과 호수안에 자리하고 있음으로 공원을 향해 오픈되도록 전체 건물군을 비틀고 있는 중이다. 전체적으로는 4층 규모의 건물을 비틀거나 경사지게 처리하여 이를테면 사우나의 용도에도 적합하도록 꾸미고 있다. 우리는 비엔나 자연과의 자연스런 접촉을 허용하기 위해 호수에 손을 대기 보다는 건물자체가 30미터 호수쪽으로 내뻗친 캔틸레버구조로 처리하였다. 이 캔틸레버 구조는 비엔나의 오피스 건물에도 다시 채택된다. 이 구조의 입구도 자연과 레크레이션 영역의 통합을 위해 비틀어진다. 이 캔틸레버 구조는 두가지 장점을 갖는다. 우선 건물 지상으로부터 지붕까지의 수직동선이 램프로 처리되어 부수적인 방들을 만들어내면서 공사비도 절약해준다. 두번째 장점은 비틀리고 경사진 개념이 각 공간의 특성을 보강해 주어 건축주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점이다.

건축은 최소한 세개의 지지점을 가져야 안정된다. 지난 몇년동안 우리도 이 세개의 다리위에서 작업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주어진 다리가 아니고 우리의 의도가 담긴 다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자를 설계하면서 매우 가느다란 나선형을 세번째 다리로 설계한 적이 있다. 그 다리를 제거한 최초의 프로젝트는 오사카 엑스포를 위한 12미터 높이의 타워였다. 여기서 제3의 다리는 일종의 바늘구조로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는다. 제3의 다리를 매우 가는 텐션 막대기로 대체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제3의 다리를 제거함으로써 두 다리는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그로인해 공간상으로 뿐아니라 부재상으로도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는 일반적인 고정된 문이 아니라 5미터 폭 3미터 높이의 유리벽에 미닫이 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들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식탁이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는 부엌을 설계했다. 이제 어디서나 자유로이 밥을 지을 수 있다.

비엔나의 스포츠 스타디움에서는 움직이는 다리와 지붕을 실험했다. 이제 여름에도 스케이트를 탄채로 스포츠 클럽으로부터 식당까지 이동가능하다. 일본의 한 식당에서는 식당자체가 이동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 식당은 내부를 자유로이 이동할 뿐아니라 일본의 비싼 지가를 감안하여 옥상 지붕에까지 동선을 확장했다. 그래서 각기 상이한 6개의 바야는 약간씩 기울어진채 수직으로 뻗어올라 간다. 당신은 가장 값비싼 삼페인 바야를 임대하고 싶지 않은가. 임대료는 오히려 옥상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최근작에서 움직이는 부재들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처음에 일본인 건축주는 열린건축에 자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일본의 술집들은 대개 창문이 없는 닫힌 공간을 더 선호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닫힌 공간을 설계하였지만 옥상공간의 바야에서는 도시의 조망이 가능하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는 건축주의 전화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토쿄에 바야를 지어주지 않겠는가?"라는 건축주의 전화를 받고 나는 흔쾌히 승락하고 바로 건축주를 만났다. 그는 이미 힙멜브라우에 관한 서적을 잔뜩 모아놓고 있었다. 그러고는 당연히 건축주는 이런 저런 사진들을 가리키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아니 포스트 모던 건축은 해달라는 말인가. 그럼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할텐데"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자 건축주는 "그럼 당신이 원하는대로 건축해주기 바란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날아다니는 계단과 타오르는 벽체, 움직이는 방들로 가득찬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자 건축주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좋다 그렇게 하자"고 허락해 주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로스 엔젤리스지점에서는 쇼핑센터의 설계를 진행중이다. 바야와 레스토랑, 서점, 각종 부티크시설이 들어가는 이 쇼핑센터는 벨로우즈 스트리트의 모서리에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차의



⑥ Blazing Wing 스케치(1980)
⑦ Hot Flat 아이소메트릭(1978)

접근보다는 유보로의 진입이 활발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서리의 움직이는 플랫폼위에 바야를 설치하였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좋은 길목의 바야 임대료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비엔나의 전통을 세심하게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또다른 프로젝트로는 그로넨겐 폴리들이 있다. 우리는 자하 하디드와 베르나르 추미와 함께 비디오 전시회에 초청되었다. 우리는 록큰롤과 섹스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 우리의 폴리는 강위에 자리잡아 다리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상설계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사옥

한국통신공사에서는 한국통신 목동대지의 적극적 활용과 수도권내 사무 및 통신기기 설치공간의 부족난 해소를 위해 서울사업본부, 서울전산국, 서울전신국, 서울국제관문국 및 CATV 등을 수용하기 위한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사옥 건립을 위해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주)창조종합건축(조재원+김홍철)안을 당선작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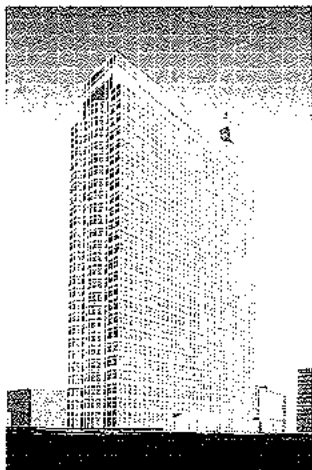
총 44개 건축사사무소가 응모신청을 하여 그중 19개 사무소가 작품을 제출한 이번 현상공모에는 당선작외에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 (대표 : 김병년)안을 우수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삼우종합건축(김창수+박승+한상묵)안과, 한울 종합건축(최병천)안을 가작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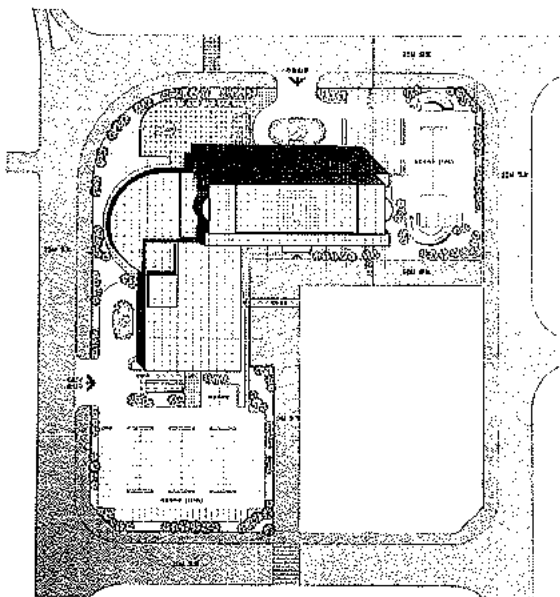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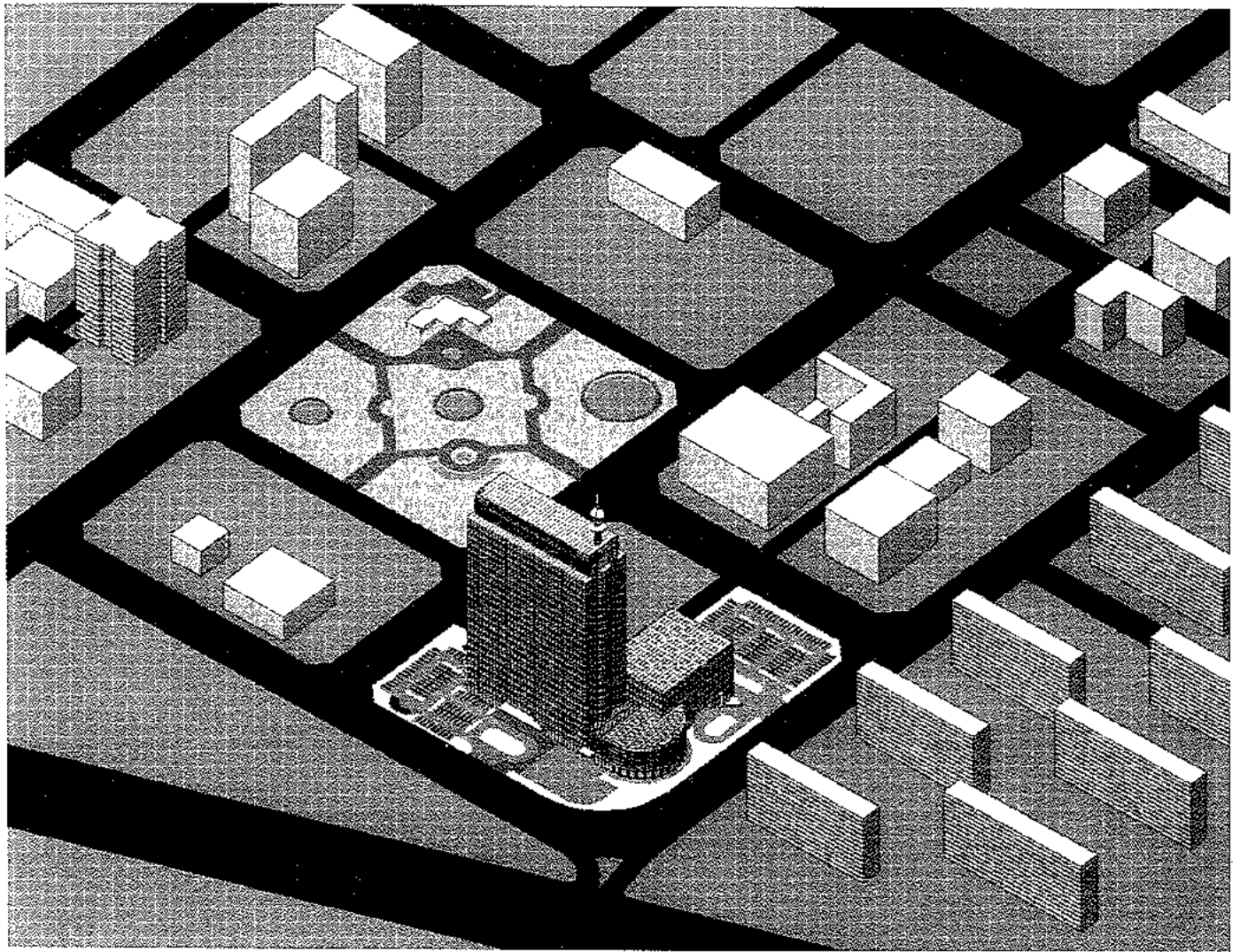
당선작

(주)창조종합건축(案)
(조재원 + 김홍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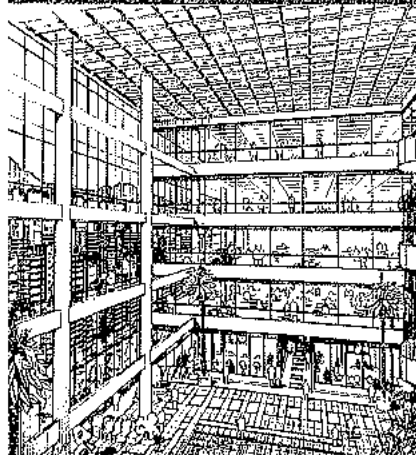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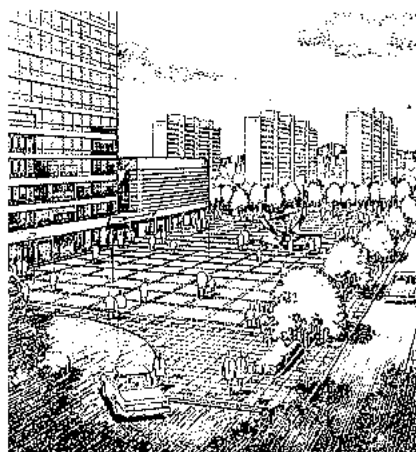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
심지구 10블락
지역·지구 / 도시설계구역,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1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 16,417.5m²
건축면적 / 4,698.01m²
연면적 / 89,083.77m²
건폐율 / 28.6%
용적률 / 381.6%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27층
구조 / SRC조
주차대수 / 지상 201대,
지하 563대
외부미감 / 알루미늄 복합 패널





배치도



■ 배치계획

● 배치원칙

— 대지의 축과 건물의 인지성, 전망, 효율적 대지이용 및 동선체계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

● 축과 주변환경의 고려

—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축을 수용하고 주변시설의 특성 및 환경등의 도시맥락에 순응

● 고층화 계획

— 통신건축이라는 첨단산업의 기술적, 상징적 이미지 추구하고 주변 대지와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매스 계획

● 저층부와 고층부의 조화

— 고층부는 원거리에서의 인지성 강조와 기능성 부여, 저층부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유기적 연결 도모

● 차량동선 체계

— 동선을 최소화하고 건물의 정면성과 중심성을 고려한 차량진입 및 외부공간 위계 부여

● 보행자 동선체계

— 차량동선에 방해 받지 않는 보행자 동선 및 외부공간 계획

■ 평면계획

• 기준층 평면

- 사무자동화, 통신기계시설 수용 등을 고려한 내부 공간계획으로 실의 목적 및 용무에 따른 융통성 확보

- 공조, 방재, OA배선 및 기타 IBS설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평면시스템 계획

- Core는 양측에 계획하여 조망이 확보된 Refregh Zone의 역할을 부여하며 각 사업국간의 원활한 동선고려

• 저층부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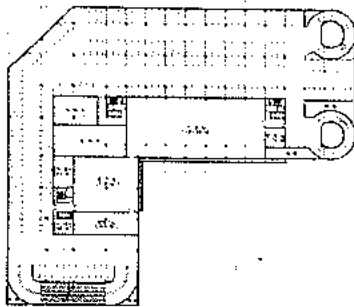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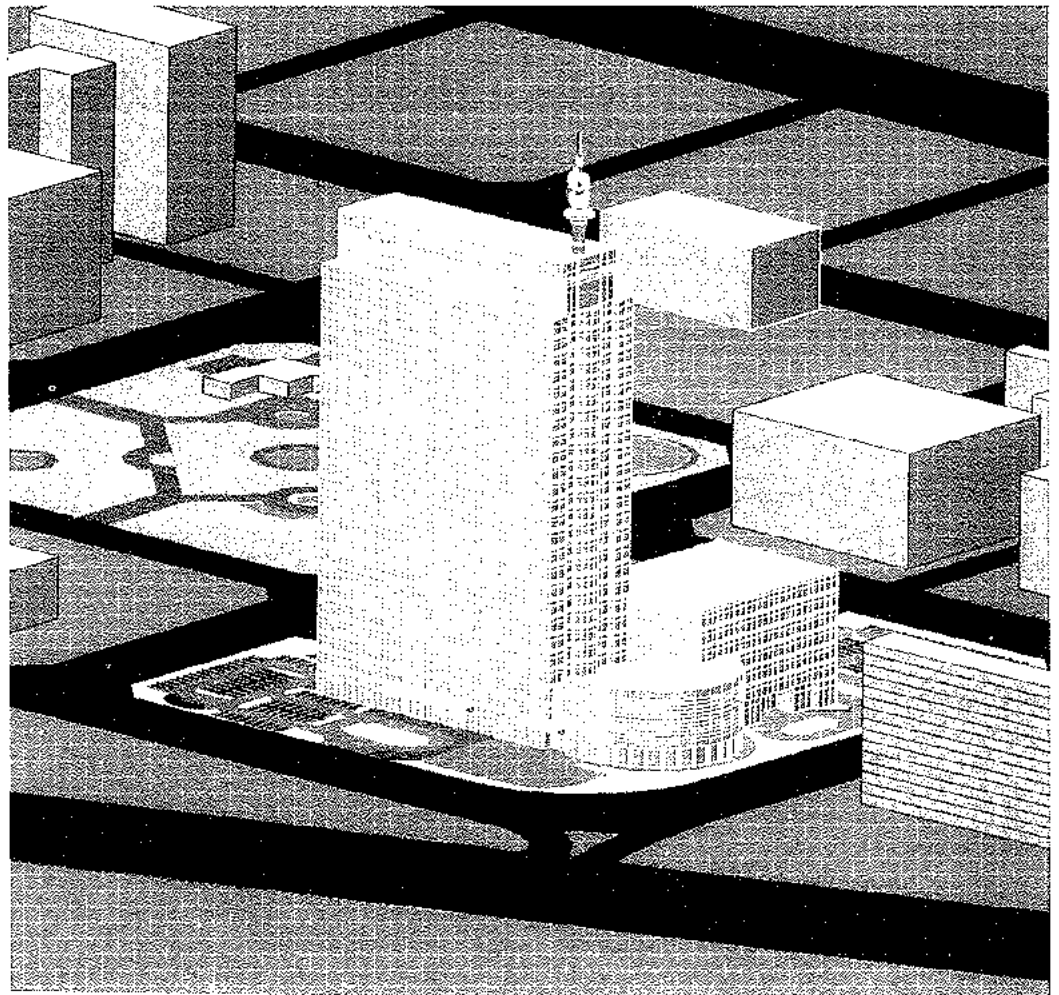
- 시설별 기능의 유기적 연결 도모와 외부동선과 연계된 저층부 동선체계 확립

- 저층부 Lobby는 남측 보행자 도로에 개방시켜 내외부 공간의 상호 관입을 통한 외부공간 개방감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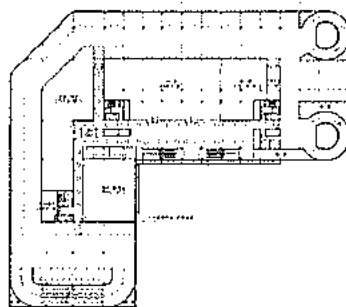
- 고층부 주출입 Hall과 CATV 방송국 출입 Hall을 지하층 및 회의실과 연결하는 건물 전체 Lobby 체계

• 지하층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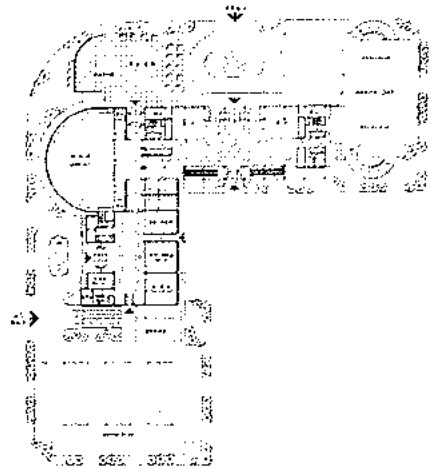
- 기둥간격은 고층부의 기능과 주차 Space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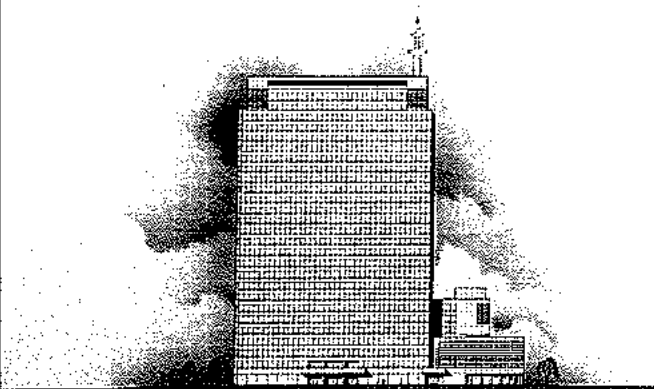
지하 2,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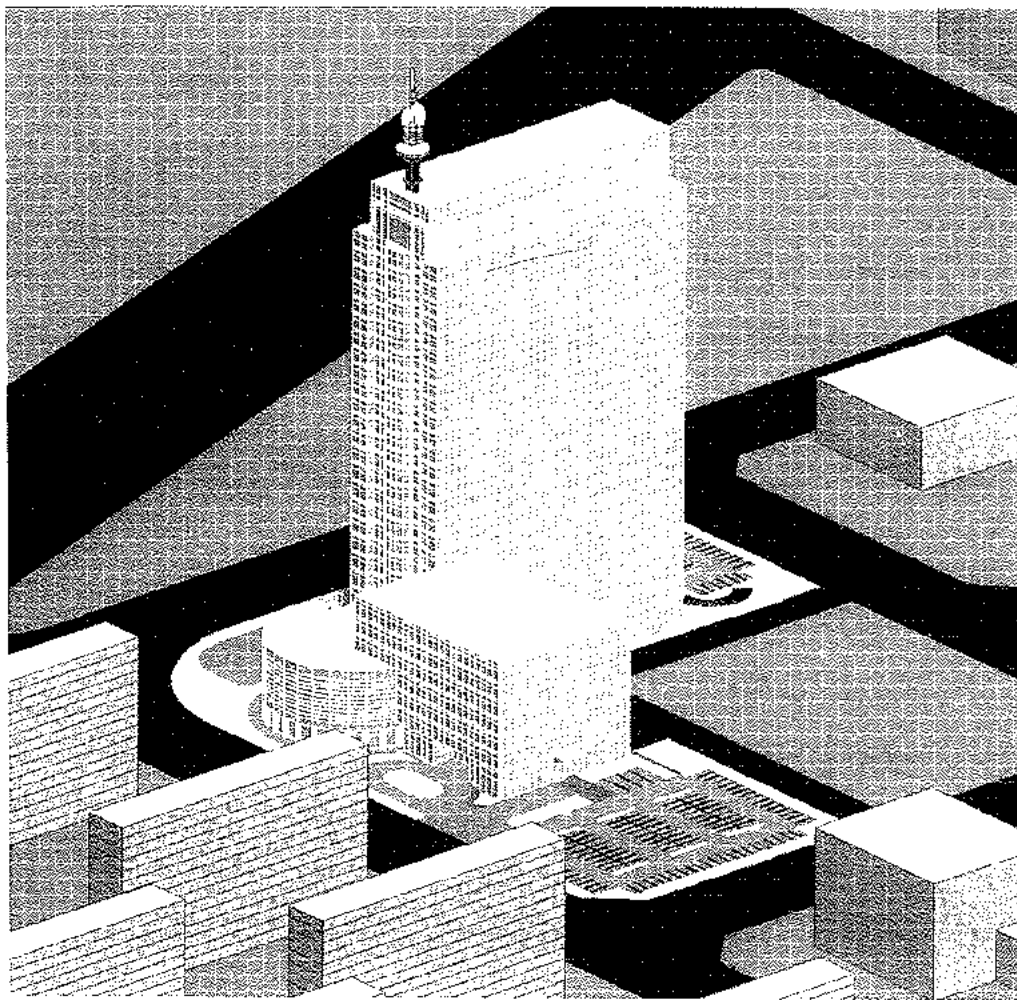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정면도



후측면도



■ 조형 및 입면계획

• 조형 개념

— 부지활용의 극대화 및 상징성을 고려한 수직적인 고층 Mass의 기능에 따라 분리한 저층부의 적정비례

• 기업 Image의 조형적 해석

— 통신의 상승적 이미지를 수직 요소의 강조로 성장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 이미지 표현

• 수직선, 수평선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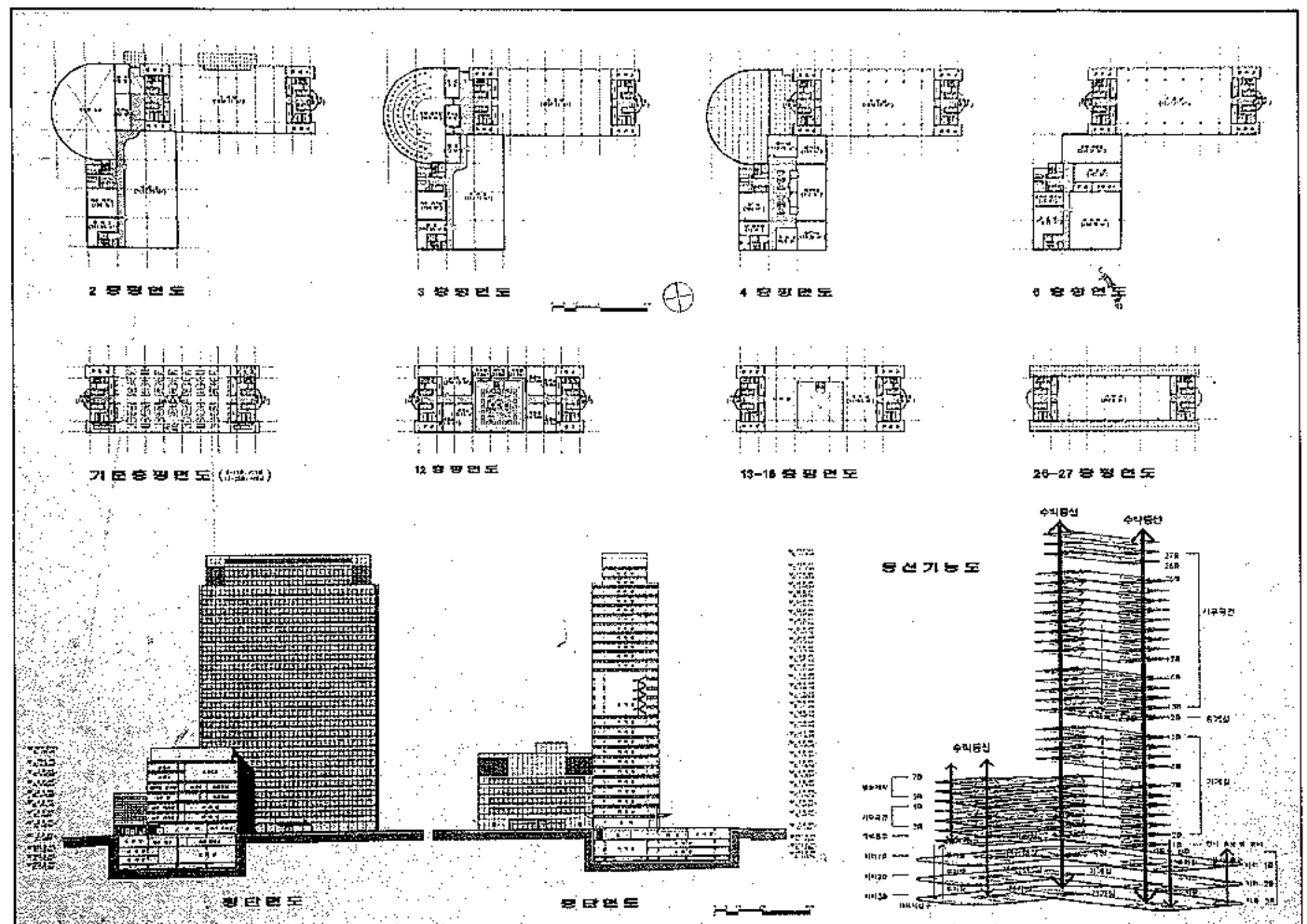
— 상승과 공공의 신뢰를 표현하는 수직선과 포용, 신뢰를 도모하는 수평선의 조화

• 고층부 계획

— 상승하는 청명한 통신의 Image를 표현하여 Land Mark적 성격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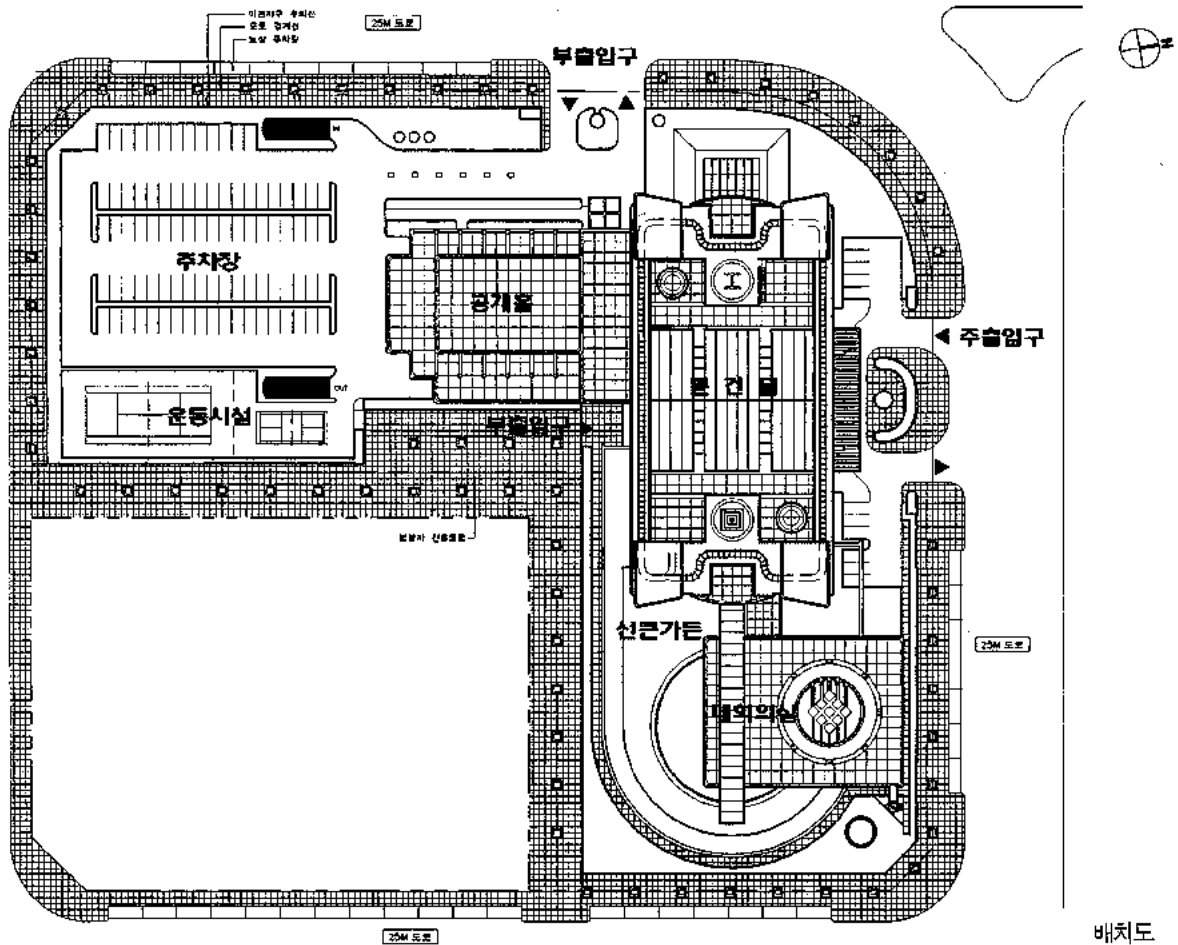
• 저층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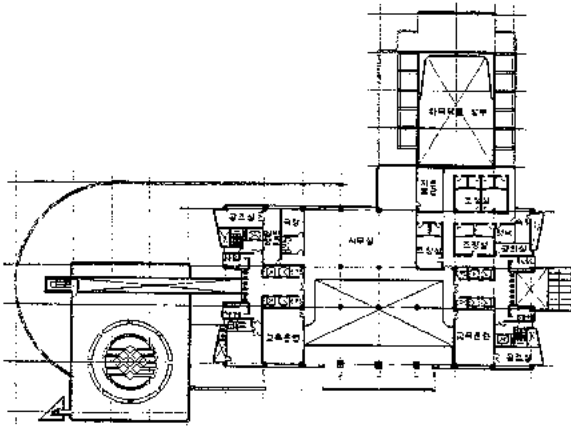
— 이용자 동선과 접근 인지성을 고려한 인간중심의 대면 봉사기관의 이미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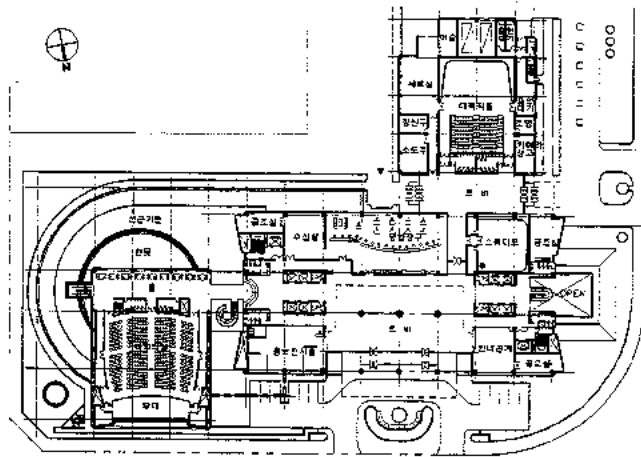
우수작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案)** **(대표 : 김병년)**

■
 대지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심자구 10블럭
 대지면적 / 16,415.7m²
 건축면적 / 5,117.1m²
 연면적 / 89,991.4m²
 건폐율 / 31.1%
 용적률 / 385.7%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3층, 지상 24층
 외부마감재 / 금속판넬 + 24mm
 복층유리
 주차대수 / 법정 - 48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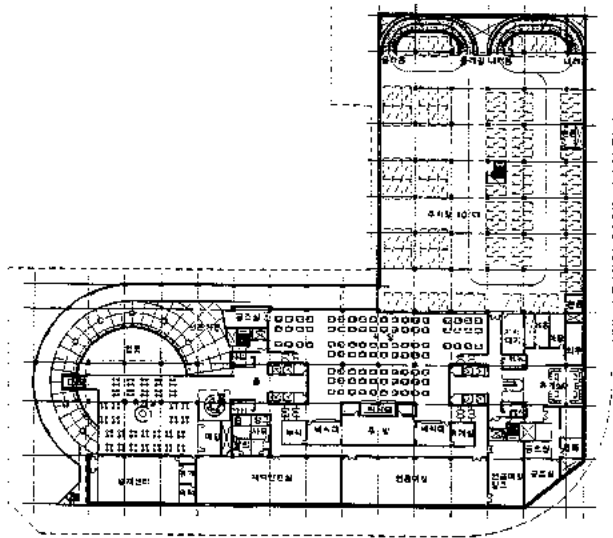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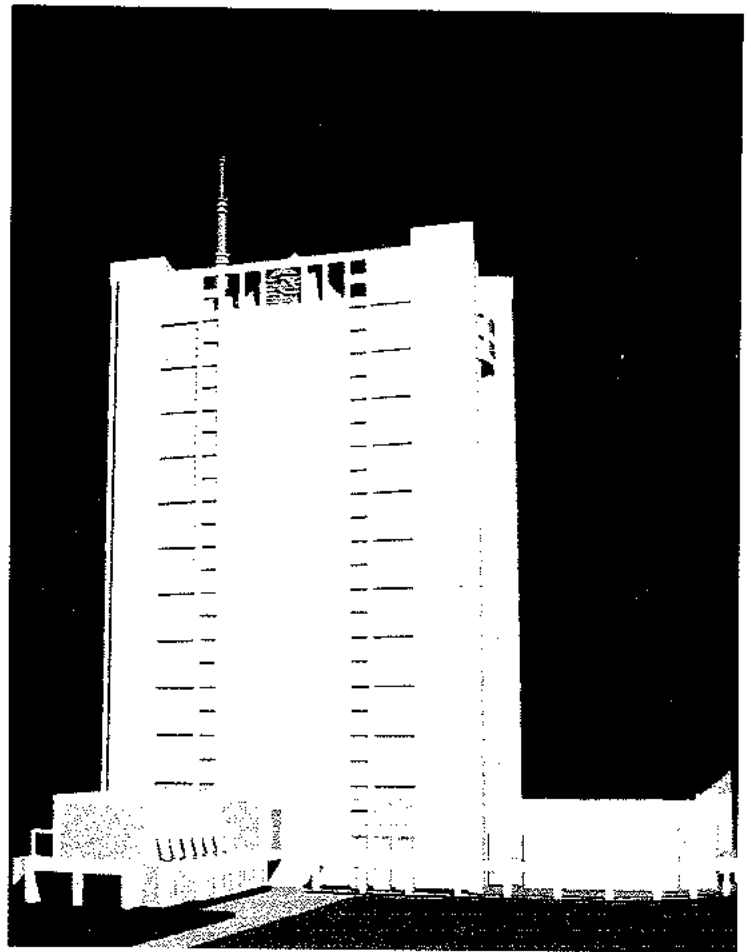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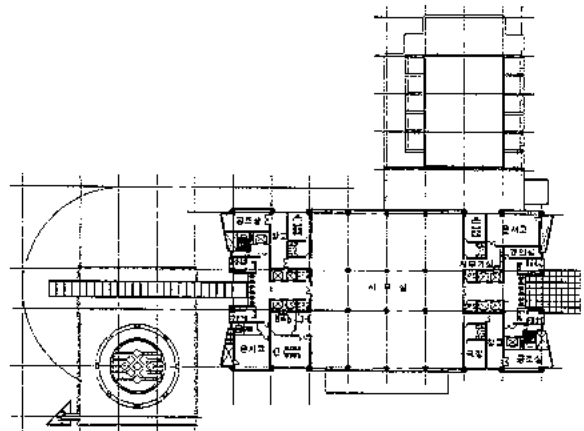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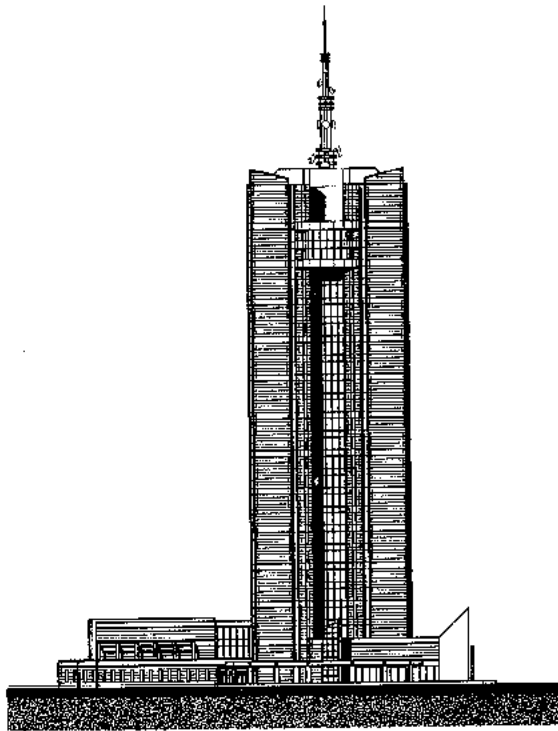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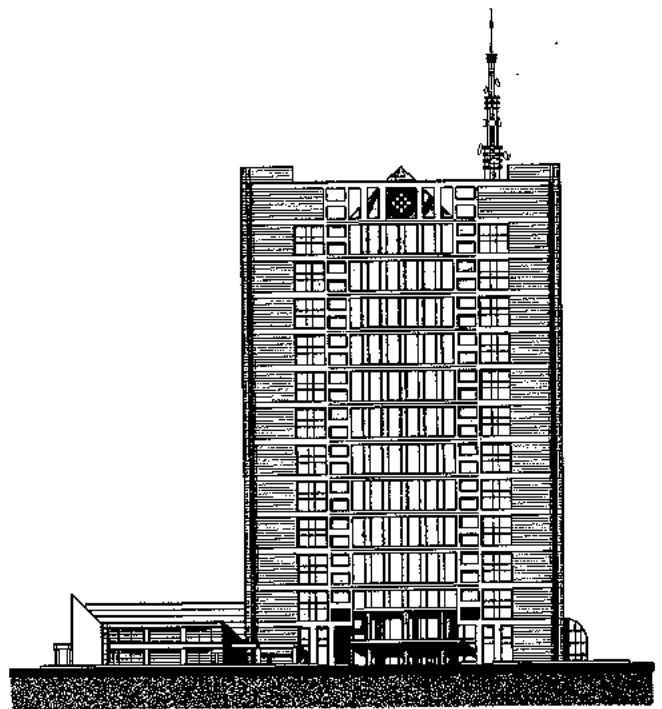
- 건물은 사무실 향 및 건물내에서의 조망시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 동서방향으로 배치한다. 이 배치형태는 중심지구 순환도로에서 접근시 정면성과 중심공원에서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도로에서의 인지성을 높인다.
- 저층부의 분리는 기능 및 동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 매스의 Security를 확보한다.
- 주진입은 대지북측도로에서 건물 정면으로 진입하는 동선을 계획하고 부진입은 동측도로에서 진입하여 CATV 및 옥외주차 그리고 지하 주차 램프로 연결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에 인접한 선문가든과 대회의실 상부의 옥외휴게시설을 9블럭 근린공원과 연계하여 휴식, 옥외전시 및 이벤트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3층 평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 평면계획

- 평면 중앙에 사무공간과 아트리움을 배치하고, 양측단에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등의 수직동선을 위치시키며 공조실, 화장실, 창고, 각종 파이프 스페이스 등의 서어비스 코어를 배치하여 건물의 보수와 설비라인의 수명을 교체가 용이하도록 분리한 명쾌한 개념이다.
- 아트리움 및 엘리베이터 홀을

중심으로 약 220평의 사무전용 면적을 구성하는 대칭형이다.

- 지하 1층은 선문가든을 활용하는 휴게실 및 식당, 그리고 체력단련실, 연금매장, 동호인실 등의 후생복지시설로 구성한다.
- 지상 1층은 주출입의 이미지를 갖춘 로비와 영업장 및 홍보 전시홀등을 배치하며, 대회의실과 다목적홀의 시설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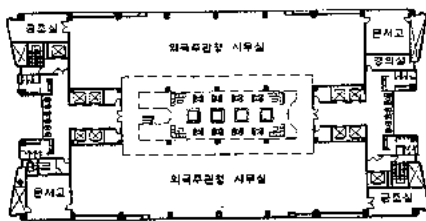
여 동선을 분리 배치한다.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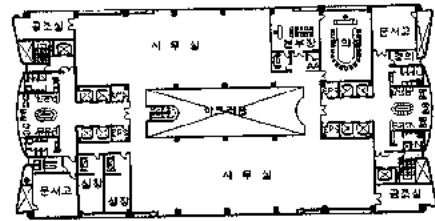
- 발전하는 한국통신의 Image를 상징할 수 있는 독창적 Style을 창출함으로써 강한 도시적 Image를 연출함과 동시에 목동 중심지구의 Landmark적 역할을 담당하여 목동 신시가지의 Skyli구성에 주도적 요소가 되도록 입면 Design

개념을 도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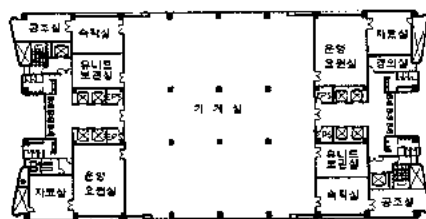
- 기능상 분리에 의한 고층부와 저층부의 Mass를 적절히 조화시켜 전체 입면의 안정감을 꾀하며 정보통신산업 특유의 정확하고 신속함을 단순명료하고 깨끗한 기하학적인 입면구성으로 표현하여 한국통신의 Image부각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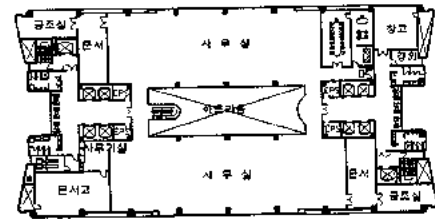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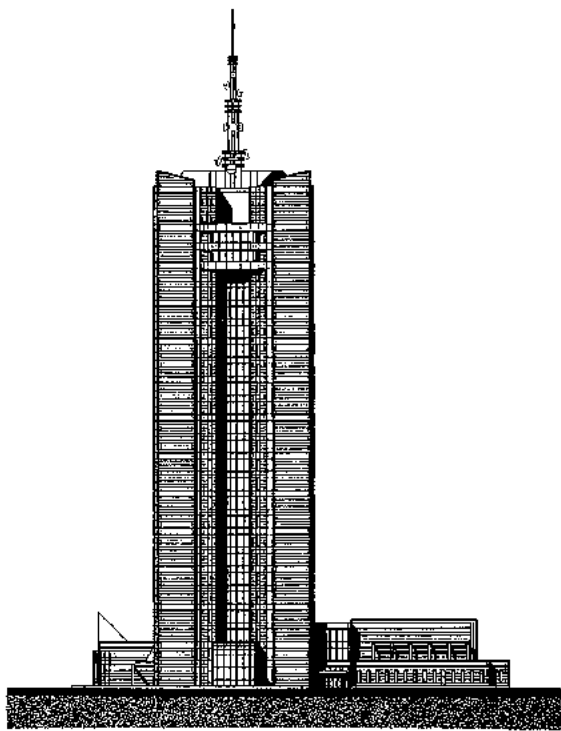
2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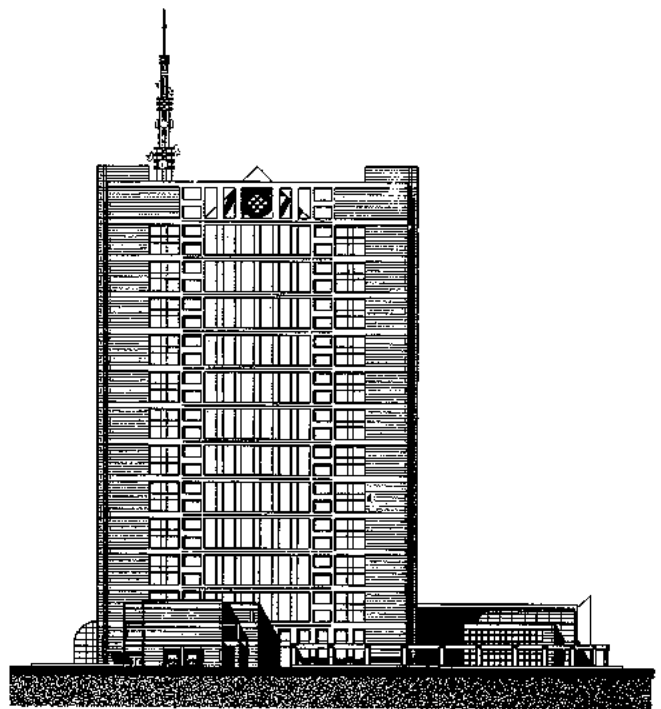
5-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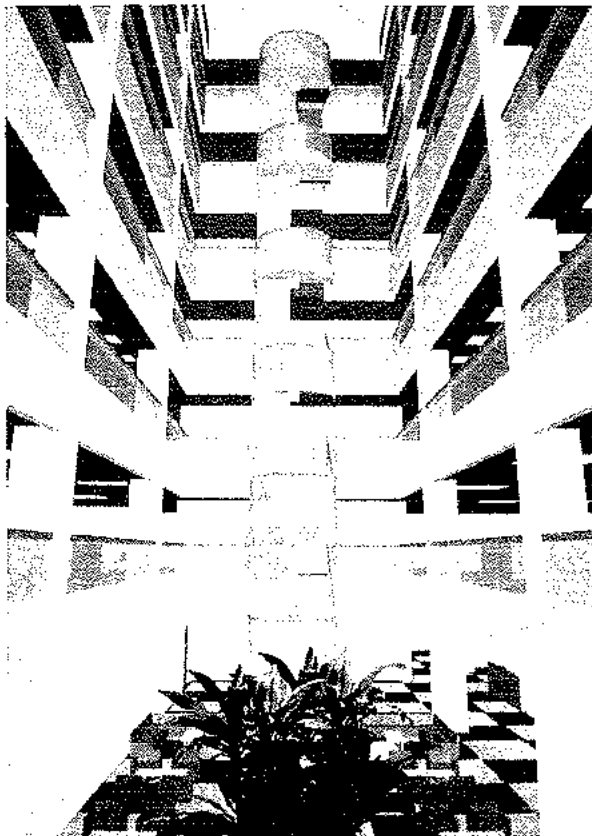
2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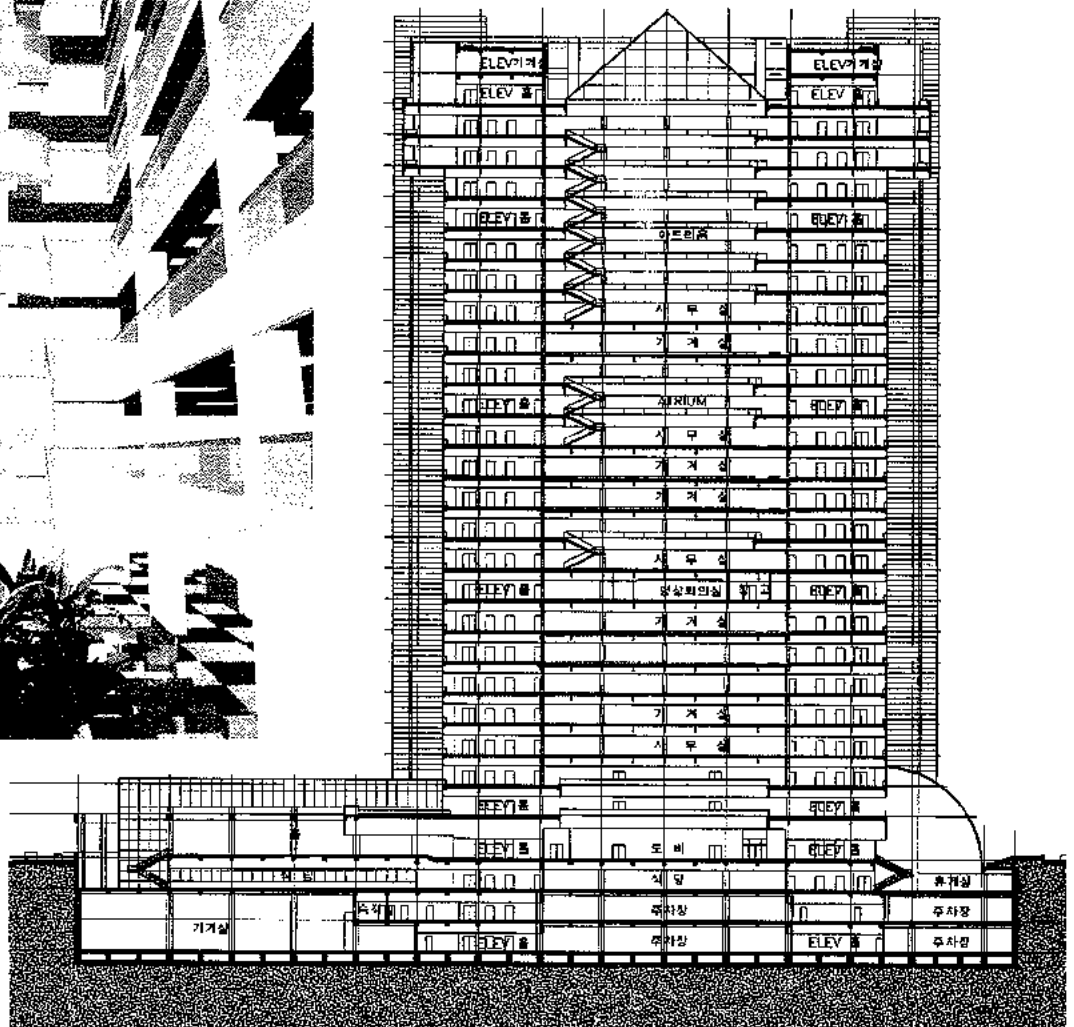
우측면도



배면도



항공도



가작

삼우종합건축(案)
(김창수+박승+한상묵)

대지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10 불럭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제1종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 16,415.7m²

건축면적 / 5,246.56m²

연면적 / 91,588.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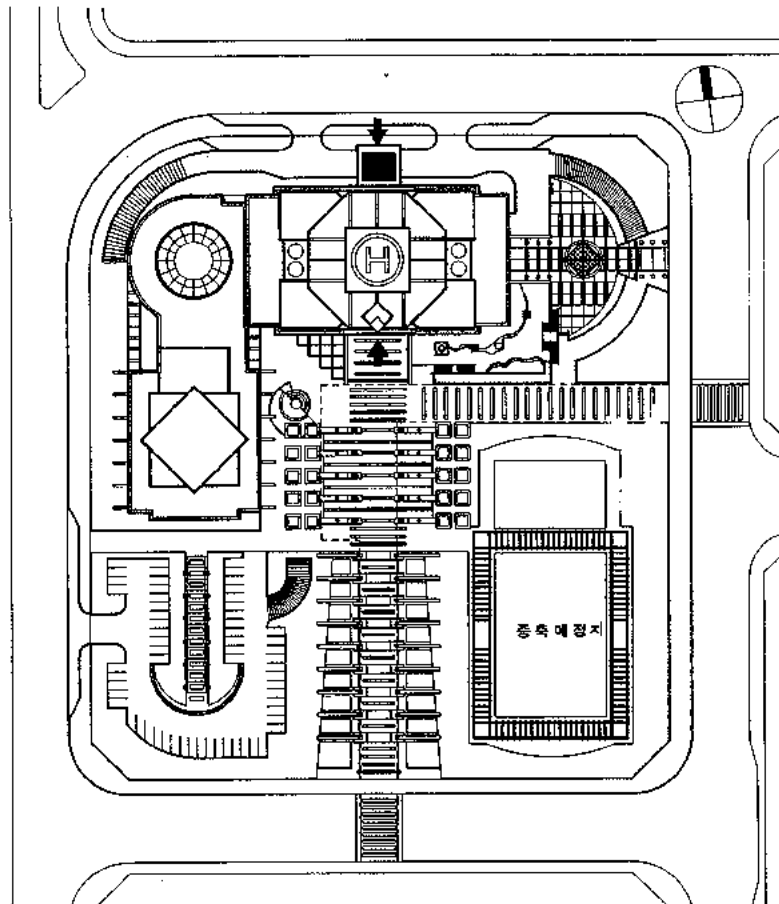
건폐율 / 31.95%

용적률 / 39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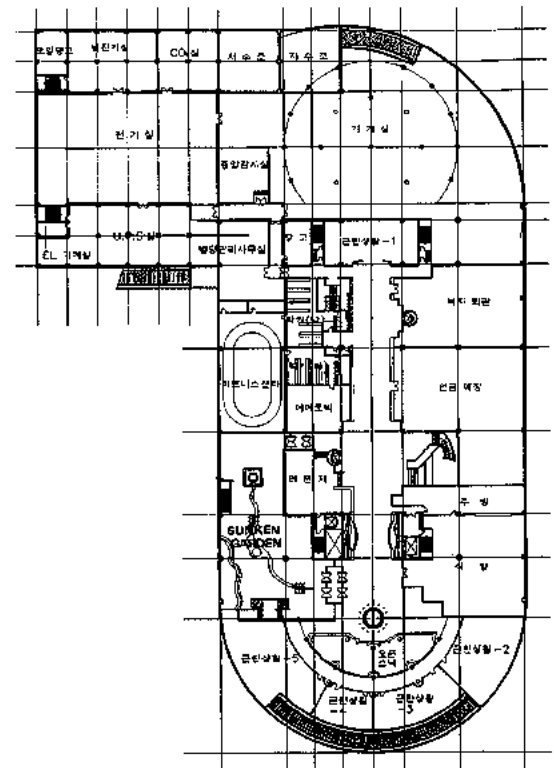
층수 / 지상 25층, 지하 3층

구조 / RC + SRC

주차대수 / 714대



배치도



지하 1층 평면도

■ 배치계획

• 건축공간

- 통신시설 및 사무시설의 기능인
주건물과 공공 Open 시설은 저층
건물의 고유영역 확보
- 주건물인 고층동과 저층동의 연
계를 위한 전이공간 확보
- 시각적 개방감 확보(무주공간)

• 광장계획

-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주건물
우측 이벤트 플라자 설치
- 전면에 한국통신의 상징을 부여
한 만남의 광장
- 고층부와 저층부 절점에 기능적
연계성을 둔 문화의 장

• 주차장 계획

- 주접근로 좌측에 배치하여 시각
적 부담감 해소 및 동선의 원활성
추구
- 주보행 공간에 별도 분리한
VIP 및 화물주차 계획

• 주동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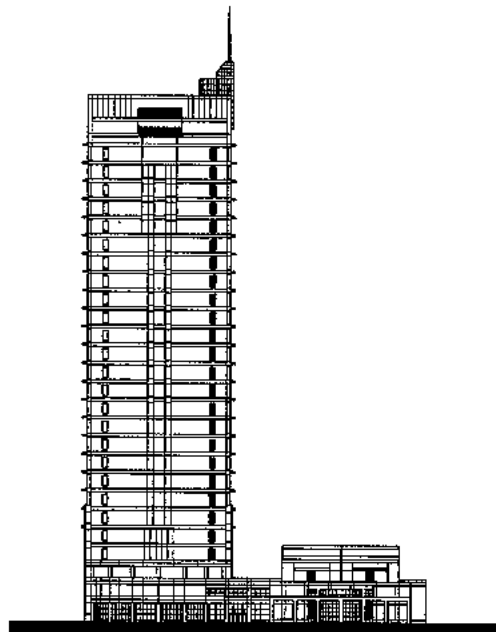
- 부지 전후면 완충공간 확보
- 보행 및 차량 접근능선의 원활
화
- 저층동 및 증축 예정지와의 연
계성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서향코아,
남북측 조망 고려

■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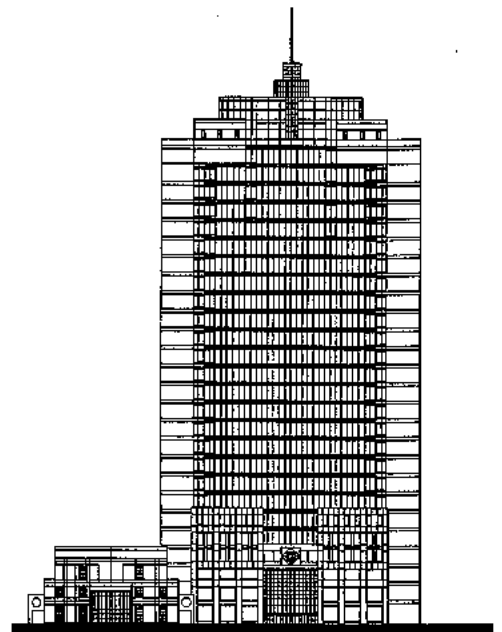
- (3)m x (3)m의 인간공학적
대응형 모듈
- 복합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Flexibility 확보
-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조닝계획
- 무주공간에 의한 남북조망 강조
- 공공 Open시설, 강당, Studio
등을 저층 별도 처리
- 통신설비시설, 사무시설의 유동
성에 대응
- Security 확보, 복합시설에 따
른 기능적 구분필요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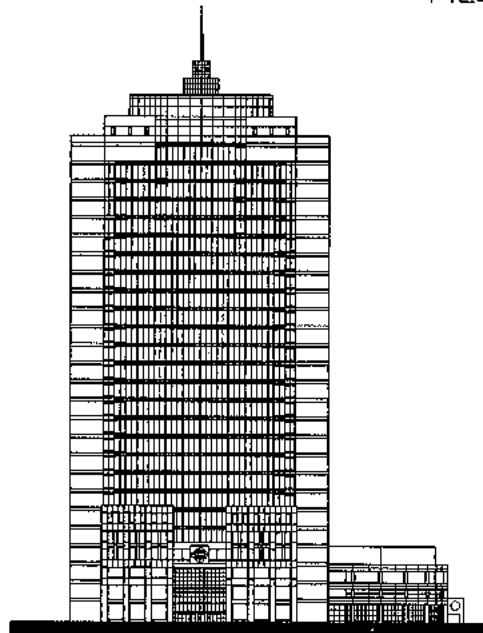
- 목동의 주거단지와 주변환경과
의 조화
- 장방형의 Mass로서 좌측 APT
단지와 간섭배제
- 한국통신 이미지 표현하는 상징
적 형태
- 인지성 개고
 - CBD축 개념의 전향적 대처
 - 시각적 충격완화
 - See - Through 개념 확보
- 저층부와 고층부의 형태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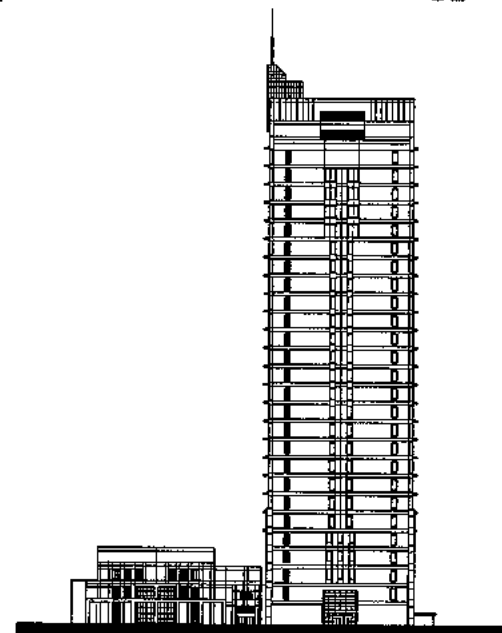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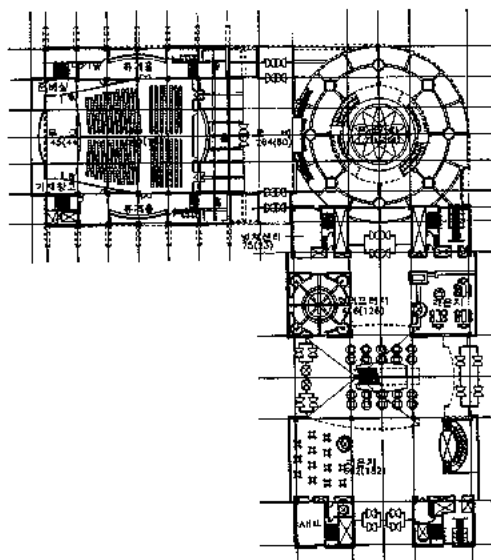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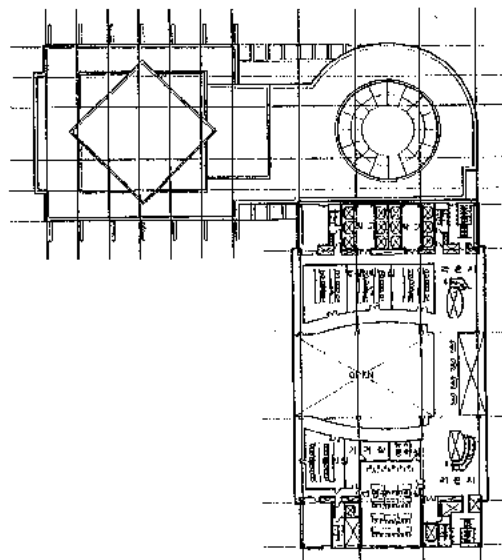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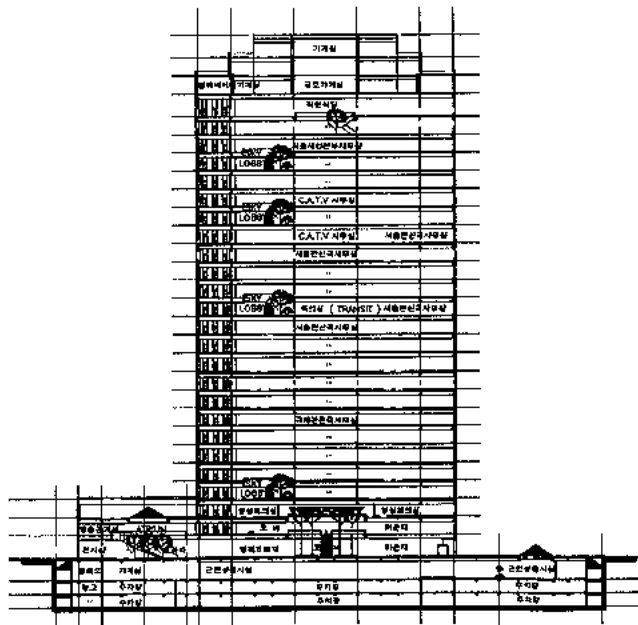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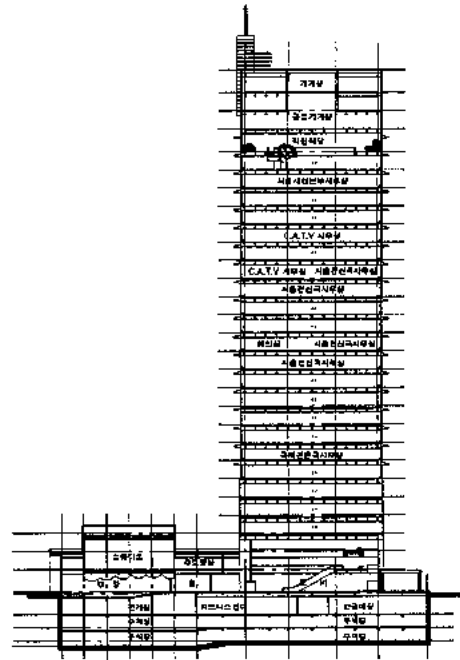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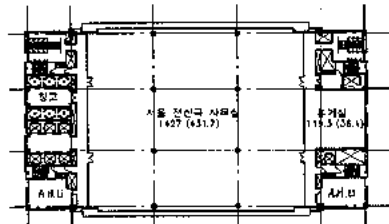
외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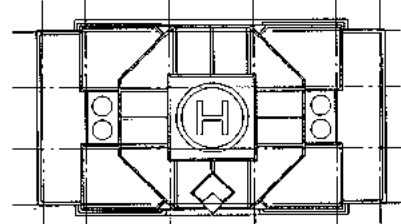
중단면도

■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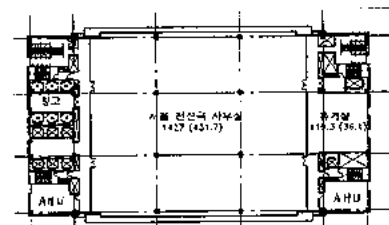
- 보행자동선
 - 전철 5호선의 목동 및 오목교역에 의한 보행동선 유도
 - 이용자별 동선분리
 - 선문가든의 설치로 적극적인 공간구성
- 차량동선
 - 주변도로 위계에 의한 부지내 양측 진입
 - 지하주차장 입구 2개, 출구 1개로 편의성 및 혼선방지
 - VIP 및 서비스동선 분리
- 주차계획
 - 사용자별, 용무별 주차분리
 - 주차장의 Landscape
 - 자동주차 관제 시스템
- 내부근무자, 외부방문자, 관리자, 서비스 피난동선 분리
- 외부공공 Open 시설 사용자 별도 출입체계확보
- 서비스 및 장비반입동선 독립체계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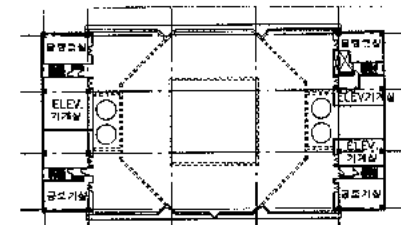
1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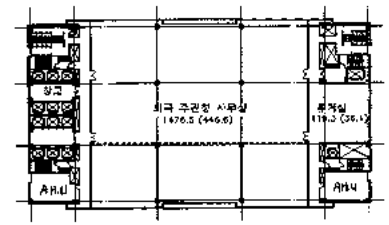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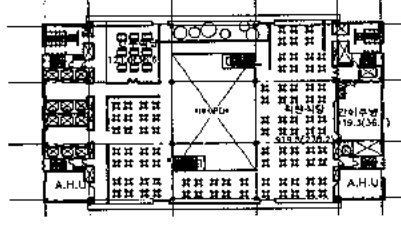
1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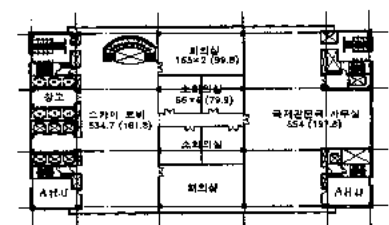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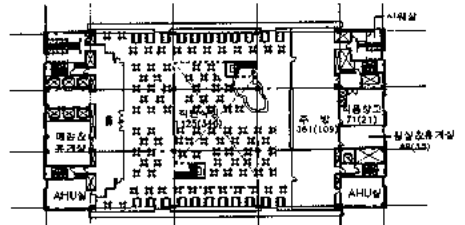
5층 평면도



2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24층 평면도

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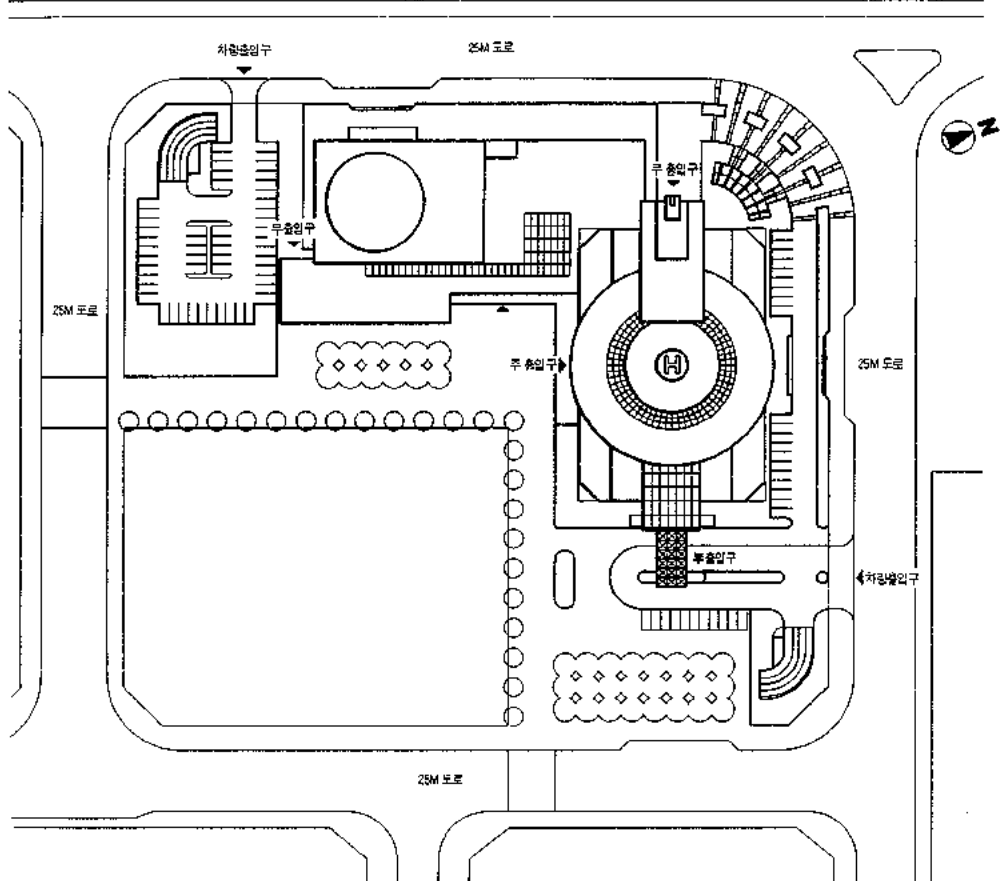
한울종합건축(案) (대표 : 최병천)

■
대지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중심지구 10블럭
대지면적 / 16,415.7m²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제1종 미관지구
도시설계구역
건축면적 / 5,975.28m²
연면적 / 95,439.7m²
용적률 / 392%
층수 / 지상 25층, 지하 3층,
옥탑 3층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옥외 86대,
옥내 707대,
법정 69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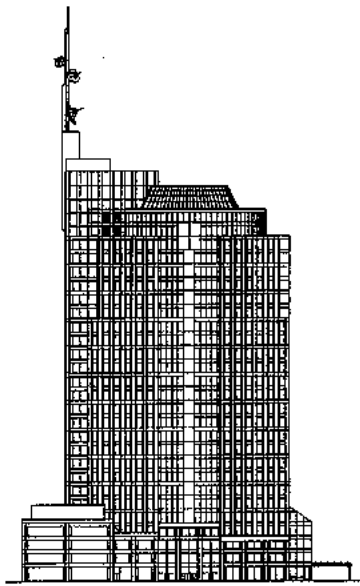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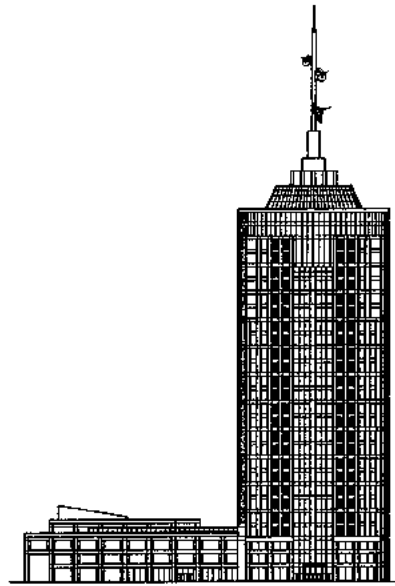
- ㄱ 자형의 대지 형태에 조화되는 배치로 수평적인 저층부와 수직적인 고층부를 분리시키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 기본 개발 계획의 지침에 부응하는 기존 보행 Mass에 진입 주출구를 두어서 공간의 위요감을 형성하고 광장을 형성한다.
- 서측 저층부 진입부에 광장을 두어 외래 방문객에 친근감을 형성시켜 자유로운 고객 동선을 유도한다.
- 건물을 도로변에 접근시켜 인지도를 높이고 후면에 보행자 동선을 유도한다.
- 매스를 장방형으로 배치하여 주어진 프로그램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대지 형상에 자연스럽게 순응한다.
- 저층부의 구성 : 고층부의 고유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반인 출입기능을 별도의 형식으로 분리하여 조화시킨다.
- 자동차 동선은 서부도로에서 직접 진입되고 저층부 차량동선과 분리시켜 사용한다.
- 보행자 동선은 차량동선과 분리를 이루어 남측, 서측에서 주된 진입이 이루어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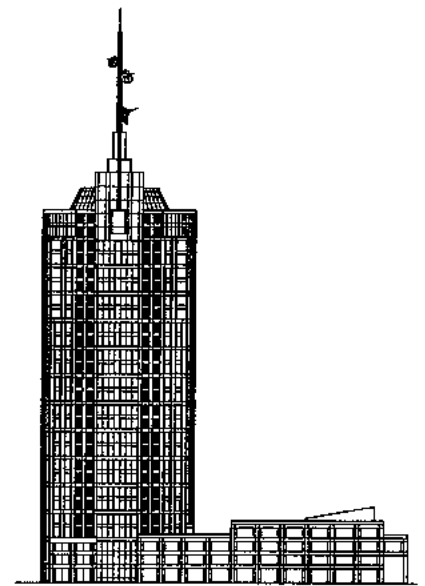
배치도



남측면도



동측면도



서측면도

• 2단계로 개발 확장되는 건물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중앙 광장과 연계시켜 10블럭 전체의 중심되는 휴게 공간으로 형성시킨다.

■ 평면계획

- 고층 건물로서의 넓은 로비 및 홀의 확보로 쾌적한 공간 창출.
- 자연채광 최대이용으로 쾌적한 업무 공간유도 - 중정 공간 형성.
-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운용 가능한 평면 계획으로 업무 효율의 극대화.
- 공용홀과 아트리움을 도입하여 각 기능별 시설의 독립성과 연계성이 원활하도록 구성한다.
- 적정 모듈을 통한 오피스 랜드스케이프 적용.
- 진입 동선의 체계적인 분리와 수직 동선체계의 기능적 분할.

■ 입면계획

- 안정된 이미지 구성
- 저층부의 휴먼 스페이스를 고려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시각환경의 세밀함과 절제성 유도
- Mass 의 중압감을 Human Scale로 해소
- 기업 이미지에 맞는 상징성 부여
- 저층부 Mass와 고층부 Mass의 조화 유도
- 주변 건물과 앞으로 계획 되어 질 건물과의 관계를 예측하여 계획하며, 입면의 변화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
- 고층건물의 거대함, 둔탁함을 Mass의 변화와 적절한 재료의 사용으로 완화
- 미래 지향적인 형태속에 성장하

는 기업 이미지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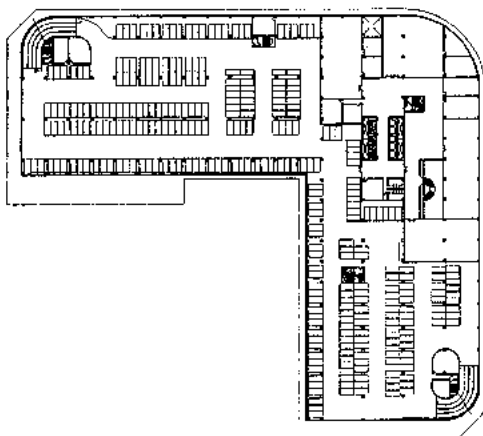
- 저층부 - 휴먼스케일의 이미지
- 고층부 - 도시스케일의 이미지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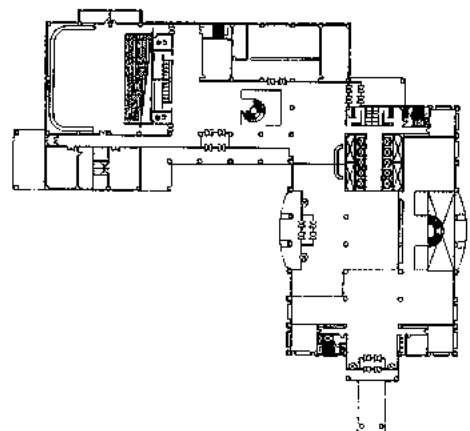
- 각각의 기능을 개별통계가 가능하도록 수직적 구분
- Void 공간을 통한 환경 개선 및 활력 제공
- 모든 수직동선의 이동이 로비층에서 관리될 수 있게 함
- 기능의 수직적 분리를 통한 편리한 공간감 창출
- 수직 기능의 조성(Zonning)에 있어서 국제관문국, 서울전신국, 서울전산국의 순서로 층별(3개층) 계획을 하였다. 저층에 Catv를 두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 사무공간에는 중정(3개층)을 두어 채광과 실감을 좋게 하고,

설비와의 상충되는 부분을 층별로 계획하여 전체적인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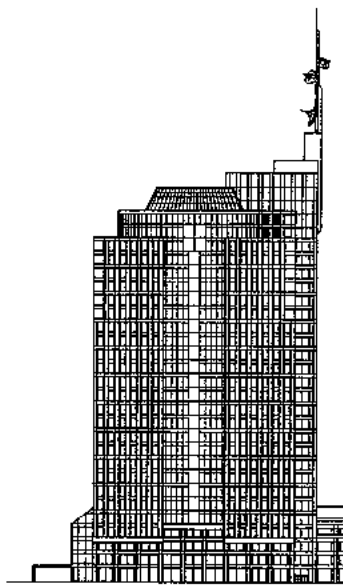
- 층고 : IBS에 대응 → 4.5m(기준층) 계획, Cellular Duct 바닥 배선방식(300m/m - 입부공간, 400m/m - C. P. U) - Flexibility 부여.
- 수직공급체계
- IBS 대응 전용 Duct 확보
- 3단계 전체통합체계에 대비
- 수직이동체계
- 저층부 및 지하층 : Void, Escalator, Lobby의 적절한 배치로 공용시설의 인구 밀도에 대응
- 고층부 : Conventional Zonning Elevator 계획, 합리적인 Core 형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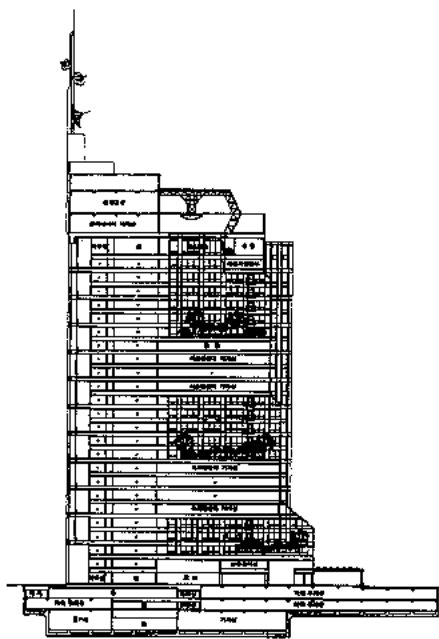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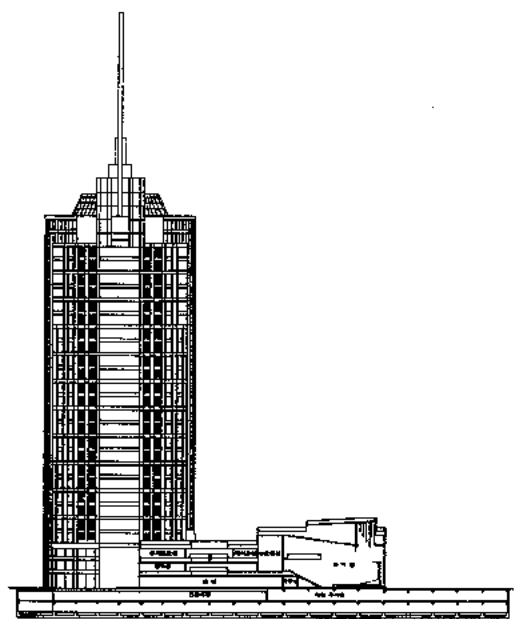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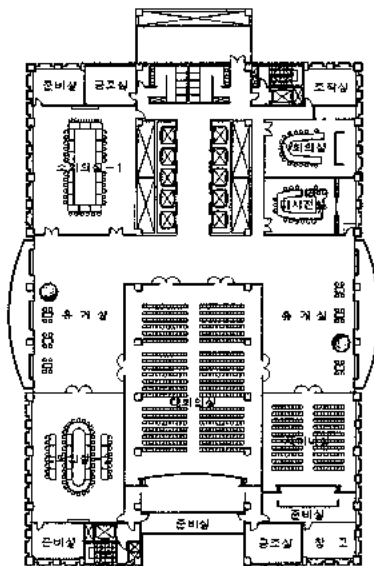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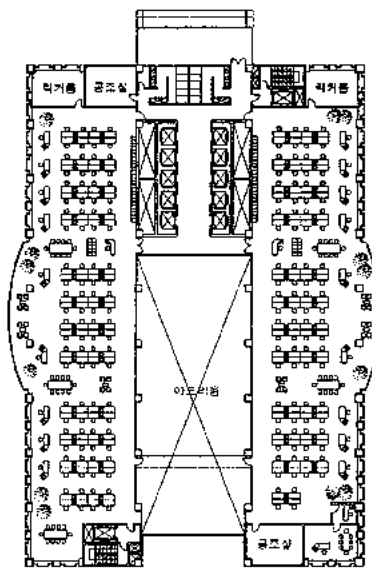
동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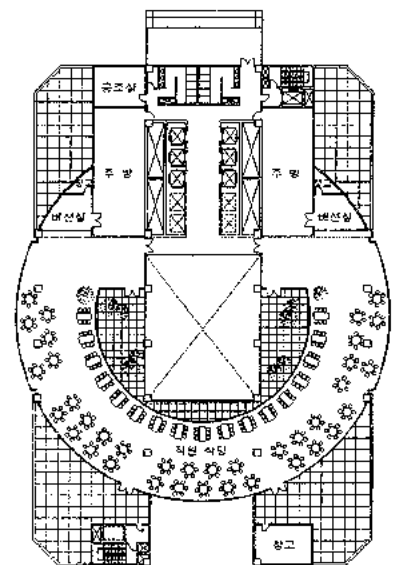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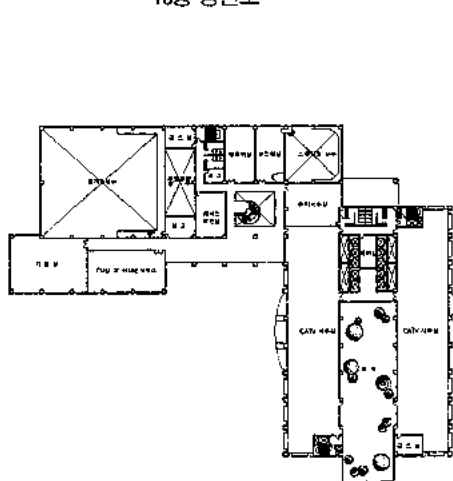
1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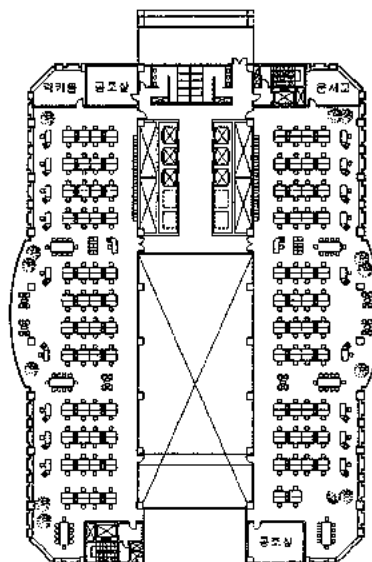
사무실 기준층 평면도



25층 평면도



지상 3층 평면도



19 - 24층 평면도

주차장법시행령중 개정령

◎ 대통령령 제 13,672 호 주차장법시행령중 개정령

◇ 駐車場法施行令 改正理由

駐車場法이 改正(1991. 12. 14, 法律 第 4437 號) 됨에 따라 同法에서 委任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現行規定의 施行上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駐車場用建築物은 그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의 70퍼센트~95퍼센트 이상을 駐車場으로 확보하도록 함(令 第 1條의 2)

나. 駐車場用建築物의 容積率을 1千300퍼센트이하에서 1千500퍼센트이하로 緩和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隣接道路의 폭에 따라 建築物의 各部分에서 道路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3배이하가 되도록 하여 建築法上의 높이제한 規定을 緩和함(令 第 2條 第 2項).

다. 宅地開發事業등의 圍地造成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路外駐車場의 규모를 정하고, 都市鐵道建設事業과 市街地造成事業을 圍地造成事業등에 포함시켜 일정규모이상의 路外駐車場을 확보하도록 함(令 第 4條).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조의 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법 제 2조 제 5호의 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다음에서 정한 비율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 : 90퍼센트

2.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80퍼센트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0퍼센트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계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설·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2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frac{36}{\text{도로의 폭}}$ 배. 다만,

비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 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조의 2(주차장정비계획의 수립 보고) 법 제 4조 제 7항 및 제 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주차장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계획연도 개시 3월전까지 보고하되, 인구 30만이상시의 시장은 교통부장관에게, 그외의 시의 시장 및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제 2호를 삭제한다.

제 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 8조의 2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6호의 긴급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등) ①법 제 12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종류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이파트지구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한다.

2. 사업의 규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로 한다.

②법 제 12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결정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도시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210

× 도시철도연장(km)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중 “시장(서울특별시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중 “건설부령”을 “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점용료의 감면)”을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4조 제1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 본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의견진술의 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 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중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를 “관광지·휴양지·유원지등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하는 때에는”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

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로 하고, 비고 제9호 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3066호 부칙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권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교통부령 제984호

◎ 건설부령 제513호

◇ 개정야유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조명기준을 높이고, 대형판매시설등의 주차장안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의 방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소형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일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노외주차장에 인접한 도로의 너비가 6미터이상인 경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인접한 도로가 일방통행로 이거나 주차장 출입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너비가 4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주차

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제5조 제5호).

나. 종전에는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는 최하 20룩스에서 최고 50룩스이상 조명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장중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의 노외주차장 및 대형판매시설·숙박시설등의 부설주차장은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제6조 제1항 제8호·제10호 및 제11조 제2항).

다. 주차대수 100대미만인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면도 및 토지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설치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제7조 제1항).

〈건설부 제공〉

1992년 8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STATISTICS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8월분 1천93만7천9백77m²보다 31.50%(3백44만5천3백3m²) 감소한 7백49만2천6백74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월 8월누계 9천6백2만4백59m²보다 24.62%(2천3백64만2천5백57m²) 감소한 7천2백37만9천9백2m²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전월 7월분 8백7만8백37m²보다 7.16%(57만8천1백63m²) 감소한 7백49만2천6백74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분	구분	1991년도	1992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257,124	2,142,847	885,723	70.46%
	부산	631,590	766,962	135,372	21.43%
	광주	229,685	235,624	5,939	2.59%
감소지역	강원	303,344	303,707	363	0.12%
	대구	543,998	216,380	(327,618)	-60.22%
	인천	268,090	248,900	(19,190)	-7.16%
	대전	357,735	236,729	(121,006)	-33.83%
	경기	3,929,160	1,274,598	(2,654,562)	-67.56%
	충북	361,269	345,063	(16,206)	-4.49%
	충남	499,988	365,634	(134,354)	-26.87%
	전북	360,970	193,331	(167,639)	-46.44%
	전남	315,643	224,143	(91,500)	-28.99%
	경북	696,625	356,635	(339,990)	-48.81%
	경남	1,106,521	510,436	(596,085)	-53.87%
	제주	76,235	71,685	(4,550)	-5.97%
합계		10,937,977	7,492,674	(3,445,303)	-31.50%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용도별	7월분	8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831,298	768,353	(62,945)	-7.57%
다세대주택	275,710	290,885	15,175	5.50%
연립주택	61,022	58,803	(2,219)	-3.64%
아파트	3,151,817	2,834,375	(317,442)	-10.07%
근린생활시설	1,380,621	1,354,319	(26,302)	-1.91%
종교시설	63,759	54,777	(8,982)	-14.09%
의료시설	38,060	11,241	(26,819)	-70.47%
교육연구시설	303,494	398,998	95,504	31.47%
업무시설	290,448	231,793	(58,655)	-20.19%
숙박시설	78,204	33,282	(44,922)	-57.44%
공장	790,137	765,689	(24,448)	-3.09%
기타	806,267	690,159	(116,108)	-14.40%
계	8,070,837	7,492,674	(578,163)	-7.16%

市道別 全國圖書申告 概況(8月分)

시도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2,472	2,694	2,095,142	119	127	47,705	0	0	0	2,591	2,821	2,142,847
부산		1,078	1,972	689,908	118	157	57,249	30	32	19,805	1,226	2,161	766,962
대구		482	495	154,803	379	391	44,089	25	30	17,488	886	916	216,380
인천		454	478	233,003	30	30	9,256	15	15	6,641	499	523	248,900
광주		256	302	206,316	60	63	27,251	6	6	2,057	322	371	235,624
대전		263	280	203,316	64	72	28,620	54	54	4,793	381	406	236,729
경기		1,452	1,671	1,123,635	163	203	110,967	66	66	39,996	1,681	1,940	1,274,598
강원		399	466	265,440	117	136	34,142	10	10	4,125	526	612	303,707
충북		427	518	301,639	85	114	37,936	41	44	5,488	553	676	345,063
충남		262	306	311,270	112	117	45,030	24	24	9,334	398	447	365,634
전북		207	246	156,854	83	90	26,891	12	12	9,586	302	348	193,331
전남		334	411	174,914	120	166	40,405	34	37	8,824	488	614	224,143
경북		391	515	280,976	105	126	64,596	21	21	11,063	517	662	356,635
경남		656	810	416,180	179	218	74,221	21	21	20,035	856	1,049	510,436
제주		120	139	56,590	77	77	15,095	0	0	0	197	216	71,685
합계		9,253	11,303	6,669,986	1,811	2,087	663,453	359	372	159,235	11,423	13,762	7,492,674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8月 合計分)

구분 시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17,246	18,024	10,365,538	824	889	732,986	1	1	0	18,071	18,914	11,098,524
부산	9,321	12,018	6,397,790	1,130	1,430	371,017	371	412	233,238	10,822	13,860	7,002,045
대구	3,879	4,215	2,326,954	2,461	2,630	262,258	301	318	176,872	6,641	7,163	2,766,084
인천	2,853	3,957	3,430,525	260	265	158,935	176	179	74,807	3,289	4,401	3,664,267
광주	2,016	2,341	1,673,464	522	596	207,289	90	90	29,896	2,628	3,027	1,910,649
대전	2,261	2,667	2,934,158	381	406	209,329	564	592	220,921	3,206	3,665	3,364,408
경기	11,865	16,056	16,406,446	1,413	1,641	655,192	725	726	473,070	14,003	18,423	17,534,708
강원	4,011	4,719	2,578,210	819	955	296,016	134	137	31,573	4,964	5,811	2,905,799
충북	4,208	5,103	2,080,721	869	1,120	322,221	533	558	89,199	5,610	6,781	2,492,141
충남	3,151	3,416	2,572,325	924	947	315,095	184	203	108,077	4,259	4,566	2,995,497
전북	2,770	3,218	2,139,783	605	687	207,122	171	171	101,699	3,546	4,076	2,448,604
전남	3,564	4,433	2,434,085	908	1,188	323,158	205	224	53,381	4,677	5,845	2,810,624
경북	4,950	5,980	3,636,983	1,223	1,519	652,182	217	212	225,680	6,390	7,711	4,514,845
경남	7,345	9,026	5,253,893	1,427	1,983	706,780	307	312	166,730	9,079	11,321	6,127,403
제주	1,422	1,670	684,892	593	595	59,412	0	0	0	2,015	2,265	744,304
합 계	80,862	96,843	64,915,767	14,359	16,851	5,478,992	3,979	4,135	1,985,143	99,200	117,829	72,379,902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8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3,914	4,018	729,014	557	557	36,525	28	29	2,814	4,499	4,624	768,353
다세대주택	587	1,276	286,205	26	27	3,297	5	5	1,383	618	1,308	290,885
연립주택	48	51	58,154	5	5	416	2	2	233	55	58	58,803
아파트	112	641	2,825,391	11	11	7,518	2	2	1,466	125	654	2,834,375
근린생활시설	3,026	3,173	1,188,805	517	547	102,128	174	179	63,386	3,717	3,899	1,354,319
종교시설	63	78	41,301	37	43	12,303	4	4	1,173	104	125	54,777
의료시설	5	5	4,388	8	8	4,506	2	2	2,347	15	15	11,241
교육연구시설	79	93	287,643	98	111	101,851	15	15	9,504	192	219	398,998
업무시설	88	111	191,548	53	56	27,269	15	16	12,976	156	183	231,793
숙박시설	10	11	6,611	9	9	11,748	7	7	14,923	26	27	33,282
공장	372	647	517,393	187	292	217,795	43	46	30,501	602	985	765,689
기타	949	1,199	533,533	303	401	138,097	62	65	18,529	1,314	1,665	690,159
합 계	9,253	11,303	6,669,986	1,811	2,087	663,453	359	372	159,235	11,423	13,762	7,492,674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8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독주택	36,493	38,193	6,251,432	4,765	5,048	360,228	383	387	33,256	41,641	43,628	6,664,916
다세대주택	3,391	4,803	1,686,934	184	188	21,205	34	38	6,036	3,609	5,029	1,714,175
연립주택	389	532	714,759	25	25	4,788	6	6	619	420	563	720,166
아파트	1,215	7,071	31,356,098	88	141	104,305	28	39	101,904	1,331	7,251	31,562,307
근린생활시설	25,813	27,067	9,347,473	3,872	4,093	748,592	2,029	2,063	712,591	31,714	33,223	10,808,656
종교시설	560	686	392,428	358	413	147,522	51	52	17,755	969	1,151	557,705
의료시설	48	50	155,678	67	80	127,459	17	17	16,242	132	147	299,379
교육연구시설	481	635	1,471,405	473	581	933,008	197	213	172,395	1,151	1,429	2,576,808
업무시설	819	926	3,118,211	353	387	270,417	169	175	169,462	1,341	1,488	3,558,090
숙박시설	153	162	308,221	85	92	61,996	69	71	115,877	307	325	486,094
공장	3,387	5,774	4,931,653	1,690	2,716	1,599,423	406	457	324,119	5,483	8,947	6,855,195
기타	8,113	10,944	5,181,475	2,399	3,087	1,100,049	590	617	314,887	11,102	14,648	6,596,411
합 계	80,862	96,843	64,915,767	14,359	16,851	5,478,992	3,979	4,135	1,985,143	99,200	117,829	72,379,902

제 9 회 이사회 개최

본 협회 제9회 이사회가 지난 달 29일 오운동회장 주재로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주요 현안을 협의하였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의 처리내용을 보면,

분회신설 승인의 건 및 설계비 경감승인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93한국건축대제전개최일자 및 장소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1993년 3월18일 (목)부터 22일 (월)까지 한국종합건설 (KOE)에서 개최하며 '93한국 건축사대회 (3.18 ~ 19), '93한국 건축전 ('93.3.18 ~ 22),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 ('93.3.18)의 일

정으로 행사내용을 결의하였다.

또한 보수규정 개정(안)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제12조의 건축사 면허수당은 현행대로 1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강사료 및 심사비는 대외인사에 한해서만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의 하였으며,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9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직책급,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기준 15%를 인상 반영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차기 이사회에서 재협의키로 결의하였다.

건축분야의발전적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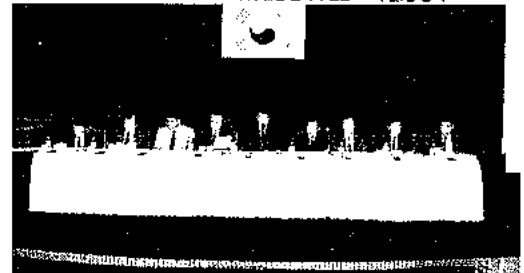
본 협회 건축법령연구소에서는 지난 7일 본협회 대강당에서 회원 및 건축관련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건축사 제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사의 권익을 신장하고, 건축공사감리제도의 개선 및 책임의 강화로 감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회복하며, 건축사의 감리업무 범위의 구체화로 건축물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UR에 대비하기 위한 중

합, 단독건축사사무소의 구성형태 개선과 건축사 시험제도의 개선, 건축사협회의 조직강화, 공동기업체사무소의 구성 여부 등 건축사 관련제도의 개선 문제에 관해토론하였으며, 공사감리자의 권한 및 책임,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등의 역할, 건설기술 관리법과 건축사법의 감리체계와 일원화, 공동기업체의 감리제도 도입, 분양용 공동주택에 대한 제3의 감리자 지정등 건축공사 감리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건축분야의 발전적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최: 대한 건축사 협회 후원: 건설부



건축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광경

간담회 개최

서울건축사회(회장 이문우)는 지난달 22일 본협회 대회의실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감리제도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건축사회 자문위원 및 22개 분회장, 임원, 각위원회 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2층이하 1천㎡ 이하의 건축사 대행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가 4층이하 2천㎡

이하로 확대 실시되는 것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는 측과 이에 대해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는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을 일임하는 동시에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현행대로 실시할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가 분리되어 건축의 기본이 흔들릴 염려가 있어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열띤 의견교환이 있었다.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와 감리제도 개선에 따른 간담회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간담회 광경

제 5 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

파키스탄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아시아건축사 협의회가 후원하는 제 5차 아시아건축사대회가 '건축에서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개최된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제 13회 아카시아이사회 및 제 6회 아카시아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회

원국 작품전, EXPO '92 건축자재전, 학생작품전 등의 전시회 및 제 4회 아시아 건축학생챔버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Mehdi Ali Mirza 건축상, 아카시아 건축상의 시상식이 거행될 예정으로 본협회에서는 오운동 회장을 비롯한 공식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CAD System 추천

본 협회 건축전산위원회 (위원장 안영준)에서는 지난달 30일에 개최된 제 6회 건축전산위원회에서 '92년 3월호 건축사지

에 발표한 하드웨어 사양과 더불어 Mega CAD System을 건축사사무소에 적합한 CAD System으로 추천하였다.

'92년도 각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 확정

'92년도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 하고, '9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하며, 예산편성 등 협회 운영 전 반에 걸쳐 논의하기 위한 시·도 건축사회 정기총회가 제주건축

사회를 필두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92년도 각 시·도 건축사회 정 기총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92년도 시·도 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

건축사회	개최일자	개최장소
서울	10.30 (금) 14:00	건축사 회관
부산	10.28 (수) 10:00	파라다이스 호텔
대구	10.28 (수) 10:00	대구 파크 호텔
인천	10.29 (목) 10:00	여산 뷔페 (부평)
광주	10.28 (수) 10:00	광주 회관
경기	10.29 (목) 10:00	수원 부라운 관광 호텔
강원	10.27 (화) 10:00	속초 뉴설악호텔
충북	10.22 (목) 10:30	청주관광호텔 1층 프린스룸
충남	10.22 (목) 11:00	온양 웨스턴 관광 호텔
전북	10.28 (수) 15:00	구례 프라자 관광 호텔
전남	10.28 (수) 11:30	추진회관 5층 회의실
경북	10.29 (목)	경주 보문단지내 호텔
경남	10.30 (금) 10:30	경남 건축사회 대회의실
대전	10.27 (화) 10:00	프린스 호텔 (대흥동)
제주	10.21 (수) 14:00	아일랜드 호텔 (신제주)

중국 건축문화 시찰

제주도건축사회(회장 김창우)는 지난 8월2일부터 11박 12 일동안 중국의 북경을 비롯한 천 진, 심양, 서안, 개펄 등 주요 10 개 도시를 순회하며 중국 건축문 화계를 시찰하였다.

김창우 회장을 비롯한 10명으 로 구성된 시찰단은 우리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비롯하여 연길 의 조선족 자치구를 돌아보고 제 주건축사회에서 발간한 제주건축 제2집을 기념품으로 전달하 는 등 동양 건축문화에 대한 건 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경비부서 위문

제주도 건축사회(회장 김창우)는 지난달 7일 '93추석절을 앞두고 해양경비에 여념이 없는 제주 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문금을 전달하였다.

연례행사로 실시되는 이번 경 비부서위문 행사에는 제주도건

축사회를 비롯하여 수산업협동 조합 제주도지부, 제주도 치과의 사회, 그랜드 호텔 등 4개 직장 단체 합동으로 위문금 600,000 원을 전달하고 해상안전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관들을 위로하였 다.

제 1 회 『한국건축문화大賞』 시상식 개최

전설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본협회를 비롯하 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사업 협회,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에서 후원한 제1회 『한국건축문 화大賞』개막식 및 시상식이 지 난 9일(금)오후 2시부터 전설회 관 2층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상용 전설 부차관을 비롯한 건축관계자와 언론관계자들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건축문화에 대한 높은 관 심을 보였으며, 총 출품작 99개 작품 중 영예의 大賞은 시화한샘 공장(설계자:金錫撤), 시공자: 삼성종합건설, 건축주: 한샘)이 차지했고, 大賞에는 비주거용에 호텔현대(설계자:동명상목 + 현대건설(주), 시공자: 현대건설, 건축주: 금강개발)와 삼성 제 2연수원(설계자:삼우종합건

축, 시공자: 삼성종합건설, 건축 주: 삼성종합연수원)이, 주거용 에는 분당시범단지현대아파트 (설계자: 부랑종합건축, 시공자 : 건축주: 현대산업개발)가 영 예를 차지했으며, 마포빌라(설 계자: 원일종합건축, 시공자: 벽산) 등 13개작품이 입선작으 로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또한, 『한국건축문화大賞』은 그동안 우리 건축계발전에 불심 양면으로 크게 이바지 하신 분에 게 그분의 공적을 기리고 위로하 기 위한 공로상을 제정하여, 원 로 건축인 장기인(전 대한건축 시험회장)씨와 조정구(전 건설 협회장)씨로 결정, 수상하였다.

한편, 이번 제 1회 『한국건축 문화大賞』전시는 전설회관 2층 전시장에서 10월 31일까지 계속 된다.



「한국건축문화大賞」 개막식 데이프 절단식 광경

제 1회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현황

구분	작품명	설계	시공
대상	시화한샘공장	김석철	삼성종합건설
본상	주거부문	연남동주택	김영섭 우창건설
		분당시범단지현대아파트	부랑종합건축 현대산업개발
	비주거부문	삼성제2연수원	삼우설계 삼성종합건설
		호텔현대	동명상목+현대건설 현대건설
입선	주거부문	마포빌라	원일종합 벽산건설
		서초동P씨주택	오기수 코아건축
		향원S씨주택	오기수 코아건축
		은하수아파트	희림건축 청구주택
		궁전맨션아파트	미전사 광진주택
		만수동아파트	심창구 대동주택
	비주거부문	단국대율곡도서관	정림건축 정한개발
		하림그레이트스콘도	박찬정 우성건설
		경주힐튼호텔	서울건축 (주)대우
		일동제약사옥	김훈웅 금강종합건설
공로상		통일전망대	김영웅 장복건설
		어흘리박물관	안문효 유정건설
		부산마린센터	오봉석 현대건설
		장기인/전 대한건축사 협회 회장	
		조정구/전 대한건설협회 회장	

'93 한국건축전 작품공모

■ 개최시기 및 장소

- 1993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건축자재전과 병행하여 개최
- 1993년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도시 순회전시 예정

■ 출품자격

- ◆ 건축사부문 : 1993년 1월 현재 개업 건축사
- 신인부문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 학생부문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 (전문대학 졸업후 2년 이내인자도 응모할 수 있음)

■ 출품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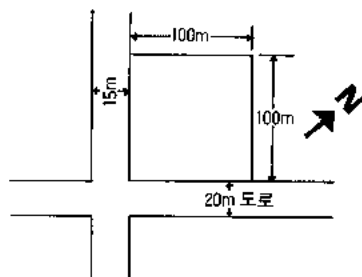
- ◆ 건축사부문 : '90년 ~ '93년 2월까지 준공된 작품으로서 준공검사를 필한작품

◆ 신인 · 학생부문

◎ 주제 / 만남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건축의 기능과 형태와 상징을 창의력있게 해석하고 표현하여 감동적으로 건축적 성과를 달성하도록함

- 신인부문 · 제목 : 이산가족 상봉센터
 - 조건 : 대지규모 - 20,000m²
 - 연면적 - 10,000m²
 - 위 치 - DMZ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 개요 :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로서 숙식시설, 관람시설 유흥시설 등이 복합된 내용으로 작가가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현행건축법에 준하여 계획할 것.
- 학생부문 · 제목 : 국제박람회 "한국관"
 - 조건 : 대지규모 - 10,000m²
 - 연면적 - 3,500m²
 - 위 치 - 박람회장내에



- 개요 : 세계속의 만남을 상징적이며 기능적으로 표현 하되 세부프로그램은 작가가 설정하여 전개시킬것

■ 응모신청 및 작품접수

- ◆ 건축사부문 : 1993년 2월 1일부터 1월까지 패널제출 (작품제출시 작품집제작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슬라이드 또는 컬러 사진 5~6매, 잉킹도면, 설계개요첨부)

-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4층 출판사업부

• 신인 · 학생부문 :

- 응모신청 : '93년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4층 출판사업부
- 보고서(작품綴) : '93년 2월 20일 ~ 2월 22일 17시까지
- 접수 :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4층 출판사업부
- 작품패널제출(수상작에 한함) : '93년 3월 15일 15시 까지
- 접수 : 한국 종합전시장

■ 작품규격 및 제작요령

- ◆ 건축사부문 : 90cm × 90cm의 규격 패널 1 ~ 4매 (모형출품도 가능함)
- 신인 · 학생부문 : 60cm × 60cm규격의 보고서(작품綴) 4매제출 (후후 패널에 부착할 수 있도록 투시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보고서로 제작하여 제출할 것)
- ※ 심사후 수상작에 한하여 120cm × 120cm 규격의 패널 1매와 100cm × 100cm 규격의 모형제출 (패널제출시 200자원고지 3매 분량의 간략한 설명서 첨부)

■ 출품규정

- 동일작품의 작가 명의는 2인을 초과 할 수 없음 (신인 · 학생부문)
- 패널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재료의 사용은 금 할것
- 규격을 위반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신인 · 학생부문)

■ 시상내용

◆ 건축사부문 :

- * '92한국건축대상(7) : 상장 및 트로피

• 신인부문

- * 최우수상(1) : 상금 500만원 및 상장 (해외연수비 200만원 포함)
- * 우수상(1)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 장려상(3)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학생부문
- * 최우수상(1) : 상금 300만원 및 상장
- * 우수상(2) :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 장려상(10) : 상금 50만원 및 상장
- * 시 · 도시 건축사회장상(다수) : 상금 30만원 및 상장
- * 입선(다수) : 상장
- ※ 학생작품 최우수상 수상자는 ARCASIA 학생멤버리 파견특전 부여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 - 53
☎ 581 - 5711 ~ 4, 587 - 8504

밖에서 쓰이는 “한글라스”

티없이 맑고 투명한

막유리

멋진 색상과 아름다운 명상을 만족하는

색유리 반시유리 파스텔유리

코유리 스펙트럼유리

에너지 절약과 소음 차단에 탁월한

로이유리 복층유리

안전성을 보장하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맑고 깨끗하며 더욱 강한 유리다리석

마블라이트

복층유리 제조용 접착제

PRC-428H SM-4000H

유리보완 신소재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안에서 쓰이는 “한글라스”

아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무늬유리 색무늬유리

빛과 안전이 함께 요구되는 곳에

파이로가드 천망유리

조명, 의약, 전자, 이화학용 원자재

그리스메이트 소다강유리 벽보유리
볼 글라스유리 연유리

보온, 보냉, 단열, 흡음용 유리섬유

하니스 매트 배트 파이프카바
보드 이글루 라미라매트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을 위한 유리섬유 천장재

하니스톤

전자파를 차단시켜주는 다층구조의 유리필터

스톱작

보이는 곳에도 “한글라스”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한글라스”

저희 본사나 영업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본사/785-0311(경인영업부)

대전영업소/621-4538·광주영업소/525-9711·대구영업소/425-1241

부산영업소/462-0311·영동출장소(김포)/647-1851

“유리”하면 “한글라스”

HAN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
다양한 디자인
 ★★★★★★★★★★★★★★★★★★★★★★
폭넓은 선택
 ★★★★★★★★★★★★★★★★★★★★★★

고급 천정판·**금강** 마이톤

품질과 디자인에서 앞서갑니다.



흡음율
50% 이상

초고층, 대형화, 고급화 되어가는
 현대건축 천정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고급 천정판 금강 마이톤—
 암면을 주원료로 만들어 흡음력이 뛰어나며
 가볍고 불에 타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다양한 금강 마이톤은
 실내분위기를 더욱 우아하게 연출합니다.

- 흡음력이 뛰어납니다.
-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 불에 타지 않고 단열성능이 좋습니다.
- 가볍고 시공, 보수가 간편합니다.

고급 흡음 천정판 —————
 **마이톤®**
MITONE



주식 금 강
 Keumkang Limited

■ 본사·서울 543-2101 ● 부산 512-3211~5 ● 대구 252-4321~4 ● 대전 284-4934~6 ● 광주 523-1505~9 ● 전주 74-3005~7
 ● 마산 65-3211~3 ● 수원 35-5001~3 ● 인천 428-8451~3 ● 원주 44-6821~3 ● 안동 55-0555 ● 순천 741-8005~7
 ● 천주 52-2021~3 ● 포항 81-5138 ● 울산 87-9868 ● 가평 43-8148 ● 지주 55-5800 ● 제주 52-8935